연구보고 2021-19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이윤진·박창현·김문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1-19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저 자 이윤진, 박창현, 김문정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창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문 정**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보고 2021-19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01-5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리말

북한이탈주민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 약 3만3천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가족을 데리고 오거나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과 출산을 하는 등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이들 가정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취약하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양육환경의 취약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을 일반가정과 비교, 분석하여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식주, 문화생활,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 물질적 환경은 일반가정보다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일반 가정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며, 자녀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으며'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문항에서는 일반 수급가구보다 응답이 적게 나왔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긍정성, 희망, 건강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정책은 이들 가정의 취약한 양육환경은 개선하고 긍정성은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본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 목차


**요약** 1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2. 연구 내용 ····· 15
3. 연구 방법 ····· 16
4. 연구 분석 틀 및 추진 절차 ····· 28
5. 선행연구 ····· 36
6. 연구의 한계와 의의 ····· 41

**Ⅱ.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 43

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정책 개요 ····· 45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과 현황 ····· 51
3.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사업 ····· 60

**Ⅲ.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일반 및 취약가정과 비교분석** 67

1.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특성 ····· 69
2. 건강 ····· 70
3. 발달 및 교육 ····· 111
4. 관계 ····· 120
5. 양육 및 돌봄 ····· 137
6. 여가 및 활동 ····· 144
7. 안전 및 위험행동 ····· 151
8.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164
9. 물질적 환경 ····· 180
10. 기타: 정책 인지도 및 가구소득 등 ····· 207
11. 소결 ····· 225

Ⅳ.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245
1.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개요 ····· 247
2. 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현황 및 애로사항 ····· 249
3. 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 258
4. 비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 265
5. 비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 272
6. 소결 ····· 277

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279
1. 정책목표 ····· 281
2.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 283
3. 세부 정책과제 ····· 286

참고문헌 295

Abstract 299

부록 301

부록 1.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대상 설문지 ····· 303
부록 2.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대상 면담지 ····· 345

# 표 목차

〈표 Ⅰ-3-1〉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개요 ····· 17
〈표 Ⅰ-3-2〉 본 연구 설문조사 모집단 현황(2020년 5월 기준) 및 최종 표본 배분 ····· 18
〈표 Ⅰ-3-3〉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18
〈표 Ⅰ-3-4〉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9
〈표 Ⅰ-3-5〉 3개 조사별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응답자 특성 ····· 21
〈표 Ⅰ-3-6〉 설문문항 ····· 22
〈표 Ⅰ-3-7〉 면담조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형화 및 참여자수 ····· 24
〈표 Ⅰ-3-8〉 면담조사 질문내용 ····· 24
〈표 Ⅰ-3-9〉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25
〈표 Ⅰ-3-10〉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 26
〈표 Ⅰ-3-1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 26
〈표 Ⅰ-3-12〉 원내 멘토링 개최 현황 ····· 28
〈표 Ⅰ-4-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문항과 본 설문문항 ····· 30
〈표 Ⅰ-5-1〉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 관련 선행연구 정리 ····· 37
〈표 Ⅱ-1-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 45
〈표 Ⅱ-1-2〉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 ····· 46
〈표 Ⅱ-1-3〉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현황 ····· 47
〈표 Ⅱ-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 47
〈표 Ⅱ-2-1〉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 사업 ····· 51
〈표 Ⅱ-2-2〉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사업 결산(2016-2020) ····· 52
〈표 Ⅱ-2-3〉 전문상담사 인원 현황(2010-2020) ····· 53
〈표 Ⅱ-2-4〉 심리 안정 지원 대상자 관리 현황(2017-2019) ····· 55
〈표 Ⅱ-2-5〉 시·도별 하나센터 지정 현황 ····· 56
〈표 Ⅱ-2-6〉 긴급생계비 지원 현황(2011-2019) ····· 57
〈표 Ⅱ-2-7〉 2017년-2020년 상반기 긴급생계비 개인특성별 지원 현황 ····· 58
〈표 Ⅱ-2-8〉 연도별 취업률(2012-2019) ····· 59
〈표 Ⅱ-3-1〉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2015~현재) ····· 60
〈표 Ⅱ-3-2〉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 61
〈표 Ⅱ-3-3〉 국외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 65

〈표 Ⅲ-1-1〉 본 설문조사 영유아 특성 ····· 69
〈표 Ⅲ-2-1〉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 70
〈표 Ⅲ-2-2〉 수급여부별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 72
〈표 Ⅲ-2-3〉 가구유형별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 72
〈표 Ⅲ-2-4〉 자녀의 저체중 출생률 및 현재 비만율 ····· 73
〈표 Ⅲ-2-5〉 수급여부별 자녀 비만율 ····· 74
〈표 Ⅲ-2-6〉 가구유형별 자녀 비만율 ····· 74
〈표 Ⅲ-2-7〉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 75
〈표 Ⅲ-2-8〉 수급여부별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 76
〈표 Ⅲ-2-9〉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 77
〈표 Ⅲ-2-10〉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병의원 ····· 77
〈표 Ⅲ-2-11〉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치과 ····· 78
〈표 Ⅲ-2-12〉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79
〈표 Ⅲ-2-13〉 수급여부에 따른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0
〈표 Ⅲ-2-1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1
〈표 Ⅲ-2-15〉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 기관을 다니지 않는 이유 ····· 81
〈표 Ⅲ-2-16〉 자녀의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2
〈표 Ⅲ-2-17〉 수급여부별 자녀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4
〈표 Ⅲ-2-18〉 가구유형별 자녀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4
〈표 Ⅲ-2-19〉 자녀의 수면습관 ····· 85
〈표 Ⅲ-2-20〉 수급여부별 자녀의 수면습관 ····· 86
〈표 Ⅲ-2-21〉 가구유형별 자녀의 수면습관 ····· 87
〈표 Ⅲ-2-22〉 자녀의 아침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88
〈표 Ⅲ-2-23〉 수급여부별 아침식사 행태(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89
〈표 Ⅲ-2-24〉 가구유형별 자녀의 아침식사 행태(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90
〈표 Ⅲ-2-25〉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90
〈표 Ⅲ-2-26〉 수급여부별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91
〈표 Ⅲ-2-27〉 가구유형별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 92
〈표 Ⅲ-2-28〉 임신 중 건강행동 ····· 93
〈표 Ⅲ-2-29〉 수급여부별 임신 중 건강행동 ····· 93
〈표 Ⅲ-2-30〉 가구유형별 따른 임신 중 건강행동 ····· 94
〈표 Ⅲ-2-31〉 수유 형태 ····· 95
〈표 Ⅲ-2-32〉 수급여부별 수유 형태 ····· 95

〈표 Ⅲ-2-33〉 가구유형별 수유 형태 ····· 96
〈표 Ⅲ-2-34〉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 96
〈표 Ⅲ-2-35〉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 97
〈표 Ⅲ-2-36〉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 98
〈표 Ⅲ-2-37〉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 99
〈표 Ⅲ-2-38〉 수급여부별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 100
〈표 Ⅲ-2-39〉 가구유형별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 100
〈표 Ⅲ-2-40〉 주양육자 및 배우자의 흡연 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 101
〈표 Ⅲ-2-41〉 수급여부별 주양육자·배우자의 흡연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 102
〈표 Ⅲ-2-42〉 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배우자의 흡연 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 103
〈표 Ⅲ-2-43〉 현재 삶에 대한 상태 ····· 104
〈표 Ⅲ-2-44〉 수급여부별 현재 삶에 대한 상태 ····· 105
〈표 Ⅲ-2-45〉 가구유형별 현재 삶에 대한 상태 ····· 105
〈표 Ⅲ-2-46〉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 106
〈표 Ⅲ-2-47〉 수급여부별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 107
〈표 Ⅲ-2-48〉 가구유형별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 107
〈표 Ⅲ-2-49〉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및 우울수준 ····· 108
〈표 Ⅲ-2-50〉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및 우울수준 ····· 109
〈표 Ⅲ-2-51〉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 110
〈표 Ⅲ-3-1〉 인지발달 수준 ····· 111
〈표 Ⅲ-3-2〉 수급여부별 인지발달 수준 ····· 112
〈표 Ⅲ-3-3〉 가구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 112
〈표 Ⅲ-3-4〉 언어발달 수준 ····· 113
〈표 Ⅲ-3-5〉 수급여부별 언어발달 수준 ····· 114
〈표 Ⅲ-3-6〉 가구유형별 언어발달 수준 ····· 114
〈표 Ⅲ-3-7〉 자녀의 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115
〈표 Ⅲ-3-8〉 수급여부별 자녀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116
〈표 Ⅲ-3-9〉 가구유형별 자녀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117
〈표 Ⅲ-3-10〉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 118
〈표 Ⅲ-3-11〉 자녀의 가능 교육 수준 ····· 119
〈표 Ⅲ-4-1〉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 120
〈표 Ⅲ-4-2〉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 121

〈표 Ⅲ-4-3〉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 122
〈표 Ⅲ-4-4〉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 123
〈표 Ⅲ-4-5〉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 124
〈표 Ⅲ-4-6〉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 124
〈표 Ⅲ-4-7〉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 125
〈표 Ⅲ-4-8〉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 126
〈표 Ⅲ-4-9〉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 127
〈표 Ⅲ-4-10〉 가족의 사회자본: 정보적 도움 ····· 127
〈표 Ⅲ-4-11〉 가족건강성 ····· 129
〈표 Ⅲ-4-12〉 수급여부별 가족건강성 ····· 130
〈표 Ⅲ-4-13〉 가구유형별 가족건강성 ····· 130
〈표 Ⅲ-4-14〉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 131
〈표 Ⅲ-4-15〉 수급여부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 132
〈표 Ⅲ-4-16〉 가구유형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 132
〈표 Ⅲ-4-17〉 부모효능감 문항 ····· 133
〈표 Ⅲ-4-18〉 부모효능감 ····· 133
〈표 Ⅲ-4-19〉 수급여부에 따른 부모효능감 ····· 134
〈표 Ⅲ-4-20〉 가구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 ····· 135
〈표 Ⅲ-4-21〉 자녀의 친한 친구 수 ····· 135
〈표 Ⅲ-4-22〉 자녀의 친구들과 어울림 정도 ····· 136
〈표 Ⅲ-5-1〉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장소와 돌봄자 ····· 138
〈표 Ⅲ-5-2〉 수급여부별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돌봄자 ····· 139
〈표 Ⅲ-5-3〉 가구유형별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돌봄자 ····· 139
〈표 Ⅲ-5-4〉 양육스트레스 척도 ····· 140
〈표 Ⅲ-5-5〉 양육스트레스 ····· 140
〈표 Ⅲ-5-6〉 수급여부별 양육스트레스 ····· 142
〈표 Ⅲ-5-7〉 가구유형별 양육스트레스 ····· 142
〈표 Ⅲ-5-8〉 훈육방식 ····· 143
〈표 Ⅲ-5-9〉 신체적 체벌 필요에 대한 생각 ····· 144
〈표 Ⅲ-6-1〉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 145
〈표 Ⅲ-6-2〉 수급여부별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 146
〈표 Ⅲ-6-3〉 가구유형별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 148
〈표 Ⅲ-6-4〉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정도 ····· 149

〈표 Ⅲ-6-5〉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 150
〈표 Ⅲ-6-6〉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 150
〈표 Ⅲ-7-1〉 안전수칙 준수(0-5세) ····· 151
〈표 Ⅲ-7-2〉 수급여부별 안전수칙 준수(0-5세) ····· 152
〈표 Ⅲ-7-3〉 가구유형별 안전수칙 준수(0-5세) ····· 153
〈표 Ⅲ-7-4〉 안전수칙 준수(3-5세) ····· 154
〈표 Ⅲ-7-5〉 수급여부별 안전수칙 준수(3-5세) ····· 155
〈표 Ⅲ-7-6〉 가구유형별 안전수칙 준수(3-5세) ····· 155
〈표 Ⅲ-7-7〉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_1순위 ····· 156
〈표 Ⅲ-7-8〉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_1+2+3순위 ····· 156
〈표 Ⅲ-7-9〉 돌봄공백 시간 유무 ····· 157
〈표 Ⅲ-7-10〉 수급여부별 돌봄공백 시간 유무 ····· 158
〈표 Ⅲ-7-11〉 가구유형별 돌봄공백 시간 유무 ····· 159
〈표 Ⅲ-7-12〉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 159
〈표 Ⅲ-7-13〉 수급여부별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 161
〈표 Ⅲ-7-14〉 가구유형별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 161
〈표 Ⅲ-7-15〉 돌봄공백 시 가장 필요한 편의 또는 도움 ····· 162
〈표 Ⅲ-7-16〉 안전에 대한 만족도 ····· 162
〈표 Ⅲ-7-17〉 수급여부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 ····· 163
〈표 Ⅲ-7-18〉 가구유형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 ····· 164
〈표 Ⅲ-8-1〉 거주 중인 주택 형태 ····· 165
〈표 Ⅲ-8-2〉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집의 주택 형태 ····· 166
〈표 Ⅲ-8-3〉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집의 주택 형태 ····· 166
〈표 Ⅲ-8-4〉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 167
〈표 Ⅲ-8-5〉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 168
〈표 Ⅲ-8-6〉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 168
〈표 Ⅲ-8-7〉 사용 중인 방 개수 ····· 169
〈표 Ⅲ-8-8〉 수급여부별 사용 중인 방의 개수 ····· 170
〈표 Ⅲ-8-9〉 가구유형별 사용 중인 방의 개수 ····· 170
〈표 Ⅲ-8-10〉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 171
〈표 Ⅲ-8-11〉 수급여부별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 172
〈표 Ⅲ-8-12〉 가구유형별 따른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 173
〈표 Ⅲ-8-13〉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 174

〈표 Ⅲ-8-14〉 수급여부별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 175
〈표 Ⅲ-8-15〉 가구유형별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 175
〈표 Ⅲ-8-16〉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참여 형태별 참여도 ····· 176
〈표 Ⅲ-8-17〉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 177
〈표 Ⅲ-8-18〉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 178
〈표 Ⅲ-8-19〉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 178
〈표 Ⅲ-8-20〉 주양육자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 비교 ····· 179
〈표 Ⅲ-8-21〉 자녀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 비교 ····· 180
〈표 Ⅲ-9-1〉 자녀의 결핍지수-문항별 ····· 181
〈표 Ⅲ-9-2〉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여부별 자녀의 결핍실태 ····· 182
〈표 Ⅲ-9-3〉 북한이탈주민 가정 가구유형별 자녀의 결핍실태 ····· 183
〈표 Ⅲ-9-4〉 수급가구별 자녀의 결핍실태: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 184
〈표 Ⅲ-9-5〉 한부모가구 유형별 자녀의 결핍실태-문항별 ····· 185
〈표 Ⅲ-9-6〉 자녀의 결핍문항 수 ····· 186
〈표 Ⅲ-9-7〉 자녀의 결핍항목 수 ····· 187
〈표 Ⅲ-9-8〉 수급여부별 자녀의 결핍항목 수 ····· 188
〈표 Ⅲ-9-9〉 가구유형별 자녀의 결핍항목 수 ····· 188
〈표 Ⅲ-9-10〉 박탈항목 ····· 189
〈표 Ⅲ-9-1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 ····· 190
〈표 Ⅲ-9-12〉 수급여부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 192
〈표 Ⅲ-9-13〉 가구유형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 192
〈표 Ⅲ-9-14〉 북한이탈주민 가정/일반가정의 박탈실태 비교 ····· 194
〈표 Ⅲ-9-15〉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비율(식생활 영역) ···· 196
〈표 Ⅲ-9-1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식생활 영역) ····· 196
〈표 Ⅲ-9-17〉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생활 영역) ·· 197
〈표 Ⅲ-9-1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의생활 영역) ····· 197

〈표 Ⅲ-9-19〉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 198
〈표 Ⅲ-9-2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 199
〈표 Ⅲ-9-21〉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료 및 건강 영역) ····· 199
〈표 Ⅲ-9-22〉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의료 및 건강 영역) ····· 200
〈표 Ⅲ-9-23〉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영역) ····· 200
〈표 Ⅲ-9-2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영역) ····· 201
〈표 Ⅲ-9-25〉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미래대비 영역) ·· 202
〈표 Ⅲ-9-2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미래대비 영역) ····· 202
〈표 Ⅲ-9-27〉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교육 영역) ····· 203
〈표 Ⅲ-9-2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교육영역) ····· 203
〈표 Ⅲ-9-29〉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경제적 어려움) 204
〈표 Ⅲ-9-3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 (경제적 어려움) ····· 205
〈표 Ⅲ-9-31〉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 206
〈표 Ⅲ-9-32〉 수급여부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 207
〈표 Ⅲ-9-33〉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 207
〈표 Ⅲ-10-1〉 주양육자의 아동정책 인지도,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 208
〈표 Ⅲ-10-2〉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 210
〈표 Ⅲ-10-3〉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1
〈표 Ⅲ-10-4〉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2
〈표 Ⅲ-10-5〉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3
〈표 Ⅲ-10-6〉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4
〈표 Ⅲ-10-7〉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5
〈표 Ⅲ-10-8〉 가구특성별 아동정책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6
〈표 Ⅲ-10-9〉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7

〈표 Ⅲ-10-10〉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8
〈표 Ⅲ-10-11〉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 219
〈표 Ⅲ-10-12〉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 220
〈표 Ⅲ-10-13〉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월평균 소득: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221
〈표 Ⅲ-10-14〉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월평균 소득: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변인별 ····· 221
〈표 Ⅲ-10-15〉 월 평균 교육·보육비 ····· 222
〈표 Ⅲ-10-16〉 기초생활보장지원 수혜종료 예상 시기 ····· 223
〈표 Ⅲ-10-17〉 가구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원 수혜종료 예상 시기 ····· 224
〈표 Ⅳ-1-1〉 수급×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가구특성 ····· 247
〈표 Ⅳ-1-2〉 수급×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가구특성 ····· 248
〈표 Ⅳ-2-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수급한부모) ····· 249
〈표 Ⅳ-2-2〉 피면담자 아동특성(수급한부모) ····· 251
〈표 Ⅳ-3-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수급양부모) ····· 259
〈표 Ⅳ-3-2〉 피면담자 아동특성(수급양부모) ····· 260
〈표 Ⅳ-4-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비수급 한부모) ····· 265
〈표 Ⅳ-4-2〉 피면담자 아동특성(비수급 한부모) ····· 266
〈표 Ⅳ-5-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비수급 양부모) ····· 273
〈표 Ⅳ-5-2〉 피면담자 아동특성(비수급 양부모) ····· 273
〈표 Ⅴ-2-1〉 북한이탈주민 가정유형별 영유아 지원방안 ····· 284
〈표 Ⅴ-3-1〉 탈북 비수급 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보미 비용 부담 조정(안) ····· 288

# 그림 목차

[그림 Ⅰ-3-1] 국회토론회 포스터 ····· 27
[그림 Ⅰ-4-1]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틀(framework) ····· 29
[그림 Ⅰ-4-2] 주요 연구추진 절차 ····· 36
[그림 Ⅱ-1-1] 연도별 입국 추세 ····· 46
[그림 Ⅱ-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49
[그림 Ⅱ-1-3]「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비전, 목표, 6대분야 및 정책과제 ····· 50
[그림 Ⅱ-2-1] 상담영역별 전문상담사 상담실적(2019) ····· 54
[그림 Ⅱ-2-2]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 59
[그림 Ⅱ-3-1]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연령별 ····· 62
[그림 Ⅱ-3-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보장유형별 ····· 62
[그림 Ⅱ-3-3]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유형별 ····· 63
[그림 Ⅲ-11-1]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가정의 영유아와 주양육자의 건강상태 비교 ····· 225
[그림 Ⅲ-11-2] 병의원 치료 탈북가정과 일반가정비교 ····· 226
[그림 Ⅲ-11-3] 치과 치료 탈북가정과 일반가정비교 ····· 226
[그림 Ⅲ-11-4] 교육·보육기관 이용/미이용 가구별 비교 ····· 227
[그림 Ⅲ-11-5] 교육·보육기관 미이용 이유 가구별 비교 ····· 227
[그림 Ⅲ-11-6] 북한이탈주민 가정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 228
[그림 Ⅲ-11-7] 일반가정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 228
[그림 Ⅲ-11-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주양자의 우울수준 비교 ····· 228
[그림 Ⅲ-11-9]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정서성 ····· 229
[그림 Ⅲ-11-1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활동성 ····· 230
[그림 Ⅲ-11-1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사회성 ····· 230
[그림 Ⅲ-11-1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희망교육수준과 가능수준 ····· 231

[그림 Ⅲ-11-13] 일반가정의 자녀 희망교육수준과 가능수준 ····· 231
[그림 Ⅲ-11-1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경제적 도움 비교 ····· 232
[그림 Ⅲ-11-15]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생활적 도움 비교 ····· 232
[그림 Ⅲ-11-1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가족건강성 비교 ····· 233
[그림 Ⅲ-11-17]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부모효능감 비교 ····· 233
[그림 Ⅲ-11-18]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의 기관 이용 후 주양육자 ····· 234
[그림 Ⅲ-11-19] 안전수칙 준수 비교 ····· 235
[그림 Ⅲ-11-20] 집 주변 생활환경 비교 ····· 237
[그림 Ⅲ-11-21]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교 ····· 237
[그림 Ⅲ-11-22] 주양육자 기준 차별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비교 ····· 238
[그림 Ⅲ-11-23] 자녀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비교 ····· 238
[그림 Ⅲ-11-24] 북한이탈주민 전체 박탈지수 ····· 239
[그림 Ⅲ-11-25] 아동종합실태조사 전체 박탈지수 ····· 239
[그림 Ⅲ-11-26]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박탈지수 ····· 240
[그림 Ⅲ-11-27] 일반가정 수급가구 박탈지수 ····· 240
[그림 Ⅲ-11-28]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 박탈지수 ····· 241
[그림 Ⅲ-11-29] 일반 한부모가구 박탈지수 ····· 241
[그림 Ⅲ-11-30]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북한이탈주민 가정 ····· 243
[그림 Ⅲ-11-31]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탈북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 243
[그림 Ⅳ-1-1] 수급×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변화: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 248

# 요약

## 1. 서론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국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 가정 자녀들의 성장발달, 양육환경, 양육실태 등이 어느 정도이며,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는 부재함.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취약성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유아 및 취약계층 영유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 양육환경 등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정 및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비교분석하는 데 있음.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에서도 비교분석할 만한 양육 관련 문항을 가져와서 비교분석함.

### 나. 주요 연구방법

□ 설문조사

- 만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 최종 151명을 표집함.
- 본 설문조사의 설문문항 총 영역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8개 영역(가구일반사항 영역까지 포함하면 9개 영역)이며 설문문항은 53개임.

□ 면담조사

- 본 설문조사 참여자 중에서 면담조사 참여에 동의한 사례 대상으로 실시함. 수급 한부모가구(12명), 수급 양부모가구(6명), 비수급 한부모가구(3명), 비수급 양부모가구(5명) 4개 가구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26명이 참여함.

## 2. 주요 연구결과

### 가. 설문조사 결과

□ 건강영역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4.49점)와 일반가정의 영유아 자녀(4.53점)의 건강상태는 비슷함. 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는 3.50점, 일반가정의 주양육자는 4.22점으로 탈북가정의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상당히 높음. 탈북 한부모가구(13.2점)가 가장 높고, 탈북 수급가구(12.8점), 탈북 비수급가구(9.4점), 탈북 양부모 가구(9.1점) 순임.
- 자녀가 아플 때,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적절한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6.6%)가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2.2%)에 비해 3배 가량 많았고, 치과 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12.6%) 일반가정에(1.4%) 비해 훨씬 더 많았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대부분(83.4%)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음.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의 이용률(66.4%)보다는 높고,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85.8%보다는 낮음.

□ 발달 및 교육

- 인지 및 언어발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점수가 높음(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 약 63%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순임. 반면, 일반가정은 4년제 대학교가 약 82%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은 약 11%, 전문대학 약 5% 순임.

□ 관계

-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순서가 탈북 한부모가구(1.39점), 탈북 수급가구(1.44점), 탈북 비수급가구(1.49점), 일반 양부모가구(1.53점) 순임.
- 탈북 한부모가구와 탈북 수급가구는 가사나 육아와 같은 생활의 도움도 가장 못 받음. 반면, 일반 한부모가구와 일반 수급가구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으로

부터 생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 동일한 취약가정이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더 취약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족관계는 대체로 건강한 것(탈북 전체 3.79점)으로 나옴(일반가정 전체 3.81점). 부모효능감은 3.53점으로 일반가정의 3.47점보다 높음. 가족관계의 건강성, 부모효능감 모두 응답자가 자가 측정한 수치임. 즉, 본인이 우리 가족은 원만하며 부모 역할을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양육 및 돌봄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옴. 이는 일반가정과도 동일함.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의 돌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경제적 취약성을 의미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가 자가측정한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54점으로 일반가정의 양육스트레스 27.77점보다 낮음.

□ 여가 및 활동

-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 및 위험행동

-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은 영유아 안전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평소 아이를 어른 없이 혼자 두는 경우도 적음.
- 돌봄 공백 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는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과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 한부모 가정에서는 '야간돌봄 편의제공'과 '식사제공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북한이탈가정은 약 76%가 아파트(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2개, 일반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6개임. 북

한이탈주민 수급 및 한부모가구의 방 개수는 평균 2.2개보다 적은 1.9개임.

- 집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가정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생활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관련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안전하고 창의적인)놀이터 등이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가정은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차별경험이 주양육자와 자녀 모두 적음.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많음. 특히,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훨씬 많음.

□ 물질적 환경

-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의 31개 항목에 대한 북한이탈가정의 박탈지수는 약 11.7개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일반가정의 약 8.6개보다 높음. 북한이탈가정 안에서는 한부모인 경우와 수급가구인 경우 더 높음.
- 세부 영역별로는 저축(미래대비) 영역이 가장 열악했고, 그 외에 교육, 문화생활영역이 전반적으로 열악함. 북한이탈가정 수급/비수급가구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양부모 가구를 비교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수급과 한부모가구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가구소득 등

- 북한이탈주민 가구소득을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코로나19 이후(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평균 약 243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216,000원 정도(약 9%) 감소함.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학습지 비용, 학원비 등 교육·보육비는 월평균 약 26만원이었고 이는 가구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음.

□ 6개 분야 10점 척도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6개 분야(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0계단 사다리, 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안정성, 귀하의 안전, 동네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의 만족도

결과를 보면, 생활수준이 5.75점으로 가장 낮고, 인간관계가 6.81점으로 가장 높음.

- 6개 분야 모두에서 일반가정보다 만족도가 낮음.

### 나. 면담조사 결과

□ 수급 한부모가구(12명), 수급 양부모가구(6명), 비수급 한부모가구(3명), 비수급 양부모가구(5명) 등 4개 가구특성별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들은 대체로 남한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각종 정부지원(주거지원,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았음. 그러나 수급가구는 치료비 지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지원 등의 비용지원을 주로 희망함.

## 3. 정책방안

### 가.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육아정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으로서 안착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애초기단계부터 교육·보육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물질적 환경 격차 완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도모

### 나. 정책방안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통합적 지원범위 확대

- 대표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의 보건·의료, 상담·치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의식주,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취업지원 등 생활 전반으로 확대함.

□ 보다 세밀한 맞춤형 지원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고 욕구도 조금씩 다르므로 가구특성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함.

□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

-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지만 저축, 보험 등 미래대비가 매우 취약함.

□ 육아지원정책 전달체계 명료화 필요

- 육아지원정책은 통일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에서 육아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통일부 전달체계에 익숙해져 있음.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와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기 어려움.

## 다. 세부 정책과제

□ 탈북 수급 한부모 가구 주양육자의 상담치료 체계적 제공: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음. 한부모/수급가구는 더 심각함. 남북하나재단(2020b)의 실태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13%)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음.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수준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 남한 정착의 어려움 등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려움.
- 하나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퇴소 후 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의 병원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심리 주치의사업"(안)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수급 및 한부모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 지원함.

□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 우선 영유아 치과치료비 지원

- 현행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지원정책에서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치과치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탈북 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아이돌보미 우선 배정 및 비용 지원

- 본 조사에서 이들 가정의 평균 가구소득이 코로나19 이후 약 21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1년 기본중위소득 3,088,079원(2인 가구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 이들 가정의 아이돌보미 우선 배정을 위하여 취학 전 자녀에 한하여 정부지원 부담을 올리고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함. 정부지원 부담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은 통일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함.

□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도움, 생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 배우자 없는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현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과 태아유형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가구유형(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지원기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탈북 수급가구 우선 유아 교육서비스 지원

- 남북하나재단의 방문학습지 지원(취학 1년전 유아에게 우선 지원) 및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 제3차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21~'23)에서 영유아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이 유일함. 그러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음.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부담이 가장 컸고, 대기시간이 길어서도 일부 있었음.
-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보미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 2순위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에 포함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

□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 2014년에 도입한 이 제도의 골자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을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최대 월50만원, 최장4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임.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그것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만 이용 가능함.
- 이 통장을 근로소득은 없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함. 탈북 수급가구도 자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화비용을 매달 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성화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해 주고, 해당 비용을 강제(의무) 저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월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함. 통장명의는 자녀이름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이(만 18세 이상) 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상담, 양육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을 제공함.

□ 어린이집·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평균 26만원임. 수급가구도 약 23만원을 자녀의 교육·보육비를 매달 지불함.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름.
- 「북한이탈주민 주민법」시행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의 자녀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준비·보충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학교와는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교육·보육기관이 아니라서 동일한 법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유아들이 다니고 있으므로 통일부가 수급가정(저소득층 포함)의 유아(영아 제외)에게는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탈북 한부모가구의 맞춤형 취업지원

- 이들 가정은 수급의 의존도도 높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도 높음. 정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탈북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정보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하나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신문,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

- 2000년대 초반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했고 결혼·출산을 하는 생애단계에 접어들면서 모집단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개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함.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아동종합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임.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도 이들 가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에 명시하고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I

#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04 연구 분석 틀 및 추진 절차

05 선행연구

06 연구의 한계와 의의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영유아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처럼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이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정책대상이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약 100만 가구원(연합뉴스, 2019.9.12.), 한부모 가정 약 152만 가구(e-나라지표 중 한부모 가구 비율, 2021.3.22. 인출), 조손가정 약 15만 3,000가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4: 105)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정부가 산출 또는 추정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없고, 현재 기준으로 개인만 약 3만명이다(표 Ⅰ-3-2 참조). 둘째, 대상 특성상의 문제이다. 분단국가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지난 10년동안 정착실태조사 외에도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많은 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었는데, 이들 가정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윤진, 김화순, 김민주, 2020)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학생 자녀를 둔 탈북 여성이 46.6%, 본인 포함 가구원수는 평균 2.4명 등의 수치를 종합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모자 구성의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이윤진 외, 2020). 북한이탈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영유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더더욱 미흡하다(박원순, 김동훈, 김승진, 2016; 이윤진 외, 2020;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 2012;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윤정 외, 2010).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 대부분은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우리사회 육아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에게 공통교육·보육과정과 비용 지원, 출생 후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지급 등과 같이 보편적 지원을 해 왔다. 생애초기단계의 공정하고 평등한 출발선 보장이란 보편적 복지철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사회적 격차 해소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2018) 연구에서는 취약계층만 4~5세 유아들의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유아관찰척도 점수가 일반가정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 격차 외에도 취약계층 가정 자녀의 영양, 건강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 투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원자료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유아는 과체중에 해당되는 비율이 13.6%, 10.6%로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한 가정의 8.1%에 비해 비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정림, 민정원, 조혜주, 2014).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들은 생애초기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취약성을 단면이나마 알 수 있는 사실은 높은 생계급여 의존도(북한이탈주민 23.8%, 일반국민 3.4%; 이윤진 외, 2020: 54)와 주양육자의 불우한 상황[1]을 꼽을 수 있다. 생애초기 단계에서의 물질적 환경과 주양육자의 양육방식은 이후 삶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리함은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재난위기상황에서 더욱 나빠진다는 것이 신문보도,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익중(2020)은 코로나19는 취약계층 아동뿐 아니라 양육자도 소득손실, 이동제한 고립, 과밀화 및 스트레스로 아동학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지만 이 역시 일용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란 쉽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생애초기 출발선은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성장발달 정도, 양육환경 등이 어느 정도인지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실증적인 데이터는 부재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취

1) 이들은 탈북, 제3국 체류 등을 거치면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질병을 얻게 된 경우가 적지 않다(이윤진 외, 2012; 이윤진 외, 2020).

약성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영유아 및 취약계층 영유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 양육환경 등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정 및 취약계층의 영유아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2] 여기에 추가로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에서도 비교분석할 만한 양육 관련 문항을 가져와서 비교분석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비교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배주현 외, 2018) 및 보완자료로 사용하는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류정희 외, 2018)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문항)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를 위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조사문항 중에서 어떤 문항을 추출하고 보완 수정했는지를 다루었다. 또, 코로나19 시기 관련 문항들은, 두 개의 실태조사 문항의 응답 기준이 “지난 1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작년의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므로 별도 문항을 구성하지 않았다. 다만, 소득은 사회적 격차의 핵심 변인이므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소득 문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지원정착 제도 및 정책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주제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지원 정책도 살펴보았다. 남한에서 출생한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와 동일한 교육·보육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2)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빈곤가구)와 비수급가구(일반가구)로 구분하여 아동이 처한 물질적 환경의 차이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외, 2018: 502) 설계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일반가정 및 일반 취약계층 가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받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통일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정책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사업을 수립, 정리하였다. 국내는 드림스타트사업을, 국외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등 국외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 사업을 정리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일반사항 및 영유아의 성장발달,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양육환경 전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8개 영역별(건강, 발달 및 교육, 양육 및 돌봄, 관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로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가정을 일반 영유아 가정 및 일반 영유아 수급가정, 그리고 일반 한부모 영유아 가정과 비교분석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급 한부모 가구, 수급 양부모 가구, 비수급 한부모 가구, 비수급 양부모 가구 등 4개 가구로 유형화하여 각 가구의 양육현황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바라는 정부지원을 알아보았다.

여섯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분석

#### 1) 정부 문헌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남북하나재단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등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 2) 관련 실태조사

법령에 근거해서 해당 부처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복지법'[3]에 근거 5년 주기 실시), 「한부모가족실태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 3년 주기[4] 실시)의 최근 조사인 2018년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 Ⅰ-3-1〉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개요**

| 조사구분 | 실시 년도 | 조사수행기관 | 대상 | 2018년 표본규모 | 승인 통계 여부 |
|---|---|---|---|---|---|
| 아동종합 실태조사 | 2008<br>2013<br>2018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 만0세~만18세 미만 아동의 주양육자<br>- 만9세~만18세 미만의 아동 | - 일반가구: 2,500가구<br>- 저소득가구: 1,500가구 | ○ |
|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 2012<br>2015<br>2018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가구주 | - 좌동 해당 가구의 가구주 2,500명 | ○ |

자료: 1) 류정희 외(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p. 39.
2) 김은지 외(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 7.

## 나. 설문조사

### 1) 표집

설문조사 실시 기준(2021년 7월)으로 만0~5세 영유아 자녀(2015년 8월 1일생부터 2021년 3월생까지)[5]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하되, 북한이탈주민 거주 밀집

3)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을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5)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 기준이 만0세~만5세이며 인지/언어발달 문항 조건이 월령 4개월부터 71개월이므로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연령도 이에 맞췄다.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또, 영아와 유아의 비율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있게 표집하였다.

거주지에 따라 양육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모집단 틀을 활용하여 생후 4개월~71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30~40대 여성의 거주 지역을 비율에 맞추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를 고려하여 약 6(수도권): 4(비수도권) 비율로 표집하였다.

**〈표 Ⅰ-3-2〉 본 연구 설문조사 모집단 현황(2020년 5월 기준) 및 최종 표본 배분**

단위: 명, %

| | 인구 수 | 비율 | 비율기준 배분 | 최종 배분결과 |
|---|---|---|---|---|
| 전체 | 12,620 | 100.0 | 150 | 150 |
| 수도권 | 7,919 | 62.7 | 94 | 95 |
| 비수도권 | 4,701 | 37.3 | 56 | 55 |

주: 본 연구 설문조사 모집단이란 30~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 15.

### 2)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 총 151명의 탈북민이 참여하였다. 이 중 약 75%가 2010년 이후에 남한에 입국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대부분의 영유아들은 남한 출생이다. 양부모 가구(53.0%)가 한부모 가구(47.0%)보다 약간 더 많으나,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은 영아 45.0%, 유아 55.0%로 유아가 좀 더 많으며 주양육자의 남한 거주기간은 입국 후, 5년이 지난 사례가 82.8%로 월등히 많았다. 영유아 자녀 대부분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출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은 비수급(51.7%)과 받는 수급(48.3%) 가구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일반가정에 비해 수급가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을 보면, 중위소득[6] 50% 미만의 저소득층이 약 59%로 다수를 차지하며 중위소득

6)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 〈표 Ⅰ-3-3〉과 같다.

**〈표 Ⅰ-3-3〉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주: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자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834(2021.9.27. 인출)

50-100% 미만이 30.5%로 뒤를 이었다.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54.3%로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17.2%), 실업자(구직중)(6.6%), 무급가족종사자(5.3%) 순으로 나왔으나 그 비율은 적었다.

근로능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근로가능하다"는 응답이 85.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로능력 없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대부분은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 기준으로, 고졸(재학 포함)이 44.4%로 가장 많았다. 북한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란 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재학/졸업이 약 30%로 2순위로 높게 나왔는데 북한에서의 최종학력일 수도 있으나, 남한에 와서 취득한 학력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중고등학교뿐 아니라 국공립대학은 수업료가 전액 면제이고, 사립대학은 수업료의 반액을 남북하나재단이 보조해 주고 있다(표 Ⅱ-1-4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대졸 학력이 높게 나온 이유는 이러한 제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된 특성인 높은 비율의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50% 미만), 높은 비율의 수급 가구, 일반가정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한부모 가구가 본 설문조사에도 거의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일반 한부모 가정(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과의 비교 시, 수급여부와 가구유형을 중요한 분석변인으로 놓고 분석하였다.

**〈표 Ⅰ-3-4〉 본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비율(명) | 구분 | 비율(명) |
|---|---|---|---|
| 전체 | 100.0(151) | 전체 | 100.0(151) |
| **입국연도**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2010년 이전 | 25.2( 38)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7.2(26) |
| 2010-2014년 | 39.1( 59) | 임시직 임금근로자 | 4.0( 6) |
| 2015년 이후 | 35.8( 54) | 일용직 임금근로자 | 3.3( 5) |
| **가구유형** |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 3.3( 5) |
| 양부모 | 53.0( 80)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3( 2) |
| 한부모 | 47.0( 7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6( 7) |
| **거주지역** | | 무급가족종사자 | 5.3( 8) |
| 수도권 | 66.9(101) | 실업자(구직중) | 6.6(10) |
| 비수도권 | 33.1( 50) | 비경제활동인구 | 54.3(82) |

| 구분 | 비율(명) | 구분 | 비율(명) |
|---|---|---|---|
| **자녀연령** | | **교육수준** | |
| 영아 | 45.0( 68) | 무학 | 1.3( 2) |
| 유아 | 55.0( 83) | 초등재학/졸업 | 4.6( 7) |
| **남한 거주기간** | | 중등재학/졸업 | 11.3(17) |
| 5년 이하 | 17.2( 26) | 고등재학/졸업 | 44.4(67) |
| 5년 초과 | 82.8(125) | 전문대재학/졸업 | 8.6(13) |
| **가구소득** | | 대학재학/졸업이상 | 29.8(45) |
| 중위소득 50% 미만 | 58.9(89) | **근로능력**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0.5(46) | 근로가능 | 85.4(129) |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4.0( 6) | 단순근로가능 | 4.6( 7) |
| 중위소득 150% 이상 | 4.0( 6) | 단순근로미약자 | 2.6( 4) |
| 무응답 | 2.6( 4) | 근로능력 없음 | 7.3( 11) |
| **수급 여부** | | | |
| 비수급 | 51.7(78) | 수급 | 48.3(73) |

본 설문조사와 비교분석 대상인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850명이고,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240명으로 집계되었다.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본 설문조사), 영유아 가정이 있는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 가정이 있는 일반 한부모 가정(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Ⅰ-3-5〉와 같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앞에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 가정(850명)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90.7%, 학력은 전문대와 대학재학 이상이 각각 30.9%였다. 약 99%가 장애는 없으며 약 85%가 근로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사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경제활동상태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약 19%, 임시직 임금근로자 약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순이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중위소득 100~150% 미만 24%, 중위소득 50% 미만 약 18% 순이었다. 영유아 자녀 연령은 유아가 영아보다 좀 더 많았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240명)의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약 81%이며, 학력은 고등재학/졸업이 약 55%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재학/졸업, 대학재학/졸업이상 순이었다. 약 97%가 장애는 없으며 비수도권 거주자가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혼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가 약 66%를 차지하며 미혼이 약 19%, 사별 약 8%로 뒤를

이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약 44%, 중위소득 50% 미만이 32% 등으로 중위소득 100% 미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3개 집단의 공통점은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장애는 없으며 근로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수도권에 더 많이 거주한다면, 나머지 2개 가정은 비수도권 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00%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Ⅰ-3-5〉 3개 조사별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비율 | | | 구분 | 비율 | | |
|---|---|---|---|---|---|---|---|
| | 북한이탈주민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북한이탈주민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성별** | | | | **혼인상태** | | | |
| 남성 | 0.7 | 9.3 | 18.8 | 유배우 | 53.0 | 87.6 | 0.0 |
| 여성 | 99.3 | 90.7 | 81.3 | 사별 | 0.7 | 2.2 | 8.3 |
| **교육수준** | | | | 이혼 | 22.5 | 9.3 | 66.3 |
| 무학 | 1.3 | 0.0 | 0.4 | 별거 | 4.6 | 0.6 | 6.7 |
| 초등재학/졸업 | 4.6 | 0.2 | 0.8 | 미혼 | 19.2 | 0.0 | 18.8 |
| 중등재학/졸업 | 11.3 | 3.5 | 7.5 | 무응답 | 0.0 | 0.2 | 0.0 |
| 고등재학/졸업 | 44.4 | 28.1 | 55.0 |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 |
| 전문대재학/졸업 | 8.6 | 30.9 | 21.7 | 상용직 임금근로자 | 17.2 | 18.7 | - |
| 대학재학/졸업이상 | 29.8 | 30.9 | 14.6 | 임시직 임금근로자 | 4.0 | 6.6 | - |
| 무응답 | 0.0 | 6.2 | 0.0 | 일용직 임금근로자 | 3.3 | 4.7 | - |
| **장애유무** | | |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 3.3 | 0.5 | - |
| 장애있음 | 0.0 | 1.1 | 2.9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3 | 0.5 | - |
| 장애없음 | 100.0 | 98.9 | 97.1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6 | 4.0 | - |
| **근로능력** | | | | 무급가족종사자 | 5.3 | 3.9 | - |
| 근로가능 | 85.4 | 84.8 | - | 실업자 | 6.6 | 2.5 | - |
| 단순근로가능 | 4.6 | 6.0 | - | 비경제활동인구 | 54.3 | 58.7 | |
| 단순근로미약자 | 2.6 | 1.4 | - | **가구소득** | | | - |
| 근로능력 없음 | 7.3 | 7.8 | - | 중위소득 50% 미만 | 58.9 | 17.5 | 31.5 |
| **거주지역** | | | | 중위소득 50-100% 미만 | 30.5 | 50.7 | 43.8 |
| 수도권 | 66.9 | 30.9 | 34.6 | 중위소득 100-150% 미만 | 4.0 | 24.4 | 18.5 |
| 비수도권 | 33.1 | 69.1 | 65.4 | 중위소득 150% 이상 | 4.0 | 7.3 | 5.8 |
| **자녀연령** | | | | 무응답 | 2.6 | 0.1 | 0.4 |
| 영아 | 45.0 | 42.4 | - | **계** | 100.0 (151) | 100.0 (850) | 100.0 (240) |
| 유아 | 55.0 | 57.6 | - | | | | |

### 3) 설문문항

설문내용은 일반가정 및 취약계층 가정의 영유아와 비교분석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문항을 차용하였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중 관련 문항을 일부 차용하였다. 문항수가 많으면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문항은 삭제하였다. 참고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호자용 설문문항은 하위문항을 제외하고도 97개이다(류정희 외, 2018: 91-95).

**〈표 Ⅰ-3-6〉 설문문항**

| 범주 | 항목 | | 비고 |
|---|---|---|---|
| | 주양육자 | 영유아 자녀 | |
| 가구 일반사항 | 본인과의 관계, 출생국가, 남한입국연도, 출생연도, 가구원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최종학력), 장애유무, 근로능력,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수급 정도 | 성별, 연령(월령), 출생국가, 장애유무 | *입국년도, 출생국가 문항 추가<br>*연령(월령)은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 기준(월령 4개월~71개월) |
| 건강 | 임신 시 음주 및 흡연, 수유 여부,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폭음, 흡연, 건강 만족도, 부모의 우울성취 만족도,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및 흡연 정도, 현재 삶의 만족도, 우울증 | 자녀의 주관적 건강상태, 출생 시 저체중 여부, 몸무게와 키, 치료 및 검사 유무 및 못 받은 이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이유, 평소 기상·취침 시. 수면습관, 식사습관 |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수급 여부 등) |
| 발달 및 교육 | - | 인지 및 언어발달(월령별),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 |
| 관계 | 가족 및 지인의 도움 정도(경제적, 정서적, 생활, 정보제공), 전반적인 가족관계, 부모효능감 | 또래 친구 수, 또래관계 | |
| 양육 및 돌봄 | 양육스트레스, 양육방식, 체벌인식 |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 후 돌봄장소, 돌봄양육자, 기관미이용 이유 | |
| 여가 및 활동 | 미래안정성 만족도 | TV 시청시간 및 시간 제한, 책읽기 시간, 스마트폰/컴퓨터 등 이용 시간 및 시간제한 | |
| 안전 및 위험행동 | 안전수칙준수(조그만 물건, 카시트, 위험한 물질, 외출, 욕조, 화장실, 도로보행, 안전벨트), 안전위협요인, 안전만족도 | 아동방치 여부 및 방치 시간, 아동방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서비스 종류 | *영유아 자녀 문항은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 |

| 범주 | 항목 | | 비고 |
|---|---|---|---|
| | 주양육자 | 영유아 자녀 | |
|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집의 유형, 방수, 거주지역 생활환경,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소속감 만족도, 탈북민으로서 부당한 일 및 차별 정도 | 탈북민 자녀로서 부당한 일 및 차별 정도 | *주거 관련 문항 영역 변경(물질적 환경→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br>*주거 관련 문항 및 부당한 일 및 차별 경험 정도 문항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 |
| 물질적 환경 | 박탈지수, 정책인지도, 정책 이용여부, 정책만족여부, 생활수준만족도 | 자녀결핍 | *정책 관련 문항 영역 변경(지역사회 환경→물질적 환경)<br>*탈북지원정책 추가 |
| 가구 월평균 소득 등 | 가구처분가능소득(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월평균 교육·보육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수급 예상 정도 | |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항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 |

자료: 류정희 외(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92-96.

#### 4) 분석방법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영유아 가구를 추출하여 이를 본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데이터와 함께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비교분석하였다(*t*검증, chi-square 검증, ANOVA).

### 다. 면담조사

면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해당 가구 대상 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설문대상자에 게 실시하였다. 가구 특성별로 유형화는 설문조사 결과, 수급과 비수급, 한부모와 양부모에 따라 차이가 난 경우들이 많았으므로 이들 변인을 조합하여 수급 한부모 가구, 수급 양부모 가구, 비수급 한부모 가구, 비수급 양부모 가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물질적 환경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

의 차이가 컸다는 점에서 가구경제력 기준으로 수급과 비수급 가구를 먼저 분류하고 그 안에서 가구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유형별 가구수를 고려하여 총 26명이 면담조사에 참여하였다(표 Ⅰ-3-7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ZOOM)으로 주로 실시하고 대면을 병행하였다. 비대면 면담에는 3~4명이 참여했고 대면은 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Ⅰ-3-7〉 면담조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형화 및 참여자수**

| 1차 구분 | 2차 구분 | 유형화 | 참여자수 | 총수 |
|---|---|---|---|---|
| 수급 | 한부모 | 유형 1. 수급 한부모 가구 | 12명 | 26명 |
| | 양부모 | 유형 2. 수급 양부모 가구 | 6명 | |
| 비수급 | 한부모 | 유형 3. 비수급 한부모 가구 | 3명 | |
| | 양부모 | 유형 4. 비수급 양부모 가구 | 5명 | |

면담내용은 기본적으로 설문지의 8개 영역을 기본틀로 구성하되, 가구유형에 따라 질문 내용을 조정하는 비구조화 질문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정부 정책 관련 질문을 추가하였다.

**〈표 Ⅰ-3-8〉 면담조사 질문내용**

| 범주 | 면담내용 |
|---|---|
| 건강 | - 본인 또는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주된 이유<br>- 본인 건강이 취업 활동에 미치는 정도 |
| 발달 및 교육 | - 자녀발달이 지체된 주된 이유(인지, 언어, 사회정서, 기질)<br>- 기대하는 자녀교육 수준 |
| 관계 | -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 도움 정도<br>-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 정도, 이유 |
| 양육 및 돌봄 | - 다니고 있는 교육보육시설 기관 선택 이유, 이용시기, 이용시간, 비용부담, 만족도<br>- 돌봄공백 시 해결방법; 대리양육자 유무 |
| 여가 및 활동 | - 자녀와 본인의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정도<br>- 자녀의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제한 방법<br>- 우리 가족의 미래 |
| 안전 및 위험행동 | - 안전사고 발생 유무, 원인<br>-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경우<br>- 본인 및 자녀 차별 경험 |
|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 현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br>- 현 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시설 종류 |

| 범주 | 면담내용 |
|---|---|
| 물질적 환경 | - 현재 의식주, 자녀교육, 문화생활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어려운 점 |
| 정부정책 | -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책<br>- 희망하는 육아정책 |

## 라.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계 전문가로부터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관련 정책 현황, 설문지 검토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 외에도 중간보고워크숍(6월)과 최종보고워크숍(10월)에 참석하여 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자문을 구하였다. 이들 전문가들은 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도 참석하여 정책방안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표 Ⅰ-3-9〉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구분 | 일정 | 안건 | 참석자 |
|---|---|---|---|
| 1차 | 2021. 4.15. | - 본 연구방향, 연구내용, 조사 등 자문<br>-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 현황 파악<br>- 북한이탈주민 가정 데이터 수집 방법 | 북한연구 선행연구자 |
| 2차 | 2021. 4.22. | - 본 연구방향, 연구내용, 조사 등 자문<br>-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자문<br>- 우리나라 아동복지 실태 및 특성 | 아동복지 선행연구자 |
| 3차 | 2021. 5.24. | - 취약계층 아동정책 제도 및 현황 파악<br>- 코로나시기 아동지원 정책<br>- 코로나 관련 설문문항 자문 | 아동복지 선행연구자 |
| 4차 | 2021.12.13. | *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와 같이 실시 | |

## 마. 현장전문가 간담회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자녀양육 현황과 지원정책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협조받았다.[7)]

7)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대상으로 이들 가정의 특성 및 문제점, 지원사업의 효과성 등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로 협조받지 못했다.

**〈표 Ⅰ-3-10〉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최 현황**

| 구분 | 일정 | 안건 | 참석자 |
|---|---|---|---|
| 1차 | 2021.4.15. | -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자녀양육 현황<br>- 북한이탈주민 유자녀 가정 지원정책 파악<br>-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 자료 협조 |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
| 2차 | 2021.4.22. | -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br>-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 드림스타트 사업 수혜 가구 특성 및 사업의 효과성<br>-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북한이탈주민 가정 섭외 협조 | 중앙 드림스타트사업 담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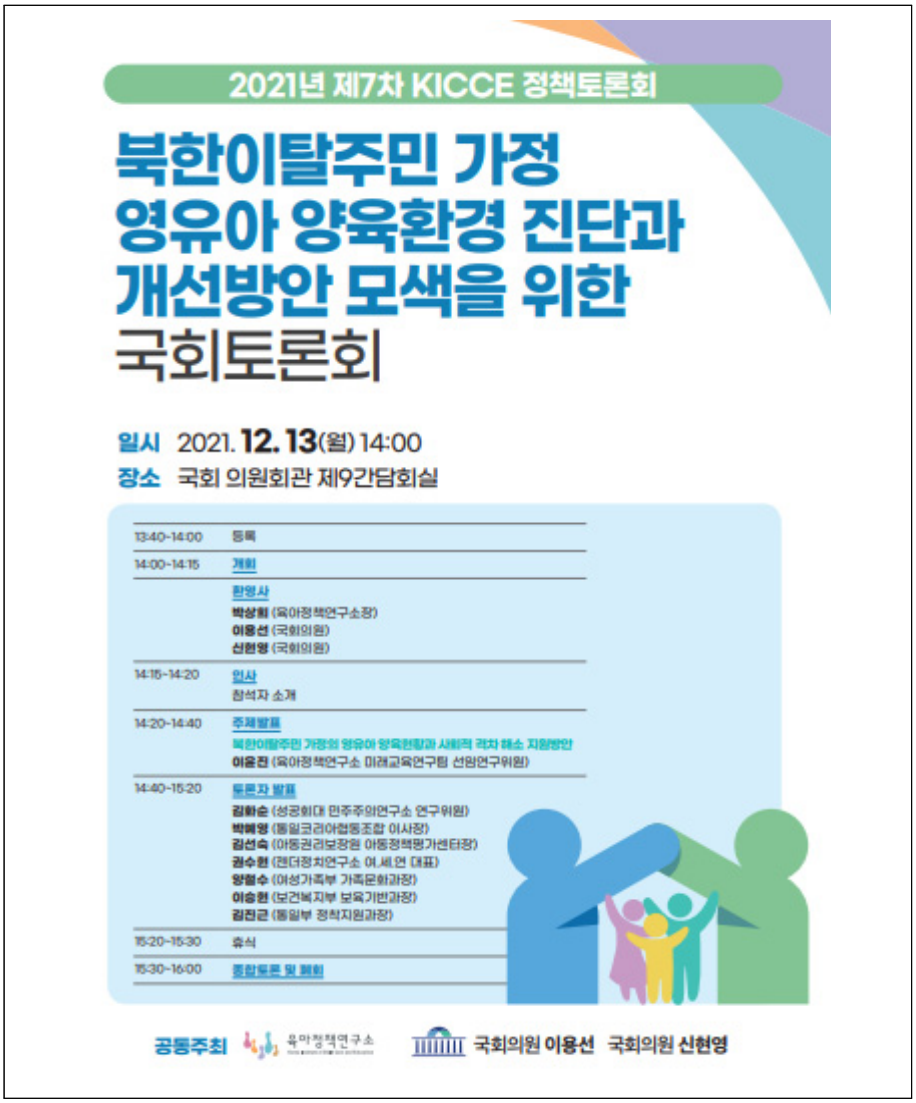
## 바.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초기단계에서는 통일부 담당자 대상으로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 정책제언, 북한이탈주민 가정 관련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자문 구하였다. 연구종료시점에서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실효성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토론회 방식으로 관련 부처(통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그림 Ⅰ-3-1 참조).

**〈표 Ⅰ-3-1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 구분 | 부처 | 일정 | 안건 |
|---|---|---|---|
| 1차 | 통일부 | 2021. 4.30. | - 북한이탈주민 가정 관련 데이터 수집 등<br>- 설문조사 관련 자문(표집의 적절성) |
| 2차 | 통일부 | 2021. 7. 6. | - 설문지 문항 검토(서면) |
| 3차 | 관계부처 | 2021.12.13. | - 도출한 정책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

[그림 Ⅰ-3-1] 국회토론회 포스터




## 사. 원내 멘토링

원내에서 취약계층 가정, 빈곤 가정, 한부모 가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본 과제 수행에 있어서 기존 연구 내용과의 차별성, 설문문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표 Ⅰ-3-12〉 원내 멘토링 개최 현황**

| 구분 | 일정 | 안건 | 참석자 |
|---|---|---|---|
| 1차 | 2021.4. 9. | -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br>- 드림스타트 사업 외 통합지원사업 현황<br>- 국외 통합지원사업(헤드스타트, 슈어스타트) 서술의 필요성 논의 | 취약계층 및 빈곤가정 선행연구자 |
| 2차 | 2021.5.12. | - 한부모 가정의 기준 및 범위<br>- 전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지원 현황 | 한부모 가정 선행연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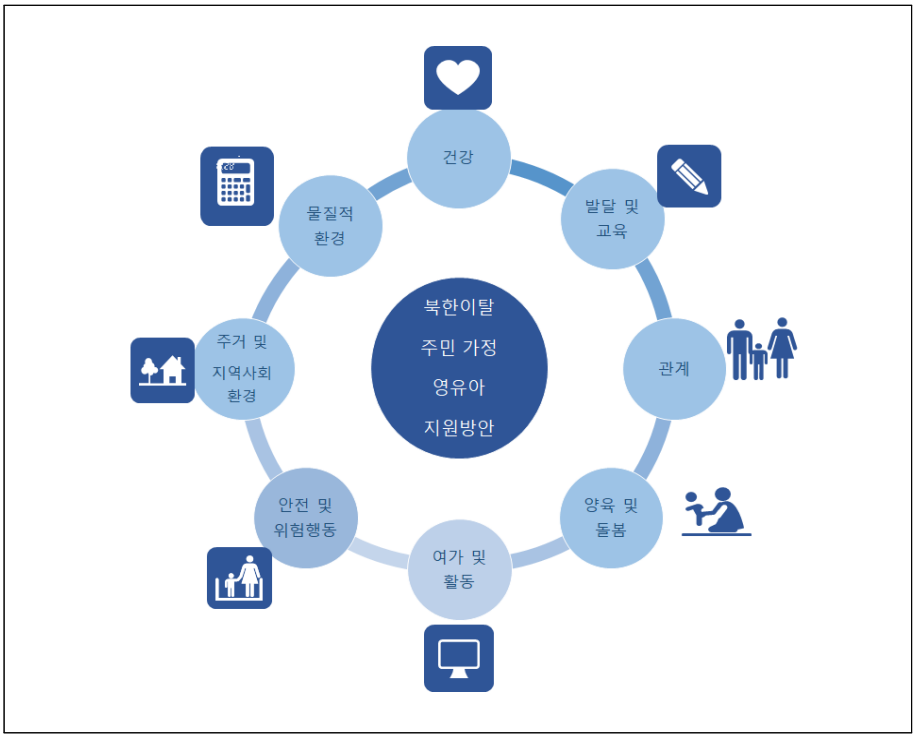
### 아. IRB 심의

취약계상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설문지와 면담지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 4. 연구 분석 틀 및 추진 절차

본 연구의 추진 틀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해당 조사의 8개 영역(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가구일반사항 영역 포함하면 9개 영역)을 차용하였으며, 각 영역의 문항들 중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항들 중심으로 추출해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림 Ⅰ-4-1]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틀(framework)**




다음 〈표 Ⅰ-4-1〉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8개 영역(가구일반사항 영역 포함하면 9개 영역)내의 문항들 중에서 본 설문조사를 위해 추출한 문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호자용과 아동용 2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직접 응답하기 어려우므로 보호자용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유아에 해당하는 문항뿐 아니라 초등학생 이상(6-17세) 대상 문항 중에서 응답가능하고 필요한 문항은 본 설문문항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Ⅵ. 여가 및 활동"영역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시간 및 종류 제한"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로 한정했다면, 요즘 영유아들은 이러한 기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 문항을 포함하였다. 가구소득 문항은 코로나19 시기 이전과 이후 각각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설문조사 시기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설문문항 총 영역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9개 영역이며

설문문항은 53개이다.

**〈표 Ⅰ-4-1〉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설문문항과 본 설문문항**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Ⅰ. 가구 일반 | *가구주*와 관계 | 모든 연령 | ○ *본인*과의 관계 | |
| | *이주여부* | | ○ *출신국가* | |
| | 성별 | | ○ | |
| | 태어난 연도 | | ○ | *교육수준 보기 문항에 북한 학교 급별 추가 |
| | 교육수준 | | ○ | |
| | *장애종류 및 등급* | | ○ *장애유무* | |
| | 근로능력 | | ○ | |
| | 혼인상태 | | ○ | |
| |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 *경제활동참여상태 일부 보기 문항 차용 (고용주,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 응답자 및 조사대상 아동 | | ○ *조사대상 아동* | |
| | 조사대상아동 연령(월령) | | ○ | |
| | 가구주 종교유무 | | × | |
| | 만성질환 질병명 | | × | |
| | 의사진단 여부 | | × | |
| | 만성질환 최근 치료여부 | | × | |
| | 의료보장형태 | | × | |
| Ⅱ. 건강 |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 모든 연령 | ○ | |
| | 조산 | | × | |
| | 저체중아 | | ○ | |
| | 아동 몸무게 | | ○ | |
| | 아동 키 | | ○ | |
| | 임신중 건강행동 | | ○ | |
| | 수유실천 | | ○ | |
| | 수유기간 | | × | |
| | 주방문 의료기관 | | × | |
| | 의료기관 유형 | | × | |
| | 없는 이유 | | × | |
| | 주치의 | | × |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 주치의 도움여부 | | × | |
| | 치료검사 | | ○ | |
| | 검사받지 못한 이유 | | ○ | |
| | 치과치료 | | ○ | |
| | 치과치료 받지못한 이유 | | ○ | |
| | 건강검진 | | × | |
| | 치과검진 | | × | |
| | 시력교정 | | × | |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니는 여부 | | ○<br>*반일제 교육·보육기관 다니는 여부* | *반일제 교육·보육 기관 기준: 주3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이용 기관 |
| | 수면시간 | | ○ | |
| | 수면습관 | | ○ | |
| | 섭식 | | ○ | *수면시간, 섭식 문항에서 학교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은 방학이 짧으므로 학기중, 방학중 → 평소 |
| |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 | ○ | |
| | 음주 빈도 | | ○ | |
| | 음주 양 | | × | |
| | 폭음 빈도-남 | | × | |
| | 폭음 빈도-여 | | ○ | |
| | 흡연 경험 | | × | |
| | 현재 흡연 빈도 | | ○ | |
| | 흡연량 | | × | |
| | 간접 흡연 | | × | |
| | 건강 만족도 | | × | |
| | 부모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 | ○ | |
| | 주관적 웰빙 | | × | |
| | 부모의 우울 | | ○ | |
| | 성취 만족도 | | ○ | |
| Ⅲ. 발달 및 교육 | 인지발달 | 4~71 개월 | ○ | *보육 및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 복지서비스 문항은 상세해서 정확한 응답이 어려울 |
| | 언어발달 | | ○ | |
| | 기질(정서) | 0-5 | ○ | |
| | 기절(사회) | 3-8 | ○ |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 보육및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 | 0-5 | × | 것 같고 문항수 조정을 고려해서 비반영함. 대신, 사교육 포함 교육·보육 월평균 비용 문항을 구성함<br>*구체적인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은 면담조사에서 파악 |
| | 복지서비스 | 0-5 | × | |
| | 사교육 | 6-17 | × | |
| | 부모의 교육참여 | 6-17 | × | |
| | 기대교육수준 | 모든 연령 | ○ | |
| Ⅳ. 관계 | 배우자 동거여부 | 모든 연령 | × | *한부모 탈북가정은 비해당 문항이므로 비반영 |
| | 결혼생활 만족도 | | × | |
| | 부부싸움 빈도 | | × | |
| | 가족 등 사회적 지원 | | ○ | |
| | 부모효능강 | | ○ | |
| | 가족건강성 | | ○ | |
| | 관계만족도 | | ○ | |
| | 또래친구수 | 3-8 | ○ | *코로나19 고려 비반영 |
| | 놀이빈도 | | × | |
| | 또래관계 | | ○ | |
| Ⅴ. 양육 및 돌봄 | 주양육자 | 모든 연령 | ○ | *주양육자 아닌 경우 본 설문조사에서 제외 |
| | 양육분담 | | × | *한부모 탈북가정은 비해당 문항이므로 비반영 |
| | 부부간 양육의견 불일치 | | × | |
| | 양육문제 주결정자 | | × | |
| | 양육스트레스 | | ○ | |
| | 양육방식 | | ○ | |
| | 체벌인식 | | ○ | |
| | 보육시설-방과후 보호자 | 0-5 | ○<br>*반일제 교육·보육기관 방과후 보호자* | |
| | 평일방과후 보호자 | 6-17 | × | |
| | 주말방학 보호자 | | × |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Ⅵ. 여가 및 활동 | 평일방과후활동 | 6-17 | × | |
| | 평일방과후 부모희망활동 | 6-17 | × | |
| | TV 시청시간 | 0-8 | ○ | |
| | 책읽기 시간 | 0-8 | ○ | |
| | 스마트폰/컴퓨터 등 시간 | 0-8 | ○ | |
| | TV 시청시간 제한 | 모든 | ○ | |
| | TV 프로그램 종류 제한 | 모든 | ○ | *많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사용하므로 해당 문항 반영 |
| | 스마트폰/컴퓨터 등 시간제한 | 6-17 | ○ | |
| | 스마트폰/컴퓨터 등 종류제한 | 6-17 | ○ | |
| | 시간부족감 | | × | |
| | 시간부족이유 | | × | |
| | UN권리협약 인식 | 모든 연령 | × | |
| |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인식 | | × | |
| |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 | × | |
| | 미래안정성 만족도 | | ○ | |
| Ⅶ. 안전 및 위험 행동 | 아동수칙준수 | | ○ | |
| | 조그만 물건 | 0-5 | ○ | |
| | 카시트 | 0-5 | ○ | |
| | 위험한 물질 | 0-8 | ○ | |
| | 외출 | 3-8 | ○ | |
| | 욕조, 화장실 | 3-8 | ○ | |
| | 도로보행 | 3-8 | ○ | |
| | 안전모 | 3-17 | ○ | *안전벨트 문항 영유아에게 해당하므로 포함 |
| | 안전벨트 | 6-17 | ○ | |
| | (질병,손상) 누워서 보낸 일수 | 모든 연령 | × | |
| | 손상에 의한 응급실 이용경험 | | × | |
| | 원인 | | × | |
| | 안전위협요인 | | ○ | |
| | 아동방치 일수 | 0-5 | ○ *아동방치 여부* | *응답의 용이성을 위해 한부모 실태조사 문항으로 대체 |
| | 아동방치 시간 | | ○ *아동방치 평균 시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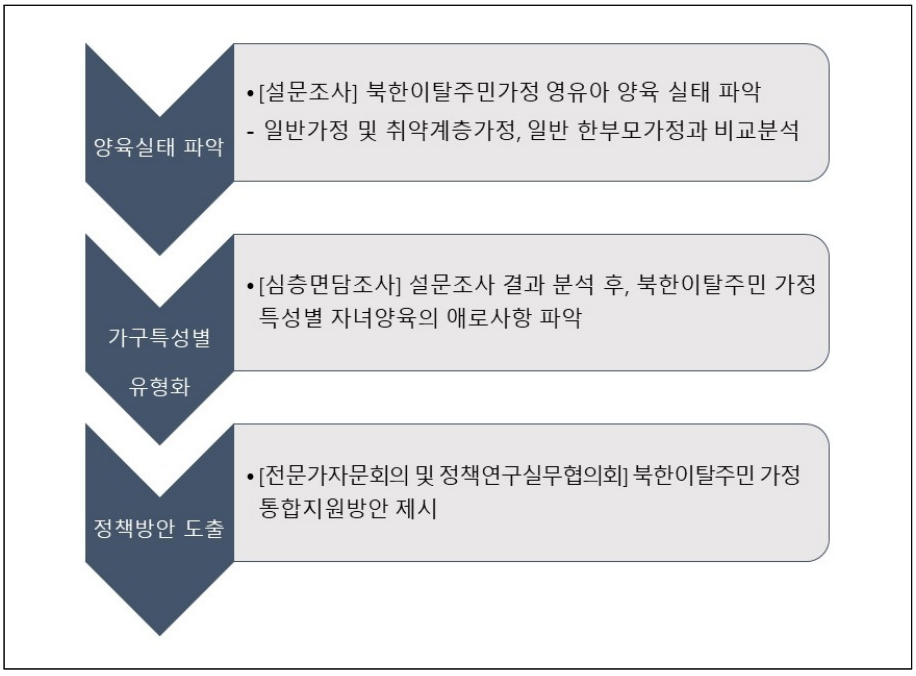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 아동방치 일수 | 6-12 | × | |
| | 아동방치 시간 | | × | |
| | 아동방임 | 모든 연령 | × | *보기가 세분화되어 있어 정확한 응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비반영 |
| Ⅷ. 지역사회 환경 | 거주지역 생활환경 | 모든 연령 | ○ *주거 및 거주지역 생활환경* | *주거 생활환경 문항추가(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문항 차용)<br>→ Ⅷ.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 | 지역사회신뢰 | | × | |
| | 지역사회참여 | | ○ | |
| | 범법행위신고 | | × | |
| | 갈등해결참여 | | × | |
| | 사회통합 | | × | |
| | 지역사회소속감 만족도 | | ○ | |
| | 정책인지도 | | ○ | |
| | 정책이용여부 | | ○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반영 |
| | 정책만족여부 | | ○ | |
| | 아동정책 개선 필요성 | | × | |
| | | | 탈북가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 정도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한부모 가족, 자녀→탈북 가족, 자녀) |
| | | | 탈북민 자녀로서 차별받은 경험 정도 | |
| Ⅸ. 물질적 환경 | 아동결핍 | 0-8 | ○ | |
| | 아동용돈 | 6-17 | × | |
| | 월평균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 모든 연령 | × | |
| | 월평균 총생활비 | | × | |
| | 공교육비 | | ○ | |
| | 사교육비 | | ○ | |
| | 응답자 본인 근로소득 | | × | |
| | 배우자 근로소득 | | × | |
| | 기타 가구원 근로소득 | | × |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보호자용) | | | 본 설문문항 | 비고 |
|---|---|---|---|---|
| 영역 | 항목(총 97개) | 연령 | 항목(53개) | 추가 및 수정 문항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 | 가구 처분가능 소득 | | ○ *코로나19 이전, 이후 소득* | |
| | 생계급여 수급 개월, 금액 | | × | *탈북가정은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높으므로 수급비가 포함된 가구처분가능 소득으로 질문하고 코로나19이전, 이후 구분함. |
| | 주거급여 수급 개월, 금액 | | × | |
| | 교육급여 수급 개월, 금액 | | × | |
| | 정보보조금 및 급여 | | × | |
| | 금융재산 | | × | |
| | 기타 부동산 및 재산 | | × | |
| | 부채 총액 | | × | |
| | 집의 유형 | | ○ | *이들 3개 문항은 Ⅷ. 지역사회 환경 세션으로 이동 |
| | 방수 | | ○ | |
| | 점유형태 | | ○ | |
| | 주택가격 및 월세액 | | × | |
| | 박탈지수 | | ○ | |
| | 주관적 소득계층 | | × | |
| | 생활수준 만족도 | | ○ | |
| | |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문항 차용 |
| | |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예상 정도 | |

주: 이탤릭체는 원래 문항을 본 연구의 필요에 맞게 수정한 것을 뜻함.
자료: 류정희 외(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pp. 91-95 표를 토대로 작성

본 연구의 주요 연구추진 절차는 다음 [그림 Ⅰ-4-2]와 같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특성별로 유형화해서 해당 그룹의 설문조사 참여자 중 면담조사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조사를 토대로 전문가자문회의와 정책세미나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Ⅰ-4-2] 주요 연구추진 절차**




## 5. 선행연구

### 가.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관련 선행연구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 Ⅰ-5-1〉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 2009년부터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연구는 취약계층 가정의 일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가정을 다뤘으며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이 주요 연구목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연구를 본격화한 것은 2012년 연구이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영유아의 70%가 남한 출생이며(이윤진 외, 2012: 21) 무직이 83.0%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가 55%로 저소득층 가구이며, 배우자와 별거/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40%로 나타났다(이윤진 외, 2012: 20). 양육의 어려움으로 학습지도의 어려움, 자녀중심적인 남한의 양육문화, 대리양육자 부재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의 발달단계 지연(신체, 언어 등), 자

녀의 정체성 문제 등이 드러났다(이윤진 외, 2012: 요약 4-5).

2020년 연구는 수시과제(연구기간 3개월 미만)로 수행한 연구로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에 초점을 맞춰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자녀를 둔 한부모 탈북 여성 6명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고 1명은 신청 중이었다. 4명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일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일부 자녀들은 불안이나 언어발달 지체 증세를 보였다(이윤진 외, 2020: 78-79). 요컨대, 탈북 가구 중 수급의 한부모 가구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방안으로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유자녀 여성 우선 고려,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 북한이탈주민 개인에서 가족 단위로 정책 범위 확대,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추가 등을 제시하였다(이윤진 외, 2020: 91-94).

**〈표 Ⅰ-5-1〉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양육 관련 선행연구 정리**

| 과제명(연구자)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br>(이윤진 외, 2020) | 2019년 탈북모자사망사건을 계기로 탈북 한부모(여성)이 입장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일부나마 규명하고,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지원방안과 정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 문헌분석<br>- 심층면담조사: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 6사례<br>- 전문가 자문회의<br>- 현장전문가 면담조사<br>- 정책세미나: 국회토론회 |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고찰<br>- 현 정부 지원정책, 탈북모자 사망사건 이후 정부 대책을 분석<br>- 탈북민의 취업실태를 성별과 거주기간별 변인 중심으로 고찰<br>- 탈북민 가정의 일반적 특성 고찰 및 어린 자녀가 있는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취업 현황 등 파악<br>-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위한 지원방안, 이를 위한 법개정 제시 |
|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br>(박원순 외, 2016) |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자녀 양육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 - 문헌연구<br>- 심층면담: 탈북 어머니 20명, 탈북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총4명 | - 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br>-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일반 양육 실태<br>- 북한이탈주민 사회집단의 자녀양육 실태 |

| 과제명(연구자)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 해하고 자녀양육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 서면자문: 하나센터 근무 담당자 7명<br>- 설문조사: 탈북 어머니 200명<br>- 전문가 워크숍<br>- 전문가 자문회의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옴부즈맨 도입. 양육매뉴얼 제작, 어린이집용 매뉴얼 제작,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
|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이윤진 외, 2012) |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실태 파악을 통한 자녀 양육 지원방안을 모색함 | - 문헌 조사<br>- 설문조사: 영유아 자녀가 있거나 남한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100명<br>- 심층면접: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30명<br>- 육아지원기관 원장 4명 및 전문가 자문회의 |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추이 변화 분석<br>- 관련 선행연구 고찰<br>-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을 면밀히 고찰<br>-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양육 실태 파악<br>-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 지원 방안: 탈북민 가정을 위한 정책수립 필요, 부모교육 확대 및 강화, 중도 입국 자녀 지원, 어린이집·원장의 탈북가정 이해 증진 교육 실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정보 제공(안내책자 배포) |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장명림 외, 2010) | 2009년도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의 후속연구로서, 2009년에 개발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현장 활성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모형의 효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을 둠. | -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br>- 프로그램 추가 개발 용역 의뢰: 사회영역<br>- 1차년도 결과보고회 및 2차년도 시범적용 연수 실시<br>- 취약계층 영유아 118가정(실험집단 59가정, 비교집단 59가정; 이 중 탈북가정은 실험집단 15가정, 비교집단 18가정) |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확대 적용: 1차년도 개발한 모형을 양부모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에 실시<br>- 프로그램 효과 분석: 사전, 사후 검사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br>-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활성화 방안 제안 |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장명림 외, 2009) |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고 체계성있게 취약계층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을 | -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및 분석<br>-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및 요구조사: 저소득층 가정 669명, 북한이탈주민 가정(167명) | -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 지원사업 현황<br>-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사업 현황<br>- 취약계층 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 및 요구분석 |

| 과제명(연구자)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 |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시범적용해 보고자 함. | - 원외 위탁연구 용역: 취약계층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br>- 원외 프로그램 원고 의뢰: 영아용·유아용 지도프로그램, 동화책을 이용한 유아 개념학습 활동<br>- 가정유형별 육아지원 모형 특성화 및 시범적용<br>- 포커스그룹 면담<br>- 전문가 자문회의 | -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개발 및 시범적용<br>-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기관 및 인력배치, 맞춤형 부모교육, 밀집지역내 취약 보육 우선 실시, 하나원에서부터 영유아 양육 및 지도 제공 |

자료: 박원순 외(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외(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이미화, 전혜정, 민현숙, 박수연, 김주연, 정주희, 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자녀에 국한하지는 않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조영아, 김현아, 김요완(2014),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최여희(2010), 박정란(2009)의 연구가 있다. 조영아 등(2014)은 한부모 가정(여성 9명, 남성 1명)을 대상으로 남한 내 적응의 어려움과 대처 방식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적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선권 및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며(조영아 외, 2014: 173), 자녀양육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의 자립 장려제도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조영아 외, 2014: 174, 이윤진 외, 2020, 26 재인용).

홍나미 등(2010)은 심층면담을 통해 8명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을 근거이론접근의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북한이탈여성은 폭력피해여성, 결혼이민자여성들과는 달리 자녀와 수년간 생이별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자녀에 대한 죄책감, 거리감 등의 심리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탈북과정에서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외상이 심각하여

이러한 외상이 적응과 자녀양육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적응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홍나미 외, 2010: 338) 사실을 도출하였다.

박정란(2009)은 북한이탈여성이 탈북 후 제3국 등을 거쳐 결혼, 출산과정을 경험하며 이중, 삼중의 자녀 부양과 책임을 안게 되었고 남한에서 배우자나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자녀양육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의 빈곤화 가능성과 가족 해체, 빈곤의 세대 전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나. 본 설문조사 유관 실태조사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의 뼈대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이다. 여기에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필요한 문항을 일부 가져와 보완함으로써, 일반가정, 일반 취약가정, 일반 한부모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비교분석한다. 이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2008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한 전국 단위 조사로서, 빈곤아동실태조사를 겸해서 실시한(류정희 외, 2018: 87) 점이 이전의 조사와 다르다.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0세~18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이며 총 4,000가구(일반가구 2,500가구, 저소득층가구 1,500가구)를 표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모용과 아동용, 2종이며 각각 9개 영역(가구일반사항,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류정희 외, 2018: 87). 조사항목 수는 보호자용이 97개, 아동용이 90개이고 자녀 연령에 따라 문항 수는 차이가 있다(류정희 외, 2018: 88). 이전 조사들과 비교해서 영역명을 수정하고 영역구분을 재구성했으며, 데이터 운영의 용이성을 위하여 보호자용과 아동용의 영역구분을 최대한 유사하게 하였다(류정희 외, 2018: 89).

2018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동의 행복수준도 빈곤/비빈곤, 가구형태(양부모/한부모·조손가구 가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등(류정희 외, 2018: 26) 빈곤 여부, 소득수준, 가구형태별로 아동의 환경조건과 발달의 격차는 거의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요컨대, “빈곤가구, 한부모 가구의 아동들은 절대적

인 물질적 환경에서의 박탈, 관계, 문화와 교육, 꿈과 기회 등 다차원적 결핍과 차별을 일상에서 경험"(류정희 외, 2018: 2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누리과정,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을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확대해 왔지만, 우리사회의 소득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조사로,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국 한부모가족(모자/부자 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8개 분야, 19개 항목, 120개 세부항목이다(김은지 외, 2018: 연구요약 2). 2018년의 연구결과 중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부모가구 유형이 더욱 소규모화되고 있는 추세(가구원수: 2012년 3.1명, 2015년 3.0명, 2018년 2.9명; 김은지 외, 2018: 37)이므로 영유아의 보편적 돌봄체계처럼, 초등학생을 위한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자녀 혼자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이 많고, 식사제공, 등·하원 관련 수요가 이전 조사에 비해 증가한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등 틈새돌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은지 외, 2018: 연구요약 15).

## 6.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를 2018년의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서 조사시점에 따른 3년의 시간차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도 본 조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보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아동의 삶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변수는 '가구소득'이란 사실이었다. 가구소득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서론에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구소득 문항을 넣어서 실제 소득 변화를 파악하였다. 비교대상 실태조사들과 조사시점의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저소득층이 많은 북한이탈주민 가정 대상 연구에 있어서 코로나19라는 현재 상황은 본 연구의 의의를 제고한다.

# Ⅱ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


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정책 개요

02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과 현황

03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사업

# Ⅱ.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

## 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정착지원정책 개요

### 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총 33,752명으로 2009년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는 등 증가하였다가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약 1,000~1,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일부, 2020: 9). 2020년 입국인원은 229명으로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탈북 이동 경로 국가의 국경폐쇄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일부, 2020: 9). 2021년 9월까지 잠정 입국자수는 48명으로 2020년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전체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은 72.0%로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 수가 남성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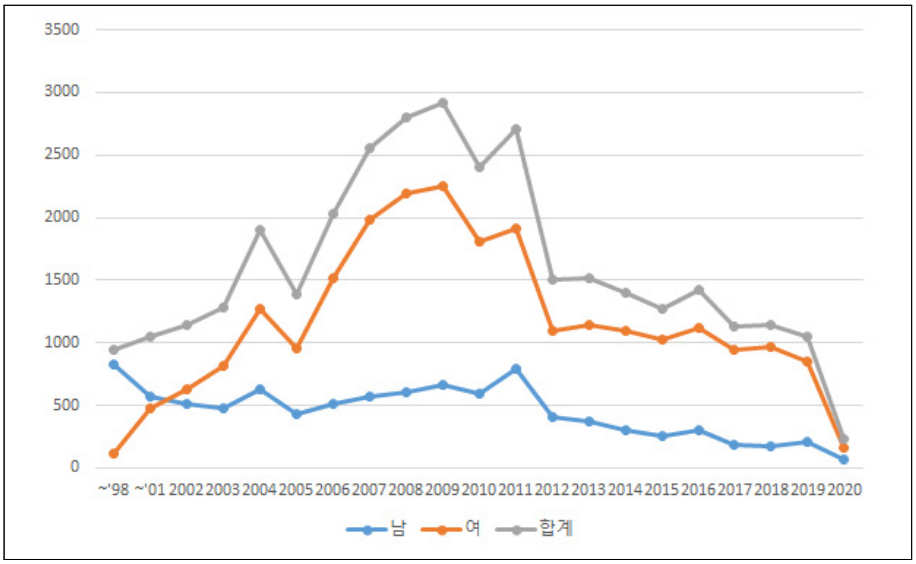
**〈표 Ⅱ-1-1〉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명, %

| 연도 | ~'98 | ~'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남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 여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 합계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 여성비율 | 12.2 | 45.8 | 55.3 | 63.1 | 67.0 | 69.4 | 74.6 | 77.6 | 78.3 | 77.3 | 75.4 | 70.6 |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9(잠정)** | | **계** |
| 남 | 404 | 369 | 305 | 251 | 302 | 188 | 168 | 202 | 72 | 29 | | 9,464 |
| 여 | 1098 | 1145 | 1092 | 1024 | 1116 | 939 | 969 | 845 | 157 | 19 | | 24,336 |
| 합계 | 1,502 | 1,514 | 1,397 | 1,275 | 1,418 | 1,127 | 1,137 | 1,047 | 229 | 48 | | 33,800 |
| 여성비율 | 73.1 | 75.6 | 78.2 | 80.3 | 78.7 | 83.3 | 85.2 | 80.7 | 68.6 | 39.6 | | 72.0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1.12.3.인출)

**[그림 Ⅱ-1-1] 연도별 입국 추세**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1.12.3.인출)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남한의 일반국민과의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며 특히, 실업률(일반국민 3.0%, 탈북민 6.3%)과 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일반국민 264.3만원, 탈북민 204.7만원)의 차이는 크다.

**〈표 Ⅱ-1-2〉 북한이탈주민 주요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만원

| 구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경제활동 참가율 | 탈북민 | 56.5 | 54.1 | 56.9 | 55.3 | 59.4 | 57.9 | 61.2 | 64.8 | 62.1 |
| | 일반국민 | 61.6 | 61.8 | 62.1 | 63.2 | 63.0 | 63.4 | 63.5 | 63.4 | 63.3 |
| | 차이 | △5.1 | △7.7 | △5.2 | △7.9 | △3.6 | △5.5 | △2.3 | 1.4 | △1.2 |
| 고용률 | 탈북민 | 49.7 | 50.0 | 51.4 | 51.7 | 54.6 | 55.0 | 56.9 | 60.4 | 58.2 |
| | 일반국민 | 59.8 | 59.9 | 60.2 | 61.1 | 60.9 | 61.2 | 61.2 | 60.9 | 61.4 |
| | 차이 | △10.1 | △9.9 | △8.8 | △9.4 | △6.3 | △6.2 | △4.3 | △0.5 | △3.3 |
| 실업률 | 탈북민 | 12.1 | 7.5 | 9.7 | 6.4 | 4.8 | 5.1 | 7.0 | 6.9 | 6.3 |
| | 일반국민 | 3.0 | 3.0 | 3.0 | 3.3 | 3.4 | 3.6 | 3.6 | 4.0 | 3.0 |
| | 차이 | 9.1 | 4.5 | 6.7 | 3.1 | 1.4 | 1.5 | 3.4 | 2.9 | 3.3 |

| 구분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 탈북민 | 121.3 | 137.7 | 141.4 | 145.2 | 154.6 | 162.9 | 178.7 | 189.9 | 204.7 |
| | 일반국민 | 203.3 | 210.9 | 218.9 | 224.0 | 230.4 | 237.2 | 243.0 | 255.8 | 264.3 |
| | 차이 | △82.0 | △73.2 | △77.5 | △78.8 | △75.8 | △74.3 | △64.3 | △65.9 | △59.6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6.

2011~2019년 기간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체의 수급률과 비교하면, 일반국민에 비해 탈북민의 수급율이 약 7배가 높아 여전히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1-3〉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현황**

단위: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탈북민 | 46.7 | 40.8 | 35.0 | 32.3 | 25.3 | 24.4 | 24.4 | 23.8 | 23.8 |
| 한국전체 | 2.95 | 2.79 | 2.69 | 2.64 | 3.2 | 3.2 | 3.1 | 3.4 | 3.6 |

주: 2014년 이후 조사의 수치는 모집단 크기만큼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2011, 2012년 조사 대상은 19세 이상, 13년 조사 대상은 20세 이상, 14년 이후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7.

##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제도의 개요는 다음의 〈표 Ⅱ-1-4〉와 같다. 초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지 지원, 취업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1종 지원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은 학비가 기본적으로 면제이다(사립대 진학 시 50%만 지원).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을 배정한다.

**〈표 Ⅱ-1-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 구분 | 항목 | 내용 |
|---|---|---|
| 정착금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지급 |
| | 장려금 | 취업장려금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제3국출생자녀양육 등 요건에 따라 지급 |
| 주거 |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알선 |
|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취업 |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 구분 | 항목 | 내용 |
|---|---|---|
| | 고용지원금<br>(채용기업주에 지급) |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br>(단, 2014.11.29. 이전 입국자) |
| | 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60여 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
| | 기타 |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
|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
| 교육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
| | 학비 지원 |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정착도우미 | -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
| 보호담당관 | -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0명), 취업보호담당관(6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2021.6.1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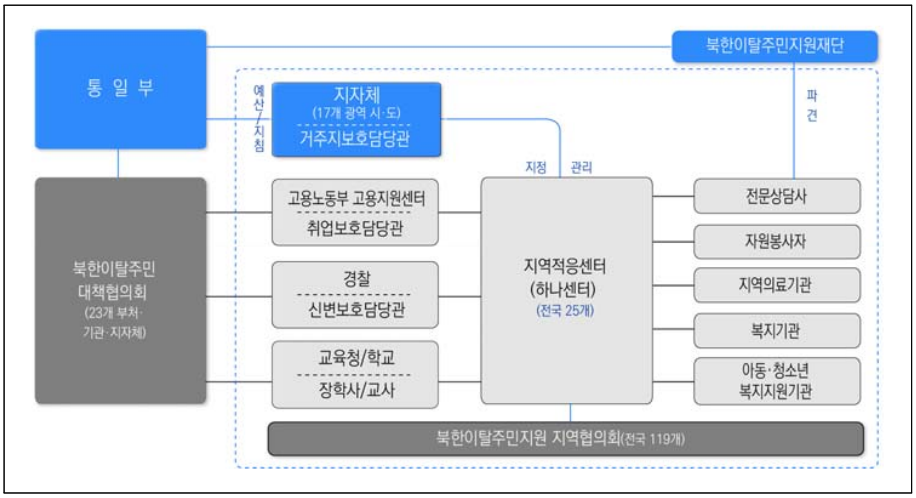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지자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을 협의·조정하여 총괄 추진한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지원하고 있다(그림 Ⅱ-1-2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여기서 거주지란 하나원 퇴소 후 정착한 지역을 의미한다. 보호기간 5년동안 가장 큰 혜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근로능력이 있는 탈북민에게는 하나원 퇴소 후 6개월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한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ocial/, 2021.10. 25. 인출).

한편, 보호기간 5년과는 상관없이 남한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 대학을 입학하는 경우에 한해서 학비를 지원한다. 학비지원은 일반대학은 만35세 미만에 한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연령에 상관없다(통일부 홈페이지,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ducation/, 2021.10.25. 인출).

**[그림 Ⅱ-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자료: 통일부(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14.

## 다.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8)]

정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 12월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을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1: 1). 이후 매3년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고, 지난 5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을 발표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계승하면서(통일부보도자료, 2021.5.18.: 1-2) '탈북민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통일부보도자료, 2021.5.18: 2).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6대 분야 및 24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8) 관계부처합동(2021)의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과 통일부 보도자료(2021.5.18.)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Ⅱ-1-3]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분야 및 정책과제**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목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적인 우리사회 환경 조성
생산적 기여자로서 탈북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
통일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의 안착

**6대분야 24개 정책과제**

| | |
|---|---|
| 1.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1-1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br>1-2 탈북민 단체 지원 및 소통 확대<br>1-3 탈북민 정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 2.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 2-1 지자체의 참여·역할 확대<br>2-2 탈북민 지원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br>2-3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br>2-4 탈북민 보호 체계 내실화<br>2-5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 강화 |
| 3.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 3-1 수요 맞춤 개인별 서비스 확대<br>3-2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br>3-3 심리상담 및 전문분야 교육 지원 |
| 4.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 4-1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br>4-2 탈북민 취업지원 협업체계 강화남<br>4-3 자산형성 지원제도 안착<br>4-4 탈북민 채용유인제도 개선 |
| 5.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 5-1 입국 초기 적응지원<br>5-2 정규학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적응 강화<br>5-3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선<br>5-4 대안교육시설 지원 내실화<br>5-5 탈북학생 잠재역량 강화 지원<br>5-6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br>5-7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
| 6.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 6-1 참여형·맞춤형·실용적 하나원 교육 운영<br>6-2 하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인력 역량 강화 |

자료: 통일부 보도자료(2021.5.18.).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p. 3.

## 2. 북한이탈주민 가정 지원정책과 현황

### 가. 남북하나재단의 분야별 주요 사업[9)]

남북하나재단은 2006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국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착지원업무가 급증하여 당시 북한이탈주민후원회(1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예산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0a: 16).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남북하나재단 설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을 양대 축으로 한 현재의 체계로 개편되었다.

2010년 남북하나재단 설립 당시나 현재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주거·교육·의료·취업 등 문제를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 사회복지시스템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에 재단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2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에 따라 공공시스템 외에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하나재단은 정부의 공공시스템을 대신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정착지원 수요에 대처하고, 민·관의 정착지원체계 조정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26). 남북하나재단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 〈표 Ⅱ-2-1〉과 같다.

**〈표 Ⅱ-2-1〉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 사업**

| 분야 | 주요사업 |
|---|---|
|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 • 거주지 안내, 초기 정착 생필품 및 전자제품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br>• 북한이탈주민 개인별 1:1 맞춤형 사례관리(하나원 생애설계와 연계)<br>• 의료 지원, 생계 안정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 및 안치 지원<br>• 주택 미배정자 등 취약계층 공공생활시설 지원<br>• 전국 25개 하나센터 관리 및 평가, 전문상담사 관리 및 평가<br>• 하나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br>• 콜센터, 심리안정센터 운영<br>• (정착금) 가산금 지급 및 관리 |

9) 남북하나재단(2020a)의 26~66쪽을 바탕으로 작성함.

| 분야 | 주요사업 |
|---|---|
| 자립·자활 지원 |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br>•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운영·지원<br>• 영농 희망자 교육 등 육성 및 영농 정착자 경쟁력 제고<br>• 창업자 지원(소규모 창업 지원, 기 창업자 안정화 지원, 창업 컨설팅 등)<br>• 취업지원센터 운영(취업 지원, 일자리 발굴, 단기연수, 하나센터 연계 취업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인력 역량 강화 등)<br>• 취업바우처, 온라인 직업 교육, 전문직 양성 사업<br>• 청소년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br>• (정착금) 미래행복통장 지급 및 관리 |
| 교육 개발 및 지원 | •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br>• 진로진학 지원 및 예비대학 운영<br>• 글로벌 인재 육성(한미 취업연수, 풀브라이트 장학, 호주·영국 연수 등)<br>• 대학생 리더 육성<br>• 청소년 교육 및 시설 운영·지원(대안학교 및 방과후공부방 등)<br>• **탈북청소년 학력 증진 지원(학습지, 화상영어 지원 등)**<br>• (정착금) 교육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주민통합 및 상호 인식 제고 | • 남북 주민 상호 인식 제고(홍보 매체 기획 및 운영, 소통콘텐츠 발굴 및 확산, 상호 인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br>•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운영·지원<br>•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민간단체 공모사업 등)<br>• 기부금 조성 및 운영 |
| 정책 개발 연구 |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정착 실태조사, 사회통합조사, 청소년실태조사 등)<br>• 정착지원 관련 정책 연구 및 개발<br>• 정착지원 분야 연구커뮤니티 활성화<br>• 정착지원 관련 정보자료관 운영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p. 26-27.

다음 〈표 Ⅱ-2-2〉는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다.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감소로 인해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비용이 2019년 기점으로 급감하였다. 자립자활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이후 정착금 지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개발 및 지원사업,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제고 사업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Ⅱ-2-2〉 남북하나재단 분야별 주요사업 결산(2016-2020)**

단위: 백만원

| 사업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초기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 7,651 | 7,849 | 7,456 | 3,708 | 2,908 |
| 자립자활 지원 | 3,116 | 3,096 | 3,456 | 4,003 | 3,601 |
| 교육개발 및 지원 | 4,832 | 4,672 | 4,209 | 3,596 | 3,111 |

| 사업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제고 | 1,753 | 1,806 | 1,771 | 1,671 | 1,523 |
| 기획 및 조사연구 | 3,096 | 2,701 | 1,144 | 997 | 1,648 |
| 정착금 지급 | - | - | - | 10,203 | 12,026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449&reportFormRootNo=31501#toc-123, (2021.6.17. 인출)



### 1)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 가) 전문상담사 제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는 ① 북한이탈주민 대상 특수성에 맞추어 상담의 수요를 발굴하고, ② 지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연계망을 구축하며, ③ 대상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1), 이들은 심리 또는 취업 분야의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각종 애로 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취업·건강·심리·법률 등 정착생활 전 분야에 걸쳐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를 수행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1).

**〈표 Ⅱ-2-3〉 전문상담사 인원 현황(2010-2020)**

단위: 명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인원 | 91 | 101 | 91 | 92 | 91 | 87 | 88 | 91 | 91 | 80 | 86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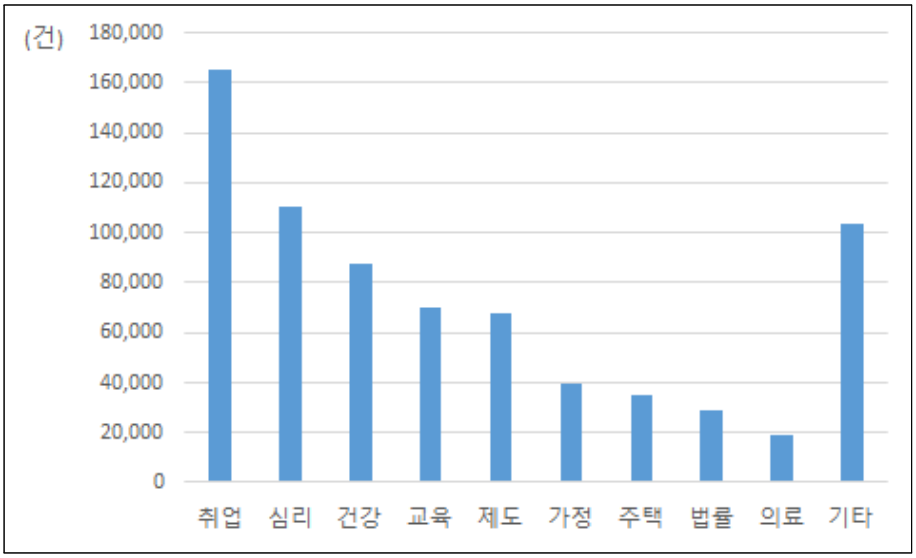
남북하나재단은 전문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2). 전문상담사 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에는 전문상담사 선발 시 관련 자격기준이 취약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전문상담사의 직종을 심리분야와 취업 분야로 구분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32).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어려움, 탈북, 제3국 체류 등을 거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일반국

민(13.6%)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30.6%)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남북하나재단, 2020b: 41),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다(13.0%)(남북하나재단, 2020b: 47). 자살충동 경험의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여성(29.9%)이 남성(25.1%)보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남북하나재단, 2020b: 142).

전문상담사 상담실적에서 이러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총 727,403건의 상담실적 중에서 영역별로는 취업이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하고는 심리, 건강 순이다(표 Ⅱ-2-4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매년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2-1] 상담영역별 전문상담사 상담실적(2019)**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2. 표를 도식화함.

### 나) 심리안정지원센터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심리·정서적 안정을 통해 정착장애 요인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에 경기 수원시에 수도권 심리안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37).

주요 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심리치료(놀이치료 등) 및 상담실(개인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운영, 심리 안정 지원 대상자 공동사례관리(△ 권역별 공동 사례 발표 △ 하나센터 맞춤형 컨설팅), 정착지원 인력 및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 전국 수퍼바이저 자문단 위촉 및 관리 △ 공개 사례 발표 및 수퍼비전 △ 사례관리 및 상담 특성화 교육 △ 정착지원 현장 인력에 대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네트워크 사업이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7).



**〈표 Ⅱ-2-4〉 심리 안정 지원 대상자 관리 현황(2017-2019)**

단위: 명

| 구분 | 총 인원 | 고위험군 | 잠재적 위험군 | 일반사례군 | 종결 | 기타[2] |
|---|---|---|---|---|---|---|
| 2017 | 545 | 85 | 107 | 130 | 39 | 184 |
| 2018 | 721 | 110 | 201 | 164 | 199 | 47 |
| 2019[1] | 309 | 58(집중) | 183(집중) | 33(집중) | 3 | 17 |
| 합계 | 1,575 | 253 | 491 | 327 | 241 | 248 |

주: 1) 2019년 2분기까지의 현황임.
2) 기타: 타지 전출, 확인 불가, 서비스 거부 등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8.

심리안정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가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서 취업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사업임을 의미한다.

### 다)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는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초기 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20: 131). 특히 하나센터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당 지자체의 참여와 민간기관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통일부, 2020: 131).

하나센터는 통일부가 지자체를 통해 지역하나센터 운영 기관 지정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현재 25개 센터가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33).

**〈표 Ⅱ-2-5〉 시·도별 하나센터 지정 현황**

단위: 개

| 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
| 센터수 | 4 | 1 | 1 | 1 | 1 | 1 | 1 | 6 | 2 |
| **지역**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센터수 | 1 | 1 | 1 | 1 | 1 | 1 | 1 | 25 |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34.

(2) 기능

하나센터의 주요 기능은 "관할지역 전입자 신병인수 및 초기 전입지원,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취업지원, 사례관리, 정착지원 유관기관 협력연계 등"(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main_business/sub06.jsp, 2021.6.17. 인출)이다.

지역적응지원은 9개 영역(교육 및 진학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안정지원, 법률지원, 주민통합사업, 인권교육, 기타 사후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1개 프로그램 이상은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통일부, 2020: 134).

북한이탈주민 사례관리는 정착 및 적응 과정에서 겪는 문제와 욕구를 입체적이고 심도있게 파악하여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통일부, 2020: 136). 초기 전입일 기준 6개월 간 모든 초기전입자는 사례관리 대상이 된다. 전입 6개월 시점에 재사정을 통해 분류기준을 변경 또는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전입 6개월 이상 (보호기간) 5년 이내의 탈북민의 경우는 문제와 욕구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5년 이후는 요보호자 중심으로 선별, 집중 관리한다(통일부, 2020: 136).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하나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변의 인프라와 연계협력해서 운영한다. 즉, 통합지원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북부하나센터는 인근의 고려대안암병원과 서울의료원과 연계하여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제공한다(공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ongreung.or.kr/main/sub.html?pageCode=12, 2021.6.17. 인출).

### 2) 취약계층지원-긴급생계지원

2011년부터 사회적 지지체계 및 경제적 기반의 약화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가족)에게 긴급생계비 지급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2019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재단 간 직접 지원 서비스에서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한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41).

긴급생계비 지원의 경우 2011~2019년까지는 입국년도에 따라 신청제한(입국일로부터 15년 이내인 사람)해오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입국년도 및 신청횟수 제한을 없애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0a: 41).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증질환, 가족해체(가족상실), 세대주 근로능력 상실(한부모, 다자녀, 고령화 등 가정상황 고려), 출소자, 등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기준 긴급생계비 지원은 1인 생애 300만원, 연 1회 최고 100만원이다(남북하나재단, 2020a: 41).

**〈표 Ⅱ-2-6〉 긴급생계비 지원 현황(2011-2019)**

단위: 명, 천원

| 구분 | 지원수 | 지원금액 |
|---|---|---|
| 2011 | 204 | 68,323 |
| 2012 | 258 | 104,017 |
| 2013 | 577 | 247,479 |
| 2014 | 495 | 259,879 |
| 2015 | 487 | 242,100 |
| 2016 | 292 | 143,929 |
| 2017 | 248 | 152,500 |
| 2018 | 206 | 149,132 |
| 2019 | 490 | 377,733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41.

긴급생계비 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30, 40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기간 5년이 지나서 받

는 경우가 5년 미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Ⅱ-2-7 참조).

**〈표 Ⅱ-2-7〉 2017년-2020년 상반기 긴급생계비 개인특성별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 지원연도 | | | | 총계 |
|---|---|---|---|---|---|---|
| | | 2017 | 2018 | 2019 | 2020상반기 | |
| 성별 | 남성 | 70 | 58 | 85 | 78 | 291 |
| | 여성 | 179 | 148 | 245 | 163 | 735 |
| 연령 | 20대 이하 | 11 | 15 | 28 | 24 | 78 |
| | 30대 | 29 | 46 | 61 | 49 | 185 |
| | 40대 | 56 | 65 | 94 | 58 | 273 |
| | 50대 | 81 | 51 | 84 | 70 | 286 |
| | 60대이상 | 72 | 29 | 63 | 40 | 204 |
| 거주 기간 | 3년 미만 | 30 | 35 | 35 | 16 | 116 |
| | 3-5년 | 36 | 30 | 48 | 28 | 142 |
| | 6-10년 | 98 | 82 | 118 | 67 | 365 |
| | 11-15년 | 85 | 59 | 102 | 82 | 328 |
| | 15년 초과 | - | - | 24 | 48 | 72 |
| | 거주기간 불명 | - | - | 3 | - | 3 |
| 총계 | | 249 | 206 | 327 | 241 | 1,0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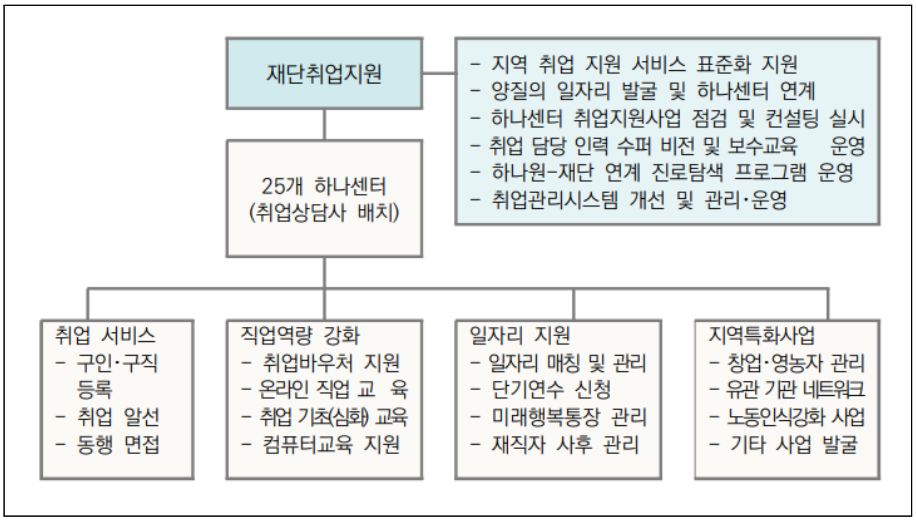
자료: 김정근, 전호성, 한은희, 서지현(2020). 탈북민 취약계층 (생계, 의료) 지원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남북하나재단. p. 58.

### 3) 자립 및 자활지원

#### 가) 취업지원 및 직업역량 강화

취업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직업능력 개발, 연수,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53). 취업지원사업은 각 하나센터에 배치된 취업전문상담사(이하 취업상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역 취업지원사업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취업지원센터운영포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a: 53).

**[그림 Ⅱ-2-2] 취업지원사업 추진 체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5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재단의 취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구직자의 취업률은 2017년 64.2%, 2018년 65.9%, 2019년 69.4%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표 Ⅱ-2-8〉 연도별 취업률(2012-2019)**

단위: 명, %

| 구분 | 구직 등록 | 구인 등록 | 알선 | 취업 | 취업률 (취업/구직) |
|---|---|---|---|---|---|
| 2012 | 1,235 | 968 | 1,458 | 405 | 32.9 |
| 2013 | 1,597 | 1,605 | 1,521 | 594 | 37.5 |
| 2014 | 1,812 | 1,257 | 1,097 | 763 | 42.1 |
| 2015 | 2,508 | 2,008 | 1,853 | 1,244 | 48.8 |
| 2016 | 2,540 | 2,801 | 2,203 | 1,428 | 56.2 |
| 2017 | 2,466 | 3,344 | 2,220 | 1,523 | 61.8 |
| 2018 | 2,375 | 2,478 | 2,034 | 1,659 | 69.9 |
| 2019 | 2,444 | 2,487 | 2,230 | 1,696 | 69.4 |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p. 56.

## 3.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통합지원사업[10)]

### 가. 국내: 드림스타트 사업

#### 1) 사업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2) 정부사업이다.

전국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사업대상을 발굴하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3). 현재 드림스타트 센터는 229개이다.

**〈표 Ⅱ-3-1〉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2015~현재)**

단위: 개

| 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경북 | 경남 | 대구 | 충북 | 충남·세종 |
|---|---|---|---|---|---|---|---|---|---|
| 합계 | 25 | 31 | 10 | 16 | 23 | 18 | 8 | 11 | 15·1 |
| **지역** | **광주** | **강원** | **대전** | **전남** | **전북** | **울산** | **제주** | **계** | |
| 합계 | 5 | 18 | 5 | 22 | 14 | 5 | 2 | 229 |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3.

#### 2) 사업내용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3-2〉와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사업인 '아동통합사례관리'란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적·전문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 및 기족 기능 향상, 안정적 양육환경을 위한 탈빈곤 지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0) 남한 태생이 대부분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이나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 받는다. 우리나라 아동 및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최근까지 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동 및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은 이정림, 구자연, 최윤경, 정정호(2020)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육아정책연구소)의 36-58쪽을 참조바란다.

38)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사례관리는 아동의 욕구와 가구여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을(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38) 지니고 있다. 통합에는 서비스 통합(발달영역별), 방법론 통합(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 전달체계의 통합(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이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38). 대상자 발굴은 행복e음 내 취약계층 아동 중 가정방문을 통한 드림스타트 자체 발굴과 본인 또는 타인이 의뢰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40).



**〈표 Ⅱ-3-2〉 드림스타트 사업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전반 관련 자문(연 1회 이상)<br>-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분기별 1회 이상)<br>- 슈퍼비전: 실문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내외부 수시 개최) |
| 아동통합사례관리 |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위기아동 등) 발굴<br>-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br>-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및 점검<br>-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자원관리 |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br>-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봉e음) 내 등록된 자원의 총괄 관리 |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공공사례관리 사업 등)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br>- 단편적인 욕구가 있어 단기간 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상황 호전이 가능한 경우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아닌 '서비스 연계' 실시 |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p. 10. 내용을 표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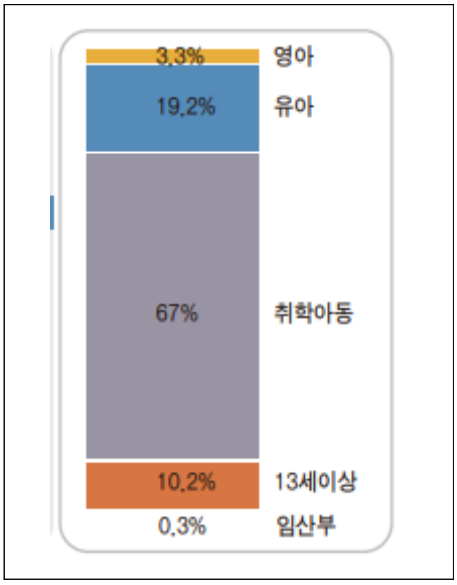
### 3)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

신규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첫 상담을 진행하는 초기상담 대상자(가구)는 2007년 3,769명(2,464가구)에서 2019년 156,439명(102,459가구)으로 약 40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20). 연령별로는 2019년 기준 취학아동(7-12세)이 52.1%로 가장 많고, 13세 이상[11] 31.9%, 유아 12.7%, 영

11)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종결 연령이 되어도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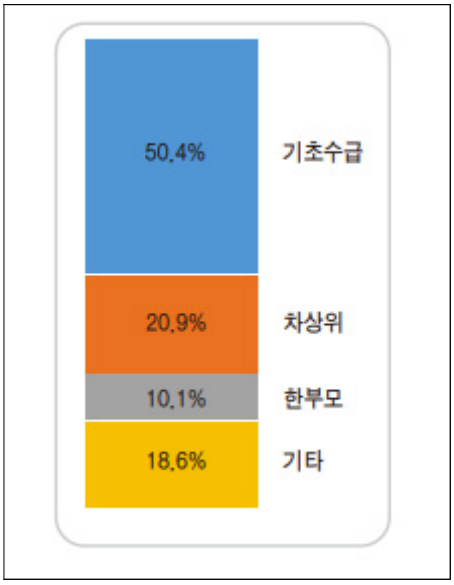
아 1.9%, 임산부 1.3% 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30). 보장유형별로는 기초수급가구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기타를 제외한 차상위, 한부모 순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32). 가구유형별로는 한부모 가구가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부중심가구 44.8%, 조손가구 4.0%, 미혼부모가구 2.8% 순이다. 북한이탈주민 가구도 1.0%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35).

**[그림 Ⅱ-3-1]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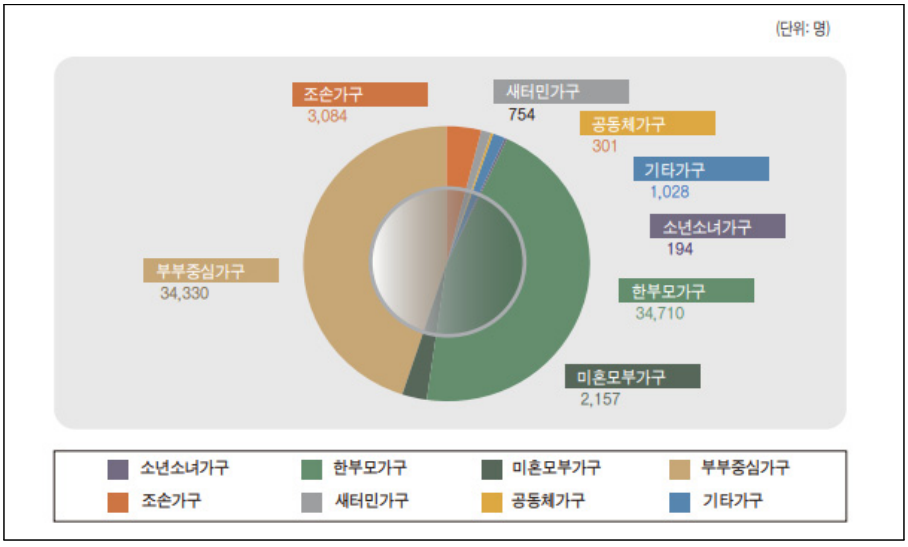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1.

**[그림 Ⅱ-3-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보장유형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3.

**[그림 Ⅱ-3-3]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유형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19년도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p. 36.

## 나. 국외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국외의 아동통합서비스로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호주의 베스트스타트[12], 뉴질랜드의 패밀리스타트 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헤드스타트 사업은 1965년에 출발한 역사가 오래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영유아 지원사업이 3세 미만과 3~5세 미만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으며, 사업 효과에서도 교육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 측면, 법적 안정성(범죄비용 감소)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87).

슈어스타트 사업은 1998년부터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를 목적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교육, 보육, 건강, 취업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89).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비용, 조기투자비용에 관한 사회적 환원 비용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되었

12) 상세한 내용은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2019)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연구보고서를 참조바람.

다. 예컨대,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통해 대상 아동 1인당 1파운드를 투입했을 때, 사회적 환원비용은 12.5파운드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됨(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1). 이외에도 가정 내 엄격한 훈육이 감소되었고, 가족해체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학업성취도의 변화는 긍정적인 편이고, 차량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1).

베스트스타트 사업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부터 취학아동(0~8세)을 대상으로 예방 및 조기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2). 베스트스타트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건강과 안녕, 학습과 발달, 안전 등 3개 평가지표로 평가하며 결과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하여 타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4).

패밀리스타트 사업은 1989년에 도입하여 아동의 문제 해결 시, 반드시 가족의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4). '가족강점접근(Family Strength Approach)'를 도입하여 예방적, 통합적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 아동의 건강증진, 교육 및 사회적 성취 달성 2) 부모의 양육기술 및 역량 강화 3) 부모의 개인적·가족적 환경 개선의 세부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1). 이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 및 가족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영향, 아동 및 가족의 욕구와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실시되는데, 고위험 가족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 양육자의 양육기술 향상 및 가족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1: 196).

〈표 Ⅱ-3-3〉 국외의 빈곤아동 통합지원 사업 비교

| 구분 | 목적 | 지원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재원 | 전달체계 | 제공 서비스 |
|---|---|---|---|---|---|---|
| 헤드 스타트[1] | •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 헤드스타트: 만 3~5세<br>• 조기헤드스타트: 3세 미만 영아와 임산부 | • 미국 연방정부의 빈곤선 이하 가정 아동<br>• 공공부조 수급 가정, 노숙 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 아동 | • 약 80% 연방정부 예산, 약 20%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재원<br>• 2018년 기준 연간 예산: 약 98억 3,870만 달러 | •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HHS) 내에 아동가족국(ACF) 담당<br>• 아동가족국 산하 헤드스타트 사무소(OHS) 운영: 헤드스타트 센터 관리·감독<br>• 헤드스타트 센터: 프로그램 수행 | • 헤드스타트: 교육, 부모 참여, 건강진단, 사회봉사, 영양, 교사진과 부모들을 위한 진로지도<br>• 조기헤드스타트: 가정 내외의 유아교육, 부모교육, 임신전후에 대한 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제공, 가족지원과 영양교육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 슈어 스타트[1] | •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보장 | • 중점대상: 만 4세 미만 아동 및 가족<br>• 만 14세 이하 아동 및 가족(장애아동 만 16세 이하) | • 아동영향소득박탈(IDAC) 지수 근거 하위 20%<br>• 2004년 이후 하위 30%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 사업 | •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br>• 2009년까지 약 18억 파운드로 증액되었다가 이후 계속 감소: 2019년 기준 약 6억 파운드 |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가 담당<br>• 지방정부별로 조직구조 및 전달체계가 상이함<br>• 슈어스타트의 핵심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아동센터 | • 해당 지역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br>• 핵심 서비스: 아웃리치 및 가정 방문, 가족 및 부모 지원, 양질의 놀이, 학습, 돌봄 지원, 아동 보건 및 발달에 대한 일차 지역 의료 및 상담, 특수한 필요 지원 |
| 베스트 스타트[1] | • 0~8세 아동의 건강, 발달, 학습 및 복지 증진 | •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포함하여 모든 0~8세 아동 | • 취약성이 있는 환경에 있는 아동 우선 지원: 가정 외 보호, 학대 또는 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주 초기 단계의 이민자 또는 난민, 장애나 발달 지체가 있는 경우, 고립된 농촌 지 | • 빅토리아 주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br>• 조력자 인건비 80%, 관리·운영비 20%<br>•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수행되는 교육비나 사업비가 | • 빅토리아주의 교육부가 주도하며, 보건복지부 및 기타 주 정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실시<br>• 지역사회 내 주체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성 | •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사업<br>• 프로그램 내용: 산전관리, 부모교육 및 지원, 0~8세 아동 교육 기회 제공, 부모 역량 강화 지원, 보건 정보 제공, |

| 구분 | 목적 | 지원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재원 | 전달체계 | 제공 서비스 |
|---|---|---|---|---|---|---|
| | | | 역에 거주하는 경우, 유동적 거주지로 거주지가 불안정한 경우 | 투입됨 | • 조력자(facilitator)가 네트워크 구축 및 실행, 모니터링 등의 역할 담당 |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가정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 |
| 패밀리 스타트[2] | • '가족강점접근(Family Strenth Approach)'을 도입하여 예방적·통합적(건강, 보육, 복지 등) 조기개입 및 지원을 통해 아동이 속한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 | • 임신 3개월~출산 후 1년 이내 조기 개입 후 최대 5년간 지원 | • 빈곤가구 중에서도 특히 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고위험 가정(뉴질랜드 가정의 5%) | - | • 사회개발부, 보건부, 교육부 3개 부처가 지원<br>• 정부와 각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 서비스는 가족복지사가 수행 | • 아동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관계, 가족상황, 환경과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집중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br>• 부모의 긍정적 양육기술과 가족의 목표 성취를 스스로 강화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프로그램 |

자료: 1) 유해미 외(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p. 172. 〈표 Ⅳ-2-2〉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함;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pp. 184-192.

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pp. 194-196.

# III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일반 및 취약가정과 비교분석


01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특성

02 건강

03 발달 및 교육

04 관계

05 양육 및 돌봄

06 여가 및 활동

07 안전 및 위험행동

08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09 물질적 환경

10 기타: 정책 인지도 및 가구소득 등

11 소결

# Ⅲ.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일반 및 취약가정과 비교분석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앞서 진술했듯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영유아 가정과 비교분석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1.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특성

본 설문조사의 영유아 151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74.2%로 가장 많았고, 둘째 21.9%, 셋째 4%로 나타났다. 여아가 절반이상을 차지해서 남아보다 많았다. 출생국가는 남한이 95.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중국, 북한,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극히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98.7%가 장애가 없이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약 72%를 차지하는 여성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녀출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아버지 국적은 남한 24.5%, 북한 20.5%, 중국 7.3% 순이었다. 설문조사의 응답기준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구원'이어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버지 71%는 "가족내 아버지 없음"으로 처리했다.

**〈표 Ⅲ-1-1〉 본 설문조사 영유아 특성**

단위: %(명)

| 구분 | 비율(수) | 구분 | 비율(수) |
|---|---|---|---|
| 전체 | 100.0(151) | 전체 | 100.0(151) |
| **출생순위** | | **자녀성별** | |
| 첫째아 | 74.2(112) | 남아 | 45.0(68) |

| 구분 | 비율(수) | 구분 | 비율(수) |
|---|---|---|---|
| 둘째아 | 21.9( 33) | 여아 | 55.0(83)_ |
| 셋째아 | 4.0( 6) | **아버지 출생국가** | |
| **자녀출생국가** | | 북한 | 20.5(31) |
| 북한 | 0.7( 1) | 중국 | 7.3(11) |
| 중국 | 3.3( 5) | 남한 | 24.5(37) |
| 남한 | 95.4(144) | 기타 | 0.7( 1) |
| 기타 | 0.7( 1) | 가족내 아버지 없음 | 47.0(71) |
| **자녀장애유무** | | | |
| 장애있음 | 1.3(2) | 장애없음 | 98.7(149) |

# 2. 건강

## 가. 자녀 건강

### 1) 건강상태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4.49점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좋다 63.6%, 좋다 23.8%, 보통이다 11.3% 순이며 나쁘다(매우 나쁘다 포함)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건강은 일반가정의 영유아들(평균 4.53점) 보다 안 좋은 것으로 나왔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인은 가구유형, 수급여부이다. 한부모 가구(4.28점)는 양부모 가구(4.68점)보다, 수급가구(4.29점)는 비수급가구(4.68점)보다 낮았으며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수도권(4.58점), 중위소득 50% 이상(4.69점) 가구가 건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Ⅲ-2-1〉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63.6 | 23.8 | 11.3 | 0.7 | 0.7 | 100.0(151) | 4.49 | 0.77 |
| **가구유형** | | | | | | | | |
| 양부모 | 76.3 | 16.3 | 6.3 | 1.3 | - | 100.0( 80) | 4.68 | 0.65 |
| 한부모 | 49.3 | 32.4 | 16.9 | - | 1.4 | 100.0( 71) | 4.28 | 0.85 |
| *t* | | | | | | | 3.165** | |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거주지역** | | | | | | | | |
| 수도권 | 62.4 | 22.8 | 12.9 | 1.0 | 1.0 | 100.0(101) | 4.45 | 0.83 |
| 비수도권 | 66.0 | 26.0 | 8.0 | - | - | 100.0( 50) | 4.58 | 0.64 |
| *t* | | | | | | | -1.005 | |
| **자녀 연령** | | | | | | | | |
| 영아 | 69.1 | 17.6 | 13.2 | - | - | 100.0( 68) | 4.56 | 0.72 |
| 유아 | 59.0 | 28.9 | 9.6 | 1.2 | 1.2 | 100.0( 83) | 4.43 | 0.81 |
| *t* | | | | | | | 0.989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5년 이하 | 57.7 | 30.8 | 11.5 | - | - | 100.0( 26) | 4.46 | 0.71 |
| 5년 초과 | 64.8 | 22.4 | 11.2 | 0.8 | 0.8 | 100.0(125) | 4.50 | 0.79 |
| *t* | | | | | | | -0.206 | |
| **수급 여부** | | | | | | | | |
| 비수급 | 74.4 | 20.5 | 3.8 | 1.3 | - | 100.0( 78) | 4.68 | 0.61 |
| 수급 | 52.1 | 27.4 | 19.2 | - | 1.4 | 100.0( 73) | 4.29 | 0.87 |
| *t* | | | | | | | 3.169** | |
| **가구소득**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56.2 | 25.8 | 15.7 | 1.1 | 1.1 | 100.0( 89) | $4.35^{a}$ | 0.87 |
| 중위소득 50% 이상 | 74.1 | 20.7 | 5.2 | - | - | 100.0( 58) | $4.69^{b}$ | 0.57 |
| 무응답 | 75.0 | 25.0 | - | - | - | 100.0( 4) | $4.75^{ab}$ | 0.50 |
| *F* | | | | | | | 3.787* | |
| **조사구분**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5.6 | 42.0 | 1.6 | 0.7 | - | 100.0(850) | 4.53 | 0.57 |
| *t* | | | | | | | -0.543 | |

주: 1)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수급)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같은 수급 가정이라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4.29점, 일반가정이 4.35점으로 전자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비수급)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의 건강상태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4.68점으로 일반가정 4.56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왔다.

요컨대, 수급가정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비수급가정은 일반가정의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건강이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 수급여부별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47.3 | 40.9 | 9.4 | 2.0 | 0.5 | 100.0(203) | 4.33 | 0.77 |
| 북한이탈가정 | 52.1 | 27.4 | 19.2 | - | 1.4 | 100.0( 73) | 4.29 | 0.87 |
| 일반가정 | 44.6 | 48.5 | 3.8 | 3.1 | - | 100.0(130) | 4.35 | 0.70 |
| *t* | | | | | | | -0.490 | |
| **비수급** | 59.3 | 38.8 | 1.5 | 0.4 | - | 100.0(798) | 4.57 | 0.55 |
| 북한이탈가정 | 74.4 | 20.5 | 3.8 | 1.3 | - | 100.0( 78) | 4.68 | 0.61 |
| 일반가정 | 57.6 | 40.8 | 1.3 | 0.3 | - | 100.0(720) | 4.56 | 0.54 |
| *t* | | | | | | | 1.864 | |

주: 1)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2)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한부모 가구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4.28점)가 일반 한부모 가구(4.45점)보다 자녀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가 있는 가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4.68점)의 자녀가 일반가정(4.54점)보다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가구유형별 주양육자가 평가한 자녀의 건강상태**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 | 48.5 | 43.4 | 7.1 | 0.5 | 0.5 | 100.0(198) | 4.39 | 0.69 |
| 북한이탈가정 | 49.3 | 32.4 | 16.9 | - | 1.4 | 100.0( 71) | 4.28 | 0.85 |
| 일반가정 | 48.0 | 49.6 | 1.6 | 0.8 | - | 100.0(127) | 4.45 | 0.57 |
| *t* | | | | | | | -1.482 | |
| **양부모** | 58.9 | 38.2 | 2.1 | 0.7 | - | 100.0(803) | 4.55 | 0.58 |
| 북한이탈가정 | 76.3 | 16.3 | 6.3 | 1.3 | - | 100.0( 80) | 4.68 | 0.65 |
| 일반가정 | 57.0 | 40.7 | 1.7 | 0.7 | - | 100.0(723) | 4.54 | 0.57 |
| *t* | | | | | | | 1.992* | |

주: 1)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2)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 $p < .05$.

자녀의 건강상태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자녀가 4.28점으로 가장 나쁘고,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자녀가 4.29점으로 다음을 차지한다.

### 2) 저체중 및 비만율[13)]

출생 당시 자녀가 저체중인 경우는 5.3%로 일반가정의 5.4%와 거의 동일하였다.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영유아들은 정상 체중으로 출생하였다. 비만율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영유아의 차이가 거의 없이 대부분이 정상이나 다만, 과체중이 탈북가정에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자녀의 저체중 출생률 및 현재 비만율**

단위: %(명)

| 구분 | 저체중 | | | | 비만율 | | | |
|---|---|---|---|---|---|---|---|---|
| | 예 | 아니오 | 모름 | 계(수) | 정상 | 과체중 | 비만 | 계(수) |
| 탈북가정 | 5.3 | 93.4 | 1.3 | 100.0(151) | 79.4 | 8.4 | 12.1 | 100.0(107) |
| 일반가정 | 5.4 | 94.5 | 0.1 | 100.0(850) | 81.5 | 6.5 | 12.0 | 100.0(642) |

주: 1) 탈북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2) 비만율은 조사대상 아동의 BMI 지수(체질량 지수, kg/㎡)의 백분위수가 85 미만인 경우 '정상', 85 이상~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95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분류함.[14)]
3) 응답자가 자녀의 키와 몸무게를 모를 경우, 무응답 처리한 결과임.

수급 가구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보다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도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과체중, 비만이 약간 더 많았다. 정상이 가장 많은 집단은 수급, 비수급 가구 모두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다.

과제중과 비만은 많이 섭취하고 적게 활동하는 데서 비롯되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13) 본 조사에 이용한 몸무게와 키 값은 측정치가 아닌 자가응답한 것으므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류정희 외, 2019: 158).

14)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소아과학회의 비만 선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연령별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이면서 95백분위수 미만의 경우 과체중,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은 비만으로 구분하였다(류정희 외, 2019: 158).

**〈표 Ⅲ-2-5〉 수급여부별 자녀 비만율**

단위: %(명)

| 구분 | 정상 | 과체중 | 비만 | 계(수) |
|---|---|---|---|---|
| **수급** | 86.3 | 6.3 | 7.5 | 100.0(160) |
| 북한이탈가정 | 81.5 | 9.3 | 9.3 | 100.0( 54) |
| 일반가정 | 88.7 | 4.7 | 6.6 | 100.0(106) |
| $x^2(df)$ | 0.632(2) | | | |
| **비수급** | 79.8 | 7.0 | 13.2 | 100.0(589) |
| 북한이탈가정 | 77.4 | 7.5 | 15.1 | 100.0( 53) |
| 일반가정 | 80.0 | 6.9 | 13.1 | 100.0(536) |
| $x^2(df)$ | 0.103(2) | | | |

주: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가구유형별 자녀 비만율도 위의 수급여부별 결과와 동일하게 나왔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이 일반 한부모 가정보다 과체중, 비만이 많았다. 양부모 가정 변인도 동일하다. 정상은 한부모, 양부모 모두 일반가정이 많았다.

**〈표 Ⅲ-2-6〉 가구유형별 자녀 비만율**

단위: %(명)

| 구분 | 정상 | 과체중 | 비만 | 계(수) |
|---|---|---|---|---|
| **한부모** | 84.5 | 5.8 | 9.7 | 100.0(155) |
| 북한이탈가정 | 82.4 | 7.8 | 9.8 | 100.0( 51) |
| 일반가정 | 85.6 | 4.8 | 9.6 | 100.0(104) |
| $x^2(df)$ | 0.345(2) | | | |
| **양부모** | 80.3 | 7.1 | 12.6 | 100.0(594) |
| 북한이탈가정 | 76.8 | 8.9 | 14.3 | 100.0( 56) |
| 일반가정 | 80.7 | 6.9 | 12.5 | 100.0(538) |
| $x^2(df)$ | 0.126(2) | | | |

주: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 3) 적절한 치료 정도

필요할 때, 자녀가 병의원치료나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병의원은 6.6%, 치과는 12.6%로 치과치료를 제때 못 받은 경우가 2배가량 많았다. 치과치료의 경우, 일반가정의 영유아(1.4%)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유의하게 컸다. 전반적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병의원 및 치과치료를 제때 못 받은 경우가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특히, 치과치료는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단위: %(명)

| 구분 | 병의원 | | | 치과 | | | 계(수) |
|---|---|---|---|---|---|---|---|
|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
| 전체 | 6.6 | 70.9 | 22.5 | 12.6 | 57.6 | 29.8 | 100.0 (151)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5.0 | 78.8 | 16.3 | 6.3 | 62.5 | 31.3 | 100.0 ( 80) |
| 한부모 | 8.5 | 62.0 | 29.6 | 19.7 | 52.1 | 28.2 | 100.0 ( 71) |
| $x^2(df)$ | 5.138(2) | | | 6.247(2)* | |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4.0 | 70.3 | 25.7 | 11.9 | 56.4 | 31.7 | 100.0 (101) |
| 비수도권 | 12.0 | 72.0 | 16.0 | 14.0 | 60.0 | 26.0 | 100.0 ( 50) |
| $x^2(df)$ | 4.688(2) | | | .556(2) | | | |
| **남한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11.5 | 61.5 | 26.9 | 23.1 | 46.2 | 30.8 | 100.0 ( 26) |
| 5년 초과 | 5.6 | 72.8 | 21.6 | 10.4 | 60.0 | 29.6 | 100.0 (125) |
| $x^2(df)$ | 1.802(2) | | | 3.475(2) | | |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6.4 | 73.1 | 20.5 | 7.7 | 64.1 | 28.2 | 100.0 ( 78) |
| 수급 | 6.8 | 68.5 | 24.7 | 17.8 | 50.7 | 31.5 | 100.0 ( 73) |
| $x^2(df)$ | .410(2) | | | 4.383(2) | | |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50% 미만 | 7.9 | 67.4 | 24.7 | 16.9 | 57.3 | 25.8 | 100.0 ( 89) |
| 중위50%이상 | 5.2 | 75.9 | 19.0 | 5.2 | 56.9 | 37.9 | 100.0 ( 58) |
| 무응답 | - | 75.0 | 25.0 | 25.0 | 75.0 | - | 100.0 ( 4) |
| $x^2(df)$ | N/A | | | N/A | | |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 | 2.4 | 89.3 | 8.4 | 1.4 | 84.0 | 14.6 | 100.0 (850) |
| $x^2(df)$ | 37.357(2)*** | | | 80.399(2)*** | | | |

* $p < .05$, *** $p < .001$.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의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급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일반 수급가구에 비해 병의원 및 치과치료를 필요할 때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치과치료는 탈북 수급가구가 못 받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의 경우도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필요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병의원과 치과치료 모두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8〉 수급여부별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단위: %(명)

| 구분 | 병의원 | | | 계(수) | 치과 | | | 계(수) |
|---|---|---|---|---|---|---|---|---|
|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
| **수급** | 5.9 | 76.8 | 17.2 | 100.0 (203) | 9.9 | 67.5 | 22.7 | 100.0 (203) |
| 북한이탈가정 | 6.8 | 68.5 | 24.7 | 100.0 ( 73) | 17.8 | 50.7 | 31.5 | 100.0 ( 73) |
| 일반가정 | 5.4 | 81.5 | 13.1 | 100.0 (130) | 5.4 | 76.9 | 17.7 | 100.0 (130) |
| $x^2(df)$ | 4.841(2) | | | | 16.030(2)*** | | | |
| **비수급** | 2.3 | 89.0 | 8.8 | 100.0 (798) | 1.4 | 83.2 | 15.4 | 100.0 (798) |
| 북한이탈가정 | 6.4 | 73.1 | 20.5 | 100.0 ( 78) | 7.7 | 64.1 | 28.2 | 100.0 ( 78) |
| 일반가정 | 1.8 | 90.7 | 7.5 | 100.0 (720) | 0.7 | 85.3 | 14.0 | 100.0 (720) |
| $x^2(df)$ | 22.656(2)*** | | | | 37.971(2)*** | | | |

주: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 $p < .001$.

가구유형별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모두, 일반가정의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에 비해 필요할 때 병의원 및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2-9〉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가 필요한 치료/검사 받지 못했던 경험**

단위: %(명)

| 구분 | 병의원 | | | | 치과 | | | |
|---|---|---|---|---|---|---|---|---|
|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계 (명) |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치료/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계 (명) |
| **한부모** | 3.5 | 79.8 | 16.7 | 100.0(198) | 8.1 | 72.2 | 19.7 | 100.0(198) |
| 북한이탈가정 | 8.5 | 62.0 | 29.6 | 100.0( 71) | 19.7 | 52.1 | 28.2 | 100.0( 71) |
| 일반가정 | 0.8 | 89.8 | 9.4 | 100.0(127) | 1.6 | 83.5 | 15.0 | 100.0(127) |
| $x^2(df)$ | 23.044(2)*** | | | | 28.783(2)*** | | | |
| **양부모** | 2.9 | 88.2 | 9.0 | 100.0(803) | 1.9 | 81.9 | 16.2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 | 5.0 | 78.8 | 16.3 | 100.0( 80) | 6.3 | 62.5 | 31.3 | 100.0( 80) |
| 일반가정 | 2.6 | 89.2 | 8.2 | 100.0(723) | 1.4 | 84.1 | 14.5 | 100.0(723) |
| $x^2(df)$ | 7.566(2)* | | | | `25.681(2)*** | | | |

주: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 $p < .05$, *** $p < .001$.

필요할 때 병의원치료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과 비교해 본 결과,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의 한계는 있으나, 사유가 다르게 나왔다. 탈북가정은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면, 일반가정은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음'이 가장 많았다. 두 집단 모두 2순위는 '경제적 이유(비용부담)'를 꼽았다.

**〈표 Ⅲ-2-10〉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병의원**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방문할 시간이 없음 | 40.0 | 10.0 |
| 경제적 이유(비용부담) | 30.0 | 20.0 |
|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음 | 20.0 | 45.0 |
|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음 | 10.0 | 5.0 |
| 의료기관이 너무 멂 | - | 15.0 |
| 보호자가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함 | - | 5.0 |
| 계 | 100.0(10) | 100.0(20) |

주: 1) '자녀가 필요한 병의원 치료/검사를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름(정보부족)' 및 '거동 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 어려움'은 값이 없음.

앞서 살펴본 대로 치과치료는 병의원치료보다 필요할 때,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경제적 이유(비용부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문할 시간이 없음'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 어려움' '검사을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음' 순으로 나왔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은 '경제적 이유(비용부담)' '방문할 시간이 없음'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음' 순이었다.

두 집단 모두 경제적 이유(비용부담)로 치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11〉 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 치과**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경제적 이유(비용부담) | 52.6 | 33.3 |
| 방문할 시간이 없음 | 15.8 | 25.0 |
| 거동 불편,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 어려움 | 10.5 | - |
|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음 | 10.5 | 25.0 |
| 치과가 너무 멂 | 5.3 | - |
|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음 | 5.3 | - |
| 보호자가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함 | - | 8.3 |
|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모름(정보부족) | - | 8.3 |
| 계 | 100.0(19) | 100.0(12) |

주: 1) '자녀가 필요한 치과 치료/검사를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함.
2)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나. 자녀의 일상생활

### 1)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본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대부분(83.4%)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의 이용율(66.4%)보다는 높고,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85.8%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

변인별로 보면, 양부모, 비수도권, 유아, 남한 거주 5년 초과,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수급, 중위소득 50% 미만)의 기관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

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15]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가구는 기관 이용보다는 수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Ⅲ-2-12〉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미이용 | 계(수) |
|---|---|---|---|
| 전체 | 83.4 | 16.6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85.0 | 15.0 | 100.0( 80) |
| 한부모 | 81.7 | 18.3 | 100.0( 71) |
| $x^2(df)$ | .298(1)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77.2 | 22.8 | 100.0(101) |
| 비수도권 | 96.0 | 4.0 | 100.0( 50) |
| $x^2(df)$ | 8.531(1)** | | |
| **자녀 연령** | | | |
| 영아 | 67.6 | 32.4 | 100.0( 68) |
| 유아 | 96.4 | 3.6 | 100.0( 83) |
| $x^2(df)$ | N/A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69.2 | 30.8 | 100.0( 26) |
| 5년 초과 | 86.4 | 13.6 | 100.0(125) |
| $x^2(df)$ | 4.593(1)* | | |
| **수급 여부** | | | |
| 비수급 | 87.2 | 12.8 | 100.0( 78) |
| 수급 | 79.5 | 20.5 | 100.0( 73) |
| $x^2(df)$ | 1.630(1)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80.9 | 19.1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86.2 | 13.8 | 100.0( 58) |
| 무응답 | 100.0 | - | 100.0( 4) |
| $x^2(df)$ | N/A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6.4 | 33.6 | 100.0(85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85.8 | 14.2 | 100.0(240) |
| $x^2(df)$ | 46.213(2)*** | | |

주: 북한이탈가정조사에서는 '반일제 이상(일일 5시간 이상) 교육/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자'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로 정의함.

* $p < .05$, ** $p < .01$, *** $p < .001$.

15) 기관을 미이용한 연령 0~11개월 영아 20만원, 12개월~23개월 영아 15만원, 24개월~미취학(86개월 미만)유아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월 단위로 지원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1: 370).

수급/비수급 가구의 경우, 수급가구(73.7%)가 비수급가구(71.7%)보다 이용률이 약간 더 높았다. 이는 '가정양육수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수급가구 내에서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수급 가구는 일반 수급가구보다는 이용율이 높고, 일반 한부모 수급가구보다는 낮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 역시, 동일한 결과이다.

정리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구는 일반 한부모 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일반 가구 순이며, 각 가구 내에서 비수급 가구가 수급가구보다 이용율이 높다.

**〈표 Ⅲ-2-13〉 수급여부에 따른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미이용 | 계(수) |
|---|---|---|---|
| **수급** | 73.7 | 26.3 | 100.0(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79.5 | 20.5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4.6 | 35.4 | 100.0(13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80.2 | 19.8 | 100.0(116) |
| $x^2(df)$ | 9.281(2)** | | |
| **비수급** | 71.7 | 28.3 | 100.0(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7.2 | 12.8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6.7 | 33.3 | 100.0(72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91.1 | 8.9 | 100.0(124) |
| $x^2(df)$ | 41.262(2)*** | | |

주: 북한이탈가정조사에서는 '반일제 이상(일일 5시간 이상) 교육/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자'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로 정의함.

** $p < .01$, *** $p < .001$.

가구유형별로 보면, 한부모 가구(82.4%)가 양부모 가구(66.6%)보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내에서는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이용율이 가장 높고, 탈북가정, 일반가정 순이다. 양부모 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이용율이 일반가정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표 Ⅲ-2-1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미이용 | 계(수) |
|---|---|---|---|
| **한부모가구** | 82.4 | 17.6 | 100.0(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1.7 | 18.3 | 100.0(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6.4 | 23.6 | 100.0(127)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85.8 | 14.2 | 100.0(240) |
| $x^2(df)$ | 5.156(2) | | |
| **양부모가구** | 66.6 | 33.4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5.0 | 15.0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4.6 | 35.4 | 100.0(723) |
| $x^2(df)$ | 13.491(1)*** | | |

주: 북한이탈가정조사에서는 '반일제 이상(일일 5시간 이상) 교육/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를,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자'를, 아동종합실태조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로 정의함.
*** $p < .00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 모두 '다녀야 할 필요를 못 느낌'이 가장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비용부담'으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17.6%로 두 번째로 많이 나왔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해당 문항에는 응답 사례가 없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미이용한 두 번째 이유는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 많음'으로, 비용부담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5〉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 기관을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 다녀야 할 필요를 못 느낌 | 56.0 | 70.6 |
|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 많음 | 24.0 | - |
| 보낼 수 있는 기관 모름 | 4.0 | - |
|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음 | 4.0 | 5.9 |
| 비용부담 | - | 17.6 |
|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 없음 | - | 5.9 |
| 기타 | 12.0 | - |
| 계 | 100.0(25) | 100.0(34) |

주: 1) 교육/보육기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조사함.
2)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해당 문항이 없음.
3)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음', '원하는 시간 이용 어려움',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짐' 은 값이 없음.

## 2) 수면시간 및 수면습관

### 가) 수면시간

자녀의 수면을 기관 이용 및 미이용으로 구분해서 알아보았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 10.1시간, 미이용의 경우 평균 9.9시간으로 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약간 더 길었다.

먼저, 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면 시간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영유아의 수면시간(10.1시간)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의 10.5시간보다 짧았다. 변인별로는 양부모, 유아,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수면시간이 길었다.

기관 미이용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을 비교하면, 탈북가정의 영유아 수면시간(9.9시간)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 수면 시간이 11.2시간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짧았다. 변인별로는 양부모, 영아,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와서, 이용 가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일반가정의 영유아 수면시간보다 짧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표 Ⅲ-2-16〉 자녀의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시간

| 구분 | 이용 | | | 미이용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26) | 10.1 | 1.3 | (25) | 9.9 | 1.4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68) | 9.9 | 1.2 | (12) | 9.7 | 1.2 |
| 한부모 | (58) | 10.3 | 1.4 | (13) | 10.1 | 1.6 |
| *t* | −1.443 | | | −0.744 | | |
| **자녀연령** | | | | | | |
| 영아 | (46) | 10.2 | 1.4 | (22) | 9.9 | 1.4 |
| 유아 | (80) | 10.0 | 1.2 | (3) | 9.7 | 0.6 |
| *t* | 0.621 | | | 0.283 | | |

| 구분 | 이용 | | | 미이용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68) | 9.9 | 1.1 | (10) | 10.1 | 1.3 |
| 수급 | (58) | 10.3 | 1.4 | (15) | 9.7 | 1.4 |
| *t* | -1.726 | | | 0.651 | |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72) | 10.2 | 1.4 | (17) | 9.8 | 1.4 |
| 중위소득 50% 이상 | (50) | 9.8 | 1.1 | ( 8) | 10.1 | 1.4 |
| 무응답 | ( 4) | 10.8 | 1.0 | - | - | - |
| *F*/*t* | 1.773 | | | -0.538 | |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64) | 10.5 | 1.1 | (286) | 11.2 | 1.5 |
| *t* | -3.721*** | | | -4.223*** | | |

주: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분석함.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수급/비수급에 상관없이 평균 수면시간이 10.4시간으로 동일하였다. 그러나 기관을 미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수급 10.7시간, 비수급 11.2시간으로 비수급 가구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가구 내에서는 기관을 다니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10.3시간)가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10.5시간)보다 수면시간이 짧았다. 또,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9.7시간)가 일반가정의 영유아(11.0시간)보다 수면시간이 짧았다.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수급 가구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일반가정 수급가구의 영유아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도 수급 가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짧았다.

**〈표 Ⅲ-2-17〉 수급여부별 자녀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시간

| 구분 | 이용 | | | 미이용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수급** | (142) | 10.4 | 1.2 | ( 61) | 10.7 | 1.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58) | 10.3 | 1.4 | ( 15) | 9.7 | 1.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84) | 10.5 | 0.9 | ( 46) | 11.0 | 1.4 |
| *t* | -0.923 | | | -3.186** | | |
| **비수급** | (548) | 10.4 | 1.1 | (250) | 11.2 | 1.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68) | 9.9 | 1.1 | ( 10) | 10.1 | 1.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80) | 10.5 | 1.1 | (240) | 11.2 | 1.5 |
| *t* | -4.180*** | | | -2.293* | | |

주: 본조사는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분석함.
** $p < .01$,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한부모/양부모가구와 상관없이 평균 10.4시간으로 수면시간이 같게 나왔다. 기관을 미이용하는 영유아는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가 10.6시간으로 양부모 가구의 영유아 11.2시간보다 적었다.

한부모 가구내에서는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수면시간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짧았다. 양부모 가구 내에서도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탈북가정의 영유아 수면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8〉 가구유형별 자녀 수면시간(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시간

| 구분 | 이용 | | | 미이용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한부모가구** | (155) | 10.4 | 1.2 | ( 43) | 10.6 | 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58) | 10.3 | 1.4 | ( 13) | 10.1 | 1.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97) | 10.5 | 1.0 | ( 30) | 10.9 | 2.0 |
| *t* | -1.423 | | | -1.259 | | |
| **양부모가구** | (535) | 10.4 | 1.1 | (268) | 11.2 | 1.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68) | 9.9 | 1.2 | ( 12) | 9.7 | 1.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67) | 10.5 | 1.1 | (256) | 11.2 | 1.4 |
| *t* | -3.896*** | | | -3.724*** | | |

주: 본조사는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여부에 따라 분석함.
*** $p < .001$.

### 나) 수면습관

본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수면습관을 알아본 결과, 좋은 수면습관이라 할 수 있는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가 38.4%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에 비해 나쁜 수면습관이라 할 수 있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는 8.6%로 가장 적게 나왔다. 그러나 이를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2.6%)와 비교하면, 높은 비율이다. 전반적으로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수면습관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변인별로 보면, 한부모, 남한 거주 5년 초과, 영아,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중, 영아는 발달단계 특성상,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로 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의 영유아의 수면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19〉 자녀의 수면습관**

단위: %(명)

| 구분 |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계(수) |
|---|---|---|---|---|---|
| 전체 | 38.4 | 26.5 | 26.5 | 8.6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양부모 | 40.0 | 32.5 | 22.5 | 5.0 | 100.0( 80) |
| 한부모 | 36.6 | 19.7 | 31.0 | 12.7 | 100.0( 71) |
| $x^2(df)$ | 6.029(3) |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5년 이하 | 38.5 | 23.1 | 34.6 | 3.8 | 100.0( 26) |
| 5년 초과 | 38.4 | 27.2 | 24.8 | 9.6 | 100.0(125) |
| $x^2(df)$ | 1.749(3) | | | | |
| **자녀연령** | | | | | |
| 영아 | 26.5 | 41.2 | 22.1 | 10.3 | 100.0( 68) |
| 유아 | 48.2 | 14.5 | 30.1 | 7.2 | 100.0( 83) |
| $x^2(df)$ | 15.989(3)** | | | | |

| 구분 |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계(수) |
|---|---|---|---|---|---|
| **수급여부** | | | | | |
| 비수급 | 42.3 | 30.8 | 23.1 | 3.8 | 100.0( 78) |
| 수급 | 34.2 | 21.9 | 30.1 | 13.7 | 100.0( 73) |
| $x^2(df)$ | 6.714(3) | | | | |
| **가구소득**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34.8 | 25.8 | 28.1 | 11.2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43.1 | 29.3 | 22.4 | 5.2 | 100.0( 58) |
| 무응답 | 50.0 | - | 50.0 | - | 100.0( 4) |
| $x^2(df)$ | N/A | | | | |
| **조사구분**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9.8 | 33.8 | 13.9 | 2.6 | 100.0(850) |
| $x^2(df)$ | 31.724(3)*** | | | | |

** $p < .01$,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하면, 수급/비수급 가구와 상관없이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가 각각 42.4%, 49.5%로 가장 많으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는 각각 6.9%, 2.6%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수급가구에서 나쁜 수면습관의 영유아가 2.5배 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급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는 경우가 13.7%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 3.1%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정리하면, 수급가구의 영유아가 비수급가구보다 수면습관이 안 좋으며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0〉 수급여부별 자녀의 수면습관**

단위: %(명)

| 구분 |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계(수) |
|---|---|---|---|---|---|
| **수급** | 42.4 | 30.5 | 20.2 | 6.9 | 100.0(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4.2 | 21.9 | 30.1 | 13.7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6.9 | 35.4 | 14.6 | 3.1 | 100.0(130) |
| $x^2(df)$ | 17.773(3)*** | | | | |

| 구분 |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계(수) |
|---|---|---|---|---|---|
| **비수급** | 49.5 | 33.2 | 14.7 | 2.6 | 100.0(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2.3 | 30.8 | 23.1 | 3.8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0.3 | 33.5 | 13.8 | 2.5 | 100.0(720) |
| $x^2(df)$ | 5.718(3) | | | | |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의 비교를 보면,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가 각각 38.9%, 50.3%로 가장 많으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는 각각 5.1%, 3.1%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가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가 12.7%로, 일반 한부모 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0.8%에 비해 10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다. 양부모 가구내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정(5.0%)이 일반가정(2.9%)보다 수면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가 양부모가구보다 수면습관이 안 좋으며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1〉 가구유형별 자녀의 수면습관**

단위: %(명)

| 구분 |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 계(수) |
|---|---|---|---|---|---|
| **한부모가구** | 38.9 | 35.9 | 20.2 | 5.1 | 100.0(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6.6 | 19.7 | 31.0 | 12.7 | 100.0(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0.2 | 44.9 | 14.2 | 0.8 | 100.0(127) |
| $x^2(df)$ | 27.305(3)*** | | | | |
| **양부모가구** | 50.3 | 31.9 | 14.7 | 3.1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0.0 | 32.5 | 22.5 | 5.0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1.5 | 31.8 | 13.8 | 2.9 | 100.0(723) |
| $x^2(df)$ | 6.588(3) | | | | |

*** $p < .001$.

### 3) 식사습관

자녀가 하루 세끼를 모두 먹는지를 기관 이용여부별로 알아보았다.[16] 먼저, 기관을 다니는 경우(이용)에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41.3%로, 다니지 않는 경우(미이용) 20.0%보다 많았다. '아침을 항상 먹는다'는 전자 27.0%, 후자 56.0%로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집에서 아침을 먹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났다. 일반가정의 영유아도 기관 이용보다 미이용에서 아침을 먹는 경우가 많으나,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침을 챙겨먹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아침을 항상 먹지 않는다'를 변인별로 보면, 한부모, 비수도권, 영아, 남한 거주 5년 이하, 비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은 영유아의 '아침을 항상 먹지 않는다'를 변인별로 보면, 양부모, 비수도권, 유아, 남한 거주 5년 이하,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으나,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Ⅲ-2-22〉 자녀의 아침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 미이용 | | | |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름 | 계(수)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름 | 계(수) |
| 전체 | 41.3 | 30.2 | 27.0 | 1.6 | 100.0 (126) | 20.0 | 24.0 | 56.0 | - | 100.0 (25) |
| **가구유형** | | | | | | | | | | |
| 양부모 | 32.4 | 33.8 | 32.4 | 1.5 | 100.0 ( 68) | 25.0 | 33.3 | 41.7 | - | 100.0 (12) |
| 한부모 | 51.7 | 25.9 | 20.7 | 1.7 | 100.0 ( 58) | 15.4 | 15.4 | 69.2 | - | 100.0 (13) |
| **거주지역** | | | | | | | | | | |
| 수도권 | 38.5 | 30.8 | 29.5 | 1.3 | 100.0 ( 78) | 17.4 | 21.7 | 60.9 | - | 100.0 (23) |
| 비수도권 | 45.8 | 29.2 | 22.9 | 2.1 | 100.0 ( 48) | 50.0 | 50.0 | - | - | 100.0 ( 2) |
| **자녀연령** | | | | | | | | | | |
| 영아 | 45.7 | 32.6 | 21.7 | - | 100.0 ( 46) | 13.6 | 27.3 | 59.1 | - | 100.0 (22) |
| 유아 | 38.8 | 28.8 | 30.0 | 2.5 | 100.0 ( 80) | 66.7 | - | 33.3 | - | 100.0 ( 3) |

16) 본문에는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는 점심을 기관에서 거의 먹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름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름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5년 이하 | 44.4 | 38.9 | 16.7 | - | 100.0 ( 18) | 25.0 | 25.0 | 50.0 | - | 100.0 ( 8) |
| 5년 초과 | 40.7 | 28.7 | 28.7 | 1.9 | 100.0 (108) | 17.6 | 23.5 | 58.8 | - | 100.0 (17) |
| **수급여부** | | | | | | | | | | |
| 비수급 | 42.6 | 23.5 | 32.4 | 1.5 | 100.0 ( 68) | 20.0 | 30.0 | 50.0 | - | 100.0 (10) |
| 수급 | 39.7 | 37.9 | 20.7 | 1.7 | 100.0 ( 58) | 20.0 | 20.0 | 60.0 | - | 100.0 (15) |
| **가구소득** | | | | | | | | | | |
| 중위소득50% 미만 | 44.4 | 36.1 | 16.7 | 2.8 | 100.0 ( 72) | 17.6 | 29.4 | 52.9 | - | 100.0 (17) |
| 중위소득50% 이상 | 38.0 | 22.0 | 40.0 | - | 100.0 ( 50) | 25.0 | 12.5 | 62.5 | - | 100.0 ( 8) |
| 무응답 | 25.0 | 25.0 | 50.0 | - | 100.0 ( 4) | | | | | |
| **조사구분**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9 | 29.3 | 63.8 | - | 100.0 (564) | 1.0 | 18.2 | 80.1 | 0.7 | 100.0 (286)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하면, 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보다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3〉 수급여부별 아침식사 행태(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수급** | 26.8 | 33.8 | 38.7 | 0.7 | 100.0 (142) | 8.2 | 29.5 | 60.7 | 1.6 | 100.0 ( 6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9.7 | 37.9 | 20.7 | 1.7 | 100.0 ( 58) | 20.0 | 20.0 | 60.0 | - | 100.0 ( 1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7.9 | 31.0 | 51.2 | - | 100.0 ( 84) | 4.3 | 32.6 | 60.9 | 2.2 | 100.0 ( 46) |
| **비수급** | 9.7 | 28.3 | 61.9 | 0.2 | 100.0 (548) | 1.2 | 16.0 | 82.4 | 0.4 | 100.0 (25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2.6 | 23.5 | 32.4 | 1.5 | 100.0 ( 68) | 20.0 | 30.0 | 50.0 | - | 100.0 ( 1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0 | 29.0 | 66.0 | - | 100.0 (480) | 0.4 | 15.4 | 83.8 | 0.4 | 100.0 (24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해 보면,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양부모

가구 내에서도 기관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가정보다 탈북가정의 영유아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24〉 가구유형별 자녀의 아침식사 행태(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한부모가구** | 29.7 | 29.0 | 40.6 | 0.6 | 100.0 (155) | 4.7 | 18.6 | 74.4 | 2.3 | 100.0 ( 4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1.7 | 25.9 | 20.7 | 1.7 | 100.0 ( 58) | 15.4 | 15.4 | 69.2 | - | 100.0 ( 1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6.5 | 30.9 | 52.6 | - | 100.0 ( 97) | - | 20.0 | 76.7 | 3.3 | 100.0 ( 30) |
| **양부모가구** | 8.4 | 29.5 | 61.9 | 0.2 | 100.0 (535) | 2.2 | 18.7 | 78.7 | 0.4 | 100.0 (26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2.4 | 33.8 | 32.4 | 1.5 | 100.0 ( 68) | 25.0 | 33.3 | 41.7 | - | 100.0 ( 1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9 | 28.9 | 66.2 | - | 100.0 (467) | 1.2 | 18.0 | 80.5 | 0.4 | 100.0 (256)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저녁은 아침보다 항상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관 이용 영유아는 10.3%, 기관 미이용 영유아는 4.0%가 집계되었다. 그러나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저녁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보다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기관 이용의 영유아 가구를 변인별로 보면,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한부모, 수도권, 영아,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기관 미이용의 영유아 가구는 양부모, 수도권, 영아, 남한 거주 5년 초과,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에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5〉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전체 | 10.3 | 22.2 | 65.1 | 2.4 | 100.0 (126) | 4.0 | 24.0 | 72.0 | - | 100.0 (25) |
| **가구유형** | | | | | | | | | | |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양부모 | 7.4 | 19.1 | 72.1 | 1.5 | 100.0 ( 68) | 8.3 | 33.3 | 58.3 | - | 100.0 (12) |
| 한부모 | 13.8 | 25.9 | 56.9 | 3.4 | 100.0 ( 58) | - | 15.4 | 84.6 | - | 100.0 (13) |
| **거주지역** | | | | | | | | | | |
| 수도권 | 11.5 | 23.1 | 64.1 | 1.3 | 100.0 ( 78) | 4.3 | 21.7 | 73.9 | - | 100.0 (23) |
| 비수도권 | 8.3 | 20.8 | 66.7 | 4.2 | 100.0 ( 48) | - | 50.0 | 50.0 | - | 100.0 ( 2) |
| **자녀연령** | | | | | | | | | | |
| 영아 | 13.0 | 23.9 | 60.9 | 2.2 | 100.0 ( 46) | 4.5 | 22.7 | 72.7 | - | 100.0 (22) |
| 유아 | 8.8 | 21.3 | 67.5 | 2.5 | 100.0 ( 80) | - | 33.3 | 66.7 | - | 100.0 ( 3)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5년 이하 | 11.1 | 50.0 | 33.3 | 5.6 | 100.0 ( 18) | - | 37.5 | 62.5 | - | 100.0 ( 8) |
| 5년 초과 | 10.2 | 17.6 | 70.4 | 1.9 | 100.0 (108) | 5.9 | 17.6 | 76.5 | - | 100.0 (17) |
| **수급 여부** | | | | | | | | | | |
| 비수급 | 10.3 | 16.2 | 70.6 | 2.9 | 100.0 ( 68) | 10.0 | 30.0 | 60.0 | - | 100.0 (10) |
| 수급 | 10.3 | 29.3 | 58.6 | 1.7 | 100.0 ( 58) | - | 20.0 | 80.0 | - | 100.0 (15) |
| **가구소득** | | | | | | | | | | |
| 중위소득50% 미만 | 13.9 | 30.6 | 52.8 | 2.8 | 100.0 ( 2) | - | 23.5 | 76.5 | - | 100.0 (17) |
| 중위소득50% 이상 | 6.0 | 12.0 | 80.0 | 2.0 | 100.0 ( 50) | 12.5 | 25.0 | 62.5 | - | 100.0 ( 8) |
| 무응답 | - | - | 100.0 | - | 100.0 ( 4) | | | | | |
| **조사구분**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9.0 | 91.0 | - | 100.0 (564) | - | 7.7 | 92.0 | 0.3 | 100.0(286)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가구가 일반 수급/비수급 가구에 비해 저녁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영유아가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10.3%로, 일반 수급가구의 0%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2-26〉 수급여부별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수급** | 4.2 | 15.5 | 79.6 | 0.7 | 100.0(142) | - | 16.4 | 82.0 | 1.6 | 100.0( 6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3 | 29.3 | 58.6 | 1.7 | 100.0( 58) | - | 20.0 | 80.0 | - | 100.0( 15) |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6.0 | 94.0 | - | 100.0( 84) | - | 15.2 | 82.6 | 2.2 | 100.0( 46) |
| **비수급** | 1.3 | 10.4 | 88.0 | 0.4 | 100.0(548) | 0.4 | 7.2 | 92.4 | - | 100.0(25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3 | 16.2 | 70.6 | 2.9 | 100.0( 68) | 10.0 | 30.0 | 60.0 | - | 100.0( 1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9.6 | 90.4 | - | 100.0(480) | - | 6.3 | 93.8 | - | 100.0(24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하면, 기관 이용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영유아가 '저녁을 거의 먹지 않는다'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중, 기관 이용 기준으로 양부모 가구(7.4%)보다는 한부모 가구(13.8%)에서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는 먹지 않는 경우는 없었으며, 양부모 가구는 8.3%가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한부모 가구에서 더 많았다.

**〈표 Ⅲ-2-27〉 가구유형별 자녀의 저녁식사 습관(교육/보육기관 이용여부)**

단위: %(명)

| 구분 | 이용 | | | | 계(수) | 미이용 | | | | 계(수)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한부모가구** | 5.2 | 18.7 | 74.8 | 1.3 | 100.0 (155) | - | 7.0 | 90.7 | 2.3 | 100.0 ( 4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8 | 25.9 | 56.9 | 3.4 | 100.0 ( 58) | - | 15.4 | 84.6 | - | 100.0 ( 1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14.4 | 85.6 | - | 100.0 ( 97) | - | 3.3 | 93.3 | 3.3 | 100.0 ( 30) |
| **양부모가구** | 0.9 | 9.3 | 89.5 | 0.2 | 100.0 (535) | 0.4 | 9.3 | 90.3 | - | 100.0 (26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7.4 | 19.1 | 72.1 | 1.5 | 100.0 ( 68) | 8.3 | 33.3 | 58.3 | - | 100.0 ( 1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7.9 | 92.1 | - | 100.0 (467) | - | 8.2 | 91.8 | - | 100.0 (256)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 다. 임신 및 출산

### 1) 임신 중 건강행동

주양육자가 임신했을 때, 음주를 한 경우 4.6%, 흡연을 한 경우 0.7%,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10.6%, 선천성 대상 검사(장애 유무 검사)를 한 경우 39.7%로 집계되었다. 이를 수급 여부별로 보면, 음주를 했다는 응답이 비수급 가구가 더 많았고, 합병증은 수급 가구가 더 많았다.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는 비수급 가구에서 좀 더 높게 나왔다.

일반가정과 비교해 보면, 음주한 경우가 탈북가정이 약 4배 가량 높고, 합병증도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는 탈북가정이 더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탈북가정의 주양육자는 임신 중에 음주,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태아의 건강이 염려되어 선천성 대상 검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선천성 대상 검사는 2018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류정희 외, 2019: 141).

**〈표 Ⅲ-2-28〉 임신 중 건강행동**

단위: %, (명)

| 구분 | 임신 중 음주 | 임신 중 흡연 | 임신 중 합병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응답자 수 |
|---|---|---|---|---|---|
| 북한이탈가정 | 4.6 | 0.7 | 10.6 | 39.7 | (151) |
| **수급여부** | | | | | |
| 비수급 | 6.4 | 1.3 | 6.4 | 44.9 | ( 78) |
| 수급 | 2.7 | - | 15.1 | 34.2 | ( 73) |
| 일반가정 | 1.1 | 0.6 | 0.7 | 32.1 | (850) |

주: 1)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2)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가구 모두, 일반 수급/비수급 가구보다 임신 중 음주, 임신 중 합병증,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비율이 높았다.

**〈표 Ⅲ-2-29〉 수급여부별 임신 중 건강행동**

단위: %, (명)

| 구분 | 임신 중 음주 | 임신 중 흡연 | 임신 중 합병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응답자 수 |
|---|---|---|---|---|---|
| **수급** | 1.5 | - | 5.4 | 28.1 | (203) |
| 북한이탈가정 | 2.7 | - | 15.1 | 34.2 | ( 73) |
| 일반가정 | 0.8 | - | - | 24.6 | (130) |

| 구분 | 임신 중 음주 | 임신 중 흡연 | 임신 중 합병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응답자 수 |
|---|---|---|---|---|---|
| **비수급** | 1.6 | 0.8 | 1.4 | 34.6 | (798) |
| 북한이탈가정 | 6.4 | 1.3 | 6.4 | 44.9 | ( 78) |
| 일반가정 | 1.1 | 0.7 | 0.8 | 33.5 | (720) |

주: 1)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2)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임신 중 음주를 한 경우가 일반가정보다 많았다. 임신 중 흡연은 일반 한부모 가구가 0.8%였다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는 한 사례도 없었다. 임신 중 합병증,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경우도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일반 가구보다 많았다.

**〈표 Ⅲ-2-30〉 가구유형별 따른 임신 중 건강행동**

단위: %, (명)

| 구분 | 임신 중 음주 | 임신 중 흡연 | 임신 중 합병증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응답자 수 |
|---|---|---|---|---|---|
| **한부모** | 3.0 | 0.5 | 5.6 | 23.2 | (198) |
| 북한이탈가정 | 4.2 | - | 14.1 | 28.2 | ( 71) |
| 일반가정 | 2.4 | 0.8 | 0.8 | 20.5 | (127) |
| **양부모** | 1.2 | 0.6 | 1.4 | 35.7 | (803) |
| 북한이탈가정 | 5.0 | 1.3 | 7.5 | 50.0 | ( 80) |
| 일반가정 | 0.8 | 0.6 | 0.7 | 34.2 | (723) |

주: 1)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2)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 2) 수유실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수유형태를 보면,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가 45.0% 가장 많았고, 모유만 수유(31.8%), 분유만 수유(22.5%)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과 비교해 보면, '모유만 수유'한 경우가 더 많았다. 분유만 수유,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수유는 일반가정이 더 많았다.

탈북가정의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하면, 모유만 수유 및 분유만 수유의 비율이 비수급 가구가 좀 더 많고,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수유는 수급가구가 더 많았다.

**〈표 Ⅲ-2-31〉 수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 모유만 먹였다 | 분유만 먹였다 |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먹였다 | 모름 | 계(수) |
|---|---|---|---|---|---|
| 북한이탈가정 | 31.8 | 22.5 | 45.0 | 0.7 | 100.0(151) |
| **수급여부** | | | | | |
| 비수급 | 33.3 | 23.1 | 43.6 | - | 100.0( 78) |
| 수급 | 30.1 | 21.9 | 46.6 | 1.4 | 100.0( 73) |
| $x^2(df)$ | N/A | | | | |
| 일반가정 | 18.5 | 28.2 | 53.1 | 0.2 | 100.0(850) |

주: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일반가정과 수유형태를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와 일반 수급가구 공통으로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수유'가 가장 많았으나, 2순위는 전자는 '모유만 수유'가 후자는 '분유만 수유'가 더 많았다. 비수급가구도 수급가구와 동일하였다.

**〈표 Ⅲ-2-32〉 수급여부별 수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 모유만 먹였다 | 분유만 먹였다 |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먹였다 | 모름 | 계(수) |
|---|---|---|---|---|---|
| **수급** | 19.7 | 25.1 | 54.7 | 0.5 | 100.0(203) |
| 북한이탈가정 | 30.1 | 21.9 | 46.6 | 1.4 | 100.0( 73) |
| 일반가정 | 13.8 | 26.9 | 59.2 | - | 100.0(130) |
| **비수급** | 20.7 | 27.9 | 51.1 | 0.3 | 100.0(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3.3 | 23.1 | 43.6 | - | 100.0( 78) |
| 일반가정 | 19.3 | 28.5 | 51.9 | 0.3 | 100.0(720) |

주: 1)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2) 빈도분포 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양부모가구와 일반 한부모/양부모가구 모두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수유'가 가장 많았으나, 2순위는 전자는 '모유수유만' 후자는 '분유만 수유'가 더 많았다. 수급/비수급 가구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상관없이 모유만 수유하거나 분유와 섞어서 수유하는 경우 등 모유수유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33〉 가구유형별 수유 형태**

단위: %(명)

| 구분 | 모유만 먹였다 | 분유만 먹였다 |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먹였다 | 모름 | 계(수) |
|---|---|---|---|---|---|
| **한부모** | 17.7 | 31.8 | 50.0 | 0.5 | 100.0(198) |
| 북한이탈가정 | 29.6 | 22.5 | 46.5 | 1.4 | 100.0( 71) |
| 일반가정 | 11.0 | 37.0 | 52.0 | - | 100.0(127) |
| **양부모** | 21.2 | 26.3 | 52.3 | 0.2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3.8 | 22.5 | 43.8 | - | 100.0( 80) |
| 일반가정 | 19.8 | 26.7 | 53.3 | 0.3 | 100.0(723) |

주: 1) 북한이탈가정은 본 설문조사, 일반가정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의미함.
2) 빈도분포 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 라. 주양육자의 건강

### 1) 건강수준

영유아 자녀의 주양육자(본 설문조사 응답자)가 5점 척도로 자신의 건강을 자가측정한 결과, 평균 3.50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반가정의 주양육자의 4.22점보다 낮은 수치로서, 탈북가정의 주양육자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변인별로 보면, 한부모,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주양육자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영유아 자녀의 건강상태와 비교해 보면,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보다 자녀의 건강상태(4.49점)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였다(주양육자의 자가측정 결과). 그러나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자녀와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공통점이 있다.

**〈표 Ⅲ-2-34〉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5점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20.5 | 26.5 | 37.7 | 12.6 | 2.6 | 100.0(151) | 3.50 | 1.04 |
| **가구유형** | | | | | | | | |
| 양부모 | 26.3 | 33.8 | 31.3 | 8.8 | - | 100.0( 80) | 3.78 | 0.94 |
| 한부모 | 14.1 | 18.3 | 45.1 | 16.9 | 5.6 | 100.0( 71) | 3.18 | 1.06 |
| *t* | | | | | | | 3.635*** | |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5점 평균 | 표준 편차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5년 이하 | 7.7 | 26.9 | 46.2 | 19.2 | - | 100.0( 26) | 3.23 | 0.86 |
| 5년 초과 | 23.2 | 26.4 | 36.0 | 11.2 | 3.2 | 100.0(125) | 3.55 | 1.07 |
| *t* | | | | | | | -1.440 | |
| **수급 여부** | | | | | | | | |
| 비수급 | 24.4 | 33.3 | 33.3 | 7.7 | 1.3 | 100.0( 78) | 3.72 | 0.97 |
| 수급 | 16.4 | 19.2 | 42.5 | 17.8 | 4.1 | 100.0( 73) | 3.26 | 1.07 |
| *t* | | | | | | | 2.766** | |
| **가구소득**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6.9 | 19.1 | 41.6 | 19.1 | 3.4 | 100.0( 89) | 3.27[a] | 1.06 |
| 중위소득 50% 이상 | 24.1 | 39.7 | 31.0 | 3.4 | 1.7 | 100.0( 58) | 3.81[b] | 0.91 |
| 무응답 | 50.0 | - | 50.0 | - | - | 100.0( 4) | 4.00[ab] | 1.15 |
| *F* | | | | | | | 5.561** | |
| **조사구분**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1 | 56.4 | 7.6 | 1.6 | 0.2 | 100.0(850) | 4.22 | 0.67 |
| *t* | | | | | | | -8.309*** | |

주: 1)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간의 비교를 하면,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가구 모두 일반가정과 비교해서 주양육자의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를 합친 비율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는 21.9%(17.8%+4.1%)로, 일반 수급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의 5.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일반 비수급가구, 일반 수급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수급가구,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순으로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35〉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5점 평균 | 표준 편차 |
|---|---|---|---|---|---|---|---|---|
| **수급** | 18.2 | 48.3 | 22.2 | 8.9 | 2.5 | 100.0(203) | 3.71 | 0.9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6.4 | 19.2 | 42.5 | 17.8 | 4.1 | 100.0( 73) | 3.26 | 1.0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9.2 | 64.6 | 10.8 | 3.8 | 1.5 | 100.0(130) | 3.96 | 0.77 |
| *t* | | | | | | | -4.935*** | |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5점 평균 | 표준 편차 |
|---|---|---|---|---|---|---|---|---|
| **비수급** | 35.6 | 52.8 | 9.6 | 1.9 | 0.1 | 100.0(798) | 4.22 | 0.7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4.4 | 33.3 | 33.3 | 7.7 | 1.3 | 100.0( 78) | 3.72 | 0.9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6.8 | 54.9 | 7.1 | 1.3 | - | 100.0(720) | 4.27 | 0.64 |
| *t* | | | | | | | -4.951*** | |

주: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의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는 3.18점(나쁘다+매우 나쁘다 22.5%)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 양부모 가구, 일반 한부모 가구, 북한이탈주민 양부모 가구,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 순으로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게 나왔다.

**〈표 Ⅲ-2-36〉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단위: %(명), 점

| 구분 | 매우 좋다 | 좋다 | 보통 이다 | 나쁘다 | 매우 나쁘다 | 계(수) | 5점 평균 | 표준 편차 |
|---|---|---|---|---|---|---|---|---|
| **한부모가구** | 19.7 | 46.0 | 23.2 | 9.1 | 2.0 | 100.0(198) | 3.72 | 0.9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1 | 18.3 | 45.1 | 16.9 | 5.6 | 100.0( 71) | 3.18 | 1.0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2.8 | 61.4 | 11.0 | 4.7 | - | 100.0(127) | 4.02 | 0.73 |
| *t* | | | | | | | -5.943*** | |
| **양부모가구** | 35.1 | 53.3 | 9.5 | 1.9 | 0.2 | 100.0(803) | 4.21 | 0.7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6.3 | 33.8 | 31.3 | 8.8 | - | 100.0( 80) | 3.78 | 0.9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6.1 | 55.5 | 7.1 | 1.1 | 0.3 | 100.0(723) | 4.26 | 0.66 |
| *t* | | | | | | | -4.490*** | |

주: 평균은 '매우나쁘다 1점~매우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 $p < .001$.

### 2) 음주 및 흡연

#### 가) 음주

지난 1년 동안 주양육자(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음주 정도를 알아본 결과, 약 48%가 '전혀 마시지 않았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한달에 1회 미만 약 20%, 한

달에 2~3회 약 19%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이상 4회이상 음주한다는 응답도 2.6%가 나왔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양육자의 음주빈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변인별로 보면, 일주일 4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한부모, 남한 거주 5년 이하,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특히, 한부모와 비수급 가구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았으나, 빈도분포상 통계적 검정은 부적절하다.

**〈표 Ⅲ-2-37〉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단위: %(명)

| 구분 | 전혀 마시지 않았다 | 한달에 1회 미만 | 한달 1회 | 한달 2~3회 | 일주일 2~3회 | 일주일 4회이상 | 계(수) |
|---|---|---|---|---|---|---|---|
| 전체 | 47.7 | 19.9 | 8.6 | 18.5 | 2.6 | 2.6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50.0 | 18.8 | 10.0 | 18.8 | 1.3 | 1.3 | 100.0( 80) |
| 한부모 | 45.1 | 21.1 | 7.0 | 18.3 | 4.2 | 4.2 | 100.0( 71)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57.7 | 15.4 | 7.7 | 15.4 | - | 3.8 | 100.0( 26) |
| 5년 초과 | 45.6 | 20.8 | 8.8 | 19.2 | 3.2 | 2.4 | 100.0(125) |
| **수급 여부** | | | | | | | |
| 비수급 | 46.2 | 17.9 | 9.0 | 20.5 | 2.6 | 3.8 | 100.0( 78) |
| 수급 | 49.3 | 21.9 | 8.2 | 16.4 | 2.7 | 1.4 | 100.0( 73)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7.2 | 19.1 | 10.1 | 19.1 | 3.4 | 1.1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46.6 | 22.4 | 6.9 | 19.0 | 1.7 | 3.4 | 100.0( 58) |
| 무응답 | 75.0 | - | - | - | - | 25.0 | 100.0( 4)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6.1 | 16.2 | 14.7 | 18.5 | 4.2 | 0.2 | 100.0(85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수급/비수급 가구 간의 비교를 해 보면,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일반 수급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음주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마시지 않았다 응답 기준). 특히, 일주일에 4회 이상 음주는 일반 수급가구는 한 사례도 없었지만, 탈북 수급가구에서는 1.4%가 보고되었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음주빈도가 좀 더 많았으

나(전혀 마시지 않았다 응답 기준), 일주일 4회이상 음주는 탈북가정이 3.8%로 일반가정 0.3%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표 Ⅲ-2-38〉 수급여부별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단위: %(명)

| 구분 | 전혀 마시지 않았다 | 한달에 1회 미만 | 한달 1회 | 한달 2~3회 | 일주일 2~3회 | 일주일 4회이상 | 계(수) |
|---|---|---|---|---|---|---|---|
| **수급** | 52.7 | 17.2 | 10.8 | 15.8 | 3.0 | 0.5 | 100.0(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9.3 | 21.9 | 8.2 | 16.4 | 2.7 | 1.4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4.6 | 14.6 | 12.3 | 15.4 | 3.1 | - | 100.0(130) |
| **비수급** | 44.7 | 16.7 | 14.5 | 19.2 | 4.3 | 0.6 | 100.0(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6.2 | 17.9 | 9.0 | 20.5 | 2.6 | 3.8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4.6 | 16.5 | 15.1 | 19.0 | 4.4 | 0.3 | 100.0(72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의 비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일반 한부모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음주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혀 마시지 않았다 응답 기준). 특히, 일주일에 4회 이상 음주는 일반 한부모가구는 0.8%에 비해, 탈북 한부모가구가 4.2%로 약 5배 이상 많았다.

양부모가구 내에서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음주빈도가 좀 더 많았으나(전혀 마시지 않았다 응답 기준), 일주일 4회이상 음주는 탈북가정이 1.3%로 일반가정 0.1%보다 13배 많았다.

**〈표 Ⅲ-2-39〉 가구유형별 지난 1년 주양육자의 음주빈도**

단위: %(명)

| 구분 | 전혀 마시지 않았다 | 한달 1회 미만 | 한달 1회 | 한달 2~3회 | 일주일 2~3회 | 일주일 4회이상 | 계(수) |
|---|---|---|---|---|---|---|---|
| **한부모가구** | 47.0 | 18.7 | 13.6 | 14.6 | 4.0 | 2.0 | 100.0(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5.1 | 21.1 | 7.0 | 18.3 | 4.2 | 4.2 | 100.0(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8.0 | 17.3 | 17.3 | 12.6 | 3.9 | 0.8 | 100.0(127) |
| **양부모가구** | 46.2 | 16.3 | 13.8 | 19.4 | 4.0 | 0.2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0.0 | 18.8 | 10.0 | 18.8 | 1.3 | 1.3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5.8 | 16.0 | 14.2 | 19.5 | 4.3 | 0.1 | 100.0(723)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 나) 흡연

주양육자와 배우자의 흡연 여부와 현재 흡연 상태를 알아보았다. '피운적이 없음'는 주양육자 84.8%, 배우자 32.5%가 보고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대부분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양육자와 배우자의 흡연 여부와 비교하면, 흡연했거나 현재도 하는 경우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중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는 비율이 12.6%였다면, 일반가정은 1.1%로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배우자가 일반가정의 배우자보다 '현재 매일 피운다'는 응답이 2배 가량 많았다. '피운적이 없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33%, 일반가정은 약 71%로 보고되었다.

이로써,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흡연환경에 더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40〉 주양육자 및 배우자의 흡연 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단위: %(명)

| 구분 | 주양육자 | | | | | 배우자 | | | | |
|---|---|---|---|---|---|---|---|---|---|---|
|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적 없음 | 계(수)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적 없음 | 계(수) |
| 전체 | 1.3 | 1.3 | 12.6 | 84.8 | 100.0(151) | 40.0 | 5.0 | 22.5 | 32.5 | 100.0( 80) |
| **가구유형** | | | | | | | | | | |
| 양부모 | - | 2.5 | 10.0 | 87.5 | 100.0 ( 80) | 40.0 | 5.0 | 22.5 | 32.5 | 100.0( 80) |
| 한부모 | 2.8 | - | 15.5 | 81.7 | 100.0 ( 71) | - | - | - | - | |
| $x^2(df)$ | N/A | | | | | N/A |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5년 이하 | 3.8 | 3.8 | 15.4 | 76.9 | 100.0( 26) | 71.4 | 14.3 | - | 14.3 | 100.0( 7) |
| 5년 초과 | 0.8 | 0.8 | 12.0 | 86.4 | 100.0 (125) | 37.0 | 4.1 | 24.7 | 34.2 | 100.0( 73) |
| $x^2(df)$ | N/A | | | | | N/A | | | | |
| **수급 여부** | | | | | | | | | | |
| 비수급 | 1.3 | 2.6 | 10.3 | 85.9 | 100.0( 78) | 40.3 | 4.5 | 17.9 | 37.3 | 100.0( 67) |
| 수급 | 1.4 | - | 15.1 | 83.6 | 100.0( 73) | 38.5 | 7.7 | 46.2 | 7.7 | 100.0( 13) |
| $x^2(df)$ | N/A | | | | | N/A | | | | |

| 구분 | 주양육자 | | | | | 배우자 | | | | |
|---|---|---|---|---|---|---|---|---|---|---|
|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수)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수) |
| **가구소득** | |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1 | 1.1 | 16.9 | 80.9 | 100.0( 89) | 40.0 | 3.3 | 16.7 | 40.0 | 100.0( 30) |
| 중위소득 50% 이상 | - | 1.7 | 6.9 | 91.4 | 100.0( 58) | 39.6 | 6.3 | 27.1 | 27.1 | 100.0( 48) |
| 무응답 | 25.0 | - | - | 75.0 | 100.0( 4) | 50.0 | - | - | 50.0 | 100.0( 2) |
| $x^2(df)$ | N/A | | | | | N/A | | | | |
| **조사구분**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 | 0.8 | 1.1 | 96.8 | 100.0(850) | 19.1 | 3.7 | 6.7 | 70.5 | 100.0(759) |
| $x^2(df)$ | N/A | | | | | 52.838(3)*** | | | | |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모두, 주양육자 기준으로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피운 경험은 수급, 비수급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많았다. 배우자의 경우도 수급/비수급에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Ⅲ-2-41〉 수급여부별 주양육자·배우자의 흡연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단위: %(명)

| 구분 | 주양육자 | | | | | 배우자 | | | | |
|---|---|---|---|---|---|---|---|---|---|---|
|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 (명)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수) |
| **수급** | 0.5 | 0.5 | 6.4 | 92.6 | 100.0 (203) | 26.7 | 1.7 | 9.5 | 62.1 | 100.0 (11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0.0 | 15.1 | 83.6 | 100.0 ( 73) | 38.5 | 7.7 | 46.2 | 7.7 | 100.0 ( 1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0 | 0.8 | 1.5 | 97.7 | 100.0 (130) | 25.2 | 1.0 | 4.9 | 68.9 | 100.0 (103) |
| $x^2(df)$ | N/A | | | | | N/A | | | | |
| **비수급** | 1.5 | 0.0 | 5.6 | 92.9 | 100.0 (198) | 20.2 | 4.1 | 8.0 | 67.6 | 100.0 (72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8 | 0.0 | 15.5 | 81.7 | 100.0 ( 71) | 40.3 | 4.5 | 17.9 | 37.3 | 100.0 ( 6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8 | 0.0 | 0.0 | 99.2 | 100.0 (127) | 18.1 | 4.1 | 7.0 | 70.7 | 100.0 (656) |
| $x^2(df)$ | N/A | | | | | 33.838(3)*** | | | | |

주: 주양육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모두, 일반 한부모 및 양부모가구에 비해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경우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주양육자들 대다수는 현재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양부모 가구가 현재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Ⅲ-2-42〉 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배우자의 흡연 여부 및 현재 흡연 상태**

단위: %(명)

| 구분 | 주양육자 | | | | | 배우자 | | | | |
|---|---|---|---|---|---|---|---|---|---|---|
|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수)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 적 없음 | 계(수) |
| **한부모가구** | 1.5 | 0.0 | 5.6 | 92.9 | 100.0(198) | 6.1 | 4.1 | 6.1 | 83.7 | 100.0( 4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8 | 0.0 | 15.5 | 81.7 | 100.0( 71)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8 | 0.0 | 0.0 | 99.2 | 100.0(127) | 6.1 | 4.1 | 6.1 | 83.7 | 100.0( 49) |
| $x^2(df)$ | N/A | | | | | N/A | | | | |
| **양부모가구** | 1.2 | 1.1 | 2.1 | 95.5 | 100.0(803) | 22.0 | 3.8 | 8.4 | 65.8 | 100.0(79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0.0 | 2.5 | 10.0 | 87.5 | 100.0( 80) | 40.0 | 5.0 | 22.5 | 32.5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4 | 1.0 | 1.2 | 96.4 | 100.0(723) | 20.0 | 3.7 | 6.8 | 69.6 | 100.0(710) |
| $x^2(df)$ | N/A | | | | | 49.733(3)*** | | | | |

주: 주양육자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 $p < .001$.

### 3) 삶에 대한 만족도

#### 가) 현재 삶의 위치

밑에서부터 위로 10개 사다리 중 현재 당신은 몇 번째 사다리에 서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평균 6.21점이 나왔다. 이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6.52점보다 낮은 점수이다. 그러나 중간을 5로 보면, 중간 이상이란 점에서 현재 삶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입국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현재 삶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중 한부모가구가 5.5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2-43〉 현재 삶에 대한 상태**

단위: %, (명), 점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전체 | 0.7 | 0.7 | 5.3 | 6.0 | 6.0 | 22.5 | 12.6 | 17.9 | 11.9 | 5.96 | 10.6 | (151) | 6.21 | 2.26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 | - | 3.8 | 5.0 | 2.5 | 17.5 | 12.5 | 23.8 | 13.8 | 6.25 | 15.0 | ( 80) | 6.78 | 2.13 |
| 한부모 | 1.4 | 1.4 | 7.0 | 7.0 | 9.9 | 28.2 | 12.7 | 11.3 | 9.9 | 5.63 | 5.6 | ( 71) | 5.58 | 2.26 |
| *t* | | | | | | | | | | | | | 3.352**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 | 1.0 | 5.0 | 5.0 | 5.9 | 21.8 | 11.9 | 18.8 | 12.9 | 6.93 | 10.9 | (101) | 6.36 | 2.22 |
| 비수도권 | 2.0 | - | 6.0 | 8.0 | 6.0 | 24.0 | 14.0 | 16.0 | 10.0 | 4.00 | 10.0 | ( 50) | 5.92 | 2.35 |
| *t* | | | | | | | | | | | | | 1.115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 | - | - | - | - | 50.0 | 15.4 | 19.2 | 3.8 | 3.85 | 7.7 | ( 26) | 6.19 | 1.58 |
| 5년 초과 | 0.8 | 0.8 | 6.4 | 7.2 | 7.2 | 16.8 | 12.0 | 17.6 | 13.6 | 6.40 | 11.2 | (125) | 6.22 | 2.39 |
| *t* | | | | | | | | | | | | | -0.063 | |
| **수급 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1.3 | - | 2.6 | 7.7 | 2.6 | 17.9 | 12.8 | 20.5 | 12.8 | 6.41 | 15.4 | ( 78) | 6.63 | 2.30 |
| 수급 | - | 1.4 | 8.2 | 4.1 | 9.6 | 27.4 | 12.3 | 15.1 | 11.0 | 5.48 | 5.5 | ( 73) | 5.77 | 2.16 |
| *t* | | | | | | | | | | | | | 2.371*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1.1 | - | 7.9 | 9.0 | 7.9 | 23.6 | 14.6 | 12.4 | 11.2 | 3.37 | 9.0 | ( 89) | 5.76[a] | 2.31 |
| 중위소득50% 이상 | - | 1.7 | 1.7 | 1.7 | 3.4 | 19.0 | 10.3 | 25.9 | 13.8 | 10.34 | 12.1 | ( 58) | 6.86[b] | 2.05 |
| 무응답 | - | - | - | - | - | 50.0 | - | 25.0 | - | - | 25.0 | ( 4) | 6.75[ab] | 2.36 |
| *F* | | | | | | | | | | | | | 4.439*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4 | 1.2 | 4.0 | 5.3 | 13.1 | 18.7 | 29.2 | 20.5 | 7.29 | 0.5 | (850) | 6.52 | 1.60 |
| *t* | | | | | | | | | | | | | -1.590 |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위치가 높다(좋다)는 의미임.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보다 일반 수급가구의 현재 삶의 상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가정은 정착 초기에 정책적으로 수급을 받기 때문에 일반 가구에 비해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가정은 비경제적 몰락으로 비수급 가구에서 수급가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Ⅲ-2-44〉 수급여부별 현재 삶에 대한 상태**

단위: %, (명), 점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 | 1.5 | 4.9 | 9.9 | 8.9 | 24.1 | 17.7 | 15.8 | 11.3 | 3.45 | 2.5 | (203) | 5.60 | 1.9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1.4 | 8.2 | 4.1 | 9.6 | 27.4 | 12.3 | 15.1 | 11.0 | 5.48 | 5.5 | ( 73) | 5.77 | 2.1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1.5 | 3.1 | 13.1 | 8.5 | 22.3 | 20.8 | 16.2 | 11.5 | 2.31 | 0.8 | (130) | 5.51 | 1.83 |
| *t* | | | | | | | | | | | | | 0.908 | |
| **비수급** | 0.1 | 0.1 | 1.0 | 2.9 | 4.5 | 12.0 | 17.8 | 30.5 | 21.2 | 8.02 | 1.9 | (798) | 6.69 | 1.5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 | 2.6 | 7.7 | 2.6 | 17.9 | 12.8 | 20.5 | 12.8 | 6.41 | 15.4 | ( 78) | 6.63 | 2.3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1 | 0.8 | 2.4 | 4.7 | 11.4 | 18.3 | 31.5 | 22.1 | 8.19 | 0.4 | (720) | 6.70 | 1.48 |
| *t* | | | | | | | | | | | | | -0.270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위치가 높다(좋다)는 의미임.

가구유형별도 수급가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일반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현재 삶의 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수급여부별 변인 결과와 동일하게, 일반가정의 경우 양부모가구로 살다가 사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구가 되었다면 시점을 전후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현재 삶을 이전 삶과 비교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2-45〉 가구유형별 현재 삶에 대한 상태**

단위: %, (명), 점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0.5 | 0.5 | 6.1 | 8.1 | 10.6 | 24.2 | 19.7 | 16.7 | 9.6 | 2.02 | 2.0 | (198) | 5.51 | 1.87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1.4 | 7.0 | 7.0 | 9.9 | 28.2 | 12.7 | 11.3 | 9.9 | 5.63 | 5.6 | ( 71) | 5.58 | 2.2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5.5 | 8.7 | 11.0 | 22.0 | 23.6 | 19.7 | 9.4 | - | - | (127) | 5.46 | 1.62 |
| *t* | | | | | | | | | | | | | 0.371 | |
| **양부모가구** | - | 0.4 | 0.7 | 3.4 | 4.1 | 12.1 | 17.3 | 30.1 | 21.5 | 8.34 | 2.0 | (803) | 6.71 | 1.5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 | 3.8 | 5.0 | 2.5 | 17.5 | 12.5 | 23.8 | 13.8 | 6.25 | 15.0 | ( 80) | 6.78 | 2.1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4 | 0.4 | 3.2 | 4.3 | 11.5 | 17.8 | 30.8 | 22.4 | 8.58 | 0.6 | (723) | 6.70 | 1.52 |
| *t* | | | | | | | | | | | | | 0.296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위치가 높다(좋다)는 의미임.

### 나) 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이루어 온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척도(0점: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만족한다)로 질문한 결과, 평균 6.49점으로 나왔다. 일반 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6.87점보다 낮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한 성취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부모가구가 6.0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표 Ⅲ-2-46〉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전체 | 1.3 | 2.0 | 2.0 | 4.0 | 4.0 | 25.2 | 11.3 | 9.9 | 20.5 | 10.6 | 9.3 | (151) | 6.49 | 2.28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 | - | 2.5 | 3.8 | 1.3 | 28.8 | 7.5 | 10.0 | 17.5 | 15.0 | 13.8 | ( 80) | 6.93 | 2.15 |
| 한부모 | 2.8 | 4.2 | 1.4 | 4.2 | 7.0 | 21.1 | 15.5 | 9.9 | 23.9 | 5.6 | 4.2 | ( 71) | 6.00 | 2.34 |
| *t* | | | | | | | | | | | | | 2.529*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 | 1.0 | 1.0 | 4.0 | 5.0 | 22.8 | 13.9 | 7.9 | 25.7 | 9.9 | 8.9 | (101) | 6.71 | 2.04 |
| 비수도권 | 4.0 | 4.0 | 4.0 | 4.0 | 2.0 | 30.0 | 6.0 | 14.0 | 10.0 | 12.0 | 10.0 | ( 50) | 6.04 | 2.68 |
| *t* | | | | | | | | | | | | | 1.716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3.8 | 3.8 | - | - | 3.8 | 34.6 | 11.5 | 15.4 | 19.2 | - | 7.7 | ( 26) | 6.00 | 2.28 |
| 5년 초과 | 0.8 | 1.6 | 2.4 | 4.8 | 4.0 | 23.2 | 11.2 | 8.8 | 20.8 | 12.8 | 9.6 | (125) | 6.59 | 2.28 |
| *t* | | | | | | | | | | | | | -1.205 | |
| **수급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1.3 | - | 1.3 | 5.1 | 2.6 | 29.5 | 5.1 | 10.3 | 16.7 | 12.8 | 15.4 | ( 78) | 6.81 | 2.31 |
| 수급 | 1.4 | 4.1 | 2.7 | 2.7 | 5.5 | 20.5 | 17.8 | 9.6 | 24.7 | 8.2 | 2.7 | ( 73) | 6.15 | 2.22 |
| *t* | | | | | | | | | | | | | 1.780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2.2 | 3.4 | 2.2 | 6.7 | 4.5 | 22.5 | 15.7 | 6.7 | 21.3 | 7.9 | 6.7 | ( 89) | 6.09 | 2.41 |
| 중위소득50%이상 | - | - | 1.7 | - | 3.4 | 29.3 | 5.2 | 13.8 | 20.7 | 13.8 | 12.1 | ( 58) | 7.02 | 1.97 |
| 무응답 | - | - | - | - | - | 25.0 | - | 25.0 | - | 25.0 | 25.0 | ( 4) | 7.75 | 2.22 |
| *F* | | | | | | | | | | | | | 3.647*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4 | 0.2 | 1.9 | 2.9 | 10.2 | 14.7 | 34.6 | 28.7 | 6.2 | 0.1 | (850) | 6.87 | 1.36 |
| *t* | | | | | | | | | | | | | -1.968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임.
* $p < .05$.

수급/비수급 가구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보다 일반 수급가구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했듯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정착과 함께 수급을 받지만,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은 경제적 몰락으로 비수급가구에서 수급가구가 되므로 살아온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비수급가구에서는 일반가정의 만족도(7.02점)가 탈북가정(6.81점)보다 높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을 갖는다.

**〈표 Ⅲ-2-47〉 수급여부별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0.5 | 2.0 | 1.5 | 4.9 | 6.9 | 20.2 | 17.7 | 22.7 | 18.7 | 3.94 | 1.0 | (203) | 6.08 | 1.8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4.1 | 2.7 | 2.7 | 5.5 | 20.5 | 17.8 | 9.6 | 24.7 | 8.22 | 2.7 | ( 73) | 6.15 | 2.2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8 | 0.8 | 6.2 | 7.7 | 20.0 | 17.7 | 30.0 | 15.4 | 1.54 | - | (130) | 6.05 | 1.56 |
| *t* | | | | | | | | | | | | | 0.356 | |
| **비수급** | 0.1 | 0.3 | 0.3 | 1.5 | 2.1 | 10.5 | 13.3 | 33.0 | 29.7 | 7.64 | 1.6 | (798) | 6.99 | 1.4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 | 1.3 | 5.1 | 2.6 | 29.5 | 5.1 | 10.3 | 16.7 | 12.82 | 15.4 | ( 78) | 6.81 | 2.3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3 | 0.1 | 1.1 | 2.1 | 8.5 | 14.2 | 35.4 | 31.1 | 7.08 | 0.1 | (720) | 7.02 | 1.26 |
| *t* | | | | | | | | | | | | | -0.782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임.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모두, 일반 양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구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는 일반 한부모가구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다.

**〈표 Ⅲ-2-48〉 가구유형별 인생에서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1.0 | 1.5 | 0.5 | 5.1 | 8.6 | 20.2 | 20.2 | 21.2 | 18.2 | 2.02 | 1.5 | (198) | 6.02 | 1.7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8 | 4.2 | 1.4 | 4.2 | 7.0 | 21.1 | 15.5 | 9.9 | 23.9 | 5.63 | 4.2 | ( 71) | 6.00 | 2.3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 | 5.5 | 9.4 | 19.7 | 22.8 | 27.6 | 15.0 | - | - | (127) | 6.02 | 1.40 |
| *t* | | | | | | | | | | | | | -0.078 | |

| 구분 | 최악 ——— 최상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양부모가구** | - | 0.4 | 0.5 | 1.5 | 1.7 | 10.6 | 12.7 | 33.3 | 29.8 | 8.09 | 1.5 | (803) | 7.01 | 1.4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 | 2.5 | 3.8 | 1.3 | 28.8 | 7.5 | 10.0 | 17.5 | 15.00 | 13.8 | ( 80) | 6.93 | 2.1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4 | 0.3 | 1.2 | 1.8 | 8.6 | 13.3 | 35.8 | 31.1 | 7.33 | 0.1 | (723) | 7.02 | 1.29 |
| *t* | -0.368 | | | | | | | | | | | |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다는 의미임.

### 4) 우울여부 및 우울수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 기준으로 총 11개 문항[17]에 대해 자가 측정한 결과이다. '우울하다'는 응답이 '우울하지 않다'보다 절반 이상(53.6%) 더 나왔다. 우울수준은 평균 20.06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양육자 우울수준 9.5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주일 기준으로 우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집단은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입국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이다. 이 중 남한 입국 5년 이하의 우울함이 76.9%, 우울수준 25.24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구의 우울수준도 24.02점으로 양부모 가구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표 Ⅲ-2-49〉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및 우울수준**

단위: %(명), 점, (명)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우울수준 | | 사례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46.4 | 53.6 | 100.0(151) | 11.0 | 7.67 | (151)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58.8 | 41.3 | 100.0( 80) | 9.1 | 7.35 | ( 80) |
| 한부모 | 32.4 | 67.6 | 100.0( 71) | 13.2 | 7.47 | ( 71) |
| $x^2(df)/t$ | 10.507(1)** | | | -3.403** | |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51.5 | 48.5 | 100.0(101) | 10.3 | 7.45 | (101) |
| 비수도권 | 36.0 | 64.0 | 100.0( 50) | 12.6 | 7.94 | ( 50) |
| $x^2(df)/t$ | 3.225(1) | | | -1.757 | | |

17) 상세문항은 부록 설문지를 참조바람.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우울수준 | | 사례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평균 | 표준편차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23.1 | 76.9 | 100.0( 26) | 13.9 | 6.44 | ( 26) |
| 5년 초과 | 51.2 | 48.8 | 100.0(125) | 10.4 | 7.79 | (125) |
| $x^2(df)/t$ | 6.845(1)** | | | 2.108* | |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57.7 | 42.3 | 100.0( 78) | 9.4 | 7.22 | ( 78) |
| 수급 | 34.2 | 65.8 | 100.0( 73) | 12.8 | 7.80 | ( 73) |
| $x^2(df)/t$ | 8.336(1)** | | | -2.747** | |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50% 미만 | 31.5 | 68.5 | 100.0( 89) | 13.2 | 7.67[a] | ( 89) |
| 중위소득50% 이상 | 69.0 | 31.0 | 100.0( 58) | 7.7 | 6.63[b] | ( 58) |
| 무응답 | 50.0 | 50.0 | 100.0( 4) | 11.0 | 5.72[ab] | ( 4) |
| $x^2(df)$/T | N/A | | | 9.881*** | |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6.8 | 23.2 | 100.0(850) | 5.3 | 5.14 | (850) |
| $x^2(df)/t$ | 59.330(1)*** | | | 8.914*** | | |

주: 1) 우울수준: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
2) 우울여부기준: 우울수준*20/11이 16점 이상이면 '우울함'으로,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음'으로 분류함.
3)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수급/비수급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약 66%)가 일반 수급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약 38%)보다 우울하다는 응답이 약 1.7배 많았다. 비수급 가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 약 42%, 일반 비수급 가구 약 21%로 2배가량 많았다. 우울수준의 결과도 동일하다.

우울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에서 낮은 가구 순으로 나열하면,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수급가구, 일반 수급가구, 일반 비수급가구 순이다.

**〈표 Ⅲ-2-50〉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및 우울수준**

단위: %(명), 점, (명)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우울수준 | | 사례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52.2 | 47.8 | 100.0(203) | 9.3 | 7.04 | (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4.2 | 65.8 | 100.0( 73) | 12.8 | 7.80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2.3 | 37.7 | 100.0(130) | 7.3 | 5.72 | (130) |
| $x^2(df)/t$ | 14.753(1)*** | | | 5.279*** | | |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우울수준 | | 사례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평균 | 표준편차 | |
| **비수급** | 77.3 | 22.7 | 100.0(798) | 5.3 | 5.38 | (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7.7 | 42.3 | 100.0( 78) | 9.4 | 7.22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9.4 | 20.6 | 100.0(720) | 4.9 | 4.95 | (720) |
| $x^2(df)/t$ | 18.988(1)*** | | | 5.394*** | | |

주: 1) 우울수준: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
2) 우울여부기준: 우울수준*20/11이 16점 이상이면 '우울함'으로,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음'으로 분류함.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68%)가 일반 한부모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48%)보다 '우울하다'는 응답이 약 1.4배 많았다. 양부모가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약 41%, 일반가정 약 19%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았다.

우울수준이 높은 순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 일반 한부모가구, 일반 양부모가구로 나타났다.

**〈표 Ⅲ-2-51〉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단위: %(명), 점, (명)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우울수준 | | 사례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가구** | 46.0 | 54.0 | 100.0(198) | 9.8 | 6.62 | (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2.4 | 67.6 | 100.0( 71) | 13.2 | 7.47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3.5 | 46.5 | 100.0(127) | 8.0 | 5.25 | (127) |
| $x^2(df)/t$ | 8.201(1)** | | | 5.240*** | | |
| **양부모가구** | 78.7 | 21.3 | 100.0(803) | 5.2 | 5.41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8.8 | 41.3 | 100.0( 80) | 9.1 | 7.35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0.9 | 19.1 | 100.0(723) | 4.8 | 4.97 | (723) |
| $x^2(df)/t$ | 21.110(1)*** | | | 5.128*** | | |

주: 1) 우울수준: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
2) 우울여부기준: 우울수준*20/11이 16점 이상이면 '우울함'으로, 16점 미만이면 '우울하지 않음'으로 분류함.
** $p < .01$, *** $p < .001$.

# 3. 발달 및 교육

## 가. 자녀의 발달수준

### 1) 인지발달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은 평균 2.41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의 2.17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 역시, 주양육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고려해야 하겠다.

한부모, 수도권,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의 인지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중 수급가구가 2.2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Ⅲ-3-1〉 인지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2.41 | 0.60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2.49 | 0.58 | ( 80) |
| 한부모 | 2.33 | 0.61 | ( 71) |
| *t* | 1.628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2.40 | 0.58 | (101) |
| 비수도권 | 2.44 | 0.64 | ( 50) |
| *t* | -0.364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2.54 | 0.51 | ( 78) |
| 수급 | 2.28 | 0.66 | ( 73) |
| *t* | 2.715**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32 | 0.64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2.57 | 0.49 | ( 58) |
| 무응답 | 2.22 | 0.67 | ( 4) |
| *F* | 3.280*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7 | 0.56 | (850) |
| *t* | 4.799***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5$, ** $p < .01$,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 영유아들의 인지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일반 수급가구(2.07점)와 일반 한부모가구(2.06점)의 주양육자는 자녀의 인지발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보였다.

**〈표 Ⅲ-3-2〉 수급여부별 인지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2.24 | 0.68 | ( 7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28 | 0.66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7 | 0.56 | (130) |
| *t* | 2.404* | | |
| **비수급** | 2.35 | 0.54 | (14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54 | 0.51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9 | 0.56 | (720) |
| *t* | 5.245***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5$, *** $p < .001$.

**〈표 Ⅲ-3-3〉 가구유형별 인지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2.29 | 0.60 | ( 7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33 | 0.61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6 | 0.55 | (127) |
| *t* | 3.151** | | |
| **양부모가구** | 2.32 | 0.59 | (14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49 | 0.58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9 | 0.56 | (723) |
| *t* | 4.447***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1$, *** $p < .001$.

### 2) 언어발달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언어발달 수준도 앞서 인지발달과 동일하게 평균 2.44점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2.16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유형은 점수가 같고, 비수도권,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3-4〉 언어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2.44 | 0.66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2.44 | 0.67 | ( 80) |
| 한부모 | 2.44 | 0.66 | ( 71) |
| *t* | -0.023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2.45 | 0.66 | (101) |
| 비수도권 | 2.40 | 0.68 | ( 50) |
| *t* | 0.450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2.53 | 0.57 | ( 78) |
| 수급 | 2.34 | 0.74 | ( 73) |
| *t* | 1.741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33 | 0.71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2.58 | 0.58 | ( 58) |
| 무응답 | 2.69 | 0.22 | ( 4) |
| *F* | 2.798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6 | 0.58 | (850) |
| *t* | 5.288***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언어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영유아 자녀의 언어발달 수준이 높았다. 인지발달과 유사하게 일반 수급가구와 일반 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는 자녀의 언어발달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향을 보였다.

**〈표 Ⅲ-3-5〉 수급여부별 언어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2.26 | 0.68 | (15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34 | 0.74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8 | 0.60 | (130) |
| *t* | 2.727** | | |
| **비수급** | 2.32 | 0.55 | (43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53 | 0.57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8 | 0.57 | (720) |
| *t* | 5.153***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언어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1$, *** $p < .001$.

**〈표 Ⅲ-3-6〉 가구유형별 언어발달 수준**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2.29 | 0.62 | (14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44 | 0.66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0 | 0.59 | (127) |
| *t* | 3.151** | | |
| **양부모가구** | 2.31 | 0.58 | (44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44 | 0.67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9 | 0.57 | (723) |
| *t* | 3.592*** | | |

주: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언어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 $p < .01$, *** $p < .001$.

### 3)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자녀의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등의 기질을 알아보았다.[18] 정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활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란 뜻이다(류정희 외, 2019: 219).[19] 사회성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3세 이상(출생 2015.8~2018.7) 유아로 한정하였다. 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

18) 상세 문항은 부록1 설문지(문20, 문21)를 참조바람.
19) 활동성 문항 5개(문항 2, 4, 5, 7, 9) 중 2개 문항(문항 4, 9)은 역코딩 함.

록 사교적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20]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기질은 일반가정의 영유아의 기질과 비교해서 3개 영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은 14.25점으로 일반가정 13.64점보다 높게 나와서 부정적인 정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은 19.94점으로 일반가정 16.56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즉,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활동적 기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은 37.65점으로 일반가정 33.82점보다 높아 사교적 기질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약간 더 많고, 적극적인 기질은 더 발달됐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들이 상대적으로 정서성 점수가 높고, 활동성과 사회성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7〉 자녀의 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단위: 점

| 구분 | 정서성 | | 활동성 | | 사회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전체 | 14.25 | 3.59 | 19.94 | 3.80 | 37.65 | 6.51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13.96 | 3.47 | 20.16 | 3.62 | 38.13 | 6.82 |
| 한부모 | 14.56 | 3.71 | 19.69 | 3.99 | 37.23 | 6.27 |
| *t* | -1.028 | | 0.762 | | 0.627 |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14.05 | 3.45 | 19.65 | 3.92 | 36.18 | 6.47 |
| 비수도권 | 14.64 | 3.84 | 20.52 | 3.50 | 39.88 | 6.00 |
| *t* | -0.952 | | -1.324 | | -2.623*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14.50 | 3.67 | 20.27 | 4.60 | 37.40 | 4.62 |
| 5년 초과 | 14.19 | 3.58 | 19.87 | 3.62 | 37.67 | 6.63 |
| *t* | 0.397 | | 0.484 | | -0.088 |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13.64 | 3.30 | 20.23 | 3.47 | 38.28 | 5.67 |
| 수급 | 14.89 | 3.78 | 19.63 | 4.12 | 37.07 | 7.23 |
| *t* | -2.166* | | 0.972 | | 0.841 | |

20) 사회성 문항 10개 중 4개 문항은 역코딩 함(문항 1, 7, 8, 9).

| 구분 | 정서성 | | 활동성 | | 사회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4.51 | 3.73 | 19.72 | 4.13 | 36.96 | 7.10 |
| 중위소득 50% 이상 | 14.00 | 3.26 | 20.07 | 3.24 | 38.74 | 5.70 |
| 무응답 | 12.00 | 4.76 | 23.00 | 2.31 | 37.67 | 2.89 |
| *F* | 1.157 | | 1.494 | | 0.707 |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64 | 3.41 | 16.56 | 2.72 | 33.82 | 4.33 |
| *t* | 2.011* | | 10.483*** | | 5.166*** | |

주: 1) '정서성' 및 '활동성'은 0-5세, '사회성'은 3-5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정서성과 활동성은 각각 5개, 사회성은 10개의 하위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p < .05$, *** $p < .001$.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영유아들이 일반 수급가구에 비해 부정적 정서가 더 많고,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을 더 지니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가구의 영유아들도 일반 비수급가구보다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8〉 수급여부별 자녀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단위: 점

| 구분 | 정서성 | | 활동성 | | 사회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수급** | 14.20 | 3.67 | 17.49 | 3.64 | 34.22 | 5.7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89 | 3.78 | 19.63 | 4.12 | 37.07 | 7.2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82 | 3.56 | 16.29 | 2.69 | 32.75 | 4.17 |
| *t* | 2.019* | | 6.218*** | | 3.623** | |
| **비수급** | 13.61 | 3.37 | 16.96 | 3.00 | 34.43 | 4.6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64 | 3.30 | 20.23 | 3.47 | 38.28 | 5.6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60 | 3.38 | 16.61 | 2.72 | 34.05 | 4.33 |
| *t* | 0.095 | | 8.937*** | | 4.590*** | |

주: 1) '정서성' 및 '활동성'은 0-5세, '사회성'은 3-5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정서성과 활동성은 각각 5개, 사회성은 10개의 하위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p < .05$, ** $p < .01$, *** $p < .001$.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도 앞서, 수급/비수급 가구와 동일하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보다 부정적 정서가 많고,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더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9〉 가구유형별 자녀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단위: 점

| 구분 | 정서성 | | 활동성 | | 사회성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한부모가구** | 14.02 | 3.44 | 17.47 | 3.62 | 34.23 | 5.3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56 | 3.71 | 19.69 | 3.99 | 37.23 | 6.2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71 | 3.25 | 16.24 | 2.71 | 32.67 | 4.10 |
| *t* | 1.687 | | 6.496*** | | 4.363*** | |
| **양부모가구** | 13.66 | 3.44 | 16.97 | 3.01 | 34.43 | 4.7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96 | 3.47 | 20.16 | 3.62 | 38.13 | 6.8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62 | 3.43 | 16.62 | 2.71 | 34.07 | 4.34 |
| *t* | 0.840 | | 8.505*** | | 3.648** | |

주: 1) '정서성' 및 '활동성'은 0-5세, '사회성'은 3-5세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2) 정서성과 활동성은 각각 5개, 사회성은 10개의 하위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p < .01$, *** $p < .001$.

## 나. 자녀의 교육수준

### 1) 희망 교육 수준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학원 이상이(62.9%)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 이상은 11.4%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한부모, 수도권, 남한거주 5년 이하, 수급 가구에서 대학원 이상 자녀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표 Ⅲ-3-10〉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단위: %(명)

| 구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2-3년제) | 대학교 (4년제) | 대학원이상 (석사 및 박사) | 계(수) |
|---|---|---|---|---|---|---|
| 전체 | - | 1.3 | 3.3 | 32.5 | 62.9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 | 2.5 | 2.5 | 35.0 | 60.0 | 100.0( 80) |
| 한부모 | - | - | 4.2 | 29.6 | 66.2 | 100.0( 71)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 | - | 3.0 | 28.7 | 68.3 | 100.0(101) |
| 비수도권 | - | 4.0 | 4.0 | 40.0 | 52.0 | 100.0( 50)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 | - | 3.8 | 23.1 | 73.1 | 100.0( 26) |
| 5년 초과 | - | 1.6 | 3.2 | 34.4 | 60.8 | 100.0(125)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 | 2.6 | 2.6 | 37.2 | 57.7 | 100.0( 78) |
| 수급 | - | - | 4.1 | 27.4 | 68.5 | 100.0( 73)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 | 1.1 | 3.4 | 30.3 | 65.2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 | 1.7 | 3.4 | 36.2 | 58.6 | 100.0( 58) |
| 무응답 | - | - | - | 25.0 | 75.0 | 100.0( 4)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1 | 2.0 | 4.8 | 81.6 | 11.4 | 100.0(85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부적절함.

### 2) 가능 교육 수준

실제 가능한 자녀의 교육수준을 알아보았다. 결과, 앞서 살펴본 희망 교육수준과는 달리, 4년제 대학교가 43%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37.1%, 전문대학 9.3% 순으로 1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은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 순으로 나와서 희망과 실제 교육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자녀에 대한 희망과 실제 교육수준 간의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부모, 남한 거주 5년 초과, 수급 가구의 경우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 전문

대학 순으로 나온 경향은 동일하나, 전문대학을 응답한 비율이 희망교육수준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부모 가구에서 전문대학까지 자녀가 공부했으면 하는 희망이 4.2%였다면, 실제 가능 교육수준은 14.1%로 3배 이상 많았지만, 대학원 이상의 희망은 66.2%, 실제는 31.0%로 절반 이하로 낮았다.

**〈표 Ⅲ-3-11〉 자녀의 가능 교육 수준**

단위: %, (명)

| 구분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2-3년제) | 대학교 (4년제) | 대학원이상 (석사 및 박사) | 계(수) |
|---|---|---|---|---|---|---|
| 전체 | 2.6 | 7.9 | 9.3 | 43.0 | 37.1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1.3 | 6.3 | 5.0 | 45.0 | 42.5 | 100.0( 80) |
| 한부모 | 4.2 | 9.9 | 14.1 | 40.8 | 31.0 | 100.0( 71)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4.0 | 7.9 | 8.9 | 39.6 | 39.6 | 100.0(101) |
| 비수도권 | - | 8.0 | 10.0 | 50.0 | 32.0 | 100.0( 50)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3.8 | 7.7 | 11.5 | 30.8 | 46.2 | 100.0( 26) |
| 5년 초과 | 2.4 | 8.0 | 8.8 | 45.6 | 35.2 | 100.0(125)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1.3 | 5.1 | 5.1 | 47.4 | 41.0 | 100.0( 78) |
| 수급 | 4.1 | 11.0 | 13.7 | 38.4 | 32.9 | 100.0( 73)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5 | 10.1 | 14.6 | 37.1 | 33.7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 | 3.4 | 1.7 | 53.4 | 41.4 | 100.0( 58) |
| 무응답 | - | 25.0 | - | 25.0 | 50.0 | 100.0( 4)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3.6 | 7.4 | 78.9 | 10.0 | 100.0(85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부적절함.

# 4. 관계

## 가. 가족의 사회자본

### 1) 경제적 도움

가족으로부터 용돈, 생활비 등과 같은 경제적 도움을 받는 지를 알아본 결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88%(전혀 받지 않는다+별로 받지 않는다)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1.46점이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1.69점보다 낮은 수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변인별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한부모(1.39점) 및 수급(1.44점) 가구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4-1〉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67.5 | 20.5 | 9.9 | 2.0 | 100.0(151) | 1.46 | 0.76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67.5 | 16.3 | 12.5 | 3.8 | 100.0( 80) | 1.53 | 0.86 |
| 한부모 | 67.6 | 25.4 | 7.0 | - | 100.0( 71) | 1.39 | 0.62 |
| *t* | | | | | | 1.081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65.3 | 19.8 | 11.9 | 3.0 | 100.0(101) | 1.52 | 0.82 |
| 비수도권 | 72.0 | 22.0 | 6.0 | - | 100.0( 50) | 1.34 | 0.59 |
| *t* | | | | | | 1.580 | |
| **자녀연령** | | | | | | | |
| 영아 | 57.4 | 27.9 | 11.8 | 2.9 | 100.0( 68) | 1.60 | 0.81 |
| 유아 | 75.9 | 14.5 | 8.4 | 1.2 | 100.0( 83) | 1.35 | 0.69 |
| *t* | | | | | | 2.041*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65.4 | 30.8 | - | 3.8 | 100.0( 26) | 1.42 | 0.70 |
| 5년 초과 | 68.0 | 18.4 | 12.0 | 1.6 | 100.0(125) | 1.47 | 0.77 |
| *t* | | | | | | -0.300 | |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69.2 | 15.4 | 12.8 | 2.6 | 100.0( 78) | 1.49 | 0.82 |
| 수급 | 65.8 | 26.0 | 6.8 | 1.4 | 100.0( 73) | 1.44 | 0.69 |
| *t* | | | | | | 0.396 |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66.3 | 22.5 | 9.0 | 2.2 | 100.0( 89) | 1.47 | 0.76 |
| 중위소득 50% 이상 | 69.0 | 19.0 | 10.3 | 1.7 | 100.0( 58) | 1.45 | 0.75 |
| 무응답 | 75.0 | - | 25.0 | - | 100.0( 4) | 1.50 | 1.00 |
| *F* | | | | | | 0.022 |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2.8 | 26.9 | 18.5 | 1.8 | 100.0(850) | 1.69 | 0.83 |
| *t* | | | | | | -3.369**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1$.

수급/비수급 가구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Ⅲ-4-2〉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52.2 | 28.6 | 17.7 | 1.5 | 100.0(203) | 1.68 | 0.8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5.8 | 26.0 | 6.8 | 1.4 | 100.0( 73) | 1.44 | 0.6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4.6 | 30.0 | 23.8 | 1.5 | 100.0(130) | 1.82 | 0.85 |
| *t* | | | | | | -3.511** | |
| **비수급** | 55.8 | 25.3 | 17.0 | 1.9 | 100.0(798) | 1.65 | 0.8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9.2 | 15.4 | 12.8 | 2.6 | 100.0( 78) | 1.49 | 0.8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4.3 | 26.4 | 17.5 | 1.8 | 100.0(720) | 1.67 | 0.83 |
| *t* | | | | | | -1.840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1$.

한부모와 양부모 가구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주변의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3〉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가구** | 47.0 | 24.7 | 24.2 | 4.0 | 100.0(198) | 1.85 | 0.9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7.6 | 25.4 | 7.0 | - | 100.0( 71) | 1.39 | 0.6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4 | 24.4 | 33.9 | 6.3 | 100.0(127) | 2.11 | 0.97 |
| *t* | | | | | | -6.321*** | |
| **양부모가구** | 57.0 | 26.3 | 15.4 | 1.2 | 100.0(803) | 1.61 | 0.7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7.5 | 16.3 | 12.5 | 3.8 | 100.0( 80) | 1.53 | 0.8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5.9 | 27.4 | 15.8 | 1.0 | 100.0(723) | 1.62 | 0.78 |
| *t* | | | | | | -1.003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 2) 정서적 도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속상할 일이 생길 때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본 결과, 약 64%가 '받지 않는다'(전혀 받지 않는다+별로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받는 편이다'는 약 29%가 응답해서 경제적 도움보다는 정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평균 2.05점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2.23점보다 낮았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점수가 낮았다. 눈에 띄는 점은 수급 가구(2.07점)가 비수급가구(2.03점)보다 정서적 도움을 좀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기간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왔는데, 정착 과정에서 북한(또는 중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Ⅲ-4-4〉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38.4 | 25.8 | 28.5 | 7.3 | 100.0(151) | 2.05 | 0.98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38.8 | 22.5 | 26.3 | 12.5 | 100.0( 80) | 2.13 | 1.07 |
| 한부모 | 38.0 | 29.6 | 31.0 | 1.4 | 100.0( 71) | 1.96 | 0.87 |
| *t* | | | | | | 1.058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34.7 | 27.7 | 28.7 | 8.9 | 100.0(101) | 2.12 | 0.99 |
| 비수도권 | 46.0 | 22.0 | 28.0 | 4.0 | 100.0( 50) | 1.90 | 0.95 |
| *t* | | | | | | 1.291 | |
| **자녀연령** | | | | | | | |
| 영아 | 33.8 | 30.9 | 27.9 | 7.4 | 100.0( 68) | 2.09 | 0.96 |
| 유아 | 42.2 | 21.7 | 28.9 | 7.2 | 100.0( 83) | 2.01 | 1.01 |
| *t* | | | | | | 0.473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65.4 | 23.1 | 11.5 | - | 100.0( 26) | 1.46 | 0.71 |
| 5년 초과 | 32.8 | 26.4 | 32.0 | 8.8 | 100.0(125) | 2.17 | 0.99 |
| *t* | | | | | | -4.299*** |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43.6 | 19.2 | 28.2 | 9.0 | 100.0( 78) | 2.03 | 1.04 |
| 수급 | 32.9 | 32.9 | 28.8 | 5.5 | 100.0( 73) | 2.07 | 0.92 |
| *t* | | | | | | -0.267 |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0.4 | 30.3 | 24.7 | 4.5 | 100.0( 89) | 1.93 | 0.91 |
| 중위소득 50% 이상 | 34.5 | 19.0 | 34.5 | 12.1 | 100.0( 58) | 2.24 | 1.06 |
| 무응답 | 50.0 | 25.0 | 25.0 | - | 100.0( 4) | 1.75 | 0.96 |
| *F* | | | | | | 1.947 |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0.4 | 20.9 | 43.6 | 5.1 | 100.0(850) | 2.23 | 0.94 |
| *t* | | | | | | -2.241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및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에 비해 정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들 4가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1.96점으로 정서적 도움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5〉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28.6 | 29.6 | 36.9 | 4.9 | 100.0(203) | 2.18 | 0.9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2.9 | 32.9 | 28.8 | 5.5 | 100.0( 73) | 2.07 | 0.92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6.2 | 27.7 | 41.5 | 4.6 | 100.0(130) | 2.25 | 0.90 |
| *t* | | | | | | -1.342 | |
| **비수급** | 32.3 | 19.7 | 42.5 | 5.5 | 100.0(798) | 2.21 | 0.9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3.6 | 19.2 | 28.2 | 9.0 | 100.0( 78) | 2.03 | 1.0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1.1 | 19.7 | 44.0 | 5.1 | 100.0(720) | 2.23 | 0.95 |
| *t* | | | | | | -1.802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표 Ⅲ-4-6〉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정서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가구 | 31.3 | 23.7 | 40.4 | 4.5 | 100.0(198) | 2.18 | 0.9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8.0 | 29.6 | 31.0 | 1.4 | 100.0( 71) | 1.96 | 0.8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7.6 | 20.5 | 45.7 | 6.3 | 100.0(127) | 2.31 | 0.95 |
| *t* | | | | | | -2.562* | |
| 양부모가구 | 31.6 | 21.2 | 41.6 | 5.6 | 100.0(803) | 2.21 | 0.9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8.8 | 22.5 | 26.3 | 12.5 | 100.0( 80) | 2.13 | 1.0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0.8 | 21.0 | 43.3 | 4.8 | 100.0(723) | 2.22 | 0.94 |
| *t* | | | | | | -0.855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3) 생활의 도움

가사, 육아, 간병 등과 같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본 결과, 84%가 '받지 않는다'(전혀 받지 않는다+별로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4점 척도 기준으로 평균 1.54점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2.1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생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Ⅲ-4-7〉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63.6 | 20.5 | 13.9 | 2.0 | 100.0(151) | 1.54 | 0.81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60.0 | 23.8 | 12.5 | 3.8 | 100.0( 80) | 1.60 | 0.85 |
| 한부모 | 67.6 | 16.9 | 15.5 | - | 100.0( 71) | 1.48 | 0.75 |
| *t* | | | | | | 0.286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60.4 | 23.8 | 13.9 | 2.0 | 100.0(101) | 1.57 | 0.80 |
| 비수도권 | 70.0 | 14.0 | 14.0 | 2.0 | 100.0( 50) | 1.48 | 0.81 |
| *t* | | | | | | 0.675 | |
| **자녀연령** | | | | | | | |
| 영아 | 55.9 | 26.5 | 16.2 | 1.5 | 100.0( 68) | 1.63 | 0.81 |
| 유아 | 69.9 | 15.7 | 12.0 | 2.4 | 100.0( 83) | 1.47 | 0.80 |
| *t* | | | | | | 1.234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73.1 | 15.4 | 11.5 | - | 100.0( 26) | 1.38 | 0.70 |
| 5년 초과 | 61.6 | 21.6 | 14.4 | 2.4 | 100.0(125) | 1.58 | 0.83 |
| *t* | | | | | | -1.102 |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60.3 | 20.5 | 15.4 | 3.8 | 100.0( 78) | 1.63 | 0.88 |
| 수급 | 67.1 | 20.5 | 12.3 | - | 100.0( 73) | 1.45 | 0.71 |
| *t* | | | | | | 1.355 | |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69.7 | 16.9 | 12.4 | 1.1 | 100.0( 89) | 1.45 | 0.75 |
| 중위소득 50% 이상 | 53.4 | 25.9 | 17.2 | 3.4 | 100.0( 58) | 1.71 | 0.88 |
| 무응답 | 75.0 | 25.0 | - | - | 100.0( 4) | 1.25 | 0.50 |
| *F* | | | | | | 2.093 |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3.8 | 22.6 | 36.0 | 7.6 | 100.0(850) | 2.18 | 0.99 |
| *t* | | | | | | -8.565***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수급과 비수급 가구 및 한부모와 양부모 가구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 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에 비해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4가구 중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1.45점으로 생활의 도움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수급여부별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44.8 | 27.1 | 25.6 | 2.5 | 100.0(203) | 1.86 | 0.8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7.1 | 20.5 | 12.3 | - | 100.0( 73) | 1.45 | 0.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2.3 | 30.8 | 33.1 | 3.8 | 100.0(130) | 2.08 | 0.90 |
| *t* | | | | | | -5.533*** | |
| **비수급** | 36.6 | 21.1 | 34.5 | 7.9 | 100.0(798) | 2.14 | 1.0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0.3 | 20.5 | 15.4 | 3.8 | 100.0( 78) | 1.63 | 0.8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0 | 21.1 | 36.5 | 8.3 | 100.0(720) | 2.19 | 1.00 |
| *t* | | | | | | -5.273***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표 Ⅲ-4-9〉 가구유형별 가족의 사회자본: 생활의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가구** | 40.9 | 23.7 | 28.8 | 6.6 | 100.0(198) | 2.01 | 0.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7.6 | 16.9 | 15.5 | - | 100.0( 71) | 1.48 | 0.7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6.0 | 27.6 | 36.2 | 10.2 | 100.0(127) | 2.31 | 0.97 |
| *t* | | | | | | -6.668*** | |
| **양부모가구** | 37.6 | 21.9 | 33.6 | 6.8 | 100.0(803) | 2.10 | 0.9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0.0 | 23.8 | 12.5 | 3.8 | 100.0( 80) | 1.60 | 0.8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1 | 21.7 | 36.0 | 7.2 | 100.0(723) | 2.15 | 0.99 |
| *t* | | | | | | -5.414***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 4) 정보적 도움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정보적 도움) 알아본 결과, 약 53%가 '받지 않는다'(전혀 받지 않는다+별로 받지 않는다), 약 47%가 '받는 편이다'(받는 편이다+매우 많이 받는다)로 응답하였다. 정보적 도움은 앞서 살펴본 도움들에 비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10〉 가족의 사회자본: 정보적 도움**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25.8 | 27.2 | 41.1 | 6.0 | 100.0(151) | 2.27 | 0.92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26.3 | 20.0 | 42.5 | 11.3 | 100.0( 80) | 2.39 | 1.00 |
| 한부모 | 25.4 | 35.2 | 39.4 | - | 100.0( 71) | 2.14 | 0.80 |
| *t* | | | | | | 1.683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22.8 | 27.7 | 44.6 | 5.0 | 100.0(101) | 2.32 | 0.88 |
| 비수도권 | 32.0 | 26.0 | 34.0 | 8.0 | 100.0( 50) | 2.18 | 0.98 |
| *t* | | | | | | 0.863 | |

| 구분 | 전혀 받지 않는다 | 별로 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자녀연령** | | | | | | | |
| 영아 | 25.0 | 26.5 | 44.1 | 4.4 | 100.0( 68) | 2.28 | 0.90 |
| 유아 | 26.5 | 27.7 | 38.6 | 7.2 | 100.0( 83) | 2.27 | 0.94 |
| *t* | | | | | | 0.095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42.3 | 23.1 | 34.6 | - | 100.0( 26) | 1.92 | 0.89 |
| 5년 초과 | 22.4 | 28.0 | 42.4 | 7.2 | 100.0(125) | 2.34 | 0.91 |
| *t* | | | | | | -2.158* |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28.2 | 23.1 | 38.5 | 10.3 | 100.0( 78) | 2.31 | 1.00 |
| 수급 | 23.3 | 31.5 | 43.8 | 1.4 | 100.0( 73) | 2.23 | 0.83 |
| *t* | | | | | | 0.503 |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8.1 | 27.0 | 42.7 | 2.2 | 100.0( 89) | 2.19 | 0.88 |
| 중위소득 50% 이상 | 22.4 | 29.3 | 36.2 | 12.1 | 100.0( 58) | 2.38 | 0.97 |
| 무응답 | 25.0 | - | 75.0 | - | 100.0( 4) | 2.50 | 1.00 |
| *F* | | | | | | 0.868 |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4.2 | 21.9 | 46.8 | 7.1 | 100.0(850) | 2.37 | 0.93 |
| *t* | | | | | | -1.169 | |

주: 평균은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5$.

## 나. 가족관계

### 1) 가족건강성[21)]

같이 살고 있는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지(가족건강성)를 알아본 결과, 5점 척도로 해서 평균 3.79점이 나왔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3.81점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가족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21)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 양옥경, 김연수(2007)가 개발한 정서적 친밀성과 수용 및 존중성을 측정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축약형 가족관계 척도를 활용함(류정희 외, 2019: 270). 15문항은 부록 1 설문지를 참조바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에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4-11〉 가족건강성**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3.79 | 0.92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4.03 | 0.83 | ( 80) |
| 한부모 | 3.53 | 0.94 | ( 71) |
| *t* | 3.410**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3.88 | 0.86 | (101) |
| 비수도권 | 3.61 | 1.01 | ( 50) |
| *t* | 1.742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3.65 | 1.07 | ( 26) |
| 5년 초과 | 3.82 | 0.88 | (125) |
| *t* | -0.856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4.01 | 0.87 | ( 78) |
| 수급 | 3.57 | 0.92 | ( 73) |
| *t* | 0.778**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3.55^{a}$ | 0.95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4.15^{b}$ | 0.75 | ( 58) |
| 무응답 | $4.00^{ab}$ | 0.88 | ( 4) |
| *F* | 8.187***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81 | 0.54 | (850) |
| *t* | -0.161 | | |

주: 1)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15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좋다는 의미임.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끼리 비교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가족건강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가구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가 4.03점으로 가족건강성이 가장 좋았다.

**〈표 Ⅲ-4-12〉 수급여부별 가족건강성**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3.56 | 0.68 | (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57 | 0.92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5 | 0.51 | (130) |
| *t* | 0.135 | | |
| **비수급** | 3.87 | 0.58 | (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01 | 0.87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85 | 0.54 | (720) |
| *t* | 1.528 | | |

주: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15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표 Ⅲ-4-13〉 가구유형별 가족건강성**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3.48 | 0.73 | (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53 | 0.94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5 | 0.59 | (127) |
| *t* | 0.651 | | |
| **양부모가구** | 3.88 | 0.55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03 | 0.83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87 | 0.51 | (723) |
| *t* | 1.654 | | |

주: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15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2) 인간관계 만족도

본 설문조사 응답자(주양육자)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10점 척도 기준으로 알아본 결과, 평균 6.8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7.24점에 비해서는 낮았다.

한부모, 비수도권,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인간관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4〉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6.81 | 2.09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7.31 | 1.92 | ( 80) |
| 한부모 | 6.25 | 2.14 | ( 71) |
| *t* | 0.594**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6.96 | 2.00 | (101) |
| 비수도권 | 6.52 | 2.25 | ( 50) |
| *t* | 1.221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6.77 | 1.97 | ( 26) |
| 5년 초과 | 6.82 | 2.12 | (125) |
| *t* | -0.121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7.00 | 2.13 | ( 78) |
| 수급 | 6.62 | 2.05 | ( 73) |
| *t* | 1.128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6.43^{a}$ | 2.12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7.29^{b}$ | 1.89 | ( 58) |
| 무응답 | $8.50^{ab}$ | 2.38 | ( 4) |
| *F* | 4.561*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24 | 1.20 | (850) |
| *t* | -2.412* | | |

주: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가정보다 낮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수급가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5〉 수급여부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6.69 | 1.63 | (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62 | 2.05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73 | 1.35 | (130) |
| *t* | −0.428 | | |
| **비수급** | 7.30 | 1.28 | (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7.00 | 2.13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33 | 1.15 | (720) |
| *t* | −1.341 |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표 Ⅲ-4-16〉 가구유형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6.49 | 1.61 | (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25 | 2.14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62 | 1.20 | (127) |
| *t* | −1.336 | | |
| **양부모가구** | 7.34 | 1.26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7.31 | 1.92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34 | 1.17 | (723) |
| *t* | −0.146 |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3) 부모효능감[22)]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부모효능감 문항은 류정희 외(2019) 연구에서 사용한 9개의 해당 문항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개발한 효능감(9문항), 불안감 및 좌절감(4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PSOC 척도를 사용함(류정희 외, 2019: 268, 재인용).

**〈표 Ⅲ-4-17〉 부모효능감 문항**

| 문항내용 |
|---|
|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
|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 나는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
|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
|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
|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주: *표시는 역코딩 문항임
자료: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69.

결과, 평균 3.53점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3.47점보다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부모, 남한 거주 5년 이하,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부모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4-18〉 부모효능감**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3.53 | 0.54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3.65 | 0.56 | ( 80) |
| 한부모 | 3.40 | 0.49 | ( 71) |
| *t* | 0.219**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3.53 | 0.56 | (101) |
| 비수도권 | 3.53 | 0.51 | ( 50) |
| *t* | -0.009 | | |
| **자녀연령** | | | |
| 영아 | 3.50 | 0.51 | ( 68) |
| 유아 | 3.56 | 0.57 | ( 83) |
| *t* | -0.601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3.47 | 0.55 | ( 26) |
| 5년 초과 | 3.54 | 0.54 | (125) |
| *t* | 0.680 |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3.64 | 0.54 | ( 78) |
| 수급 | 3.42 | 0.53 | ( 73) |
| *t* | 2.504*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3.43[a] | 0.50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3.69[b] | 0.58 | ( 58) |
| 무응답 | 3.47[ab] | 0.37 | ( 4) |
| *F* | 4.085*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7 | 0.45 | (850) |
| *t* | 1.356 | | |

주: 1)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9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2) a b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수급/비수급 가구와 한부모/양부모 가구 끼리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보다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는 스스로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 4가구 중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3.65점), 비수급가구(3.64점)의 부모효능감이 거의 비슷한 점수로 가장 높았다.

**〈표 Ⅲ-4-19〉 수급여부에 따른 부모효능감**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3.36 | 0.47 | (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42 | 0.53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33 | 0.44 | (130) |
| *t* | 1.242 | | |
| **비수급** | 3.51 | 0.46 | (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64 | 0.54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9 | 0.45 | (720) |
| *t* | 2.263* | | |

주: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9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p < .05$.

**〈표 Ⅲ-4-20〉 가구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3.31 | 0.43 | (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40 | 0.49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26 | 0.38 | (127) |
| *t* | 2.057* | | |
| **양부모가구** | 3.52 | 0.46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65 | 0.56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1 | 0.45 | (723) |
| *t* | 2.249* | | |

주: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9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 $p < .05$.

## 다. 또래관계

### 1) 함께 어울려 노는 친구 수

자녀(설문조사 응답 기준 자녀)의 친구관계를 알아보았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는 3~5명이 53%로 가장 많았고, 1~2명, 6~1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약 5%가 나왔다. 이러한 경향성은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거의 동일하다. 자녀의 친구 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나오지 않았다.

**〈표 Ⅲ-4-21〉 자녀의 친한 친구 수**

단위: %, (명)

| 구분 | 없음 | 1~2명 | 3~5명 | 6~10명 | 11명이상 | 계(수) |
|---|---|---|---|---|---|---|
| 전체 | 4.8 | 25.3 | 53.0 | 13.3 | 3.6 | 100.0( 83)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5.1 | 28.2 | 41.0 | 20.5 | 5.1 | 100.0( 39) |
| 한부모 | 4.5 | 22.7 | 63.6 | 6.8 | 2.3 | 100.0( 44)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8.0 | 20.0 | 58.0 | 12.0 | 2.0 | 100.0( 50) |
| 비수도권 | - | 33.3 | 45.5 | 15.2 | 6.1 | 100.0( 33)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20.0 | 20.0 | 40.0 | 20.0 | - | 100.0( 5) |
| 5년 초과 | 3.8 | 25.6 | 53.8 | 12.8 | 3.8 | 100.0( 78) |

| 구분 | 없음 | 1~2명 | 3~5명 | 6~10명 | 11명이상 | 계(수) |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2.5 | 27.5 | 45.0 | 20.0 | 5.0 | 100.0( 40) |
| 수급 | 7.0 | 23.3 | 60.5 | 7.0 | 2.3 | 100.0( 43)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1 | 28.6 | 59.2 | 6.1 | 2.0 | 100.0( 49) |
| 중위소득 50% 이상 | 3.2 | 19.4 | 45.2 | 25.8 | 6.5 | 100.0( 31) |
| 무응답 | 33.3 | 33.3 | 33.3 | - | - | 100.0( 3)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5.4 | 33.5 | 53.8 | 5.6 | 1.7 | 100.0(483) |

주: 1) 조사대상아동이 3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함.
2) 빈도분포 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 2) 친구와 잘 어울리는 정도

자녀가 친구와 잘 어울리는 지를 알아본 결과, '쉽게 친해지며 잘 어울린다' 62.7%로 가장 많았고, '시간이 걸리나 함께 잘 어울린다' 35.9%, '잘 어울리지 못한다' 2.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 대부분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해서, '쉽게 친해지며 잘 어울린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독립변인은 없었다. 다만, 수급과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표 Ⅲ-4-22〉 자녀의 친구들과 어울림 정도**

단위: %(명)

| 구분 | 잘 어울리지 못한다 | 시간이 걸리나, 함께 잘 어울린다 | 쉽게 친해지며 잘 어울린다 | 계(수) |
|---|---|---|---|---|
| 전체 | 2.4 | 34.9 | 62.7 | 100.0( 83) |
| **가구유형** | | | | |
| 양부모 | 2.6 | 35.9 | 61.5 | 100.0( 39) |
| 한부모 | 2.3 | 34.1 | 63.6 | 100.0( 44) |
| $x^2(df)$ | N/A | | | |

| 구분 | 잘 어울리지 못한다 | 시간이 걸리나, 함께 잘 어울린다 | 쉽게 친해지며 잘 어울린다 | 계(수)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5년 이하 | - | 60.0 | 40.0 | 100.0( 5) |
| 5년 초과 | 2.6 | 33.3 | 64.1 | 100.0( 78) |
| $x^2(df)$ | N/A | | | |
| **수급여부** | | | | |
| 비수급 | - | 37.5 | 62.5 | 100.0( 40) |
| 수급 | 4.7 | 32.6 | 62.8 | 100.0( 43) |
| $x^2(df)$ | N/A | | | |
| **가구소득**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1 | 32.7 | 63.3 | 100.0( 49) |
| 중위소득 50% 이상 | - | 35.5 | 64.5 | 100.0( 31) |
| 무응답 | - | 66.7 | 33.3 | 100.0( 3) |
| $x^2(df)$ | N/A | | | |
| **조사구분**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 | 42.2 | 54.2 | 100.0(483) |
| $x^2(df)$ | 2.078(2) | | | |

주: 조사대상아동이 3세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함.

## 5. 양육 및 돌봄

### 가. 방과후 자녀 양육실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 자녀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와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부모/친척(5.6%), 아동의 형제자매(3.2%),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2.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하면, 조부모/친척이 돌봐주는 경우가 탈북가정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 살면서 북한의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부모/친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이러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남한 거주 5년 초과 가구에서 조부모/친척 비율이 높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5-1〉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장소와 돌봄자**

단위: %(명)

| 구분 | 장소 | | | 계(수) | 돌봄자 | | | | | 계(수) |
|---|---|---|---|---|---|---|---|---|---|---|
| | 집 | 학원 등 타 기관 | 친척집/이웃집 | | 부모 | 조부모/친척 | 아동의 형제자매 | 육아도우미 | 기타 | |
| 전체 | 88.9 | 8.7 | 2.4 | 100.0 (126) | 88.9 | 5.6 | 3.2 | 2.4 | - | 100.0 (126) |
| **가구유형** | | | | | | | | | | |
| 양부모 | 94.1 | 2.9 | 2.9 | 100.0 ( 68) | 86.8 | 8.8 | 4.4 | - | - | 100.0 ( 68) |
| 한부모 | 82.8 | 15.5 | 1.7 | 100.0 ( 58) | 91.4 | 1.7 | 1.7 | 5.2 | - | 100.0 ( 58) |
| **거주지역** | | | | | | | | | | |
| 수도권 | 89.7 | 7.7 | 2.6 | 100.0 ( 78) | 91.0 | 5.1 | 1.3 | 2.6 | - | 100.0 ( 78) |
| 비수도권 | 87.5 | 10.4 | 2.1 | 100.0 ( 48) | 85.4 | 6.3 | 6.3 | 2.1 | - | 100.0 ( 48) |
| **자녀연령** | | | | | | | | | | |
| 영아 | 93.5 | 4.3 | 2.2 | 100.0 ( 46) | 89.1 | 4.3 | 4.3 | 2.2 | - | 100.0 ( 46) |
| 유아 | 86.3 | 11.3 | 2.5 | 100.0 ( 80) | 88.8 | 6.3 | 2.5 | 2.5 | - | 100.0 ( 80)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5년 이하 | 83.3 | 16.7 | - | 100.0 ( 18) | 83.3 | - | 5.6 | 11.1 | - | 100.0 ( 18) |
| 5년 초과 | 89.8 | 7.4 | 2.8 | 100.0 (108) | 89.8 | 6.5 | 2.8 | 0.9 | - | 100.0 (108) |
| **수급여부** | | | | | | | | | | |
| 비수급 | 91.2 | 4.4 | 4.4 | 100.0 ( 68) | 88.2 | 8.8 | 2.9 | - | - | 100.0 ( 68) |
| 수급 | 86.2 | 13.8 | - | 100.0 ( 58) | 89.7 | 1.7 | 3.4 | 5.2 | - | 100.0 ( 58) |
| **가구소득**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88.9 | 11.1 | - | 100.0 ( 72) | 93.1 | 2.8 | 4.2 | - | - | 100.0 ( 72) |
| 중위소득50%이상 | 90.0 | 4.0 | 6.0 | 100.0 ( 50) | 84.0 | 10.0 | 2.0 | 4.0 | - | 100.0 ( 50) |
| 무응답 | 75.0 | 25.0 | - | 100.0 ( 4) | 75.0 | - | - | 25.0 | - | 100.0 ( 4) |
| **조사구분**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 92.6 | 3.5 | 3.5 | - | 0.4 | 100.0 (564) |

주: 1)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조사함.
2) 장소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에는 없음.
3) 빈도분포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수급/비수급 가구 간의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에서 조부모/친척보다 육아도우미가 5.2%로 더 많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수급/비수급 상관없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이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가구는 조부모/친척의 비율이 8.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조부모/친척의 양육지원이 주양육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표 Ⅲ-5-2〉 수급여부별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돌봄자**

단위: %(명)

| 구분 | 부모 | 조부모/친척/친지 | 아동의 형제자매 | 육아 도우미 | 기타 | 계(수) |
|---|---|---|---|---|---|---|
| **수급** | 91.5 | 2.8 | 2.8 | 2.1 | 0.7 | 100.0(14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9.7 | 1.7 | 3.4 | 5.2 | - | 100.0( 5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2.9 | 3.6 | 2.4 | - | 1.2 | 100.0( 84) |
| **비수급** | 92.0 | 4.2 | 3.6 | - | 0.2 | 100.0(54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8.2 | 8.8 | 2.9 | - | - | 100.0( 6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2.5 | 3.5 | 3.8 | - | 0.2 | 100.0(480) |

주: 1)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조사함.
2) 빈도분포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양부모가구는 일반가정이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부모 돌봄이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의 주양육자의 돌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경제적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부모/친척 등의 인적자원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표 Ⅲ-5-3〉 가구유형별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방과 후 돌봄자**

단위: %(명)

| 구분 | 부모 | 조부모/친척/친지 | 아동의 형제자매 | 육아 도우미 | 기타 | 계(수) |
|---|---|---|---|---|---|---|
| **한부모가구** | 78.7 | 9.7 | 9.7 | 1.9 | - | 100.0(15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91.4 | 1.7 | 1.7 | 5.2 | - | 100.0( 5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1.1 | 14.4 | 14.4 | - | - | 100.0( 97) |
| **양부모가구** | 95.7 | 2.2 | 1.7 | - | 0.4 | 100.0(53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86.8 | 8.8 | 4.4 | - | - | 100.0( 6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7.0 | 1.3 | 1.3 | - | 0.4 | 100.0(467) |

주: 1) 교육/보육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조사함.
2) 빈도분포특성상 차이검정이 부적절함.

## 나.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해서 최소 11점에서 최대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류정희 외, 2019: 290).

**〈표 Ⅲ-5-4〉 양육스트레스 척도**

| 문항 |
|---|
|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
|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자료: 류정희 외(2019).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0.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54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27.77점보다 낮은 수치로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응답자(주양육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인별로 보면, 한부모, 비수도권, 유아, 남한 거주 5년 초과,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저소득층의 한부모가정의 주양육자가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Ⅲ-5-5〉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27.54 | 8.88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25.48 | 8.82 | ( 80) |
| 한부모 | 29.86 | 8.43 | ( 71) |
| *t* | -3.113** |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26.67 | 8.53 | (101) |
| 비수도권 | 29.28 | 9.40 | ( 50) |
| *t* | −1.708 | | |
| **자녀연령** | | | |
| 영아 | 26.03 | 8.27 | ( 68) |
| 유아 | 28.77 | 9.22 | ( 83) |
| *t* | −1.903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27.12 | 8.09 | ( 26) |
| 5년 초과 | 27.62 | 9.07 | (125) |
| *t* | −0.265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26.40 | 8.80 | ( 78) |
| 수급 | 28.75 | 8.88 | ( 73) |
| *t* | −1.638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9.37[a] | 9.02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24.90[b] | 8.25 | ( 58) |
| 무응답 | 25.00[ab] | 4.76 | ( 4) |
| *F* | 4.858**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7.77 | 9.05 | (850) |
| *t* | −0.298 | | |

주: 1)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의 총점을 산출함.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임.
3)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급가구끼리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28.75점)보다 일반 수급가구(30.9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간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26.40점)보다 일반 비수급가구(27.1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고, 일반 비수급 가구,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일반 수급가구 순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다. 탈북, 일반가정보다는 수급, 비수급 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Ⅲ-5-6〉 수급여부별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30.19 | 8.60 | (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8.75 | 8.88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0.99 | 8.37 | (130) |
| *t* | -1.789 | | |
| **비수급** | 27.12 | 9.02 | (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6.40 | 8.80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7.19 | 9.05 | (720) |
| *t* | -0.740 | | |

주: 1)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의 총점을 산출함.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임.

가구유형별로 일반가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29.86점)보다 일반 한부모가구의 양육스트레스(31.74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 가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가구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고, 일반 양부모가구,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 일반 한부모 가구순으로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수급/비수급과 마찬가지로, 탈북가정 또는 일반가정이기보다는 한부모, 양부모 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Ⅲ-5-7〉 가구유형별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31.07 | 8.30 | (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9.86 | 8.43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1.74 | 8.17 | (127) |
| *t* | -1.535 |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양부모가구** | 26.92 | 9.01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5.48 | 8.82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7.08 | 9.02 | (723) |
| *t* | −1.511 | | |

주: 1)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의 총점을 산출함.
2)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의미임.

## 다. 훈육방식

자녀의 훈육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는 벌보다는 칭찬과 보상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체벌은 1.28점으로 거의 또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하면, 말로 야단치기, 장난감·게임기·스마트폰 사용하기,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훈육방식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체벌, 벌세우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일반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8〉 훈육방식**

단위: 점, (명)

| 구분 | 북한이탈주민 (n=151) | | 아동종합실태조사 (n=850)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신체적 체벌 | 1.28 | 0.51 | 1.33 | 0.55 | −0.988 |
| 벌세우기 | 1.40 | 0.63 | 1.50 | 0.71 | −1.660 |
| 말로 야단치기 | 2.50 | 0.82 | 2.07 | 0.94 | 5.309*** |
| 장난감,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기 | 2.12 | 0.93 | 1.70 | 0.89 | 5.270*** |
|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선물, 칭찬스티커 등) | 3.09 | 0.82 | 2.34 | 1.12 | 9.833*** |

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점~매우 자주 사용한다 4점'으로 산출한 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훈육을 많이 한다는 의미임.
*** $p < .001$.

### 라. 신체적 체벌 필요성 정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체벌이 필요한 지를 알아보았다.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1.87점(4점 척도)으로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2.15점보다 신체적 체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 내에서도 일반가정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더 하고 있었다.

**〈표 Ⅲ-5-9〉 신체적 체벌 필요에 대한 생각**

단위: 점,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t* |
|---|---|---|---|---|
| **전체** |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 1.87 | 0.80 | (151) | -3.98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5 | 0.80 | (850) | |
| **수급** |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 2.01 | 0.79 | ( 73) | -1.90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23 | 0.77 | (130) | |
| **비수급** |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 1.73 | 0.78 | ( 78) | -4.22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3 | 0.80 | (720) | |
| **한부모** |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 1.86 | 0.76 | ( 71) | -2.14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2 | 0.84 | (127) | |
| **양부모** | | | | |
| 북한이탈주민가정조사 | 1.88 | 0.83 | ( 80) | -2.9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5 | 0.79 | (723) | |

주: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1점~꼭 필요하다 4점'으로 산출한 점수임.
2)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체벌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임.
* $p < .05$, ** $p < .01$, *** $p < .001$.

## 6. 여가 및 활동

### 가. 자녀의 매체 이용 실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하루 중 TV, 책, 스마트폰 등 매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V시청을 하지 않는다'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약 18%, 일반가정 약 11%로 나왔다. 그러나 하루 5시간 이상 시청한다는 응답 역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4.6%로 일반가정 0.9%보다 더 많았다. TV시청을 안하는 경우도 이와는 반대로 5시간 이상 많이 보는 경우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1시간 미만 시청한다(34.4%)는 응답이, 일반가정은 1~3시간 미만 시청한다(45.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약 25%, 일반가정 약 10%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역시, 하루 5시간 이상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탈북가정에서 더 많이 나왔다. 탈북가정, 일반가정 모두 일일 1시간 미만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약 26%, 일반가정 약 50%가 나왔다. 일반가정에서 스마트폰 등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4.0%로, 일반가정 0.4%보다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일 1~3시간 미만 사용이 34.4%로 가장 많았고, 일반가정은 일일 1시간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다.

정리하면,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등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표 Ⅲ-6-1〉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단위: %(명)

| 구분 | | 안함 | 1시간 미만 | 1~3시간 미만 | 3~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계(수) |
|---|---|---|---|---|---|---|---|
| TV시청 | 북한이탈주민 | 17.9 | 34.4 | 32.5 | 10.6 | 4.6 | 100.0(151) |
| | 아동종합실태 | 10.7 | 37.4 | 45.3 | 5.6 | 0.9 | 100.0(850) |
| | $x^2(df)$ | 27.377(4)*** | | | | | |
| 책읽기 | 북한이탈주민 | 25.2 | 61.6 | 10.6 | - | 2.6 | 100.0(151) |
| | 아동종합실태 | 10.2 | 58.8 | 28.0 | 2.8 | 0.1 | 100.0(850) |
| | $x^2(df)$ | N/A | | | | | |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용 | 북한이탈주민 | 25.8 | 27.8 | 34.4 | 7.9 | 4.0 | 100.0(151) |
| | 아동종합실태 | 50.4 | 33.2 | 13.5 | 2.6 | 0.4 | 100.0(850) |
| | $x^2(df)$ | 80.801(4)*** | | | | | |

*** $p < .001$.

이들 매체 하루 이용 정도를 수급/비수급 가구 끼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V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약 18%, 일반 수급가구 약 9%로 나와서, 탈북 수급가구의 영유아가 TV시청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구 모두 1~3시간 미만 시청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시청하지 않는다가 약 18%로 일반 비수급 가구 약 11%보다 많았다. 탈북가정은 1시간 미만 시청이, 일반 비수급 가구는 1~3시간 미만 시청이 가장 많았다. 5시간 이상 시청은 수급, 비수급에 상관없이 탈북가정이 더 많았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약 21%, 일반 수급가구의 약 12%가 응답해서, 수급 가구 내에서도 탈북가정이 독서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의 약 30%, 일반 비수급 가구의 약 10%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해서 탈북가정 영유아들이 책을 덜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을 읽는 경우에는 수급, 비수급 모두 하루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수급 가정은 26%, 일반 수급 가정은 약 47%가 응답해서 수급 가구 내에서도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더 많이 갖고 노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가 일반 비수급 가구의 영유아 보다 더 많이 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2〉 수급여부별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단위: %(명)

| 구분 | | 안함 | 1시간 미만 | 1~3시간 미만 | 3~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계(수) |
|---|---|---|---|---|---|---|---|
| TV시청 | **수급** | 11.8 | 28.1 | 44.8 | 12.3 | 3.0 | 100.0(203) |
| | 북한이탈주민 | 17.8 | 30.1 | 32.9 | 12.3 | 6.8 | 100.0( 73) |
| | 아동종합실태 | 8.5 | 26.9 | 51.5 | 12.3 | 0.8 | 100.0(130) |
| | $x^2(df)$ | 13.105(4)* | | | | | |
| | **비수급** | 11.8 | 39.2 | 43.0 | 4.9 | 1.1 | 100.0(798) |
| | 북한이탈주민 | 17.9 | 38.5 | 32.1 | 9.0 | 2.6 | 100.0( 78) |
| | 아동종합실태 | 11.1 | 39.3 | 44.2 | 4.4 | 1.0 | 100.0(720) |
| | $x^2(df)$ | 9.745(4)* | | | | | |

| 구분 | | 안함 | 1시간 미만 | 1~3시간 미만 | 3~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계(수) |
|---|---|---|---|---|---|---|---|
| 책읽기 | **수급** | 15.3 | 62.6 | 20.2 | 1.5 | 0.5 | 100.0(203) |
| | 북한이탈주민 | 20.5 | 68.5 | 9.6 | - | 1.4 | 100.0( 73) |
| | 아동종합실태 | 12.3 | 59.2 | 26.2 | 2.3 | - | 100.0(130) |
| | $x^2(df)$ | N/A | | | | | |
| | **비수급** | 11.8 | 58.4 | 26.7 | 2.6 | 0.5 | 100.0(798) |
| | 북한이탈주민 | 29.5 | 55.1 | 11.5 | - | 3.8 | 100.0( 78) |
| | 아동종합실태 | 9.9 | 58.8 | 28.3 | 2.9 | 0.1 | 100.0(720) |
| | $x^2(df)$ | N/A | | | | | |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용 | **수급** | 39.4 | 32.5 | 19.2 | 6.9 | 2.0 | 100.0(203) |
| | 북한이탈주민 | 26.0 | 27.4 | 34.2 | 6.8 | 5.5 | 100.0( 73) |
| | 아동종합실태 | 46.9 | 35.4 | 10.8 | 6.9 | - | 100.0(130) |
| | $x^2(df)$ | N/A | | | | | |
| | **비수급** | 48.5 | 32.3 | 16.0 | 2.5 | 0.6 | 100.0(798) |
| | 북한이탈주민 | 25.6 | 28.2 | 34.6 | 9.0 | 2.6 | 100.0( 78) |
| | 아동종합실태 | 51.0 | 32.8 | 14.0 | 1.8 | 0.4 | 100.0(720) |
| | $x^2(df)$ | N/A | | | | | |

* $p < .05$.

이들 매체 하루 이용 정도를 한부모/양부모 가구 끼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V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약 14%, 일반 한부모가구 약 6%로, 탈북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가 TV 시청을 안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5시간 이상 시청'을 하는 경우 역시, 탈북 한부모가구가 7%로 일반 한부모가구가 2.4%보다 많았다. 양부모가구도 한부모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의 약 25%, 일반 한부모가구의 약 14%가 응답해서, 한부모가구 내에서도 탈북가정이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양부모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25%, 일반 가구의 약 10%가 책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해서. 탈북가정 영유아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책을 읽는 경우에는 한부모, 양부모가구 모두 하루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는 26%, 일반 한부모가구는 약 46%가 응답해서 한부모가구 내에서도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더 많이 갖고 노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구 내에서

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 가구보다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가구유형별 자녀의 평일 하루 중 매체이용 정도**

단위: %(명)

| 구분 | | 안함 | 1시간 미만 | 1~3시간 미만 | 3~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계(수) |
|---|---|---|---|---|---|---|---|
| TV시청 | **한부모** | 9.1 | 36.4 | 40.9 | 9.6 | 4.0 | 100.0(198) |
| | 북한이탈주민 | 14.1 | 33.8 | 32.4 | 12.7 | 7.0 | 100.0( 71) |
| | 아동종합실태 | 6.3 | 37.8 | 45.7 | 7.9 | 2.4 | 100.0(127) |
| | $x^2(df)$ | 8.761(4) | | | | | |
| | **양부모** | 12.5 | 37.1 | 44.0 | 5.6 | 0.9 | 100.0(803) |
| | 북한이탈주민 | 21.3 | 35.0 | 32.5 | 8.8 | 2.5 | 100.0( 80) |
| | 아동종합실태 | 11.5 | 37.3 | 45.2 | 5.3 | 0.7 | 100.0(723) |
| | $x^2(df)$ | 12.554(4)* | | | | | |
| 책읽기 | **한부모** | 18.2 | 60.1 | 16.7 | 4.0 | 1.0 | 100.0(198) |
| | 북한이탈주민 | 25.4 | 64.8 | 7.0 | - | 2.8 | 100.0( 71) |
| | 아동종합실태 | 14.2 | 57.5 | 22.0 | 6.3 | - | 100.0(127) |
| | $x^2(df)$ | N/A | | | | | |
| | **양부모** | 11.1 | 59.0 | 27.5 | 2.0 | 0.4 | 100.0(803) |
| | 북한이탈주민 | 25.0 | 58.8 | 13.8 | - | 2.5 | 100.0( 80) |
| | 아동종합실태 | 9.5 | 59.1 | 29.0 | 2.2 | 0.1 | 100.0(723) |
| | $x^2(df)$ | N/A | | | | | |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사용 | **한부모** | 38.4 | 28.8 | 24.2 | 6.1 | 2.5 | 100.0(198) |
| | 북한이탈주민 | 25.4 | 28.2 | 32.4 | 7.0 | 7.0 | 100.0( 71) |
| | 아동종합실태 | 45.7 | 29.1 | 19.7 | 5.5 | - | 100.0(127) |
| | $x^2(df)$ | 17.066(4)** | | | | | |
| | **양부모** | 48.7 | 33.3 | 14.8 | 2.7 | 0.5 | 100.0(803) |
| | 북한이탈주민 | 26.3 | 27.5 | 36.3 | 8.8 | 1.3 | 100.0( 80) |
| | 아동종합실태 | 51.2 | 33.9 | 12.4 | 2.1 | 0.4 | 100.0(723) |
| | $x^2(df)$ | N/A | | | | | |

* $p < .05$, ** $p < .01$.

## 나.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정도

주양육자(본 설문조사 참여자) 본인의 미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알아본 결과, 평균 6.43점으로(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1점~매우 안정적이다 10점) 나왔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6.60점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5점을 보통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긍정 응답이 더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보면, 한부모, 비수도권,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와서 미래의 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6-4〉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정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보통 ——— 매우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전체 | 0.7 | 4.6 | 0.7 | 2.6 | 6.0 | 24.5 | 10.6 | 11.9 | 18.5 | 11.3 | 8.6 | (151) | 6.43 | 2.31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 | 3.8 | 1.3 | 1.3 | 3.8 | 18.8 | 8.8 | 13.8 | 17.5 | 17.5 | 13.8 | ( 80) | 7.03 | 2.28 |
| 한부모 | 1.4 | 5.6 | - | 4.2 | 8.5 | 31.0 | 12.7 | 9.9 | 19.7 | 4.2 | 2.8 | ( 71) | 5.76 | 2.16 |
| *t* | | | | | | | | | | | | | 3.482**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 | 3.0 | - | 3.0 | 6.9 | 17.8 | 11.9 | 13.9 | 20.8 | 13.9 | 8.9 | (101) | 6.77 | 2.13 |
| 비수도권 | 2.0 | 8.0 | 2.0 | 2.0 | 4.0 | 38.0 | 8.0 | 8.0 | 14.0 | 6.0 | 8.0 | ( 50) | 5.74 | 2.51 |
| *t* | | | | | | | | | | | | | 2.637**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 | - | - | - | 7.7 | 30.8 | 19.2 | 15.4 | 15.4 | 3.8 | 7.7 | ( 26) | 6.42 | 1.70 |
| 5년 초과 | 0.8 | 5.6 | 0.8 | 3.2 | 5.6 | 23.2 | 8.8 | 11.2 | 19.2 | 12.8 | 8.8 | (125) | 6.43 | 2.42 |
| *t* | | | | | | | | | | | | | -0.022 | |
| **수급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1.3 | 2.6 | 1.3 | 2.6 | 2.6 | 21.8 | 5.1 | 14.1 | 21.8 | 14.1 | 12.8 | ( 78) | 6.91 | 2.33 |
| 수급 | - | 6.8 | - | 2.7 | 9.6 | 27.4 | 16.4 | 9.6 | 15.1 | 8.2 | 4.1 | ( 73) | 5.92 | 2.18 |
| *t* | | | | | | | | | | | | | 2.695**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1.1 | 5.6 | - | 4.5 | 9.0 | 28.1 | 11.2 | 10.1 | 16.9 | 6.7 | 6.7 | ( 89) | 5.97[a] | 2.32 |
| 중위소득50%이상 | - | 3.4 | 1.7 | - | 1.7 | 17.2 | 10.3 | 15.5 | 20.7 | 19.0 | 10.3 | ( 58) | 7.10[b] | 2.14 |
| 무응답 | - | - | - | - | - | 50.0 | - | - | 25.0 | - | 25.0 | ( 4) | 7.00[ab] | 2.45 |
| *F* | | | | | | | | | | | | | 4.598*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4 | 0.4 | 1.5 | 1.8 | 4.8 | 13.1 | 16.5 | 31.2 | 24.7 | 5.5 | 0.2 | (850) | 6.60 | 1.56 |
| *t* | | | | | | | | | | | | | -0.874 | |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가 안정적이란 의미임.
2)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수급과 비수급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높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가구, 일반 비수급가구,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일반 수급가구 순으로 미래 안정성이 낮았다.

**〈표 Ⅲ-6-5〉 수급여부별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 | 3.0 | 2.0 | 3.4 | 11.8 | 22.7 | 15.3 | 22.7 | 13.3 | 4.43 | 1.5 | (203) | 5.89 | 1.8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6.8 | - | 2.7 | 9.6 | 27.4 | 16.4 | 9.6 | 15.1 | 8.22 | 4.1 | ( 73) | 5.92 | 2.1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8 | 3.1 | 3.8 | 13.1 | 20.0 | 14.6 | 30.0 | 12.3 | 2.31 | - | (130) | 5.88 | 1.66 |
| *t* | | | | | | | | | | | | | 0.139 | |
| **비수급** | 0.5 | 0.5 | 1.3 | 1.5 | 3.3 | 12.8 | 15.7 | 29.7 | 26.4 | 6.89 | 1.5 | (798) | 6.75 | 1.6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2.6 | 1.3 | 2.6 | 2.6 | 21.8 | 5.1 | 14.1 | 21.8 | 14.1 | 12.8 | ( 78) | 6.91 | 2.3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4 | 0.3 | 1.3 | 1.4 | 3.3 | 11.8 | 16.8 | 31.4 | 26.9 | 6.11 | 0.3 | (720) | 6.73 | 1.50 |
| *t* | | | | | | | | | | | | | 0.661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가 안정적이란 의미임.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은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미래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부모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 가정의 안정성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 일반 양부모가구, 일반 수급가구,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순으로 미래 안정성이 낮았다.

**〈표 Ⅲ-6-6〉 가구유형별 주양육자의 미래에 대한 안정성**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0.5 | 2.5 | 1.0 | 4.5 | 10.1 | 23.7 | 15.2 | 21.7 | 17.7 | 2.02 | 1.0 | (198) | 5.90 | 1.8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5.6 | - | 4.2 | 8.5 | 31.0 | 12.7 | 9.9 | 19.7 | 4.23 | 2.8 | ( 71) | 5.76 | 2.1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8 | 1.6 | 4.7 | 11.0 | 19.7 | 16.5 | 28.3 | 16.5 | 0.79 | - | (127) | 5.98 | 1.60 |
| *t* | | | | | | | | | | | | | -0.737 | |
| **양부모가구** | 0.4 | 0.6 | 1.5 | 1.2 | 3.7 | 12.6 | 15.7 | 29.9 | 25.3 | 7.47 | 1.6 | (803) | 6.74 | 1.6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3.8 | 1.3 | 1.3 | 3.8 | 18.8 | 8.8 | 13.8 | 17.5 | 17.5 | 13.8 | ( 80) | 7.03 | 2.2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4 | 0.3 | 1.5 | 1.2 | 3.7 | 11.9 | 16.5 | 31.7 | 26.1 | 6.36 | 0.3 | (723) | 6.71 | 1.52 |
| *t* | | | | | | | | | | | | | 1.201 | |

주: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가 안정적이란 의미임.

# 7. 안전 및 위험행동

## 가. 안전수칙 준수

### 1) 준수실태: 영유아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가정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위험 물질(예: 약품, 뜨거운 물 등)을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에 대해 90.1%가 이행하고 있었고, 승용차가 있는 경우 81.7%가 승용차 탑승 시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었고, 78.8%가 땅콩, 단추 등과 같은 조그만 물건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중 카시트 사용 정도는 가구유형과 수급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구보다는 양부모 가구에서, 수급가구보다는 비수급가구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일반가정과의 이행정도 비교 결과 '위험물질 주의 보관'에 대해 북한이탈가정에서 더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 안전수칙 준수(0-5세)**

단위: %(명)

| 구분 | 조그만 물건 놀이 허용 | 카시트사용 | 위험물질 주의 보관 | 계(수) |
|---|---|---|---|---|
| 전체 | 21.2 | 81.7 | 90.1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양부모 | 20.0 | 89.3 | 87.5 | 100.0( 80) |
| 한부모 | 22.5 | 73.1 | 93.0 | 100.0( 71) |
| $x^2(df)$ | 0.145(1) | 6.208(1)* | 1.252(1) | |
| **거주지역** | | | | |
| 수도권 | 17.8 | 84.4 | 91.1 | 100.0(101) |
| 비수도권 | 28.0 | 76.1 | 88.0 | 100.0( 50) |
| $x^2(df)$ | 2.075(1) | 1.48(1) | 0.357(1) | |
| **자녀연령** | | | | |
| 영아 | 17.6 | 87.7 | 91.1 | 100.0( 68) |
| 유아 | 24.1 | 76.6 | 89.2 | 100.0( 83) |
| $x^2(df)$ | 0.931(1) | 2.887(1) | 0.170(1)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5년 이하 | 23.1 | 76.0 | 100.0 | 100.0( 26) |
| 5년 초과 | 20.8 | 82.9 | 88.0 | 100.0(125) |
| $x^2(df)$ | 0.067(1) | 0.657(1) | N/A | |

| 구분 | 조그만 물건 놀이 허용 | 카시트사용 | 위험물질 주의 보관 | 계(수) |
|---|---|---|---|---|
| **수급여부** | | | | |
| 비수급 | 20.5 | 91.8 | 88.5 | 100.0( 78) |
| 수급 | 21.9 | 71.0 | 91.8 | 100.0( 73) |
| $x^2(df)$ | 0.045(1) | 10.227(1)** | 0.464(1) | |
| **가구소득**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3.6 | 74.4 | 89.9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15.5 | 92.9 | 89.7 | 100.0( 58) |
| 무응답 | 50.0 | 75.0 | 100.0 | 100.0( 4) |
| $x^2(df)$ | N/A | N/A | N/A | |
| **조사구분**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9 | 80.9 | 83.2 | 100.0(850) |
| $x^2(df)$ | 0.005(1) | 0.051(1) | 4.579(1)* | |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카시트 사용 문항에 대해 승용차가 없는 경우(비해당)(본조사는 9명,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76명)를 제외한 결과임.
* $p < .05$.

수급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위험물질 주의 보관'을 더 잘 하고 있었고, 비수급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가정에서 '카시트사용'을 더 많이 이행하고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7-2〉 수급여부별 안전수칙 준수(0-5세)**

단위: %(명)

| 구분 | 조그만 물건 놀이 허용 | 카시트사용 | 위험물질 주의 보관 | 계(수) |
|---|---|---|---|---|
| **수급** | 20.2 | 69.5 | 83.3 | 100.0 (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1.9 | 71.0 | 91.8 | 100.0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9.2 | 68.4 | 78.5 | 100.0 (130) |
| $x^2(df)$ | 0.209(1) | 0.127(1) | 5.948(1)* | |
| **비수급** | 21.2 | 83.5 | 84.5 | 100.0 (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0.5 | 91.8 | 88.5 | 100.0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1.3 | 82.6 | 84.0 | 100.0 (720) |
| $x^2(df)$ | 0.023(1) | 4.016(1)* | 1.054(1) | |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카시트 사용 문항에 대해 승용차가 없는 경우(비해당)를 제외한 결과임.
* $p < .05$.

가구유형에 따라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과의 안전수칙 이행정도를 비교해보면 한부모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위험물질 주의 보관'을 더 잘하고 있었다.

**〈표 Ⅲ-7-3〉 가구유형별 안전수칙 준수(0-5세)**

단위: %(명)

| 구분 | 조그만 물건 놀이 허용 | 카시트사용 | 위험물질 주의 보관 | 계(수) |
|---|---|---|---|---|
| **한부모가구** | 22.2 | 73.3 | 84.8 | 100.0 (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2.5 | 73.1 | 93.0 | 100.0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2.0 | 73.4 | 80.3 | 100.0 (127) |
| $x^2(df)$ | 0.006(1) | 0.001(1) | 5.662(1)* | |
| **양부모가구** | 20.7 | 82.6 | 84.1 | 100.0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0.0 | 89.3 | 87.5 | 100.0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0.7 | 81.9 | 83.7 | 100.0 (723) |
| $x^2(df)$ | 0.025(1) | 2.594(1) | 0.785(1) | |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카시트 사용 문항에 대해 승용차가 없는 경우(비해당)를 제외한 결과임.
* $p < .05$.

### 2) 준수실태: 유아

유아가 있는 북한이탈가정에서 유아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결과, '외출 시 성인 동반', '도로보행 시 항상 아이 손 잡음', '승용차 탑승 시 안전벨트 사용',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두지 않음'에 대해 95% 이상이 이행하고 있었다.

한편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는 70.5%만이 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행 정도는 북한이탈가정의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이행정도를 비교한 결과 '외출 시 성인 동반', '도로보행 시 항상 아이 손 잡음',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두지 않음'에 대해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더 잘 이행하고 있었다.

**〈표 Ⅲ-7-4〉 안전수칙 준수(3-5세)**

단위: %(명)

| 구분 | 외출시 성인 동반 | 욕조, 화장실 아동방치 | 도보시 아이손 잡음 | 안전모 착용 | 안전벨트 착용 | 계(수) |
|---|---|---|---|---|---|---|
| 전체 | 100.0 | 4.8 | 98.8 | 70.5 | 96.3 | 100.0( 83)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100.0 | 5.1 | 100.0 | 71.4 | 97.4 | 100.0( 39) |
| 한부모 | 100.0 | 4.5 | 97.7 | 69.6 | 95.3 | 100.0( 44) |
| $x^2(df)$ | - | N/A | N/A | 0.018(1) | N/A |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100.0 | 8.0 | 100.0 | 67.9 | 95.8 | 100.0( 50) |
| 비수도권 | 100.0 | - | 97.0 | 75.0 | 97.0 | 100.0( 33) |
| $x^2(df)$ | - | N/A | N/A | N/A | N/A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100.0 | - | 100.0 | 60.0 | 80.0 | 100.0( 5) |
| 5년 초과 | 100.0 | 5.1 | 98.7 | 71.8 | 97.4 | 100.0( 78) |
| $x^2(df)$ | - | N/A | N/A | N/A | N/A |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100.0 | 5.0 | 100.0 | 78.3 | 97.4 | 100.0( 40) |
| 수급 | 100.0 | 4.7 | 97.7 | 61.9 | 95.3 | 100.0( 43) |
| $x^2(df)$ | - | N/A | N/A | 1.411(1) | N/A |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00.0 | 2.0 | 98.0 | 66.7 | 98.0 | 100.0( 49) |
| 중위소득 50% 이상 | 100.0 | 9.7 | 100.0 | 76.5 | 96.6 | 100.0( 31) |
| 무응답 | 100.0 | - | 100.0 | 66.7 | 66.7 | 100.0( 3) |
| $x^2(df)$ | - | N/A | N/A | N/A | N/A |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1.7 | 35.0 | 91.5 | - | - | 100.0(483) |
| $x^2(df)$ | 7.396(1)** | 30.378(1)*** | 5.470(1)* | - | - | |

주: 1) 각 문항별 '예' 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비해당을 제외한 결과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 $p < .05$, ** $p < .01$,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과의 안전수칙 이행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두지 않음'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수급/비수급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비해 일반가정에서 아이를 욕조나 화장실에 혼자 방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7-5〉 수급여부별 안전수칙 준수(3-5세)**

단위: %(명)

| 구분 | 외출시 성인 동반 | 욕조, 화장실 아동방치 | 도보시 아이손 잡음 | 계(수) |
|---|---|---|---|---|
| **수급** | 93.7 | 20.6 | 92.9 | 100.0 (12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0.0 | 4.7 | 97.7 | 100.0 ( 4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0.4 | 28.9 | 90.4 | 100.0 ( 83) |
| $x^2(df)$ | N/A | 10.183(1)** | N/A | |
| **비수급** | 92.7 | 33.4 | 92.5 | 100.0 (44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0.0 | 5.0 | 100.0 | 100.0 ( 4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2.0 | 36.3 | 91.8 | 100.0 (400) |
| $x^2(df)$ | N/A | 15.962(1)*** | N/A | |

주: 1) 각 문항별 '예' 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 $p < .01$, *** $p < .001$.

가구유형에 따라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과의 안전수칙 이행정도를 비교한 결과도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두지 않음'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비해 일반가정에서 아이를 욕조나 화장실에 혼자 방치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Ⅲ-7-6〉 가구유형별 안전수칙 준수(3-5세)**

단위: %(명)

| 구분 | 외출시 성인 동반 | 욕조, 화장실 아동방치 | 도보시 아이손 잡음 | 계(수) |
|---|---|---|---|---|
| **한부모가구** | 97.7 | 21.9 | 96.1 | 100.0 (12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0.0 | 4.5 | 97.7 | 100.0 ( 4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6.4 | 31.0 | 95.2 | 100.0 ( 84) |
| $x^2(df)$ | N/A | 11.782(1)** | N/A | |
| **양부모가구** | 91.6 | 33.1 | 91.6 | 100.0 (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0.0 | 5.1 | 100.0 | 100.0 ( 3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90.7 | 35.8 | 90.7 | 100.0 (399) |
| $x^2(df)$ | N/A | 15.131(1)*** | N/A | |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 $p < .01$, *** $p < .001$.

### 3)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의 부모 모두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음'과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편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가정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유괴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반면 일반가정은 '유괴될 수 있음',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잇감이 많이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7〉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_1순위**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음 | 37.1 | 30.9 |
|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25.2 | 18.9 |
|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9.9 | 6.7 |
| 유괴될 수 있음 | 8.6 | 12.9 |
| 집에서 돌봄자의 부주의로 예기치 못하게 다칠 수 있음 | 4.6 | 4.4 |
|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 4.6 | 1.8 |
|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함 | 4.0 | 8.1 |
|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3.3 | 3.6 |
|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잇감이 많이 있음 | 2.0 | 10.8 |
| 약물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0.7 | 1.8 |
| 계(수) | 100.0(151) | 100.0(850) |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되는 문제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1순위 응답과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7-8〉 가장 걱정되는 안전문제_1+2+3순위**

단위: %,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음 | 72.2 | 55.6 |
|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55.6 | 56.2 |
| 유괴될 수 있음 | 35.8 | 36.7 |
| 집에서 돌봄자의 부주의로 예기치 못하게 다칠 수 있음 | 33.1 | 18.8 |
|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30.5 | 23.8 |
|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음 | 19.2 | 12.2 |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잇감이 많이 있음 | 14.6 | 41.2 |
|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함 | 14.6 | 26.2 |
|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13.9 | 17.8 |
| 약물 사고를 당할 수 있음 | 10.6 | 11.4 |
| 계(수) | (151) | (850) |

## 나. 돌봄공백

### 1) 돌봄공백 유무

영유아가 평소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가정의 96.7%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검정은 어려웠으나 한부모, 유아가구, 수급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에서 “있다”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일반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과의 비교결과는 북한이탈가정보다 일반가정/일반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혼자두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표 Ⅲ-7-9〉 돌봄공백 시간 유무**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
| 전체 | 3.3 | 96.7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2.5 | 97.5 | 100.0( 80) |
| 한부모 | 4.2 | 95.8 | 100.0( 71) |
| $x^2(df)$ | N/A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3.0 | 97.0 | 100.0(101) |
| 비수도권 | 4.0 | 96.0 | 100.0( 50) |
| $x^2(df)$ | N/A | | |
| **영유아 연령** | | | |
| 영아 | 1.5 | 98.5 | 100.0( 68) |
| 유아 | 4.8 | 95.2 | 100.0( 83) |
| $x^2(df)$ | N/A | | |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
| **남한 거주기간(母)** | | | |
| 5년 이하 | 3.8 | 96.2 | 100.0( 26) |
| 5년 초과 | 3.2 | 96.8 | 100.0(125) |
| $x^2(df)$ | | N/A | |
| **수급 여부** | | | |
| 비수급 | 1.3 | 98.7 | 100.0( 78) |
| 수급 | 5.5 | 94.5 | 100.0( 73) |
| $x^2(df)$ | | N/A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4.5 | 95.5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1.7 | 98.3 | 100.0( 58) |
| 무응답 | - | 100.0 | 100.0( 4) |
| $x^2(df)$ | | N/A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1.8 | 88.2 | 100.0(85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11.3 | 88.8 | 100.0(240) |
| $x^2(df)$ | | 9.758(2)** | |

** $p < .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일반한부모가정에서 영유아를 혼자두는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수급가구에서는 가정별로 차이가 없었고, 비수급가구의 경우 북한이탈가정보다 일반가정/일반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혼자두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Ⅲ-7-10〉 수급여부별 돌봄공백 시간 유무**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
| **수급** | 10.7 | 89.3 | 100.0(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5 | 94.5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4.6 | 85.4 | 100.0(13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9.5 | 90.5 | 100.0(116) |
| $x^2(df)$ | | 4.362(2) | |
| **비수급** | 10.6 | 89.4 | 100.0(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98.7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1.3 | 88.8 | 100.0(72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12.9 | 87.1 | 100.0(124) |
| $x^2(df)$ | | 8.141(2)* | |

* $p < .05$.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모두, 북한이탈가정보다 일반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혼자두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Ⅲ-7-11〉 가구유형별 돌봄공백 시간 유무**

단위: %(명)

| 구분 | 있다 | 없다 | 계(수) |
|---|---|---|---|
| **한부모가구** | 11.6 | 88.4 | 100.0(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2 | 95.8 | 100.0(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6.5 | 83.5 | 100.0(127)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11.3 | 88.8 | 100.0(240) |
| $x^2(df)$ | 6.788(2)* | | |
| **양부모가구** | 10.1 | 89.9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5 | 97.5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0.9 | 89.1 | 100.0(723) |
| $x^2(df)$ | 5.639(1)* | | |

* $p < .05$.

### 2) 돌봄공백 평균 시간

아이를 혼자두는 응답자에 한하여 하루 평균 혼자두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가정의 경우는 해당 가구가 5개 가구로 매우 적었고 가구특성별 차이도 없었다. 한편 일반가정/일반한부모가정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가정(4.2시간), 일반한부모가정(2.4시간), 일반가정(1.1시간) 순으로 자녀를 혼자두는 시간이 길었다.

**〈표 Ⅲ-7-12〉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 1시간 이내 | 1시간 ~ 2시간 이내 | 2시간 ~ 3시간 이내 | 3시간 ~ 4시간 이내 | 4시간 ~ 5시간 이내 | 5시간 ~ 6시간 이내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20.0 | - | - | 20.0 | 40.0 | 20.0 | 100.0(5) | 4.20[a] | 1.9 |
| **가구유형** | | | | | | | | | |
| 양부모 | - | - | - | - | 50.0 | 50.0 | 100.0(2) | 5.50 | 0.7 |
| 한부모 | 33.3 | - | - | 33.3 | 33.3 | - | 100.0(3) | 3.33 | 2.1 |
| $t$ | | | | | | | | 1.358 | |

| 구분 | 1시간 이내 | 1시간 ~ 2시간 이내 | 2시간 ~ 3시간 이내 | 3시간 ~ 4시간 이내 | 4시간 ~ 5시간 이내 | 5시간 ~ 6시간 이내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거주지역** | | | | | | | | | |
| 수도권 | - | - | - | 33.3 | 33.3 | 33.3 | 100.0(3) | 5.00 | 1.0 |
| 비수도권 | 50.0 | - | - | - | 50.0 | - | 100.0(2) | 3.00 | 2.8 |
| *t* | | | | | | | | 1.20 | |
| **수급여부** | | | | | | | | | |
| 비수급 | - | - | - | - | - | 100.0 | 100.0(1) | 6.00 | - |
| 수급 | 25.0 | - | - | 25.0 | 50.0 | - | 100.0(4) | 3.75 | 1.9 |
| *t* | | | | | | | | 1.063 | |
| **가구소득** |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5.0 | - | - | 25.0 | 50.0 | - | 100.0(4) | 3.75 | 1.9 |
| 중위소득 50% 이상 | - | - | - | - | - | 100.0 | 100.0(1) | 6.00 | - |
| *t* | | | | | | | | -1.063 | |
| **조사구분**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1.0 | 15.0 | 4.0 | - | - | - | 100.0(100) | 1.10[b] | 0.7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37.0 | 29.6 | 14.8 | 3.7 | 7.4 | 7.4 | 100.0( 27) | 2.37[c] | 1.6 |
| *F* | | | | | | | | -4.092*** | |

주: 1) 하루 중 '돌봄공백 시간이 있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a, b, c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일반한부모가정의 돌봄공백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급가구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차이가 있었고 북한이탈주민가정이 3.7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비수급가구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사례수가 1가구로 통계적으로 사후검정이 어려웠으나 6시간으로 가장 길어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어린 자녀의 돌봄공백 시간이 가장 길지만, 사례수가 적어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표 Ⅲ-7-13〉 수급여부별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단위: %(명), 시간

| 구분 | 1시간 이내 | 1시간~2시간 이내 | 2시간~3시간 이내 | 3시간~4시간 이내 | 4시간~5시간 이내 | 5시간~6시간 이내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 58.8 | 20.6 | 5.9 | 2.9 | 8.8 | 2.9 | 100.0(34) | 1.82 | 1.5 |
| 북한이탈주민조사 | 25.0 | - | - | 25.0 | 50.0 | - | 100.0( 4) | 3.75[a] | 1.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3.2 | 31.6 | 5.3 | - | - | - | 100.0(19) | 1.26[b] | 0.9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63.6 | 9.1 | 9.1 | - | 9.1 | 9.1 | 100.0(11) | 2.09[ab] | 1.8 |
| *F* | | | | | | | | 5.901** | |
| **비수급** | 73.5 | 16.3 | 6.1 | 1.0 | 1.0 | 2.0 | 100.0(98) | 1.36 | 1.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 | - | - | - | 100.0 | 100.0( 1) | 6.00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5.2 | 11.1 | 3.7 | - | - | - | 100.0(81) | 1.06 | 0.6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18.8 | 43.8 | 18.8 | 6.3 | 6.3 | 6.3 | 100.0(16) | 2.56 | 1.4 |
| *F* | | | | | | | | 39.463*** | |

주: 1) 하루 중 '돌봄공백 시간이 있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비수급가정 분석의 경우 하나 이상의 집단이 하나 이하의 케이스를 가지므로 사후검정을 할 수 없음.
3)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양부모가구 모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차이가 있었고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기 3.33시간에 비해, 양부모가구는 5.50시간으로 더 길었다. 그러나 사례수가 매우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표 Ⅲ-7-14〉 가구유형별 하루 평균 돌봄공백 시간**

단위: %, 시간, (명)

| 구분 | 1시간 이내 | 1시간~2시간 이내 | 2시간~3시간 이내 | 3시간~4시간 이내 | 4시간~5시간 이내 | 5시간~6시간 이내 | 계(명) | 평균 | 표준편차 |
|---|---|---|---|---|---|---|---|---|---|
| **한부모가구** | 54.9 | 23.5 | 7.8 | 3.9 | 5.9 | 3.9 | (51) | 1.87 | 1.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3.3 | - | - | 33.3 | 33.3 | - | ( 3) | 3.33[a] | 2.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1.0 | 19.0 | - | - | - | - | (21) | 1.02[b] | 0.6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37.0 | 29.6 | 14.8 | 3.7 | 7.4 | 7.4 | (27) | 2.37[ab] | 1.6 |
| *F* | | | | | | | | 8.450** | |
| **양부모가구** | 79.0 | 13.6 | 4.9 | - | 1.2 | 1.2 | (81) | 1.23 | 1.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 | - | - | 50.0 | 50.0 | ( 2) | 5.50 | 0.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1.0 | 13.9 | 5.1 | - | - | - | (79) | 1.12 | 0.7 |
| *t* | | | | | | | | 8.763*** | |

주: 1) 하루 중 '돌봄공백 시간이 있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2)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1$, *** $p < .001$.

### 3) 돌봄공백 시 필요한 도움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시간이 생길 경우 그 시간에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는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과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야간돌봄 편의제공'과 '식사제공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차이가 있었다.

**〈표 Ⅲ-7-15〉 돌봄공백 시 가장 필요한 편의 또는 도움**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가정조사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 | **31.8** | 14.2 |
|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 21.2 | 12.5 |
| **야간돌봄 편의제공** | 17.2 | **42.5** |
| 가정 내 보안카메라(CCTV) 설치 지원 | 16.6 | 6.7 |
| 식사제공 편의제공 | 7.9 | 22.1 |
| 아동용 핸드폰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 4.0 | 0.8 |
| 기타 | 1.3 | 1.3 |
| 계 | 100.0(151) | 100.0(240) |

## 다. 안전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10점 척도에서 평균 약 6.6점으로 약간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약 7점보다 낮았다.

가구특성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 한부모보다 양부모인 경우, 수급보다 비수급가구인 경우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16〉 안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전체 | 1.3 | - | 1.3 | 0.7 | 3.3 | 34.4 | 14.6 | 7.3 | 14.6 | 13.9 | 8.6 | (151) | 6.56 | 2.05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1.3 | - | - | - | - | 32.5 | 11.3 | 7.5 | 15.0 | 18.8 | 13.8 | ( 80) | 7.09 | 2.05 |
| 한부모 | 1.4 | - | 2.8 | 1.4 | 7.0 | 36.6 | 18.3 | 7.0 | 14.1 | 8.5 | 2.8 | ( 71) | 5.97 | 1.90 |
| *t* | | | | | | | | | | | | | 3.379**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1.0 | - | - | 1.0 | 3.0 | 30.7 | 16.8 | 7.9 | 14.9 | 14.9 | 9.9 | (101) | 6.76 | 1.98 |
| 비수도권 | 2.0 | - | 4.0 | - | 4.0 | 42.0 | 10.0 | 6.0 | 14.0 | 12.0 | 6.0 | ( 50) | 6.16 | 2.16 |
| *t* | | | | | | | | | | | | | 1.706 | |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3.8 | - | - | 3.8 | 3.8 | 38.5 | 23.1 | 3.8 | 7.7 | 7.7 | 7.7 | ( 26) | 5.92 | 2.17 |
| 5년 초과 | 0.8 | - | 1.6 | - | 3.2 | 33.6 | 12.8 | 8.0 | 16.0 | 15.2 | 8.8 | (125) | 6.70 | 2.01 |
| *t* | | | | | | | | | | | | | -1.757 | |
| **수급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2.6 | - | - | - | - | 32.1 | 11.5 | 9.0 | 16.7 | 16.7 | 11.5 | ( 78) | 6.91 | 2.14 |
| 수급 | - | - | 2.7 | 1.4 | 6.8 | 37.0 | 17.8 | 5.5 | 12.3 | 11.0 | 5.5 | ( 73) | 6.19 | 1.91 |
| *t* | | | | | | | | | | | | | 2.174*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1.1 | - | 2.2 | 1.1 | 4.5 | 39.3 | 15.7 | 4.5 | 9.0 | 13.5 | 9.0 | ( 89) | 6.31 | 2.11 |
| 중위소득50%이상 | 1.7 | - | - | - | 1.7 | 25.9 | 13.8 | 12.1 | 24.1 | 12.1 | 8.6 | ( 58) | 6.91 | 1.93 |
| 무응답 | - | - | - | - | - | 50.0 | - | - | - | 50.0 | - | ( 4) | 7.00 | 2.31 |
| *F* | | | | | | | | | | | | | 1.599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0.4 | 1.1 | 2.9 | 12.0 | 12.8 | 32.6 | 28.9 | 9.1 | 0.2 | (850) | 6.96 | 1.34 |
| *t* | | | | | | | | | | | | | -2.296*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5$, ** $p < .01$.

수급여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Ⅲ-7-17〉 수급여부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 | - | 2.0 | 1.5 | 6.4 | 24.1 | 17.2 | 21.7 | 17.7 | 7.39 | 2.0 | 100.0(203) | 6.38 | 1.65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 | 2.7 | 1.4 | 6.8 | 37.0 | 17.8 | 5.5 | 12.3 | 10.96 | 5.5 | 100.0( 73) | 6.19 | 1.9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1.5 | 1.5 | 6.2 | 16.9 | 16.9 | 30.8 | 20.8 | 5.38 | - | 100.0(130) | 6.48 | 1.48 |
| *t* | | | | | | | | | | | | | -1.134 | |
| **비수급** | 0.3 | - | 0.1 | 0.9 | 2.1 | 13.2 | 12.0 | 30.6 | 29.1 | 10.40 | 1.4 | 100.0(798) | 7.03 | 1.40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6 | - | - | - | - | 32.1 | 11.5 | 9.0 | 16.7 | 16.67 | 11.5 | 100.0( 78) | 6.91 | 2.14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0.1 | 1.0 | 2.4 | 11.1 | 12.1 | 32.9 | 30.4 | 9.72 | 0.3 | 100.0(720) | 7.05 | 1.30 |
| *t* | | | | | | | | | | | | | -.555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간에는 안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 한부모가정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약 6.6점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약 6.0점)보다 약간 높았다.

**〈표 Ⅲ-7-18〉 가구유형별 안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0.5 | - | 1.0 | 2.5 | 6.6 | 22.7 | 15.2 | 25.3 | 19.7 | 5.56 | 1.0 | 100.0(198) | 6.35 | 1.6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 | 2.8 | 1.4 | 7.0 | 36.6 | 18.3 | 7.0 | 14.1 | 8.45 | 2.8 | 100.0( 71) | 5.97 | 1.9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 | 3.1 | 6.3 | 15.0 | 13.4 | 35.4 | 22.8 | 3.94 | - | 100.0(127) | 6.56 | 1.42 |
| *F* | | | | | | | | | | | | | -2.270* | |
| **양부모가구** | 0.1 | - | 0.4 | 0.6 | 2.1 | 13.6 | 12.6 | 29.6 | 28.5 | 10.83 | 1.6 | 100.0(803) | 7.04 | 1.4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 | - | - | - | 32.5 | 11.3 | 7.5 | 15.0 | 18.75 | 13.8 | 100.0( 80) | 7.09 | 2.0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0.4 | 0.7 | 2.4 | 11.5 | 12.7 | 32.1 | 30.0 | 9.96 | 0.3 | 100.0(723) | 7.03 | 1.32 |
| *F* | | | | | | | | | | | | | 0.237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5$.

# 8.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 가. 주거환경

### 1) 거주형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거주 중인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76.2%로 대다수였고 그 다음으로 연립/다세대주택이 11.9%로 많았다.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은 부절절하지만 한부모가구, 비수도권 거주, 비수급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립/다세대주택보다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아파트 거주가 많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초기에 임대아파트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가 가장 많으나 기 비율이 5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순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높다.

**〈표 Ⅲ-8-1〉 거주 중인 주택 형태**

단위: %(명)

| 구분 |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 | 오피스텔 | 기타 | 계(수) |
|---|---|---|---|---|---|---|---|
| 전체 | 8.6 | 76.2 | 11.9 | 1.3 | 2.0 | - | 100.0 (151)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6.3 | 77.5 | 13.8 | 1.3 | 1.3 | - | 100.0 ( 80) |
| 한부모 | 11.3 | 74.6 | 9.9 | 1.4 | 2.8 | - | 100.0 ( 71)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5.0 | 75.2 | 14.9 | 2.0 | 3.0 | - | 100.0 (101) |
| 비수도권 | 16.0 | 78.0 | 6.0 | - | - | - | 100.0 ( 50)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11.5 | 69.2 | 15.4 | - | 3.8 | - | 100.0 ( 26) |
| 5년 초과 | 8.0 | 77.6 | 11.2 | 1.6 | 1.6 | - | 100.0 (125) |
| **수급여부** | | | | | | | |
| 비수급 | 10.3 | 78.2 | 9.0 | 1.3 | 1.3 | - | 100.0 ( 78) |
| 수급 | 6.8 | 74.0 | 15.1 | 1.4 | 2.7 | - | 100.0 ( 73) |
| **가구소득**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7.9 | 73.0 | 15.7 | 1.1 | 2.2 | - | 100.0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8.6 | 81.0 | 6.9 | 1.7 | 1.7 | - | 100.0 ( 58) |
| 무응답 | 25.0 | 75.0 | - | - | - | - | 100.0 ( 4) |
| **조사구분**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6.6 | 51.3 | 20.8 | 0.2 | 0.5 | 0.6 | 100.0 (85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수급/비수급 및 한부모/양부모 가구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약 75%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정착지에서 주로 임대아파트를 알선받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은 아파트 거주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으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가정의 주택 형태가 좀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2〉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집의 주택 형태

단위: %(명)

| 구분 |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 | 오피스텔 | 기타 | 계(수) |
|---|---|---|---|---|---|---|---|
| **수급** | 18.2 | 59.6 | 19.7 | 1.0 | 1.5 | - | 100.0 (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8 | 74.0 | 15.1 | 1.4 | 2.7 | - | 100.0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4.6 | 51.5 | 22.3 | 0.8 | 0.8 | - | 100.0 (130) |
| **비수급** | 25.3 | 53.9 | 19.4 | 0.3 | 0.5 | 0.6 | 100.0 (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3 | 78.2 | 9.0 | 1.3 | 1.3 | - | 100.0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6.9 | 51.3 | 20.6 | 0.1 | 0.4 | 0.7 | 100.0 (720)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표 Ⅲ-8-3〉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집의 주택 형태

단위: %(명)

| 구분 | 단독 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비거주용 건물 | 오피스텔 | 기타 | 계(수) |
|---|---|---|---|---|---|---|---|
| **한부모가구** | 26.3 | 54.0 | 17.2 | 1.0 | 1.0 | 0.5 | 100.0 (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1.3 | 74.6 | 9.9 | 1.4 | 2.8 | - | 100.0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4.6 | 42.5 | 21.3 | 0.8 | - | 0.8 | 100.0 (127) |
| **양부모가구** | 23.3 | 55.3 | 20.0 | 0.2 | 0.6 | 0.5 | 100.0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6.3 | 77.5 | 13.8 | 1.3 | 1.3 | - | 100.0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5.2 | 52.8 | 20.7 | 0.1 | 0.6 | 0.6 | 100.0 (723) |

주: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미니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4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가 19.9%, 월세와 자가 각각 17.9% 순이었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은 부절절하지만 양부모 가구와 비수급가구는 자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세가 많은 반면, 한부모가구와 수급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월세가 많아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수도권 거주가구의 경우 자가 비율이 34.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집의 거주형태는 전세가 약 40%로 가장 많고, 자가가 약 33%, 보증금있는 월세가 약 21%이다.

월세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약 18%)이 남한의 일반가정(3.2%)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집 거주형태는 남한의 일반가정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4〉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단위: %(명)

| 구분 | 자가 (자기집)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월세 | 기타 (무상포함) | 계(수) |
|---|---|---|---|---|---|---|
| 전체 | 17.9 | 19.9 | 43.7 | 17.9 | 0.7 | 100.0 (151) |
| **가구유형** | | | | | | |
| 양부모 | 30.0 | 28.8 | 26.3 | 13.8 | 1.3 | 100.0 ( 80) |
| 한부모 | 4.2 | 9.9 | 63.4 | 22.5 | - | 100.0 ( 71) |
| $x^2(df)$ | N/A | | | | | |
| **거주지역** | | | | | | |
| 수도권 | 9.9 | 22.8 | 46.5 | 20.8 | - | 100.0 (101) |
| 비수도권 | 34.0 | 14.0 | 38.0 | 12.0 | 2.0 | 100.0 ( 50) |
| $x^2(df)$ | N/A | |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5년 이하 | 3.8 | 15.4 | 61.5 | 15.4 | 3.8 | 100.0 ( 26) |
| 5년 초과 | 20.8 | 20.8 | 40.0 | 18.4 | - | 100.0 (125) |
| $x^2(df)$ | N/A | | | | | |
| **수급여부** | | | | | | |
| 비수급 | 32.1 | 25.6 | 24.4 | 16.7 | 1.3 | 100.0 ( 78) |
| 수급 | 2.7 | 13.7 | 64.4 | 19.2 | - | 100.0 ( 73) |
| $x^2(df)$ | N/A | | | | | |
| **가구소득**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1.2 | 13.5 | 52.8 | 21.3 | 1.1 | 100.0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29.3 | 27.6 | 29.3 | 13.8 | - | 100.0 ( 58) |
| 무응답 | - | 50.0 | 50.0 | - | - | 100.0 ( 4) |
| $x^2(df)$ | N/A | | | | | |
| **조사구분**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3.4 | 39.3 | 20.9 | 3.2 | 3.2 | 100.0 (850) |
| $x^2(df)$ | 104.818(4)*** | | | | | |

*** $p < .001$.

수급 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거주형태의 비율 순서가 차이가 없다면, 비수급 가구 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자가 비율이 약 31%로 가장 많은 반면, 비수급 일반가정은 전세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 비수급 가구 기준으로 월세로 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약 16.7%)이 일반가정(약 1.8%)보다 약 9배 이상 많았다.

**〈표 Ⅲ-8-5〉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단위: %(명)

| 구분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월세 | 기타(무상포함) | 계(수) |
|---|---|---|---|---|---|---|
| **수급** | 3.4 | 14.3 | 66.0 | 13.8 | 2.5 | 100.0(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2.7 | 13.7 | 64.4 | 19.2 | -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8 | 14.6 | 66.9 | 10.8 | 3.8 | 100.0(130) |
| $x^2(df)$ | N/A | | | | | |
| **비수급** | 38.1 | 42.0 | 13.8 | 3.3 | 2.9 | 100.0(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2.1 | 25.6 | 24.4 | 16.7 | 1.3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8.8 | 43.8 | 12.6 | 1.8 | 3.1 | 100.0(720) |
| $x^2(df)$ | 61.812(4)*** | | | | | |

*** $p < .001$.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로 가장 많이 살고, 월세, 전세, 자가 순으로 살고 있다면, 일반 한부모가구는 보증금있는 월세, 전세, 자가, 월세 순으로 나타나 거주 형태가 달랐다. 북한이탈주민 양부모가구는 자가가 가장 많은 반면, 일반 양부모가구는 전세가 가장 많았다.

**〈표 Ⅲ-8-6〉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집의 거주 형태**

단위: %(명)

| 구분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월세 | 기타(무상포함) | 계(수) |
|---|---|---|---|---|---|---|
| **한부모가구** | 16.7 | 20.2 | 44.9 | 12.6 | 5.6 | 100.0(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4.2 | 9.9 | 63.4 | 22.5 | - | 100.0(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23.6 | 26.0 | 34.6 | 7.1 | 8.7 | 100.0(127) |
| $x^2(df)$ | N/A | | | | | |
| **양부모가구** | 34.6 | 40.3 | 19.3 | 3.6 | 2.1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0.0 | 28.8 | 26.3 | 13.8 | 1.3 | 100.0(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5.1 | 41.6 | 18.5 | 2.5 | 2.2 | 100.0(723) |
| $x^2(df)$ | 31.337(4)*** | | | | | |

*** $p < .001$.

### 2) 방 개수

북한이탈주민가정 집의 방 개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약 2.2개였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평균 2.6개보다 적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 개수가 집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작은 집(면적)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방 개수는 가구유형, 거주지역, 남한 거주기간, 수급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양부모가구, 비수도권 거주, 남한 거주 5년 초과, 비수급 가구,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사용 중인 방의 개수가 더 많았다. 한부모 가구, 수급 가구의 방 개수 평균은 1.9개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참고로 탈북민 초기 정착시기에 임대아파트를 알선받는다(표 Ⅱ-1-4 참조).



**〈표 Ⅲ-8-7〉 사용 중인 방 개수**

단위: %(명), 개

| 구분 | 1개 | 2개 | 3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전체 | 21.9 | 39.1 | 39.1 | 100.0(151) | 2.21 |
| **가구유형** | | | | | |
| 양부모 | 11.3 | 36.3 | 52.5 | 100.0( 80) | 2.49 |
| 한부모 | 33.8 | 42.3 | 23.9 | 100.0( 71) | 1.90 |
| *t* | | | | | 4.617*** |
| **거주지역** | | | | | |
| 수도권 | 27.7 | 41.6 | 30.7 | 100.0(101) | 2.04 |
| 비수도권 | 10.0 | 34.0 | 56.0 | 100.0( 50) | 2.56 |
| *t* | | | | | -3.786***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5년 이하 | 42.3 | 30.8 | 26.9 | 100.0( 26) | 1.85 |
| 5년 초과 | 17.6 | 40.8 | 41.6 | 100.0(125) | 2.29 |
| *t* | | | | | -2.515* |
| **수급 여부** | | | | | |
| 비수급 | 10.3 | 35.9 | 53.8 | 100.0( 78) | 2.51 |
| 수급 | 34.2 | 42.5 | 23.3 | 100.0( 73) | 1.89 |
| *t* | | | | | 4.956*** |

| 구분 | 1개 | 2개 | 3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가구소득**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28.1 | 42.7 | 29.2 | 100.0( 89) | 2.02[a] |
| 중위소득 50% 이상 | 12.1 | 34.5 | 53.4 | 100.0( 58) | 2.50[b] |
| 무응답 | 25.0 | 25.0 | 50.0 | 100.0( 4) | 2.25[ab] |
| F | | | | | 6.229** |

주: a, b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이탈주민 수급 가구(1.9개)가 일반 수급 가구(2.2개)보다 방 개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가구 내에서도 탈북가정(2.5개)이 일반가정(2.7개)보다 방 개수가 적었다(표 Ⅲ-7-8). 가구유형별로도 동일한 결과이다. 한부모, 양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방 개수가 적었다.

**〈표 Ⅲ-8-8〉 수급여부별 사용 중인 방의 개수**

단위: %(명), 점

| 구분 | 1개 | 2개 | 3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수급** | 16.3 | 60.1 | 23.6 | 100.0(203) | 2.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4.2 | 42.5 | 23.3 | 100.0( 73) | 1.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2 | 70.0 | 23.8 | 100.0(130) | 2.2 |
| *t* | | | | | 11.125(3)*** |
| **비수급** | 1.8 | 29.9 | 68.3 | 100.0(798) | 2.7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3 | 35.9 | 53.8 | 100.0( 78) | 2.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8 | 29.3 | 69.9 | 100.0(720) | 2.7 |
| *t* | | | | | 15.462(4)*** |

*** $p < .001$.

**〈표 Ⅲ-8-9〉 가구유형별 사용 중인 방의 개수**

단위: %(명), 점

| 구분 | 1개 | 2개 | 3개 이상 | 계(수) | 평균 |
|---|---|---|---|---|---|
| **한부모가구** | 16.7 | 52.5 | 30.8 | 100.0(198) | 2.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3.8 | 42.3 | 23.9 | 100.0( 71) | 1.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1 | 58.3 | 34.6 | 100.0(127) | 2.3 |
| *t* | | | | | 13.079(2)*** |
| **양부모가구** | 1.7 | 32.0 | 66.3 | 100.0(803) | 2.7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1.3 | 36.3 | 52.5 | 100.0( 80) | 2.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7 | 31.5 | 67.8 | 100.0(723) | 2.7 |
| *t* | | | | | 18.192(4)*** |

*** $p < .001$.

### 3) 집과 집주변 생활환경

#### 가)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

북한이탈주민가정이 거주하는 집의 공간 적정성[23], 통풍/채광, 난방상태, 방음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난방상태와 통풍/채광에 대해서는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9.4%, 76.2%로 대부분이었으나 가구수 대비 공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5.0%, 방음 상태에 대해서는 39.1%만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는 집공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68.0%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수도권(48.%)에 비해 높았다. 이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인구밀집도가 낮고, 공기가 깨끗하며, 집값이 저렴해서 집 면적을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한부모가정과 비교한 결과도 집 공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 한부모가정이 더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10〉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 집공간의 적정성 | 통풍이나 채광 | 난방상태 | 방음상태 | 계(수) |
|---|---|---|---|---|---|
| 전체 | 55.0 | 76.2 | 89.4 | 39.1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양부모 | 51.3 | 76.3 | 91.3 | 43.8 | 100.0( 80) |
| 한부모 | 59.2 | 76.1 | 87.3 | 33.8 | 100.0( 71) |
| $x^2(df)$ | 0.950(1) | 0.001(1) | 0.612(1) | 1.563(1) | |
| **거주지역** | | | | | |
| 수도권 | 48.5 | 73.3 | 90.1 | 35.6 | 100.0(101) |
| 비수도권 | 68.0 | 82.0 | 88.0 | 46.0 | 100.0( 50) |
| $x^2(df)$ | 5.130(1)* | 1.405(1) | 0.156(1) | 1.507(1)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5년 이하 | 57.7 | 65.4 | 73.1 | 34.6 | 100.0( 26) |
| 5년 초과 | 54.4 | 78.4 | 92.8 | 40.0 | 100.0(125) |
| $x^2(df)$ | 0.094(1) | 2.008(1) | N/A | 0.262(1) | |

23)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가족) 수 대비 집 공간이 적정하다는 의미임.

| 구분 | 집공간의 적정성 | 통풍이나 채광 | 난방상태 | 방음상태 | 계(수) |
|---|---|---|---|---|---|
| **수급여부** | | | | | |
| 비수급 | 55.1 | 78.2 | 89.7 | 44.9 | 100.0( 78) |
| 수급 | 54.8 | 74.0 | 89.0 | 32.9 | 100.0( 73) |
| $x^2(df)$ | 0.002(1) | 0.372(1) | 0.020(1) | 2.279(1) | |
| **가구소득**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53.9 | 70.8 | 86.5 | 32.6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55.2 | 82.8 | 94.8 | 46.6 | 100.0( 58) |
| 무응답 | 75.0 | 100.0 | 75.0 | 75.0 | 100.0( 4) |
| $x^2(df)$ | N/A | N/A | N/A | N/A | |
| **조사구분** | | | | |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67.9 | 83.8 | 82.5 | 47.1 | 100.0(240) |
| $x^2(df)$ | 6.662(1)* | 3.445(1) | 3.497() | 2.414(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 $p < .05$.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과의 거주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가구에 한해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보다 일반 한부모 비수급 가구가 가구원수 대비 집공간이 여유가 있다는(적정하다)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수급가구 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반 한부모 가정이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집공간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8-11〉 수급여부별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 집공간의 적정성 | 통풍이나 채광 | 난방상태 | 방음 상태 | 계(수) |
|---|---|---|---|---|---|
| **수급** | 59.3 | 79.9 | 84.7 | 36.5 | 100.0 (18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4.8 | 74.0 | 89.0 | 32.9 | 100.0 ( 73)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62.1 | 83.6 | 81.9 | 38.8 | 100.0 (116) |
| $x^2(df)$ | 0.982(1) | 2.596(1) | 1.761(1) | 0.677(1) | |
| **비수급** | 66.3 | 81.7 | 85.6 | 51.0 | 100.0 (20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5.1 | 78.2 | 89.7 | 44.9 | 100.0 ( 78)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73.4 | 83.9 | 83.1 | 54.8 | 100.0 (124) |
| $x^2(df)$ | 7.148(1)** | 1.027(1) | 1.737(1) | 1.903(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 $p < .01$.

한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간에 거주환경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난방을 제외하고는 탈북 한부모가정보다 일반 한부모가정이 거주환경에 대해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8-12〉 가구유형별 따른 자녀의 거주 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

단위: %(명)

| 구분 | 집공간의 적적성 | 통풍이나 채광 | 난방상태 | 방음 상태 | 계(수) |
|---|---|---|---|---|---|
| **한부모가구** | 65.9 | 82.0 | 83.6 | 44.1 | 100.0 (31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9.2 | 76.1 | 87.3 | 33.8 | 100.0 ( 71)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67.9 | 83.8 | 82.5 | 47.1 | 100.0 (240) |
| $x^2(df)$ | 1.872(1) | 2.197(1) | 0.930(1) | 3.921(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 나) 집 주변 생활환경

북한이탈주민가정이 거주하는 집 주변의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지, 공공기관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놀이터가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대중교통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이용가능한지, 자연환경(공원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82.1%, 72.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접근성이 좋은 반면, 문화·체육시설과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55.6%, 53.6%로 반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자연환경,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84.1%, 72.8%, 72.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놀이터에 대해서는 57.0%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과 자연환경(공원 등)에 대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자연환경이 수도권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온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조성된 공원이나 숲이란 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과 비교한 결과는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과 놀이터에 대해 일반가정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이나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가 수도권이 더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13〉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 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 관련시설 | 의료기관 | 교육기관 | 공공기관 | 놀이터 | 대중교통 | 자연환경 | 계(수) |
|---|---|---|---|---|---|---|---|---|---|
| 전체 | 55.6 | 53.6 | 72.2 | 82.1 | 72.2 | 57.0 | 84.1 | 72.8 | 100.0(151) |
| **가구유형** | | | | | | | | | |
| 양부모 | 55.0 | 52.5 | 75.0 | 83.8 | 76.3 | 57.5 | 86.3 | 72.5 | 100.0( 80) |
| 한부모 | 56.3 | 54.9 | 69.0 | 80.3 | 67.6 | 56.3 | 81.7 | 73.2 | 100.0( 71) |
| $x^2(df)$ | 0.027(1) | 0.89(1) | 0.671(1) | 0.308(1) | 1.400(1) | 0.021(1) | 0.585(1) | 0.010(1) | |
| **거주지역** | | | | | | | | | |
| 수도권 | 60.4 | 60.4 | 80.2 | 88.1 | 75.2 | 55.4 | 92.1 | 79.2 | 100.0(101) |
| 비수도권 | 46.0 | 40.0 | 56.0 | 70.0 | 66.0 | 60.0 | 68.0 | 60.0 | 100.0( 50) |
| $x^2(df)$ | 2.808(1) | 5.595(1)* | 9.753(1)** | 7.477(1)* | 1.424(1) | 0.283(1) | 14.506(1)*** | 6.238(1)* | |
| **남한거주기간** | | | | | | | | | |
| 5년 이하 | 53.8 | 53.8 | 73.1 | 84.6 | 61.5 | 53.8 | 84.6 | 65.4 | 100.0( 26) |
| 5년 초과 | 56.0 | 53.6 | 72.0 | 81.6 | 74.4 | 57.6 | 84.0 | 74.4 | 100.0(125) |
| $x^2(df)$ | 0.040(1) | 0.001(1) | 0.012(1) | N/A | 1.773(1) | 0.124(1) | N/A | 0.884(1) | |
| **수급여부** | | | | | | | | | |
| 비수급 | 53.8 | 52.6 | 73.1 | 82.1 | 73.1 | 59.0 | 80.8 | 71.8 | 100.0( 78) |
| 수급 | 57.5 | 54.8 | 71.2 | 82.2 | 71.2 | 54.8 | 87.7 | 74.0 | 100.0( 73) |
| $x^2(df)$ | 0.208(1) | 0.075(1) | 0.064(1) | 0.001(1) | 0.064(1) | 0.269(1) | 1.344(1) | 0.090(1) | |
| **가구소득** |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53.9 | 51.7 | 67.4 | 80.9 | 69.7 | 51.7 | 79.8 | 70.8 | 100.0(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56.9 | 60.3 | 79.3 | 86.2 | 77.6 | 65.5 | 89.7 | 75.9 | 100.0( 58) |
| 무응답 | 75.0 | 0.0 | 75.0 | 50.0 | 50.0 | 50.0 | 100.0 | 75.0 | 100.0( 4) |
| $x^2(df)$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
| **조사구분** | | | | | | | | | |
| 아동종합 | 73.1 | 68.7 | 84.9 | 86.7 | 83.6 | 67.1 | 87.3 | 78.4 | 100.0(850) |
| $x^2(df)$ | 18.70(1)*** | 13.047(1)** | 14.798(1)*** | 2.242(1) | 11.372(1)** | 5.797(1)* | 1.138(1) | 2.230(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 안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비수급가구에 한해서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

다. 즉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보다 일반 수급가구가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Ⅲ-8-14〉 수급여부별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 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 의료 기관 | 교육 기관 | 공공 기관 | 놀이터 | 대중 교통 | 자연 환경 | 계(수) |
|---|---|---|---|---|---|---|---|---|---|
| **수급** | 65.0 | 60.1 | 78.3 | 83.7 | 76.8 | 62.6 | 82.8 | 71.9 | 100.0(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7.5 | 54.8 | 71.2 | 82.2 | 71.2 | 54.8 | 87.7 | 74.0 | 100.0(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9.2 | 63.1 | 82.3 | 84.6 | 80.0 | 66.9 | 80.0 | 70.8 | 100.0(130) |
| $x^2(df)$ | 2.812(1) | 1.337(1) | 3.377(1) | 0.202(1) | 2.020(1) | 2.936(1) | 1.928(1) | 0.238(1) | |
| **비수급** | 71.8 | 68.0 | 84.2 | 86.6 | 83.2 | 66.3 | 87.8 | 78.9 | 100.0(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3.8 | 52.6 | 73.1 | 82.1 | 73.1 | 59.0 | 80.8 | 71.8 | 100.0(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3.8 | 69.7 | 85.4 | 87.1 | 84.3 | 67.1 | 88.6 | 79.7 | 100.0(720) |
| $x^2(df)$ | 13.771(1)*** | 9.529(1)** | 8.059(1)** | 1.535(1) | 6.351(1)* | 2.071(1) | 4.053(1) | 2.661(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한부모가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인식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놀이터, 대중교통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보다 일반 한부모가정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양부모가구 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에 차이가 없었다.

**〈표 Ⅲ-8-15〉 가구유형별 자녀의 거주지역 생활환경에 대한 주양육자의 접근성 인식**

단위: %(명)

| 구분 | 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 관련 이용시설 | 의료 기관 | 교육 기관 | 공공 기관 | 놀이터 | 대중 교통 | 자연 환경 | 계(수) |
|---|---|---|---|---|---|---|---|---|---|
| **한부모가구** | 62.6 | 61.1 | 75.3 | 81.3 | 74.2 | 63.6 | 81.8 | 76.8 | 100.0(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6.3 | 54.9 | 69.0 | 80.3 | 67.6 | 56.3 | 81.7 | 73.2 | 100.0(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66.1 | 64.6 | 78.7 | 81.9 | 78.0 | 67.7 | 81.9 | 78.7 | 100.0(127) |
| $x^2(df)$ | 1.870(1) | 1.780(1) | 2.313(1) | 0.078(1) | 13.377(1)** | 9.452(1)** | 6.848(1)* | 0.931(1) | |
| **양부모가구** | 72.4 | 67.7 | 84.9 | 87.2 | 83.8 | 66.0 | 88.0 | 77.7 | 100.0(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5.0 | 52.5 | 75.0 | 83.8 | 76.3 | 57.5 | 86.3 | 72.5 | 100.0(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4.3 | 69.4 | 86.0 | 87.6 | 84.6 | 66.9 | 88.2 | 78.3 | 100.0(723) |
| $x^2(df)$ | 2.550(1) | 2.548(1) | 0.001(1) | 0.773(1) | 3.743(1) | 2.863(1) | 0.272(1) | 1.392(1) | |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 나. 지역사회 참여도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활동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2.13~3.32점(5점 척도)으로 대체로 참여하지 않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별로는 대통령선거 등 각종 투표에 대해 약 3.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편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 학교행사 및 자원봉사 약 2.9점, 친구, 이웃 등 사교모임과 SNS 등 온라인커뮤니티 활동 약 2.7점,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주민행사 약 2.1점 순이었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참여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일반가정의 지역사회 참여도의 순위를 보면, 북한이탈주민가정과 1순위와 가장 순위가 낮은 참여도는 동일하게 각각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각종 투표(3.79점)와 봉사활동(2.20점)이다. 그러나 2순위부터는 사교모임, 온라인커뮤니티 활동, 자녀의 학교행사 및 자원봉사 순으로 나왔다.

**〈표 Ⅲ-8-16〉 주양육자의 지역사회 참여 형태별 참여도**

단위: 점, %(명)

| 구분 | 북한이탈주민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평균(표준편차) | 계(수) | 평균(표준편차) | 계(수) |
| 봉사활동 | 2.13(1.11) | 100.0(151) | 2.20(1.02) | 100.0(850) |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 | 3.32(1.23) | 100.0(151) | 3.79(0.93) | 100.0(850) |
| 자녀의 학교행사 및 자원봉사 | 2.91(1.21) | 100.0(151) | 2.92(1.17) | 100.0(850) |
| 지역사회 주민행사(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 2.10(1.04) | 100.0(151) | 2.62(1.05) | 100.0(850) |
|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사교모임 | 2.70(1.17) | 100.0(151) | 3.28(1.03) | 100.0(850) |
| SNS 등 온라인커뮤니티 활동(맘카페 등 포함) | 2.69(1.20) | 100.0(151) | 2.94(1.07) | 100.0(850) |

주: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점'~'매우 자주 참여한다 5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다. 지역사회 만족도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중인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으로 조사한 결과 약 6.3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만족도와 비교한 결과 일반가정의 만족도가 약 6.8점으로 약간 높았다.

**〈표 Ⅲ-8-17〉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0 | | | |
| 전체 | 0.7 | 1.3 | 1.3 | 5.3 | 7.9 | 27.8 | 11.3 | 13.2 | 12.6 | 9.9 | 8.6 | (151) | 6.27 | 2.17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1.3 | - | - | 3.8 | 5.0 | 32.5 | 13.8 | 11.3 | 12.5 | 10.0 | 10.0 | ( 80) | 6.45 | 2.07 |
| 한부모 | - | 2.8 | 2.8 | 7.0 | 11.3 | 22.5 | 8.5 | 15.5 | 12.7 | 9.9 | 7.0 | ( 71) | 6.07 | 2.28 |
| *t* | | | | | | | | | | | | | 1.122(10)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1.0 | 2.0 | 1.0 | 5.0 | 8.9 | 21.8 | 10.9 | 16.8 | 14.9 | 10.9 | 6.9 | (101) | 6.33 | 2.20 |
| 비수도권 | - | - | 2.0 | 6.0 | 6.0 | 40.0 | 12.0 | 6.0 | 8.0 | 8.0 | 12.0 | ( 50) | 6.16 | 2.14 |
| *t* | | | | | | | | | | | | | 1.174(10)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 | - | 3.8 | 3.8 | 3.8 | 26.9 | 15.4 | 23.1 | 11.5 | 7.7 | 3.8 | ( 26) | 6.23 | 1.86 |
| 5년 초과 | 0.8 | 1.6 | 0.8 | 5.6 | 8.8 | 28.0 | 10.4 | 11.2 | 12.8 | 10.4 | 9.6 | (125) | 6.28 | 2.24 |
| *t* | | | | | | | | | | | | | 0.651(10) | |
| **수급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1.3 | 1.3 | 1.3 | 3.8 | 9.0 | 34.6 | 7.7 | 7.7 | 15.4 | 7.7 | 10.3 | ( 78) | 6.19 | 2.26 |
| 수급 | - | 1.4 | 1.4 | 6.8 | 6.8 | 20.5 | 15.1 | 19.2 | 9.6 | 12.3 | 6.8 | ( 73) | 6.36 | 2.09 |
| *t* | | | | | | | | | | | | | 1.251(10)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1.1 | 1.1 | 2.2 | 6.7 | 6.7 | 30.3 | 11.2 | 14.6 | 7.9 | 11.2 | 6.7 | ( 89) | 6.06 | 2.20 |
| 중위소득50%이상 | - | 1.7 | - | 3.4 | 8.6 | 25.9 | 12.1 | 8.6 | 19.0 | 8.6 | 12.1 | ( 58) | 6.59 | 2.15 |
| 무응답 | - | - | - | - | 25.0 | - | - | 50.0 | 25.0 | - | - | ( 4) | 6.50 | 1.73 |
| *F* | | | | | | | | | | | | | 0.945(10)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2 | 0.1 | 1.9 | 2.4 | 13.9 | 15.5 | 35.9 | 24.7 | 5.2 | 0.2 | (850) | 6.76 | 1.33 |
| *F* | | | | | | | | | | | | | 16.77(10)***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만족도가 약간 높았고, 비수급가구는 일반가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와 차이를 보였다.

**〈표 Ⅲ-8-18〉 수급여부별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 | 0.5 | 0.5 | 5.4 | 4.9 | 18.7 | 18.7 | 29.6 | 12.8 | 6.40 | 2.5 | 100.0(203) | 6.35 | 1.6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1.4 | 1.4 | 6.8 | 6.8 | 20.5 | 15.1 | 19.2 | 9.6 | 12.33 | 6.8 | 100.0( 73) | 6.36 | 2.09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 | 4.6 | 3.8 | 17.7 | 20.8 | 35.4 | 14.6 | 3.08 | - | 100.0(130) | 6.35 | 1.36 |
| *t* | | | | | | | | | | | | | 3.163(9)** | |
| **비수급** | 0.1 | 0.4 | 0.3 | 1.6 | 2.8 | 15.3 | 13.9 | 33.2 | 25.4 | 5.76 | 1.3 | 100.0(798) | 6.77 | 1.44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1.3 | 1.3 | 3.8 | 9.0 | 34.6 | 7.7 | 7.7 | 15.4 | 7.69 | 10.3 | 100.0( 78) | 6.19 | 2.2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3 | 0.1 | 1.4 | 2.1 | 13.2 | 14.6 | 36.0 | 26.5 | 5.56 | 0.3 | 100.0(720) | 6.83 | 1.31 |
| *t* | | | | | | | | | | | | | 15.303(10)***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1$, *** $p < .001$.

가구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한부모와 양부모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가정보다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8-19〉 가구유형별 거주 중인 동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 | 1.0 | 1.0 | 5.6 | 5.6 | 18.2 | 16.7 | 27.8 | 17.2 | 4.55 | 2.5 | 100.0(198) | 6.31 | 1.74 |
| 북한이탈가정조사 | - | 2.8 | 2.8 | 7.0 | 11.3 | 22.5 | 8.5 | 15.5 | 12.7 | 9.86 | 7.0 | 100.0( 71) | 6.07 | 2.2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 | - | 4.7 | 2.4 | 15.7 | 21.3 | 34.6 | 19.7 | 1.57 | - | 100.0(127) | 6.44 | 1.33 |
| *t* | | | | | | | | | | | | | 5.773(9)*** | |
| **양부모가구** | 0.1 | 0.2 | 0.1 | 1.6 | 2.6 | 15.4 | 14.4 | 33.6 | 24.3 | 6.23 | 1.2 | 100.0(803) | 6.78 | 1.4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 | - | 3.8 | 5.0 | 32.5 | 13.8 | 11.3 | 12.5 | 10.00 | 10.0 | 100.0( 80) | 6.45 | 2.07 |
| 아동종합실태조사 | - | 0.3 | 0.1 | 1.4 | 2.4 | 13.6 | 14.5 | 36.1 | 25.6 | 5.81 | 0.3 | 100.0(723) | 6.81 | 1.32 |
| *t* | | | | | | | | | | | | | 11.991(10)***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01$.

## 라. 차별 경험

### 1) 주양육자의 차별 경험

평소 응답자(주양육자)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받은 경험을 상황에 따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차별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으로 더 많았다. 그런데 자신이 탈북민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23.8%)가 한부모 가정(13.8%)에 비해 많았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일터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네나 이웃주민이 11.3%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7.9%, 가족 및 친척 6.0%,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4.0%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간 비교했을 때, 5개 항목 모두에서 일반 한부모 가정이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차별받은 적이 더 많은 것을 알 있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일반 한부모 가정과 비교해서 가장 적었다.

**〈표 Ⅲ-8-20〉 주양육자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 비교**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 | | 계(수) | 일반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 | 계(수) | $x^2(df)$ |
|---|---|---|---|---|---|---|---|---|---|---|---|
| | 차별받지 않음 | 차별 받음 | 밝히지 않음 | 비해당 | | 차별받지 않음 | 차별 받음 | 밝히지 않음 | 비해당 | | |
| 동네, 이웃주민 | 64.9 | 11.3 | 23.8 | - | 100.0(151) | 64.2 | 22.1 | 13.8 | - | 100.0(240) | 5.088(1)*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72.2 | 4.0 | 23.8 | - | 100.0(126) | 74.3 | 21.4 | 4.4 | - | 100.0(206) | 11.267(1)** |
| 가족 및 친척 | 75.5 | 6.0 | 9.3 | 9.3 | 100.0(151) | 73.3 | 22.1 | 4.6 | - | 100.0(240) | 13.813(1)*** |
| 직장 일터 | 70.3 | 15.9 | 7.4 | 6.4 | 100.0(151) | 70.8 | 18.3 | 6.7 | 4.2 | 100.0(240) | 1.827(1) |
| 공공기관 | 74.2 | 7.9 | 10.6 | 7.3 | 100.0(151) | 80.4 | 15.8 | 3.8 | - | 100.0(240) | 3.059(1) |

주: 1) '차별받지 않음(전혀 받지 않음+받지 않은 편)'과 '차별받음(차별 받음 편+심한 차별을 받은 편)' 응답 분포로 차이검증을 실시함.
2) 북한이탈주민조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차별 경험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한부모가정'으로서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질문함.

* $p < .05$, ** $p < .01$, *** $p < .001$.

### 2) 자녀의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가 평소 탈북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받은 경험을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 이하로 적었다. 이 중 동네나 이웃주민으로부터 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이 2.4%, 가족 및 친척 1.3%순이었다. 이는 일반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차별받은 경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 특성(탈북가정, 한부모 가정)임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한부모 가정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는 차별받는 응답이 낮다는 사실과 연동해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차별을 받을까봐 탈북가정임을 밝히지 않고, 그래서 차별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8-21〉 자녀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 가정 비교**

단위: %(명)

| 구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 | | 계(수) | 일반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 | | 계(수) | $x^2(df)$ |
|---|---|---|---|---|---|---|---|---|---|---|---|
| | 차별받지 않음 | 차별 받음 | 밝히지 않음 | 비해당 | | 차별받지 않음 | 차별 받음 | 밝히지 않음 | 비해당 | | |
| 동네, 이웃주민 | 68.9 | 4.0 | 27.2 | - | 100.0(151) | 67.1 | 18.8 | 14.2 | - | 100.0(240) | 14.233(1)*** |
| 어린이집, 유치원 등 | 78.6 | 2.4 | 19.0 | - | 100.0(126) | 77.7 | 18.4 | 3.9 | - | 100.0(206) | 15.875(1)*** |
| 가족 및 친척 | 79.5 | 1.3 | 11.9 | 7.3 | 100.0(151) | 80.8 | 14.6 | 4.6 | - | 100.0(240) | 15.714(1)*** |

주: 1) '차별받지 않음'과 '차별받음' 응답 분포로 차이검증을 실시함.
2) 북한이탈주민조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차별 경험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경우 '한부모가정'으로서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질문함.
3)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조사 아동을 가진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 $p < .001$.

## 9. 물질적 환경

### 가. 결핍

#### 1) 결핍실태 및 결핍지수

##### 가) 개요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15개 문항(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 연구진 추가 1개 문항)을 조사하였다(류정희 외, 2019: 520, 525). 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에 대해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으로 응답한 비율을 결핍지수로 산출한 결과(류정희 외, 2019: 522),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경우 82.8%가 결핍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영유아의 39.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하루 세끼에 대한 결핍이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들에게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육류 및 생선 섭취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는 특히 '정기적인 여가활동'(74.2%), '친구들을 집으로 초

대하여 놀거나 식사하는 기회'(51.0%),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49.0%)에 대해 결핍도 컸다.

일반가정과의 비교 결과에서는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 보유'를 제외한 14개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고, '인터넷 연결'과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 항목에서만 일반가정이 결핍지수가 높았고 나머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북한이탈가정 영유아가 결핍비율이 더 높았다. 인터넷과 인스턴트 식품은 성장하는 영유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핍문항 14개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결핍되었다고 하겠다.

**〈표 Ⅲ-9-1〉 자녀의 결핍지수-문항별**

단위: %

| 결핍문항 |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x^2(df)$ |
|---|---|---|---|---|
| 1 |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31.8 | 3.3 | 148.382(1)***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2 | 10.0 | 27.362(1)*** |
| 3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5.8 | 11.3 | 60.254(1)***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6.5 | 10.6 | 28.692(1)***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8.4 | 22.9 | 16.246(1)***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74.2 | 34.9 | 81.666(1)***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9.8 | 13.2 | 26.798(1)***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0.5 | 11.1 | 40.134(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9.0 | 13.2 | 108.807(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 | 6.7 | 6.694(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5.2 | 6.7 | 50.866(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3.3 | 6.9 | 2.823(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1.0 | 22.8 | 51.536(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27.2 | 18.1 | 6.672(1)* |
| 결핍지수[1] | | 82.8 | 39.9 | 94.893(1)*** |
| 추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24.5 | 50.6 | 35.055(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형별 결핍 실태 비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수급여부에 따라 영유아의 결핍실태를 살펴보면, 결핍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6개 항목에 대해 결핍비율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육류 또는 생선 섭취', '야외활동 가능한 기구',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 '보육기관 주최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 지불',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에 대해 수급가구 영유아의 결핍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Ⅲ-9-2〉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여부별 자녀의 결핍실태**

단위: %

| 결핍문항 | | 전체 | 수급 | 비수급 | $x^2(df)$ |
|---|---|---|---|---|---|
| 1 |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31.8 | 32.9 | 30.8 | 0.077(1)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2 | 32.9 | 17.9 | 4.462(1)* |
| 3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5.8 | 41.1 | 30.8 | 1.750(1)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6.5 | 32.9 | 20.5 | 2.960(1)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8.4 | 47.9 | 29.5 | 5.431(1)*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74.2 | 80.8 | 67.9 | 3.262(1)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9.8 | 42.5 | 17.9 | 10.835(1)**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0.5 | 41.1 | 20.5 | 7.542(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9.0 | 61.6 | 37.2 | 9.031(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 | 0.7 | - | 2.166(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5.2 | 32.9 | 17.9 | 4.462(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3.3 | 2.7 | 3.8 | 0.144(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1.0 | 58.9 | 43.6 | 3.539(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27.2 | 31.5 | 23.1 | 1.355(1) |
| 결핍지수 | | 82.8 | 89.0 | 76.9 | 3.885(1) |
| 추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24.5 | 24.7 | 24.4 | 0.002(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실태를 가족유형(한부모, 양부모)에 따라 살펴보면, 결핍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6개 항목에 대해 결핍률의 차이가 있었지만, 한부모의 결핍지수가 88.7%로 양부모 가구의 77.%보다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 보유', '야외활동 가능한 기구',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 '보육기관 주최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 지불',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중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하는 기회'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 영유아의 결핍비율이 더 높았다.

**〈표 Ⅲ-9-3〉 북한이탈주민 가정 가구유형별 자녀의 결핍실태**

단위: %

| 결핍문항 | | 전체 | 한부모 | 양부모 | $x^2(df)$ |
|---|---|---|---|---|---|
| 1 |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31.8 | 38.0 | 26.3 | 2.407(1)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2 | 32.4 | 18.8 | 3.719(1) |
| 3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5.8 | 42.3 | 30.0 | 2.459(1)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6.5 | 35.2 | 18.8 | 5.234(1)*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8.4 | 47.9 | 30.0 | 5.088(1)*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74.2 | 81.7 | 67.5 | 3.954(1)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9.8 | 39.4 | 21.3 | 5.947(1)*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0.5 | 42.3 | 20.0 | 8.794(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9.0 | 59.2 | 40.0 | 5.523(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 | 2.8 | - | 2.284(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5.2 | 31.0 | 20.0 | 2.411(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3.3 | 2.8 | 3.8 | 0.102(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1.0 | 60.6 | 42.5 | 4.911(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27.2 | 31.0 | 23.8 | 0.996(1) |
| 결핍지수 | | 82.8 | 88.7 | 77.5 | 3.330(1) |
| 추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24.5 | 26.8 | 22.5 | 0.369(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과의 결핍 실태 비교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와 일반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유아의 결핍상태를 비교한 결과,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결핍을 보이는 결핍지수가 북한이탈주민가정 수급가구에서 89.0%로 일반가정 수급가구 66.9%보다 높았다.

항목별로는 '하루 세 끼 섭취', '정기적인 여가 활동',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 항목에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 수급가구가 결핍률이 더 높았다. 반면, '인터넷 연결',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의 기회', '인스턴트식품 주 3회 이상 섭취'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가정 수급가구의 결핍율이 더 높았다.

**〈표 Ⅲ-9-4〉 수급가구별 자녀의 결핍실태: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단위: %

| 결핍문항 | | 전체 | 탈북 수급가구 | 일반 수급가구 | $x^2(df)$ |
|---|---|---|---|---|---|
| 1 |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17.2 | 32.9 | 8.5 | 19.530(1)***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6 | 32.9 | 21.5 | 3.154(1) |
| 3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3.0 | 41.1 | 28.5 | 3.375(1)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7.6 | 32.9 | 24.6 | 1.597(1)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42.9 | 47.9 | 40.0 | 1.205(1)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64.5 | 80.8 | 55.4 | 13.216(1)***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32.0 | 42.5 | 26.2 | 5.715(1)*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6.0 | 41.1 | 33.1 | 1.305(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2.9 | 61.6 | 32.3 | 16.428(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3 | 2.7 | 19.2 | 11.025(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3.2 | 32.9 | 17.7 | 6.058(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9.9 | 2.7 | 13.8 | 6.493(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4.2 | 58.9 | 51.5 | 1.022(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44.3 | 31.5 | 51.5 | 7.61(1)** |
| 결핍지수 | | 74.9 | 89.0 | 66.9 | 12.157(1)*** |
| 추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42.9 | 24.7 | 53.1 | 15.418(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일반가정 한부모가구(아동종합실태조사) 간 영유아의 결핍상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핍지수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에서 88.7%로 일반 한부모가구 54.3%보다 높았다. 항목별로는 '야외활동 가능한 기구',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 보유',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의 기회'에 대한 결핍률은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12개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하루 세끼 식사, 육류 및 생선 섭취, 과일 및 채소 섭취 등의 균형있는 식사에 대한 결핍이 탈북 한부모가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연결'과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 항목에 대해서만 일반 한부모가구 영유아가 더 결핍되고 나머지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북한이탈 한부모가구 영유아가 더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5〉 한부모가구 유형별 자녀의 결핍실태-문항별**

단위: %

| | 결핍문항 | 전체 | 탈북 한부모 가구 | 일반 한부모 가구 | $x^2(df)$ |
|---|---|---|---|---|---|
| 1 |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17.7 | 38.0 | 6.3 | 31.505(1)*** |
| 2 |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1.2 | 32.4 | 15.0 | 8.282(1)** |
| 3 |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28.3 | 42.3 | 20.5 | 10.651(1)** |
| 4 |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4.2 | 35.2 | 18.1 | 7.252(1)** |
| 5 |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9.9 | 47.9 | 35.4 | 2.946(1) |
| 6 |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56.6 | 81.7 | 42.5 | 28.440(1)*** |
| 7 |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7.8 | 39.4 | 21.3 | 7.500(1)**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26.8 | 42.3 | 18.1 | 13.542(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35.9 | 59.2 | 22.8 | 26.119(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0.6 | 2.8 | 15.0 | 7.083(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17.7 | 31.0 | 10.2 | 13.474(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7.6 | 2.8 | 10.2 | 3.580(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41.4 | 60.6 | 30.7 | 16.729(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33.3 | 31.0 | 34.6 | 0.274(1) |
| | 결핍지수 | 66.7 | 88.7 | 54.3 | 24.253(1)*** |
| 추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42.4 | 26.8 | 51.2 | 11.119(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2) 결핍수준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에 대해서 14개 항목 중 결핍된 항목의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2개인 경우가 1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개(11.9%), 3개(11.3%) 순으로 많았다. 한편 결핍인 항목이 0개인 경우도 7.3% 있었다.

**〈표 Ⅲ-9-6〉 자녀의 결핍문항 수**

단위: 명, %

| 결핍문항 수 | 자녀결핍 | |
|---|---|---|
| | 빈도 | % |
| 0 | 11 | 7.3 |
| 1 | 15 | 9.9 |
| 2 | 23 | 15.2 |
| 3 | 17 | 11.3 |
| 4 | 18 | 11.9 |
| 5 | 13 | 8.6 |
| 6 | 15 | 9.9 |
| 7 | 12 | 7.9 |
| 8 | 9 | 6.0 |
| 9 | 7 | 4.6 |
| 10 | 5 | 3.3 |
| 11 | 2 | 1.3 |
| 12 | 4 | 2.6 |
| 13 | 0 | 0.0 |
| 14 | 0 | 0.0 |
| 계 | 151 | 100.0 |

주: 1) 14개의 결핍 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의 개수별 응답자 분포임.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14개 항목 중 결핍된 항목의 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경우 평균 약 4.5개로 일반가정 영유아의 약 1.9개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북한이탈주민가정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가구유형, 수급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부모가구인 경우, 수급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이 50%미만인 경우 각각 약 5.5개, 약 5.4개, 약 5.3개로 양부모가정(약 3.6개), 비수급가구(약 3.6개),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약 3.3개)보다 더 많았다.

**〈표 Ⅲ-9-7〉 자녀의 결핍항목 수**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4.49 | 3.07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3.63 | 2.77 | ( 80) |
| 한부모 | 5.46 | 3.13 | ( 71) |
| *t* | -3.834*** |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4.41 | 3.00 | (101) |
| 비수도권 | 4.66 | 3.24 | ( 50) |
| *t* | -0.477 | | |
| **자녀연령** | | | |
| 영아 | 4.54 | 2.91 | ( 68) |
| 유아 | 4.45 | 3.22 | ( 83) |
| *t* | 0.195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5년 이하 | 5.27 | 2.57 | ( 26) |
| 5년 초과 | 4.33 | 3.15 | (125) |
| *t* | 1.425 | | |
| **수급여부** | | | |
| 비수급 | 3.62 | 2.72 | ( 78) |
| 수급 | 5.42 | 3.18 | ( 73) |
| *t* | -3.770***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5.29[a] | 3.09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3.28[b] | 2.69 | ( 58) |
| 무응답 | 4.25[ab] | 2.63 | ( 4) |
| *F* | 8.301***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92 | 2.74 | (850) |
| *t* | 9.624*** | | |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2) a, b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의 결핍항목 수를 비교한 결과 수급/비수급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항목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8〉 수급여부별 자녀의 결핍항목 수**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4.67 | 3.60 | (2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42 | 3.18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4.24 | 3.76 | (130) |
| *t* | 2.389* | | |
| **비수급** | 1.71 | 2.41 | (7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62 | 2.72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50 | 2.28 | (720) |
| *t* | 6.632*** | | |

주: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 $p < .05$, *** $p < .001$.

가구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 비교 결과에서도 한부모와 양부모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 영유아의 결핍 항목수가 더 많았다.

**〈표 Ⅲ-9-9〉 가구유형별 자녀의 결핍항목 수**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3.89 | 3.51 | (19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5.46 | 3.13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3.01 | 3.41 | (127) |
| *t* | 5.008*** | | |
| **양부모가구** | 1.92 | 2.64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3.63 | 2.77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73 | 2.56 | (723) |
| *t* | 6.235*** | | |

주: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 중 '아니오'라고 응답한 문항 개수의 합임.
*** $p < .001$.

## 나. 박탈

### 1)박탈지수: 전체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에 대해 31개 물질적, 사회적 박탈 상태를 조사하였다(류정희 외, 2019: 510). 본 연구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일반가정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1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Ⅲ-9-10〉 박탈항목**

| 우리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지고 있다(하고 있다) | | |
|---|---|---|
| 식생활 | 1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 | 2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 | 3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 의생활 | 4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 | 5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 주택 및 주거 환경 | 6 |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 | 7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 | 8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 | 9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
| | 10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 의료 및 건강 | 11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있다 |
| | 12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 | 13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 가족 활동 및 문화 생활 | 14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 | 15 |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
| | 16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 사회적 지지 | 17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 저축 | 18 |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
| | 19 |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 | 20 |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 우리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항을 할 수 있다 | | |
|---|---|---|
| 교육 | 21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 | 22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 | 23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 | 24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 **우리 가정에서는 지난 1년 동안(2020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 | |
| 경제적 어려움 | 25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 | 26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27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 | 28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 | 29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 | 30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br>※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
| | 31 |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br>※ 학업,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br>※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

자료: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p. 511.

북한이탈주민가정의 31개 항목에 대한 박탈지수는 약 11.7개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일반가정의 약 8.6개보다 높았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구 특성에 따라 박탈지수를 비교한 결과 가구유형, 수급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부모인 경우(약 13.1개), 수급가구인 경우(약 13.5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약 13.5개)가 양부모(약 10.4개), 비수급가구(약 9.9개), 중위소득 50% 이상(약 8.9개)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Ⅲ-9-1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11.66 | 4.72 | (151) |
| **가구유형** | | | |
| 양부모 | 10.35 | 4.65 | ( 80) |
| 한부모 | 13.13 | 4.39 | ( 71) |
| *t* | -3.759*** | | |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거주지역** | | | |
| 수도권 | 12.05 | 4.78 | (101) |
| 비수도권 | 10.86 | 4.56 | ( 50) |
| *t* | 1.462 | | |
| **자녀 연령** | | | |
| 영아 | 11.32 | 5.13 | ( 68) |
| 유아 | 11.93 | 4.38 | ( 83) |
| *t* | −0.781 | | |
| **남한 거주기간(母)** | | | |
| 5년 이하 | 12.42 | 4.55 | ( 26) |
| 5년 초과 | 11.50 | 4.76 | (125) |
| *t* | 0.910 | | |
| **수급 여부** | | | |
| 비수급 | 9.90 | 4.43 | ( 78) |
| 수급 | 13.53 | 4.31 | ( 73) |
| *t* | −5.107*** | | |
| **가구소득**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3.54[a] | 4.39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8.93[b] | 3.87 | ( 58) |
| 무응답 | 9.25[ab] | 3.30 | ( 4) |
| *F* | 22.083*** | | |
| **조사구분**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59 | 3.80 | (850) |
| *t* | 7.542*** | | |

주: 1)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2) a, b집단간 차이가 있음.
*** $p < .001$.

수급여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지수를 비교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와 일반 수급가구의 박탈지수는 각각 약 13.5개, 약 13.1개로 두 집단 모두 높아 차이가 없었다. 한편 비수급가구인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지수가 약 9.9개로 일반가정 약 7.8개보다 더 높았다.

**〈표 Ⅲ-9-12〉 수급여부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수급** | 13.26 | 4.90 | (319)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53 | 4.31 | ( 73)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3.11 | 5.21 | (130) |
| *t* | 0.594 | | |
| **비수급** | 7.99 | 3.06 | (92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9.90 | 4.43 | ( 7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7.78 | 2.79 | (720) |
| *t* | 4.137*** | | |

주: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 $p < .001$.

가구유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결과는 한부모가구/양부모가구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9-13〉 가구유형별 북한이탈주민가정/일반가정 박탈지수 비교**

단위: 개, (명)

| 구분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한부모가구** | 11.89 | 4.61 | (43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13 | 4.39 | ( 71) |
| 아동종합실태조사 | 11.20 | 4.60 | (127) |
| *t* | 2.878** | | |
| **양부모가구** | 8.36 | 3.64 | (80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0.35 | 4.65 | ( 8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8.14 | 3.45 | (723) |
| *t* | 4.133*** | | |

주: 박탈지수는 31개 문항 중 박탈된 문항(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개수를 합산한 수치임.
** $p < .01$, *** $p < .001$.

### 2) 박탈실태

#### 가) 개요

31개 세부 문항별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실태를 살펴보면, 저축(미래대비) 영역에서는 3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29.8~59.6%가 결핍되어 가장 열악한 편

이었고,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4개 중 3개 항목에 대해서 30.5~42.4%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문화생활 영역과 관련해서는 3개 중 2개 항목 '연 1회 이상 가족 여행 가기'와 '가족 또는 자녀와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가능'에 대해서 약 37~40% 결핍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주택과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5개 항목 중 2개 항목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과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에 대해서 각각 39.1%, 32.5%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에 대해 결핍비율이 높았다(43%). 의료 및 건강 영역과 관련해서는 3개 항목 중 '만성 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에 대해서만 열악한 편이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7개 항목 중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과 '공과금 기한 내 미납'에 대해서가 각각 24.5%, 25.8%로 열악한 편이었다. 사회적지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있음'에 대해 20.5%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11~15% 정도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양호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실태를 비교한 결과는 '주 1회 신선한 과일 섭취',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집세가 밀려 이사함' 5개 항목을 제외한 29개 항목에서 31개 세부 문항별로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실태를 살펴보면, 저축(미래대비) 영역에서는 3개 항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29.8~59.6%가 결핍되어 가장 열악한 편이었고,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4개 중 3개 항목에 대해서 30.5~42.4%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문화생활 영역과 관련해서는 3개 중 2개 항목 '연 1회 이상 가족 여행 가기'와 '가족 또는 자녀와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가능'에 대해서 약 37~40% 결핍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주택과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5개 항목 중 2개 항목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과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에 대해서 각각 39.1%, 32.5%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의생활 영역에서는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에 대해 결핍비율이 높았다(43%). 의료 및 건강 영역과 관련해서는 3개 항목 중 '만성 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에 대해서만 열악한 편이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7개 항목 중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과 '공과금 기한 내 미납'에 대해서가 각각 24.5%, 25.8%로 열악한 편이었다. 사회적지지 관련해서는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있음'에 대해 20.5%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약 11~15% 정도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양호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실태를 비교한 결과는 '주 1회 신선한 과일 섭취',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집세가 밀려 이사함' 5개 항목을 제외한 2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박탈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Ⅲ-9-14〉 북한이탈주민 가정/일반가정의 박탈실태 비교**

단위: %

| 결핍문항 | |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x^2(df)$ |
|---|---|---|---|---|---|
| 식생활 | 1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13.9 | 5.9 | 12.531(1)** |
| | 2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11.3 | 6.8 | 3.638(1) |
| | 3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15.2 | 3.5 | 35.018(1)*** |
| 의생활 | 4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19.9 | 3.2 | 66.520(1)*** |
| | 5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43.0 | 6.6 | 160.380(1)*** |
| 주택 및 주거 환경 | 6 |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7.9 | 2.9 | 9.026(1)** |
| | 7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39.1 | 5.8 | 147.794(1)*** |
| | 8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9.9 | 7.2 | 1.389(1) |
| | 9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 32.5 | 5.5 | 107.174(1)*** |
| | 10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9.3 | 2.9 | 13.723(1)** |
| 의료 및 건강 | 11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있다 | 33.1 | 9.1 | 66.970(1)*** |
| | 12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11.9 | 4.6 | 12.837(1)** |
| | 13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6.6 | 4.0 | 2.098(1) |

| 결핍문항 | |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x^2(df)$ |
|---|---|---|---|---|---|
|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 14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37.1 | 21.9 | 16.169(1)*** |
| | 15 |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 17.2 | 12.5 | 2.525(1) |
| | 16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40.4 | 16.2 | 46.997(1)*** |
| 사회적 지지 | 17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20.5 | 5.3 | 42.423(1)*** |
| 저축 | 18 |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 52.3 | 24.2 | 49.653(1)*** |
| | 19 |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59.6 | 28.8 | 54.554(1)*** |
| | 20 |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29.8 | 21.4 | 5.147(1)* |
| 교육 | 21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31.1 | 6.5 | 85.170(1)*** |
| | 22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42.4 | 11.6 | 88.863(1)*** |
| | 23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30.5 | 7.4 | 70.218(1)*** |
| | 24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15.9 | 5.9 | 18.773(1)*** |
| 경제적 어려움 | 25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24.5 | 4.2 | 77.908(1)*** |
| | 26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25.8 | 6.8 | 52.917(1)*** |
| | 27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9.9 | 4.9 | 5.952(1)* |
| | 28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5.2 | 4.0 | 30.122(1)*** |
| | 29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5.9 | 3.9 | 34.450(1)*** |
| | 30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8.2 | 6.0 | 0.779(1) |
| | 31 |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10.0 | 2.0 | 18.363(1)*** |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31개의 하위문항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경제적 영역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 나) 영역별

9개 영역별로 세부항목별 박탈비율을 수급여부와 가구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생활 영역을 분석해 보겠다.

가구특성에 따라서 비교하면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주 1회 이상 고기가 생선을 사 먹지 못함', '가끔 기호식품을 사먹지 못함' 비율이 높았고, 한부모가구는 양부모 가구보다 '주 1회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지 못함' 비율이 높았다.

**〈표 Ⅲ-9-15〉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비율(식생활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13.9 | 21.9 | 6.4 | 7.574(1)** | 21.1 | 7.5 | 5.834(1)* |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11.3 | 15.1 | 7.7 | 2.054(1) | 15.5 | 7.5 | 2.405(1) |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15.2 | 21.9 | 9.0 | 4.893(1)* | 19.7 | 11.3 | 2.089(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 수급가정이 주1회 이상 고기나 생선,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고기나 생선'과 '신선한 과일'섭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기호식품 섭취'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1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식생활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22.7 | 21.9 | 23.1 | 0.036(1) | 17.2 | 21.1 | 15.0 | 1.217(1) |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23.2 | 15.1 | 27.7 | 4.187(1) | 17.7 | 15.5 | 18.9 | 0.363(1) |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21.2 | 21.9 | 20.8 | 0.037(1) | 11.1 | 19.7 | 6.3 | 8.303(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의생활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동절기 외투 두 벌 소유'와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약 20%정도가 결핍, 후자에 대해서는 약 43%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영역보다 결핍비율이 높았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두 경우 모두 소유하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한부모 가구인 경우 '동절기 외투 두 벌 소유'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에 대해서는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17〉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생활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19.9 | 27.4 | 12.8 | 5.033(1)* | 23.9 | 16.3 | 1.399(1) |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43.0 | 56.2 | 30.8 | 9.919(1)** | 54.9 | 32.5 | 7.719(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 '동절기 외투 두 벌 소유'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와 일반가정 한부모의 경우는 '동절기 외투 두 벌 소유'와 '특별한 날 입을 여름/겨울 정장 소유' 모두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1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생활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20.7 | 27.4 | 16.9 | 3.126(1) | 13.1 | 23.9 | 7.1 | 11.345(1)** |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37.4 | 56.2 | 26.9 | 17.066(1)*** | 29.3 | 54.9 | 15.0 | 35.125(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주택과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난방시설 구비',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구비'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전반적으로 '적절한 난방시설 구비',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 구비',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에 대해서는 약 8~9%만이 결핍되어 양호하였으나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과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에 대해서는 각각 39.1%, 32.5%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수급가구인 경우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이 비수급가구보다 더 열악한 반면,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9-19〉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7.9 | 9.6 | 6.4 | 0.521(1) | 7.0 | 8.8 | 0.150(1) |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39.1 | 47.9 | 30.8 | 4.673(1)* | 43.7 | 35.0 | 1.186(1) |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9.9 | 6.8 | 12.8 | 1.503(1) | 11.3 | 8.8 | 0.266(1) |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 32.5 | 32.9 | 32.1 | 0.012(1) | 33.8 | 31.3 | 0.112(1) |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9.3 | 9.6 | 9.0 | 0.017(1) | 7.0 | 11.3 | 0.792(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 '가구원 수와 연령에 적정한 방 사용'과 '옥탑방이나 지하가 아닌 지상 거주'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핍비율이 일반가정보가 약 2.9~3.3배정도 높았다.

한부모가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도 두 항목에 대해서 3.1~3.6배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표 Ⅲ-9-2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9.9 | 9.6 | 10.0 | 0.009(1) | 6.1 | 7.0 | 5.5 | N/A |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26.6 | 47.9 | 14.6 | 26.598(1)*** | 24.7 | 43.7 | 14.2 | 21.265(1)*** |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11.8 | 6.8 | 14.6 | 2.705(1) | 11.1 | 11.3 | 11.0 | 0.003(1) |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 19.2 | 32.9 | 11.5 | 13.714(1)*** | 18.2 | 33.8 | 9.4 | 18.157(1)*** |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8.9 | 9.6 | 8.5 | 0.074(1) | 5.1 | 7.0 | 3.9 | N/A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01$.

의료 및 건강 영역과 관련해서는 '만성 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 '치과 진료 받음',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과 '치과 진료 받음'에 대해서는 약 7~12%만이 결핍되어 양호하였으나 '만성 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에 대해서는 33.1%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수급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만성 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구가 양부모 가구보다 약 1.7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21〉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료 및 건강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 33.1 | 41.1 | 25.6 | 4.067(1) | 42.3 | 25.0 | 5.056(1)* |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11.9 | 16.4 | 7.7 | 2.747(1) | 14.1 | 10.0 | 0.598(1) |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6.6 | 9.6 | 3.8 | N/A | 9.9 | 3.8 | N/A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와 한부모가구를 비교했을 때도 '만성질병으로 정기적 진료 받음'에 대해서만 북한이탈주민가정 수급가구와 한부모 가구 각각 약 2.4배, 3.4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22〉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의료 및 건강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 받고(받을 수) 있다 | 25.6 | 41.1 | 16.9 | 14.336(1)*** | 23.2 | 42.3 | 12.6 | 22.456(1)*** |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17.7 | 16.4 | 18.5 | 0.131(1) | 8.6 | 14.1 | 5.5 | 4.264(1) |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10.3 | 9.6 | 10.8 | 0.070(1) | 8.1 | 9.9 | 7.1 | 0.471(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01$.

문화생활 영역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 가족 여행 가기',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가족 또는 자녀와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가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은 17.2%가 결핍, '연 1회 이상 가족 여행 가기'와 '가족 또는 자녀와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가능'에 대해서는 약 37~40% 결핍으로 열악한 편이었다. 사회적 지지 관련해서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있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 20.5%가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는 문화생활 영역 모든 항목에서 비수급 가구보다 더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 영역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부모 가구가 양부모 가구보다 '연 1회 이상 가족 여행 가기'와 '가족 또는 자녀와의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 가능' 그리고 사회적 지지영역에 대해서 더 결핍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9-23〉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37.1 | 50.7 | 24.4 | 112.01(1)** | 50.7 | 25.0 | 106.52(1)**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 하고 있다 | 17.2 | 26.0 | 9.0 | 7.693(1)** | 23.9 | 11.3 | 4.252(1) |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40.4 | 52.1 | 29.5 | 7.976(1)** | 53.5 | 28.8 | 9.586(1)** |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20.5 | 24.7 | 16.7 | 1.476(1) | 28.2 | 13.8 | 4.794(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한편,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 다른 영역과 달리,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 기념 챙기기'에 있어서 일반 수급가구가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보다 더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간 비교에서는 사회적지지 영역에 대해서만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가 약 2배 결핍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2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문화생활 및 사회적 지지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54.2 | 50.7 | 56.2 | 0.563(1) | 46.0 | 50.7 | 43.3 | 1.003(1) |
|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 하고 있다 | 36.0 | 26.0 | 41.5 | 4.884(1)* | 29.8 | 23.9 | 33.1 | 1.814(1) |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49.8 | 52.1 | 48.5 | 0.241(1) | 43.9 | 53.5 | 38.6 | 4.126(1) |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19.2 | 24.7 | 16.2 | 2.178(1) | 19.2 | 28.2 | 14.2 | 5.752(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저축(미래대비) 영역과 관련해서는 '비일상적 지출에 대한 대비', '노후를 위한 연금가입이나 저축', '사적보험 가입'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미래대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29.8%~59.6%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수급가구인 경우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약 1.8~3.3배, 한부모가구는 양부모 가구에 비해 약 1.8~2.3배 더 열악하였다.

**〈표 Ⅲ-9-25〉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미래대비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 하고 있다 | 52.3 | 68.5 | 37.2 | 14.822(1)*** | 69.0 | 37.5 | 14.975(1)*** |
|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59.6 | 84.9 | 35.9 | 37.655(1)*** | 78.9 | 42.5 | 20.669(1)*** |
|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29.8 | 46.6 | 14.1 | 19.07(1)*** | 42.3 | 18.8 | 9.933(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1$, *** $p < .001$.

한편,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는 두 집단 모두 열악한 가운데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한부모가구만을 비교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가 '비일상적 지출에 대한 대비'와 '노후를 위한 연금가입이나 저축'에 대해 각각 1.3배, 1.2배 더 열악하였다. 단, '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 사적보험에 가입'은 탈북가구보다 일반가구의 수급 및 한부모 가구 모두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2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미래대비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 하고 있다 | 65.0 | 68.5 | 63.1 | 0.603(1) | 57.6 | 69.0 | 51.2 | 5.929(1)* |
|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80.8 | 84.9 | 78.5 | 1.261(1) | 69.7 | 78.9 | 64.6 | 4.413(1)* |
|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54.2 | 46.6 | 58.5 | 2.661(1) | 47.5 | 42.3 | 50.4 | 1.210(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가능', '학원수강이나 과외 가능', '기본참고서나 도서 구입 가능',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가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가능'에 대해서는 15.9%만이 결핍되어 양호하였으나 '고등교육 가능', '학원수강이나 과외 가능', '기

본참고서나 도서 구입 가능'에 대해서는 30.5~42.4%가 결핍되어 열악한 편이었다.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더 어려웠으며, 한부모가구는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 책임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서 양부모가구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27〉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교육 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31.1 | 46.6 | 16.7 | 15.735(1)*** | 46.5 | 17.5 | 14.735(1)*** |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42.4 | 57.5 | 28.2 | 13.283(1)*** | 60.6 | 26.3 | 18.136(1)*** |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30.5 | 43.8 | 17.9 | 11.929(1)** | 46.5 | 16.3 | 16.226(1)*** |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15.9 | 23.3 | 9.0 | 5.779(1)* | 19.7 | 12.5 | 1.466(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는 전자가 후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가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부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이 일반 한부모 가정보다 교육영역에 있어서 박탈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9-2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교육영역)**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31.5 | 46.6 | 23.1 | 11.958(1)** | 26.8 | 46.5 | 15.7 | 21.940(1)*** |
|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48.3 | 57.5 | 43.1 | 3.913(1) | 41.9 | 60.6 | 31.5 | 15.804(1)*** |
|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35.5 | 43.8 | 30.8 | 3.487(1) | 29.8 | 46.5 | 20.5 | 14.724(1)*** |
|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22.7 | 23.3 | 22.3 | 0.026(1) | 16.7 | 19.7 | 15.0 | 0.742(1)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공과금 기한 내 미납',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 '추운 겨울 난방 하지 못함',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감',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에 대해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가정은 전반적으로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경험'에 대해서는 약 8.5~10%만이 결핍되어 양호하였으나 '추운 겨울 난방 하지 못함'과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감'에 대해서는 각각 15.2, 15.9%가 결핍되어 보통이었고,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과 '공과금 기한 내 미납'에 대해서는 각각 24.5%, 25.8%로 열악한 편이었다.

수급가구인 경우 '공과금 기한 내 미납' 경험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2.1배 많았다. 한부모 가구인 경우는 양부모 가구보다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공과금 기한 내 미납',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감'에 대한 경험이 약 2.1~5.1배 더 많았다.

**〈표 Ⅲ-9-29〉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경제적 어려움)**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여부 | | $x^2(df)$ | 가구유형 | | $x^2(df)$ |
|---|---|---|---|---|---|---|---|
| | | 수급 | 비수급 | | 한부모 | 양부모 | |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24.5 | 30.1 | 19.2 | 2.425(1) | 33.8 | 16.3 | 6.265(1)* |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25.8 | 35.6 | 16.7 | 7.068(1)** | 45.1 | 8.8 | 25.903(1)*** |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9.9 | 11.0 | 9.0 | 0.166(1) | 14.1 | 6.3 | 2.581(1) |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5.2 | 16.4 | 14.1 | 0.159(1) | 16.9 | 13.8 | 0.289(1) |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5.9 | 20.5 | 11.5 | 2.290(1) | 23.9 | 8.8 | 6.496(1)* |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8.5 | 11.7 | 4.0 | N/A | 12.1 | 3.8 | N/A |
|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10.0 | 15.2 | 5.6 | N/A | 18.2 | 3.6 | N/A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임.
3)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만을 비교했을 때 북한이탈주민 가정 수급가구는 일반가정 수급가구보다 거의 모든 문항에서 박탈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 중에서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감'에 대한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 가구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도 한 문항(집세가 밀렸거나 그 이유로 집을 옮긴 경험)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한부모 가구의 박탈비율이 높았다. '식사 양을 줄이거나 거른 경험', '공과금 미납부',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감' 세 항목에 대해서 3.4~3.9배 차이가 있었다.

**〈표 Ⅲ-9-3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유형별 박탈 비율(경제적 어려움)**

단위: %

| 항목 | 전체 | 수급 | | $x^2(df)$ | 전체 | 한부모 | | $x^2(df)$ |
|---|---|---|---|---|---|---|---|---|
| | | 탈북 | 일반 | | | 탈북 | 일반 | |
|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15.3 | 30.1 | 6.9 | 19.470(1)*** | 17.7 | 33.8 | 8.7 | 19.781(1)*** |
|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25.6 | 35.6 | 20.0 | 5.983(1)* | 23.7 | 45.1 | 11.8 | 27.828(1)*** |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11.8 | 11.0 | 12.3 | 0.082(1) | 11.1 | 14.1 | 9.4 | 0.991(1) |
|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2.3 | 16.4 | 10.0 | 1.795(1) | 12.1 | 16.9 | 9.4 | 2.375(1) |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3.3 | 20.5 | 9.2 | 5.192(1)* | 13.1 | 23.9 | 7.1 | 11.345(1)** |
|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12.0 | 11.7 | 12.1 | 0.007(1) | 4.7 | 4.0 | 4.7 | N/A |
|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6.4 | 15.2 | 2.7 | N/A | 2.2 | 5.6 | 1.9 | N/A |

주: 1) 각 항목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함.
2)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3) 탈북은 본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이고, 일반은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다.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0~10점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약 5.8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양부모가구, 비수급 가구,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가 유의하게 생활수준의 만족도가 높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일반가정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9-31〉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계 (명) | 평균 | 표준 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11.3 | 8.5 | – | – | | | |
| 전체 | 1.3 | 3.3 | 2.6 | 2.6 | 11.3 | 31.8 | 11.3 | 13.9 | 11.9 | 5.3 | 4.6 | (151) | 5.75 | 2.13 |
| **가구유형** | | | | | | | | | | | | | | |
| 양부모 | 1.3 | – | 2.5 | 2.5 | 1.3 | 33.8 | 8.8 | 16.3 | 15.0 | 10.0 | 8.8 | ( 80) | 6.50 | 2.08 |
| 한부모 | 1.4 | 7.0 | 2.8 | 2.8 | 22.5 | 29.6 | 14.1 | 11.3 | 8.5 | – | – | ( 71) | 4.90 | 1.86 |
| *t* | | | | | | | | | | | | | 4.951*** | |
| **거주지역** | | | | | | | | | | | | | | |
| 수도권 | 1.0 | 3.0 | 3.0 | 4.0 | 12.9 | 26.7 | 12.9 | 11.9 | 13.9 | 6.9 | 4.0 | (101) | 5.79 | 2.16 |
| 비수도권 | 2.0 | 4.0 | 2.0 | – | 8.0 | 42.0 | 8.0 | 18.0 | 8.0 | 2.0 | 6.0 | ( 50) | 5.66 | 2.10 |
| *t* | | | | | | | | | | | | | 0.358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 | | |
| 5년 이하 | – | – | 3.8 | – | 23.1 | 42.3 | 11.5 | 11.5 | – | 3.8 | 3.8 | ( 26) | 5.35 | 1.65 |
| 5년 초과 | 1.6 | 4.0 | 2.4 | 3.2 | 8.8 | 29.6 | 11.2 | 14.4 | 14.4 | 5.6 | 4.8 | (125) | 5.83 | 2.21 |
| *t* | | | | | | | | | | | | | -1.282 | |
| **수급여부** | | | | | | | | | | | | | | |
| 비수급 | 1.3 | 1.3 | 1.3 | 2.6 | 2.6 | 34.6 | 7.7 | 16.7 | 16.7 | 6.4 | 9.0 | ( 78) | 6.38 | 2.10 |
| 수급 | 1.4 | 5.5 | 4.1 | 2.7 | 20.5 | 28.8 | 15.1 | 11.0 | 6.8 | 4.1 | – | ( 73) | 5.07 | 1.95 |
| *t* | | | | | | | | | | | | | 3.978*** | |
| **가구소득** | | | | | | | | | | | | | | |
| 중위소득50%미만 | 2.2 | 3.4 | 3.4 | 4.5 | 15.7 | 37.1 | 11.2 | 12.4 | 5.6 | 2.2 | 2.2 | ( 89) | 5.13 | 1.95 |
| 중위소득50%이상 | – | 3.4 | 1.7 | – | 3.4 | 24.1 | 12.1 | 17.2 | 20.7 | 10.3 | 6.9 | ( 58) | 6.62 | 2.06 |
| 무응답 | – | – | – | – | 25.0 | 25.0 | – | – | 25.0 | – | 25.0 | ( 4) | 6.75 | 2.75 |
| F | | | | | | | | | | | | | 10.091*** | |
| **조사구분** | | | | | | | | |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2 | 0.2 | 2.5 | 4.8 | 6.8 | 24.0 | 18.8 | 24.7 | 15.5 | 2.2 | 0.1 | (850) | 5.98 | 1.61 |
| *t* | | | | | | | | | | | | | -1.293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p < .05$, *** $p < .001$.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가 일반 수급가구보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가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눈에 띄는 점은 매우 만족한다(10점)에 대해 수급 및 한부모가구에서는 탈북, 일반 가구 불문하고 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Ⅲ-9-32〉 수급여부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수급** | 1.0 | 3.0 | 6.4 | 11.8 | 21.2 | 25.6 | 11.8 | 11.8 | 5.9 | 1.48 | - | (203) | 4.78 | 1.82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5.5 | 4.1 | 2.7 | 20.5 | 28.8 | 15.1 | 11.0 | 6.8 | 4.11 | - | ( 73) | 5.07 | 1.95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8 | 1.5 | 7.7 | 16.9 | 21.5 | 23.8 | 10.0 | 12.3 | 5.4 | - | - | (130) | 4.62 | 1.73 |
| *t* | | | | | | | | | | | | | 1.682 | |
| **비수급** | 0.3 | 0.1 | 1.5 | 2.6 | 4.0 | 25.1 | 19.2 | 25.9 | 17.3 | 3.01 | 1.0 | (798) | 6.24 | 1.53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1.3 | 1.3 | 2.6 | 2.6 | 34.6 | 7.7 | 16.7 | 16.7 | 6.41 | 9.0 | ( 78) | 6.38 | 2.10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1 | - | 1.5 | 2.6 | 4.2 | 24.0 | 20.4 | 26.9 | 17.4 | 2.64 | 0.1 | (720) | 6.23 | 1.45 |
| *t* | | | | | | | | | | | | | 0.637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가구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한부모가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양부모가구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33〉 가구유형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점

| 구분 | 전혀 ——— 매우 | | | | | | | | | | | 사례수 | 평균 | 표준편차 |
|---|---|---|---|---|---|---|---|---|---|---|---|---|---|---|
|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한부모가구** | 1.0 | 3.5 | 4.5 | 11.1 | 13.6 | 30.3 | 14.1 | 13.1 | 8.6 | - | - | (198) | 4.97 | 1.81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4 | 7.0 | 2.8 | 2.8 | 22.5 | 29.6 | 14.1 | 11.3 | 8.5 | - | - | ( 71) | 4.90 | 1.86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8 | 1.6 | 5.5 | 15.7 | 8.7 | 30.7 | 14.2 | 14.2 | 8.7 | - | - | (127) | 5.02 | 1.78 |
| *t* | | | | | | | | | | | | | -0.426 | |
| **양부모가구** | 0.2 | - | 2.0 | 2.9 | 6.0 | 23.9 | 18.6 | 25.5 | 16.6 | 3.36 | 1.0 | (803) | 6.19 | 1.58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3 | - | 2.5 | 2.5 | 1.3 | 33.8 | 8.8 | 16.3 | 15.0 | 10.00 | 8.8 | ( 80) | 6.50 | 2.08 |
| 아동종합실태조사 | 0.1 | - | 1.9 | 2.9 | 6.5 | 22.8 | 19.6 | 26.6 | 16.7 | 2.63 | 0.1 | (723) | 6.15 | 1.51 |
| *t* | | | | | | | | | | | | | 1.448 | |

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점'~'매우 만족한다 10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 10. 기타: 정책 인지도 및 가구소득 등

### 가. 아동정책 인지도 등

영유아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해당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여부, 이용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건강 관련 정책 중에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는 91% 이상이 알고 있고 96%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아동 충치예방서비스'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에 대해서는 50% 미만이 알고 있어 인지도가 낮았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대해 모두 80% 가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 이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약 50% 정도로 적었다.

생활지원 정책 중에서는 전체 아동 대상인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98.7%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은 75.5%, 저소득층 관련 자녀세액공제와 저소득층 급식지원, 장애아동 수당에 대해서는 5~60%만이 알고 있었다.

보육·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보편지원인 '보육료 및 우치원비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약 90% 정도가 알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약 57~67%만이 알고 있었다. 저소득층 통합지원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약 50%만이 알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아동정책을 이용한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장애아동 수당'(78.6%)을 제외하고 모두 약 90% 이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약 76%~97%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한 비율은 '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50%내외로 저조했다.

**〈표 Ⅲ-10-1〉 주양육자의 아동정책 인지도,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단위: %, (명)

| 정책 | | 알고 있다 | 이용하고 있다 | | 만족한다 | |
|---|---|---|---|---|---|---|
| | |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 건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91.4 | 97.1 | (138) | 97.8 | (134) |
|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96.0 | 95.9 | (145) | 98.6 | (139) |
| | 아동 충치예방서비스(실란트, 스케일링 비용지원) | 47.0 | 62.0 | ( 71) | 95.5 | ( 44) |
|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 49.0 | 21.6 | ( 74) | 93.8 | ( 16) |
| 안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78.8 | 47.1 | (119) | 94.6 | ( 56) |
| | 안전사고 예방교육 | 80.8 | 51.6 | (122) | 95.2 | ( 63) |
| 생활 지원 | 아동수당 | 98.7 | 98.0 | (149) | 89.7 | (146) |
| | 자녀세액공제 | 53.0 | 50.0 | ( 80) | 92.5 | ( 40) |
| | 저소득층 급식지원 | 59.6 | 26.7 | ( 90) | 95.8 | ( 24) |
|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아동양육비/교육비, 조손가정 포함) | 75.5 | 43.0 | (114) | 91.8 | ( 49) |
| | 장애아동 수당 | 52.3 | 17.7 | ( 79) | 78.6 | ( 14) |

| 정책 | | 알고 있다 | 이용하고 있다 | | 만족한다 | |
|---|---|---|---|---|---|---|
| | | | 비율 | (사례수) | 비율 | (사례수) |
| 보육·교육 지원 |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 | 88.1 | 85.0 | (133) | 97.3 | (113) |
| | 가정양육수당 | 92.1 | 69.8 | (139) | 92.8 | ( 97)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66.9 | 47.5 | (101) | 97.9 | ( 48) |
| |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57.0 | 30.2 | ( 86) | 92.3 | ( 26) |
| 통합지원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 49.7 | 34.7 | (75) | 100.0 | ( 26) |
| 북한이탈 주민지원 | 정착도우미 | 86.8 | 26.0 | (131) | 94.1 | ( 34) |
| | 전문상담사 | 75.5 | 24.6 | (114) | 92.9 | ( 28) |
| | 하나센터 | 96.7 | 58.2 | (146) | 97.6 | ( 85) |
| | 보호담당관(거주지, 신변, 취업 보호담당자) | 94.7 | 74.1 | (143) | 93.4 | (106) |
| | 맞춤형 직업훈련 등 취업 프로그램 | 84.1 | 37.8 | (127) | 87.5 | ( 48) |

주: 1) 이용비율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비율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일반가정과의 정책인지도를 비교한 결과, '충치예방서비스', '자녀세액공제', '장애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가정 부모가 더 잘 알고 있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가정 부모가 더 잘 알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가구특성별 인지도와 이용률을 비교해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에 대해서는 유아가구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전문상담사'와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부모보다 양부모가구가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정착도우미'와 '전문상담사' 이용률은 남한 거주기간 5년 이하인 경우가 더 높았고, '보호담당관'은 수급가구가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인지도는 약 84%로 높게 나왔으나, 이용률은 37.8%에 그쳤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 수급가구의 이용율이 각각 49.1%, 43,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나, 취업프로그램이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10-2〉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단위: %

| 구분 | | 국가예방접종지원 | | | | | | 영유아 건강검진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91.4 | - | 97.1 | - | 97.8 | - | 96.0 | - | 95.9 | - | 98.6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2.5 | .266(1) | 95.9 | N/A | 95.8 | N/A | 97.5 | N/A | 94.9 | N/A | 98.6 | N/A |
| | 한부모 | 90.1 | | 98.4 | | 100.0 | | 94.4 | | 97.0 | | 98.5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93.1 | 1.092(1) | 96.8 | N/A | 97.8 | N/A | 96.0 | N/A | 95.9 | N/A | 98.9 | N/A |
| | 비수도권 | 88.0 | | 97.7 | | 97.7 | | 96.0 | | 95.8 | | 97.8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83.8 | N/A | 98.2 | N/A | 96.4 | N/A | 95.6 | N/A | 95.4 | N/A | 96.8 | N/A |
| | 유아 | 97.6 | | 96.3 | | 98.7 | | 96.4 | | 96.3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 | 5년 이하 | 84.6 | N/A | 95.5 | N/A | 100.0 | N/A | 96.2 | N/A | 96.0 | N/A | 100.0 | N/A |
| | 5년 초과 | 92.8 | | 97.4 | | 97.3 | | 96.0 | | 95.8 | | 98.3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89.7 | .556(1) | 95.7 | N/A | 95.5 | N/A | 97.4 | N/A | 93.4 | N/A | 97.2 | N/A |
| | 수급 | 93.2 | | 98.5 | | 100.0 | | 94.5 | | 98.6 | | 100.0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88.8 | N/A | 98.7 | N/A | 96.2 | N/A | 93.3 | N/A | 95.2 | N/A | 97.5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94.8 | | 94.5 | | 100.0 | | 100.0 | | 96.6 | | 100.0 | |
| | 무응답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100.0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94.7 | 2.582(1) | 84.6 | N/A | 99.0 | N/A | 93.8 | 1.183(1) | 74.4 | 32.717(2)*** | 95.6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01$.

**〈표 Ⅲ-10-3〉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충치예방서비스 | | | | |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47.0 | - | 62.0 | - | 95.5 | - | 49.0 | - | 21.6 | - | 93.8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2.5 | 2.051(1) | 61.9 | N/A | 96.2 | N/A | 55.0 | 2.446(1) | 20.5 | .331(2) | 100.0 | N/A |
| | 한부모 | 40.8 | | 62.1 | | 94.4 | | 42.3 | | 23.3 | | 85.7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42.6 | 2.420(1) | 53.5 | N/A | 95.7 | N/A | 43.6 | 3.615(1) | 20.5 | 1.357(2) | 100.0 | N/A |
| | 비수도권 | 56.0 | | 75.0 | | 95.2 | | 60.0 | | 23.3 | | 85.7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47.1 | .000(1) | 46.9 | N/A | 93.3 | N/A | 45.6 | .578(1) | 19.4 | .176(2) | 100.0 | N/A |
| | 유아 | 47.0 | | 74.4 | | 96.6 | | 51.8 | | 23.3 | | 90.0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46.2 | .009(1) | 50.0 | N/A | 100.0 | N/A | 46.2 | .102(1) | 25.0 | N/A | 100.0 | N/A |
| | 5년 초과 | 47.2 | | 64.4 | | 94.7 | | 49.6 | | 21.0 | | 92.3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55.1 | 4.258(1)* | 67.4 | N/A | 96.6 | N/A | 53.8 | 1.512(1) | 23.8 | 1.669(2) | 100.0 | N/A |
| | 수급 | 38.4 | | 53.6 | | 93.3 | | 43.8 | | 18.8 | | 83.3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43.8 | N/A | 64.1 | N/A | 92.0 | N/A | 46.1 | N/A | 26.8 | N/A | 90.9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51.7 | | 60.0 | | 100.0 | | 55.2 | | 15.6 | | 100.0 | |
| | 무응답 | 50.0 | | 50.0 | | 100.0 | | 25.0 | | - | | -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58.0 | 6.285(1)* | 19.3 | 60.984(2)*** | 90.5 | N/A | 40.6 | 3.734(1) | 4.1 | 28.294(2)*** | 57.1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01$.

〈표 Ⅲ-10-4〉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 | | | | 안전사고 예방교육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78.8 | - | 47.1 | - | 94.6 | - | 80.8 | - | 51.6 | - | 95.2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80.0 | .145(1) | 46.9 | .390(2) | 90.0 | N/A | 85.0 | 1.939(1) | 50.0 | N/A | 91.2 | N/A |
| | 한부모 | 77.5 | | 47.3 | | 100.0 | | 76.1 | | 53.7 | | 100.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77.2 | .456(1) | 44.9 | .560(2) | 97.1 | N/A | 78.2 | 1.305(1) | 50.6 | .412(2) | 95.0 | N/A |
| | 비수도권 | 82.0 | | 51.2 | | 90.5 | | 86.0 | | 53.5 | | 95.7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73.5 | 2.064(1) | 42.0 | .888(2) | 90.5 | N/A | 76.5 | 1.491(1) | 48.1 | 1.521(2) | 88.0 | N/A |
| | 유아 | 83.1 | | 50.7 | | 97.1 | | 84.3 | | 54.3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 | 5년 이하 | 73.1 | .618(1) | 42.1 | .228(2) | 100.0 | N/A | 69.2 | 2.707(1) | 50.0 | .722(2) | 100.0 | N/A |
| | 5년 초과 | 80.0 | | 48.0 | | 93.8 | | 83.2 | | 51.9 | | 94.4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75.6 | .969(1) | 54.2 | 3.149(2) | 90.6 | N/A | 80.8 | .000(1) | 57.1 | 2.618(2) | 91.7 | N/A |
| | 수급 | 82.2 | | 40.0 | | 100.0 | | 80.8 | | 45.8 | | 100.0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78.7 | N/A | 48.6 | N/A | 97.1 | N/A | 80.9 | N/A | 52.8 | N/A | 94.7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77.6 | | 44.4 | | 90.0 | | 81.0 | | 48.9 | | 95.7 | |
| | 무응답 | 100.0 | | 50.0 | | 100.0 | | 75.0 | | 66.7 | | 100.0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60.6 | 18.330(1)*** | 14.6 | 62.954(2)*** | 86.7 | N/A | 60.4 | 23.100(1)*** | 16.2 | 70.044(2)*** | 81.9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01$.

**〈표 Ⅲ-10-5〉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아동수당 | | | | | | 자녀 세액공제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98.7 | - | 98.0 | - | 89.7 | - | 53.0 | - | 50.0 | - | 92.5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8.8 | N/A | 97.5 | N/A | 87.0 | 1.301(1) | 63.8 | 7.922(1)** | 58.8 | 4.409(2) | 90.0 | N/A |
| | 한부모 | 98.6 | | 98.6 | | 92.8 | | 40.8 | | 34.5 | | 100.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100.0 | N/A | 100.0 | N/A | 88.1 | N/A | 46.5 | 5.087(1)* | 55.3 | 5.274(2) | 92.3 | N/A |
| | 비수도권 | 96.0 | | 93.8 | | 93.3 | | 66.0 | | 42.4 | | 92.9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98.5 | N/A | 98.5 | N/A | 83.3 | N/A | 51.5 | .113(1) | 54.3 | 1.456(2) | 84.2 | N/A |
| | 유아 | 98.8 | | 97.6 | | 95.0 | | 54.2 | | 46.7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 | 5년 이하 | 96.2 | N/A | 96.0 | N/A | 95.8 | N/A | 30.8 | 6.220(1)* | 37.5 | N/A | 100.0 | N/A |
| | 5년 초과 | 99.2 | | 98.4 | | 88.5 | | 57.6 | | 51.4 | | 91.9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98.7 | N/A | 96.1 | N/A | 89.2 | .047(1) | 66.7 | 12.132(1)*** | 59.6 | 5.826(2) | 90.3 | N/A |
| | 수급 | 98.6 | | 100.0 | | 90.3 | | 38.4 | | 32.1 | | 100.0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97.8 | N/A | 98.9 | N/A | 88.4 | N/A | 42.7 | N/A | 39.5 | 3.261(2) | 93.3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100.0 | | 96.6 | | 91.1 | | 72.4 | | 59.5 | | 92.0 | |
| | 무응답 | 100.0 | | 100.0 | | 100.0 | | - | | - | | -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93.2 | N/A | 78.4 | N/A | 93.1 | N/A | 68.1 | 13.063(1)*** | 48.2 | 4.550(2) | 93.9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10-6〉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저소득층 급식지원 | | | | |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59.6 | - | 26.7 | - | 95.8 | - | 75.5 | - | 43.0 | - | 91.8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1.3 | .192(1) | 16.3 | 10.327(2)** | 100.0 | N/A | 75.0 | .023(1) | 16.7 | 43.288(2)*** | 100.0 | N/A |
| | 한부모 | 57.7 | | 39.0 | | 93.8 | | 76.1 | | 72.2 | | 89.7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55.4 | 2.189(1) | 28.6 | 1.102(2) | 93.8 | N/A | 75.2 | .010(1) | 43.4 | 1.151(2) | 90.9 | N/A |
| | 비수도권 | 68.0 | | 23.5 | | 100.0 | | 76.0 | | 42.1 | | 93.8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55.9 | .711(1) | 18.4 | 3.770(2) | 100.0 | N/A | 70.6 | 1.611(1) | 35.4 | 1.937(2) | 94.1 | N/A |
| | 유아 | 62.7 | | 32.7 | | 94.1 | | 79.5 | | 48.5 | | 90.6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42.3 | 3.902(1)* | 27.3 | N/A | 100.0 | N/A | 73.1 | .099(1) | 63.2 | N/A | 91.7 | N/A |
| | 5년 초과 | 63.2 | | 26.6 | | 95.2 | | 76.0 | | 38.9 | | 91.9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60.3 | .029(1) | 19.1 | 6.454(2)* | 100.0 | N/A | 74.4 | .113(1) | 20.7 | 30.595(2)*** | 100.0 | N/A |
| | 수급 | 58.9 | | 34.9 | | 93.3 | | 76.7 | | 66.1 | | 89.2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60.7 | N/A | 35.2 | N/A | 94.7 | N/A | 75.3 | N/A | 58.2 | N/A | 92.3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60.3 | | 14.3 | | 100.0 | | 74.1 | | 18.6 | | 87.5 | |
| | 무응답 | 25.0 | | - | | - | | 100.0 | | 50.0 | | 100.0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65.2 | 1.736(1) | 7.6 | 34.187(2)*** | 81.0 | N/A | 64.0 | 7.524(1)** | 12.7 | 67.147(2)*** | 87.0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10-7〉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장애아동 수당 | | | | | | 보육료, 유치원비 지원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52.3 | - | 17.7 | - | 78.6 | - | 88.1 | - | 85.0 | - | 97.3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55.0 | .575(2) | 15.9 | .969(2) | 85.7 | N/A | 92.5 | 3.167(1) | 85.1 | N/A | 96.8 | N/A |
| | 한부모 | 49.3 | | 20.0 | | 71.4 | | 83.1 | | 84.7 | | 98.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46.5 | 9.436(2)** | 14.9 | 2.426(2) | 85.7 | N/A | 86.1 | N/A | 83.9 | N/A | 97.3 | N/A |
| | 비수도권 | 64.0 | | 21.9 | | 71.4 | | 92.0 | | 87.0 | | 97.5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47.1 | 11.663(2)** | 15.6 | 2.162(2) | 100.0 | N/A | 82.4 | 3.864(1)* | 75.0 | 9.189(2)* | 92.9 | N/A |
| | 유아 | 56.6 | | 19.1 | | 66.7 | | 92.8 | | 92.2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38.5 | 10.360(2)** | 20.0 | N/A | 100.0 | N/A | 76.9 | 3.723(1) | 70.0 | N/A | 100.0 | N/A |
| | 5년 초과 | 55.2 | | 17.4 | | 75.0 | | 90.4 | | 87.6 | | 97.0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57.7 | 3.054(2) | 20.0 | 1.774(2) | 88.9 | N/A | 91.0 | 1.334(1) | 87.3 | N/A | 96.8 | N/A |
| | 수급 | 46.6 | | 14.7 | | 60.0 | | 84.9 | | 82.3 | | 98.0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51.7 | N/A | 17.4 | N/A | 87.5 | N/A | 85.4 | N/A | 81.6 | N/A | 96.8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53.4 | | 19.4 | | 66.7 | | 91.4 | | 88.7 | | 97.9 | |
| | 무응답 | 50.0 | | - | | - | | 100.0 | | 100.0 | | 100.0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60.7 | 86.033(2)*** | 4.1 | 40.382(2)*** | 66.7 | N/A | 83.1 | 2.383(1) | 60.9 | 30.693(2)*** | 93.7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Ⅲ-10-8〉 가구특성별 아동정책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가정양육수당 | | | | |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24]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92.1 | - | 69.8 | - | 92.8 | - | 66.9 | - | 47.5 | - | 97.9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3.8 | .670(1) | 68.0 | 3.696(2) | 92.2 | N/A | 63.8 | .756(1) | 45.1 | .550(2) | 100.0 | N/A |
| | 한부모 | 90.1 | | 71.9 | | 93.5 | | 70.4 | | 50.0 | | 96.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93.1 | .431(1) | 75.5 | 4.658(2) | 91.5 | N/A | 67.3 | .027(1) | 44.1 | 1.183(2) | 96.7 | N/A |
| | 비수도권 | 90.0 | | 57.8 | | 96.2 | | 66.0 | | 54.5 | | 100.0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89.7 | .932(1) | 75.4 | 4.049(2) | 89.1 | N/A | 55.9 | 6.765(1)** | 28.9 | 10.885(2)** | 90.9 | N/A |
| | 유아 | 94.0 | | 65.4 | | 96.1 | | 75.9 | | 58.7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 | 5년 이하 | 80.8 | 5.466(1)* | 81.0 | N/A | 94.1 | N/A | 53.8 | 2.412(1) | 42.9 | 8.019(2)* | 83.3 | N/A |
| | 5년 초과 | 94.4 | | 67.8 | | 92.5 | | 69.6 | | 48.3 | | 100.0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92.3 | .014(1) | 69.4 | 6.111(2)* | 94.0 | N/A | 64.1 | .565(1) | 44.0 | .500(2) | 100.0 | N/A |
| | 수급 | 91.8 | | 70.1 | | 91.5 | | 69.9 | | 51.0 | | 96.2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93.3 | N/A | 71.1 | N/A | 93.2 | N/A | 62.9 | N/A | 53.6 | N/A | 96.7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91.4 | | 67.9 | | 91.7 | | 72.4 | | 38.1 | | 100.0 | |
| | 무응답 | 75.0 | | 66.7 | | 100.0 | | 75.0 | | 66.7 | | 100.0 |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1$.

24) 북한이탈주민 가정 초등학생 자녀 대상 정책임.

**〈표 Ⅲ-10-9〉 가구특성별 아동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아이돌봄서비스 | | | | | |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57.0 | - | 30.2 | - | 92.3 | - | 49.7 | - | 34.7 | - | 100.0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62.5 | 2.135(1) | 26.0 | 2.655(2) | 100.0 | N/A | 43.8 | 2.384(1) | 25.7 | 3.151(2) | 100.0 | - |
| | 한부모 | 50.7 | | 36.1 | | 84.6 | | 56.3 | | 42.5 | | 100.0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54.5 | .776(1) | 27.3 | 6.361(2)* | 86.7 | N/A | 48.5 | .162(1) | 36.7 | 1.233(2) | 100.0 | - |
| | 비수도권 | 62.0 | | 35.5 | | 100.0 | | 52.0 | | 30.8 | | 100.0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47.1 | 4.940(1)* | 25.0 | .678(2) | 100.0 | N/A | 38.2 | 6.469(1)* | 23.1 | 2.365(2) | 100.0 | - |
| | 유아 | 65.1 | | 33.3 | | 88.9 | | 59.0 | | 40.8 | | 100.0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57.7 | .007(1) | 26.7 | N/A | 75.0 | N/A | 50.0 | .001(1) | 30.8 | N/A | 100.0 | - |
| | 5년 초과 | 56.8 | | 31.0 | | 95.5 | | 49.6 | | 35.5 | | 100.0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60.3 | .718(1) | 29.8 | .296(2) | 100.0 | N/A | 43.6 | 2.385(1) | 32.4 | .325(2) | 100.0 | - |
| | 수급 | 53.4 | | 30.8 | | 83.3 | | 56.2 | | 36.6 | | 100.0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49.4 | N/A | 31.8 | N/A | 92.9 | N/A | 52.8 | N/A | 42.6 | N/A | 100.0 | - |
| | 중위소득 50% 이상 | 70.7 | | 29.3 | | 91.7 | | 46.6 | | 22.2 | | 100.0 | |
| | 무응답 | 25.0 | | - | | - | | 25.0 | | - | | - | |
| 조사구분 | 아동종합실태조사 | 73.1 | 16.032(1)*** | 7.6 | 41.915(2)*** | 74.5 | N/A | 20.2 | 59.765(1)*** | 5.2 | 37.308(2)*** | 77.8 | N/A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p < .001$.

〈표 Ⅲ-10-10〉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정착도우미 | | | | | | 전문상담사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86.8 | - | 26.0 | - | 94.1 | - | 75.5 | - | 24.6 | - | 92.9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87.5 | .082(1) | 21.4 | 1.901(2) | 100.0 | N/A | 83.8 | 6.265(1)* | 19.4 | 2.622(2) | 92.3 | N/A |
| | 한부모 | 85.9 | | 31.1 | | 89.5 | | 66.2 | | 31.9 | | 93.3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87.1 | .037(1) | 27.3 | .789(2) | 91.7 | N/A | 73.3 | .819(1) | 27.0 | 1.061(2) | 90.0 | N/A |
| | 비수도권 | 86.0 | | 23.3 | | 100.0 | | 80.0 | | 20.0 | | 100.0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86.8 | .000(1) | 22.0 | 1.018(2) | 92.3 | N/A | 75.0 | .016(1) | 21.6 | .507(2) | 90.9 | N/A |
| | 유아 | 86.7 | | 29.2 | | 95.2 | | 75.9 | | 27.0 | | 94.1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84.6 | N/A | 50.0 | 7.965(2)* | 90.9 | N/A | 73.1 | .099(1) | 47.4 | 6.810(2)* | 100.0 | N/A |
| | 5년 초과 | 87.2 | | 21.1 | | 95.7 | | 76.0 | | 20.0 | | 89.5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85.9 | .103(1) | 22.4 | 2.363(2) | 100.0 | N/A | 82.1 | 3.747(1) | 23.4 | 2.693(2) | 93.3 | N/A |
| | 수급 | 87.7 | | 29.7 | | 89.5 | | 68.5 | | 26.0 | | 92.3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87.6 | N/A | 26.9 | N/A | 90.5 | N/A | 69.7 | N/A | 25.8 | N/A | 93.8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86.2 | | 24.0 | | 100.0 | | 84.5 | | 22.4 | | 90.9 | |
| | 무응답 | 75.0 | | 33.3 | | 100.0 | | 75.0 | | 33.3 | | 100.0 |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표 Ⅲ-10-11〉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_계속**

단위: %

| 구분 | | 하나센터 | | | | | | 보호담당관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96.7 | - | 58.2 | - | 97.6 | - | 94.7 | - | 74.1 | - | 93.4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3.8 | N/A | 52.0 | 2.494(2) | 97.4 | N/A | 96.3 | N/A | 71.4 | N/A | 96.4 | N/A |
| | 한부모 | 100.0 | | 64.8 | | 97.8 | | 93.0 | | 77.3 | | 90.2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95.0 | N/A | 58.3 | 1.011(2) | 96.4 | N/A | 94.1 | N/A | 75.8 | N/A | 90.3 | N/A |
| | 비수도권 | 100.0 | | 58.0 | | 100.0 | | 96.0 | | 70.8 | | 100.0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94.1 | N/A | 50.0 | 3.718(2) | 93.8 | N/A | 94.1 | N/A | 73.4 | .323(2) | 87.2 | N/A |
| | 유아 | 98.8 | | 64.6 | | 100.0 | | 95.2 | | 74.7 | | 98.3 | |
| 남한 거주기간(母) | 5년 이하 | 96.2 | N/A | 76.0 | N/A | 94.7 | N/A | 88.5 | N/A | 82.6 | N/A | 84.2 | N/A |
| | 5년 초과 | 96.8 | | 54.5 | | 98.5 | | 96.0 | | 72.5 | | 95.4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93.6 | N/A | 50.7 | 4.097(2) | 97.3 | N/A | 96.2 | N/A | 65.3 | 6.605(2)* | 95.9 | N/A |
| | 수급 | 100.0 | | 65.8 | | 97.9 | | 93.2 | | 83.8 | | 91.2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97.8 | N/A | 62.1 | N/A | 98.1 | N/A | 92.1 | N/A | 80.5 | N/A | 92.4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94.8 | | 52.7 | | 96.6 | | 98.3 | | 66.7 | | 94.7 | |
| | 무응답 | 100.0 | | 50.0 | | 100.0 | | 100.0 | | 50.0 | | 100.0 |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표 Ⅲ-10-12〉 가구특성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이용여부 및 만족여부**

단위: %

| 구분 | | 취업프로그램 | | | | | |
|---|---|---|---|---|---|---|---|
| | | 인지율 | $x^2(df)$ | 이용률 | $x^2(df)$ | 만족률 | $x^2(df)$ |
| 전체 | | 84.1 | - | 37.8 | - | 87.5 | - |
| 가구 유형 | 양부모 | 90.0 | 4.422(1)* | 29.2 | 5.422(2) | 90.5 | N/A |
| | 한부모 | 77.5 | | 49.1 | | 85.2 | |
| 거주 지역 | 수도권 | 83.2 | .201(1) | 35.7 | 2.323(2) | 83.3 | N/A |
| | 비수도권 | 86.0 | | 41.9 | | 94.4 | |
| 영유아 연령 | 영아 | 79.4 | 2.039(1) | 31.5 | 1.913(2) | 88.2 | N/A |
| | 유아 | 88.0 | | 42.5 | | 87.1 | |
| 남한 거주기간 | 5년 이하 | 73.1 | 2.858(1) | 52.6 | 2.417(2) | 90.0 | N/A |
| | 5년 초과 | 86.4 | | 35.2 | | 86.8 | |
| 수급 여부 | 비수급 | 85.9 | .387(1) | 32.8 | 3.475(2) | 90.9 | N/A |
| | 수급 | 82.2 | | 43.3 | | 84.6 |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 | 80.9 | N/A | 38.9 | N/A | 82.1 | N/A |
| | 중위소득 50% 이상 | 89.7 | | 36.5 | | 94.7 | |
| | 무응답 | 75.0 | | 33.3 | | 100.0 | |

주: 1) 이용률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이용자의 비율임.
2) 만족률은 해당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본 표에 제시된 사례수 참조) 중 만족자의 비율임.
* $p < .05$.

## 나. 소득 및 지출

### 1) 소득 코로나19 이전·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소득을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코로나19 이후(2020년)로 구분해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평균 221.7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의 243.3만원보다 약 216,000원 정도(약 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대상의 소득과 비교해보면 아동종합실태조사 일반가정의 소득이 2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가정이 222만원,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한부모가구의 소득이 186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표 Ⅲ-10-13〉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월평균 소득: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단위: 천원, (명)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코로나19 이전(2019) | 10.0 | 1500.0 | 243.3[a] | 197.3 | (147) |
| 코로나19 이후(2020) | 10.0 | 1500.0 | 221.7 | 183.0 | (147) |
| *t* | | | 2.884** | | |
| **조사구분** | | | | | |
| 아동종합실태조사(2018) | 20.0 | 1500.0 | 283.3[b] | 138.5 | (849)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7) | 40.0 | 850.0 | 186.4[c] | 132.3 | (240) |
| *F* | 42.486*** | | | | |

주: 1) 본조사에서 소득 무응답자는 제외함.
2) a, b, c집단간에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01$.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구소득을 변인별로 비교해 보면, 가구유형,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양부모 가구의 평균은 약 327만원으로 한부모 148만원보다 179만원이 많았고 남한 거주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평균이 259만원으로 5년 이하 163만원보다 96만원이 많았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소득은 2019년보다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구유형과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있었다.

**〈표 Ⅲ-10-14〉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월평균 소득: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변인별**

단위: 천원, (명)

| 구분 | 코로나19 이전 | | | | 코로나19 이후 | | | | 사례수 |
|---|---|---|---|---|---|---|---|---|---|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전체 | 10.0 | 1500.0 | 243.3 | 197.3 | 10.0 | 1500.0 | 221.7 | 183.0 | (147) |
| **가구유형** | | | | | | | | | |
| 양부모 | 50.0 | 1500.0 | 327.2 | 215.4 | 50.0 | 1500.0 | 301.5 | 213.0 | ( 78) |
| 한부모 | 10.0 | 900.0 | 148.4 | 117.8 | 10.0 | 500.0 | 131.4 | 70.3 | ( 69) |
| *t* | 6.340*** | | | | 6.652*** | | | | |
| **거주지역** | | | | | | | | | |
| 수도권 | 10.0 | 1000.0 | 230.1 | 161.8 | 10.0 | 1000.0 | 218.7 | 156.7 | ( 97) |
| 비수도권 | 30.0 | 1500.0 | 268.8 | 252.4 | 10.0 | 1500.0 | 227.4 | 227.2 | ( 50) |
| *t* | -0.984 | | | | -0.271 |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
| 5년 이하 | 10.0 | 400.0 | 162.8 | 101.0 | 10.0 | 380.0 | 141.1 | 80.0 | ( 24) |
| 5년 초과 | 30.0 | 1500.0 | 259.0 | 207.7 | 10.0 | 1500.0 | 237.4 | 193.2 | (123) |
| *t* | -2.214* | | | | -4.032*** | | | | |

| 구분 | 코로나19 이전 | | | | 코로나19 이후 | | | | 사례수 |
|---|---|---|---|---|---|---|---|---|---|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
| **수급 여부** | | | | | | | | | |
| 비수급 | 30.0 | 1500.0 | 338.2 | 226.7 | 305.7 | 1500.0 | 305.7 | 216.5 | (76) |
| 수급 | 10.0 | 400.0 | 141.7 | 76.9 | 131.7 | 400.0 | 131.7 | 61.4 | (71) |
| *t* | 7.132*** | | | | 6.727*** | | | | |
| **가구소득** | | | |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10.0 | 400.0 | 152.8 | 87.2 | 10.0 | 240.0 | 124.3 | 46.2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118.0 | 1500.0 | 382.2 | 235.8 | 190.0 | 1500.0 | 371.0 | 212.1 | (58) |
| 무응답 | - | - | - | - | | - | - | - | ( 4) |
| *t* | -7.100*** | | | | -8.726*** | | | | |

주: 본조사에서 소득 무응답자는 제외함.
* $p < .05$, *** $p < .001$.

### 2) 교육·보육비 지출

북한이탈주민가정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학습지 비용, 학원비 등 교육·보육비는 월평균 약 26만원이었고 이는 가구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편적 무상 교육·보육정책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통계적 차이는 없으나, 양부모, 수도권, 영아, 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 가구의 교육·보육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았다.

**〈표 Ⅲ-10-15〉 월 평균 교육·보육비**

단위: 만원, (명)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전체 | 0.0 | 230.0 | 26.1 | 28.9 | (147) |
| **가구유형** | | | | | |
| 양부모 | 0.0 | 230.0 | 27.2 | 35.2 | ( 78) |
| 한부모 | 0.0 | 80.0 | 24.8 | 19.9 | ( 69) |
| *t* | 0.501 | | | | |
| **거주지역** | | | | | |
| 수도권 | 0.0 | 230.0 | 28.3 | 33.0 | ( 97) |
| 비수도권 | 0.0 | 80.0 | 21.8 | 18.3 | ( 50) |
| *t* | 1.539 | | | | |
| **자녀연령** | | | | | |
| 영아 | 0.0 | 230.0 | 28.8 | 38.9 | ( 67) |
| 유아 | 0.0 | 70.0 | 23.9 | 16.4 | ( 80) |
| *t* | 0.959 | | | | |

| 구분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 | 표준편차 | 사례수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5년 이하 | 0.0 | 80.0 | 21.1 | 21.4 | ( 24) |
| 5년 초과 | 0.0 | 230.0 | 27.1 | 30.2 | (123) |
| *t* | | | -0.923 | | |
| **수급여부** | | | | | |
| 비수급 | 0.0 | 230.0 | 28.9 | 35.8 | ( 76) |
| 수급 | 0.0 | 80.0 | 22.8 | 19.0 | ( 71) |
| *t* | | | 1.253 | | |
| **가구소득** | | | | | |
| 중위소득 50% 미만 | 0.0 | 150.0 | 25.6 | 24.2 | ( 89) |
| 중위소득 50% 이상 | 0.0 | 230.0 | 26.9 | 35.2 | ( 58) |
| 무응답 | - | - | - | - | ( 4) |
| *t* | | | -0.252 | | |

## 바. 기초생활보장 종료 예상 시기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가정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년이내가 30.1%, 3~5년이내가 23.3%로 가장 많았다. 한편 17.8%는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검정은 부적절하였지만 한부모 가구, 비수도권, 영아 자녀, 5년 초과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표 Ⅲ-10-16〉 기초생활보장지원 수혜종료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 1년 이내 | 1년-3년 이내 | 3년-5년 이내 | 5년-10년 이내 | 10년 후 | 계속 지원 | 계(수) |
|---|---|---|---|---|---|---|---|
| 전체 | 12.3 | 30.1 | 23.3 | 12.3 | 4.1 | 17.8 | 100.0(73) |
| **가구유형** | | | | | | | |
| 양부모 | 15.4 | 30.8 | 23.1 | 7.7 | 7.7 | 15.4 | 100.0(13) |
| 한부모 | 11.7 | 30.0 | 23.3 | 13.3 | 3.3 | 18.3 | 100.0(60) |
| $x^2(df)$ | | | N/A | | | | |

| 구분 | 1년 이내 | 1년-3년 이내 | 3년-5년 이내 | 5년-10년 이내 | 10년 후 | 계속 지원 | 계(수) |
|---|---|---|---|---|---|---|---|
| **거주지역** | | | | | | | |
| 수도권 | 9.3 | 31.5 | 25.9 | 11.1 | 5.6 | 16.7 | 100.0(54) |
| 비수도권 | 21.1 | 26.3 | 15.8 | 15.8 | - | 21.1 | 100.0(19) |
| $x^2(df)$ | N/A | | | | | | |
| **자녀연령** | | | | | | | |
| 영아 | 10.0 | 26.7 | 23.3 | 16.7 | 3.3 | 20.0 | 100.0(30) |
| 유아 | 14.0 | 32.6 | 23.3 | 9.3 | 4.7 | 16.3 | 100.0(43) |
| $x^2(df)$ | N/A | | | | | | |
| **남한 거주기간** | | | | | | | |
| 5년 이하 | 10.0 | 35.0 | 20.0 | 15.0 | 5.0 | 15.0 | 100.0(20) |
| 5년 초과 | 13.2 | 28.3 | 24.5 | 11.3 | 3.8 | 18.9 | 100.0(53) |
| $x^2(df)$ | N/A | | | | | | |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받고 있다' 응답자만을 조사함.

한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일반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수혜 종료 예상 시기를 비교한 결과, 북한이탈주민가정 한부모가 더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수혜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응답이 탈북가정은 11.7%에 반해, 일반 한부모가정은 1.7%에 불과했다.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응답에서도 각각 18.3%, 44.8%로 두 집단의 응답 차이가 컸다.

**〈표 Ⅲ-10-17〉 가구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지원 수혜종료 예상 시기**

단위: %(명)

| 구분 | 1년 이내 | 1년-3년 이내 | 3년-5년 이내 | 5년-10년 이내 | 10년 후 | 계속 지원 | 계(수) |
|---|---|---|---|---|---|---|---|
| **한부모가구** | 5.1 | 14.8 | 12.5 | 11.4 | 20.5 | 35.8 | 100.0(176) |
| 북한이탈가정조사 | 11.7 | 30.0 | 23.3 | 13.3 | 3.3 | 18.3 | 100.0( 60) |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1.7 | 6.9 | 6.9 | 10.3 | 29.3 | 44.8 | 100.0(116) |
| $x^2(df)$ | 51.592(5)*** | | | | | | |

주: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받고 있다' 응답자만을 조사함.
*** $p < .001$.

# 11. 소결

## 가. 건강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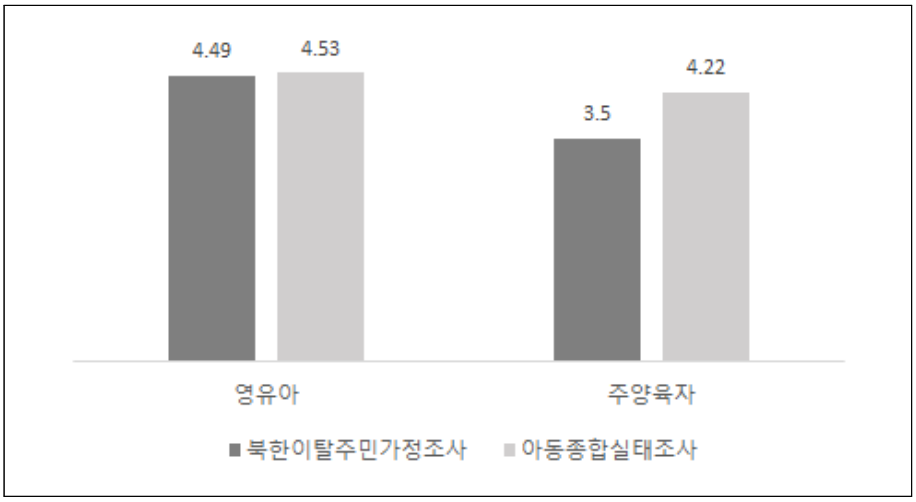
첫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자녀(4.49점)와 일반가정의 영유아 자녀(4.53점)의 건강상태는 유사한 수준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양육자의 건강상태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는 3.50점, 일반가정의 주양육자는 4.22점으로 탈북가정의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1-1 참조).

또한, 탈북가정 중에서도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등 취약가구의 자녀와 주양육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1]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가정의 영유아와 주양육자의 건강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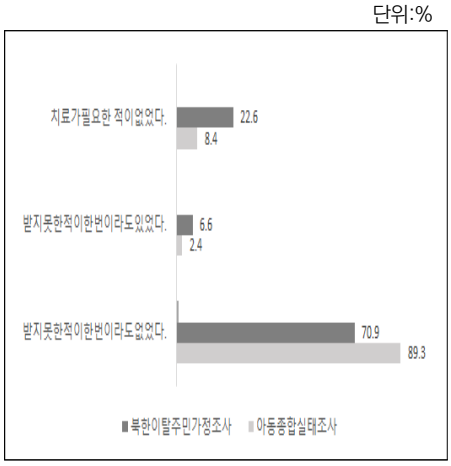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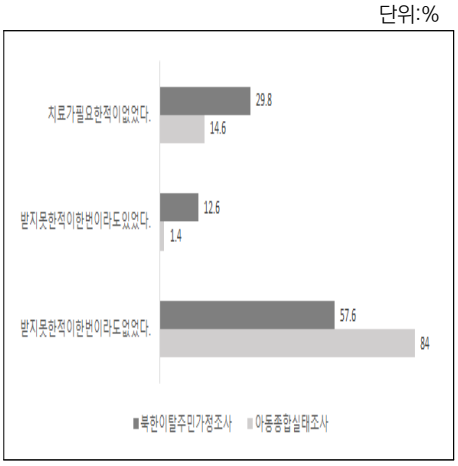

둘째, 자녀가 아플 때,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적절한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6.6%)가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2.2%)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12.6%) 일반가정에(1.4%) 비해 훨씬 더 많았다(그림 Ⅲ-11-2, Ⅲ-11-3 참조).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가구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일반 수급/비수급가구 및 수급/비수급가구와 비교해서 적절한 병의원,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치과 치료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민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치과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1순위가 비용부담이었다. 치과치료는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비용부담이 커서, 제 때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1-2] 병의원 치료 탈북가정과 일반가정비교**




**[그림 Ⅲ-11-3] 치과 치료 탈북가정과 일반가정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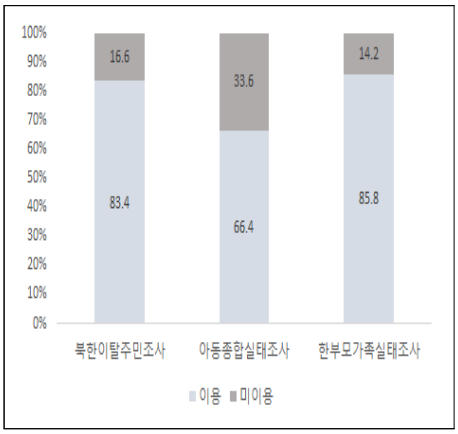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대부분(83.4%)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의 영유아의 이용율(66.4%)보다는 높고,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85.8%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다(그림 Ⅲ-11-4, Ⅲ-11-5 참조).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수급, 중위소득 50%미만)의 기관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이유를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실태조사) 각각 56.0%, 70.5%가 '다녀야 할 필요를 못 느낌'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비용부담'(17.6%)을,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 많음'(24.0%)을 두 번째 미이용 이유

로 꼽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비용부담'을 응답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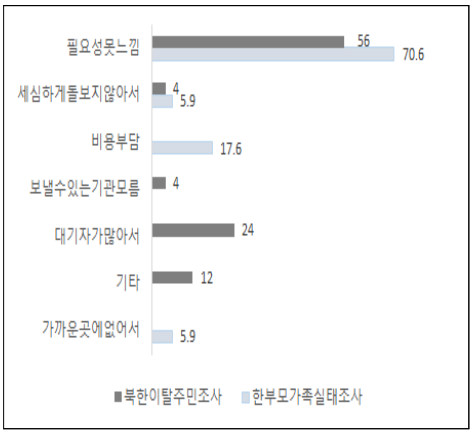
**[그림 Ⅲ-11-4] 교육·보육기관 이용/미이용 가구별 비교**

단위: %




**[그림 Ⅲ-11-5] 교육·보육기관 미이용 이유 가구별 비교**

단위: %




넷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은 일반가정의 영유아 수면시간보다 짧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비수급, 중위소득 50% 이상)의 영유아의 수면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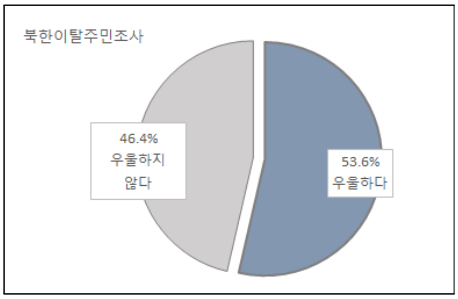
수면습관에서는 일반가정(2.6%)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하는 경우가 8.6%로 나와서 수면습관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수급가구의 영유아가 비수급가구보다 수면습관이 안 좋으며 수급 가구 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가 양부모가구보다 수면습관이 안 좋으며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가장 안 좋았다.

정리하면,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의 수면습관이 불안정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수급 및 한부모 가구의 영유아의 수면습관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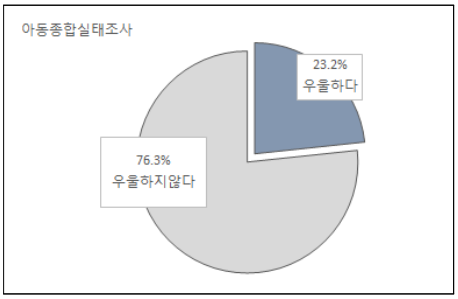
다섯째, 식사습관에서는 일반가정과 비교해서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침, 저녁을 챙겨먹는 비율이 낮았다.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끼리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식사를 챙겨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우울하다고 응답했다(그림 Ⅲ-11-6 참조). 일반가정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했다(그림 Ⅲ-11-7 참조). 우울수준을 가구특성별 차이에서도 탈북한부모가구(13.2점)가 가장 높고, 탈북 수급가구(12.8점), 탈북 비수급가구(9.4점), 탈북 양부모 가구(9.1점) 순으로 탈북가정이 앞 순위를 차지했다. 요컨대, 일반가구에서는 일반 한부모가구가 8.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탈북 양부모 가구(9.1점)보다 낮은 수치였다.

**[그림 Ⅲ-11-6] 북한이탈주민 가정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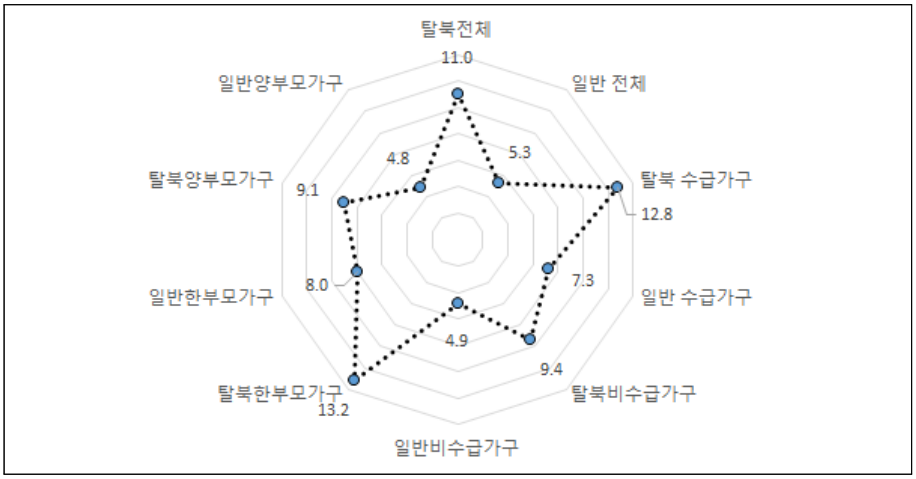



**[그림 Ⅲ-11-7] 일반가정 주양육자의 우울여부**




**[그림 Ⅲ-11-8]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주양자의 우울수준 비교**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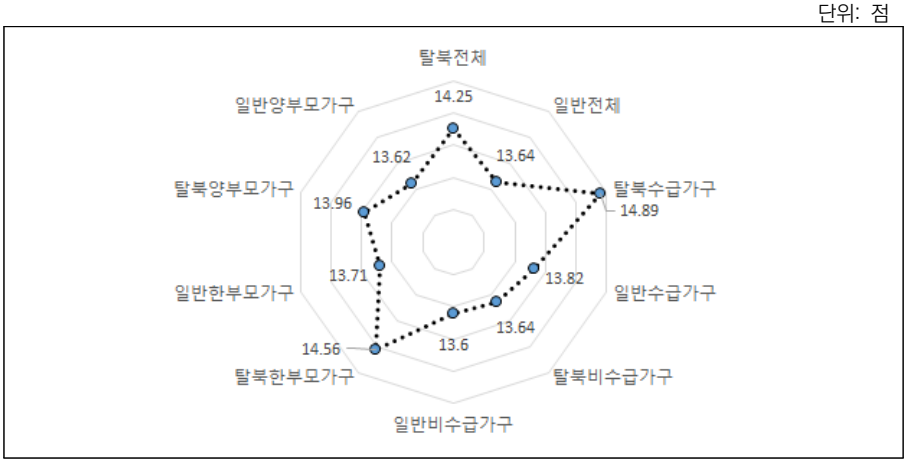
## 나. 발달 및 교육

첫째, 인지 및 언어발달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보다 점수가 높게 나왔다(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의 기질은 일반가정의 영유아와 차이가 있었다.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3개 기질을 비교하면, 사회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확연한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별 모두,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들보다 사회성이 발달되었다. 활동성은 가구특성별 차이가 사회성보다는 크지 않았으나,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좀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은 탈북 수급가구와 탈북 한부모가구의 영유아들이 부정적 정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9]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정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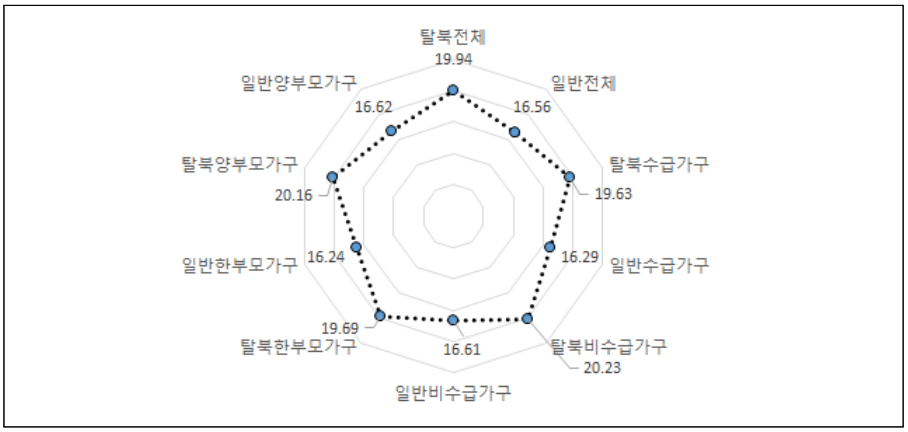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많음을 의미

**[그림 Ⅲ-11-10]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활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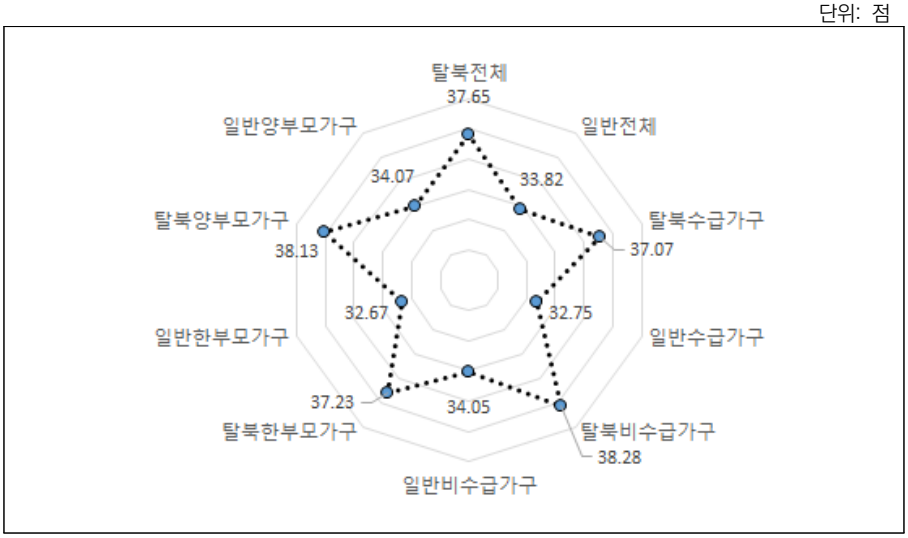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임을 의미

**[그림 Ⅲ-11-1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자녀기질 비교: 사회성**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적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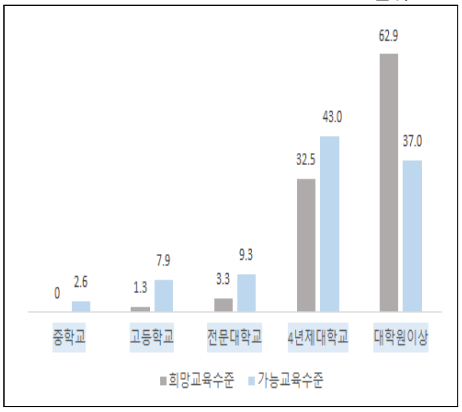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 약 63%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일반가정에서의 희망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교가 약 82%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은 약 11%, 전문대학 약 5% 순으로 나왔다. 일반 가정에서는 자녀가 대학원 이상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한편, 실제 지원 가능한 수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4년제 대학교가 43.0%, 대학원 이상 약 37%로 희망 교육수준의 순위와 바뀌었다. 반면, 일반가정은 실제 가능 교육수준도 희망 교육 수준과 동일하였고, 비율차이도 거의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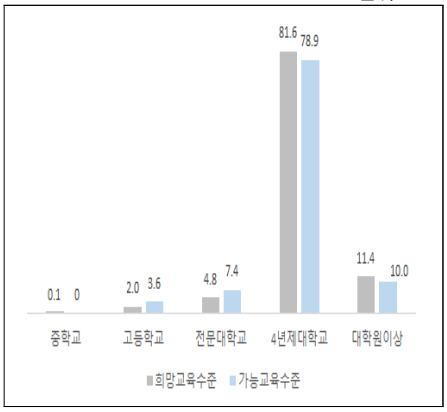
**[그림 Ⅲ-11-1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희망교육수준과 가능수준**

단위: %




**[그림 Ⅲ-11-13] 일반가정의 자녀 희망교육수준과 가능수준**

단위: %




## 다. 관계

첫째, 다른 가족 및 지인들 간의 관계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다른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정서적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다음으로 가사나 육아와 같은 생활의 도움, 생활비나 용돈과 같은 경제적 도움 순으로 받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경제적 도움과 생활의 도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장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도움을 기준으로 보면, 탈북 한부모가구(1.39점), 탈북 수급가구(1.44점), 탈북 비수급가구(1.49점), 일반 양부모가구(1.53점)순으로 앞 순위를 탈북가정이 차지하고 있다. 일반 가구 중에서 경제적 도움을 가장 받지 못하는 가구는 일반 양부모가구(1.62점)이고, 가장 도움을 받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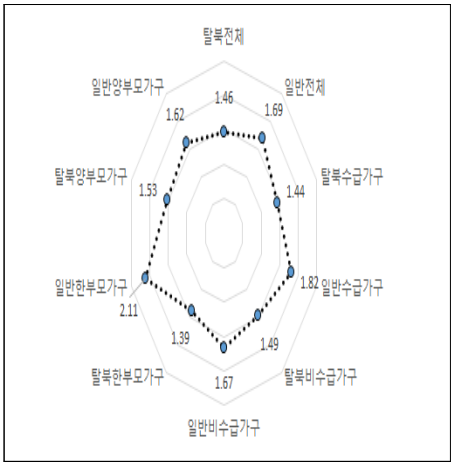
는 가구는 일반 한부모가구(2.11점)이다.

탈북 가구 중에서는 한부모 가구가, 일반 가구 중에서는 양부모 가구가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는 주양육자가 경제활동과 양육 모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양부모 가구는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양육을 분담해서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기는 무리이다. 다시 말해서 탈북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일반 양부모 가구는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탈북 한부모가구와 탈북 수급가구는 가사나 육아와 같은 생활의 도움도 가장 못 받고 있다. 반면, 일반 한부모가구와 일반 수급가구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동일한 취약가정이더라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더 취약한 현실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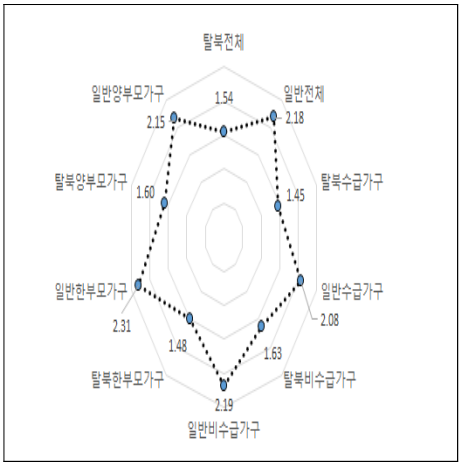
**[그림 Ⅲ-11-1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경제적 도움 비교**

단위: 점




**[그림 Ⅲ-11-15]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생활적 도움 비교**

단위: 점




주: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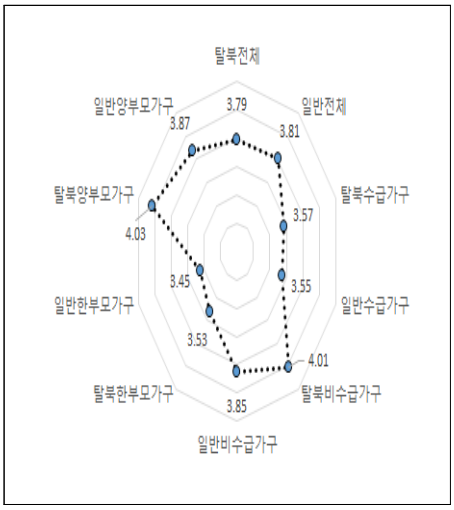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족관계(동거기준)는 대체로 건강한 것(탈북 전체 3.79점)으로 나왔다(일반가정 전체 3.81점). 부모효능감은 3.53점으로 일반가정의

3.47점보다 높았다. 가족관계와 부모효능감 모두, 한부모 가구가 가장 점수가 낮았고, 이 중에서도 일반 한부모가구가 탈북 한부모가구보다 가족관계, 부모효능감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수급가구는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 수급가구 내에서도 탈북 가구보다 일반 수급가구의 가족관계, 부모효능감 모두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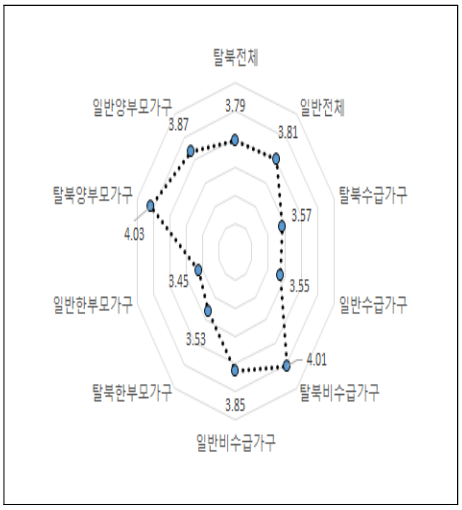
가족관계의 건강성, 부모효능감 모두 응답자가 자가 측정한 수치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우리 가족은 원만하며 부모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컨대, 본인은 건강하지 못하고 우울수준도 높지만, 가족이나 자녀에게 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Ⅲ-11-16]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가족건강성 비교**




**[그림 Ⅲ-11-17]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부모효능감 비교**




주: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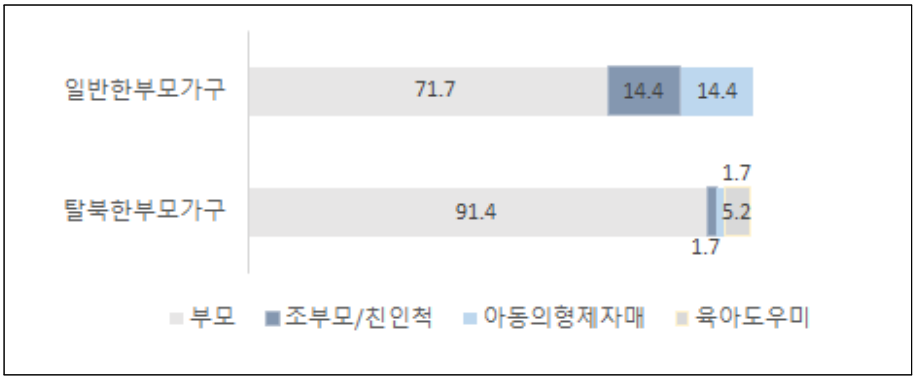
## 라. 양육 및 돌봄

첫째, 영유아 자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 대부분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정과도 동일하였다. 수급/비수급 상관없이 일반가정(아동종합실태조사)이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좀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비수급 가구는 조부모/친척의 비율이 8.8%로 상대적으로 높

게 나왔다. 이는 조부모/친척의 양육지원이 주양육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수급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가 일반 한부모가구보다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의 돌봄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곤경제적 취약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반 한부모 가구의 부모 돌봄은 상대적으로 낮고, 조부모/친척 돌봄이 14.4%로 탈북 한부모 가구의 1.7%보다 훨씬 높다. 이는 앞서 분석한 생활의 도움정도에서 일반 한부모 가구가 높았던 점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그림 Ⅲ-11-18]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의 기관 이용 후 주양육자**




둘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54점으로 일반가정의 양육스트레스 27.77점보다 낮았다.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구보다 일반 가구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그러나 양육스트레스도 자가 측정한 주관적인 수치임을 감안해서 해석해야겠다.

## 마. 여가 및 활동

첫째,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일례로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26%, 일반가정은 약 50%가 나왔다. 일반가정에서 스마트폰 등 사용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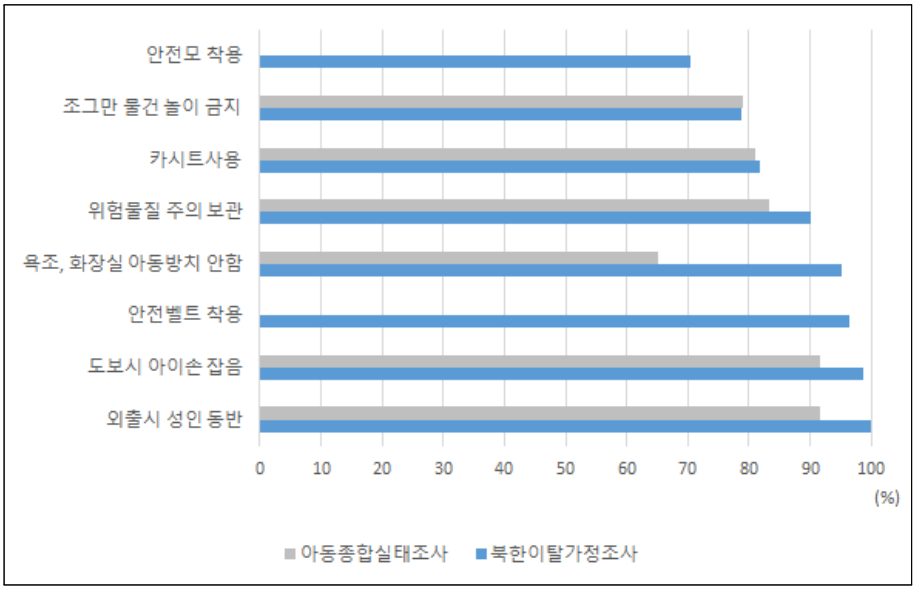
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4.0%로, 일반가정 0.4%보다 훨씬 많았다.

둘째,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도 탈북 가구의 영유아들이 일반 가구보다 TV 시청과 책읽기는 안하는 비율이 더 많았고,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안전 및 위험행동

첫째, 북한이탈가정 부모는 일반가정 부모보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그림 Ⅲ-11-19 참조).

**[그림 Ⅲ-11-19] 안전수칙 준수 비교**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비해당을 제외한 결과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둘째,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은 영유아 안전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를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북한이탈가정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유괴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반면 일반가정

은 '유괴될 수 있음',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잇감이 많이 있음'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평소 아이를 어른 없이 혼자 두는 경우도 적었다. 하지만 혼자 둘 경우 그 시간은 북한이탈가정이 더 길었다. 북한이탈가정(4.2시간)〉일반한부모가정(2.4시간)〉일반가정(1.1시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사례수(5사례)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넷째, 돌봄 공백 시 필요한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아이를 돌봐주는 어른이 없는 시간이 생길 경우, 북한이탈주민가정에서는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과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야간돌봄 편의제공'과 '식사제공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사.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첫째, 북한이탈가정은 약 76%가 아파트(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양부모가구, 비수급가구,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비율이 높았고 사용하는 방의 개수도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2개, 일반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6개이다. 북한이탈주민 수급 및 한부모가구의 방 개수가 평균 2.2개보다 적은 1.9개였다.

둘째, 거주하는 집 환경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대체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일반가정보다 많았는데, 이는 방 개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 개수가 적다는 것은 별도의 공간(예를 들어, 자녀 독방, 장난감이나 살림을 넣어두는 창고 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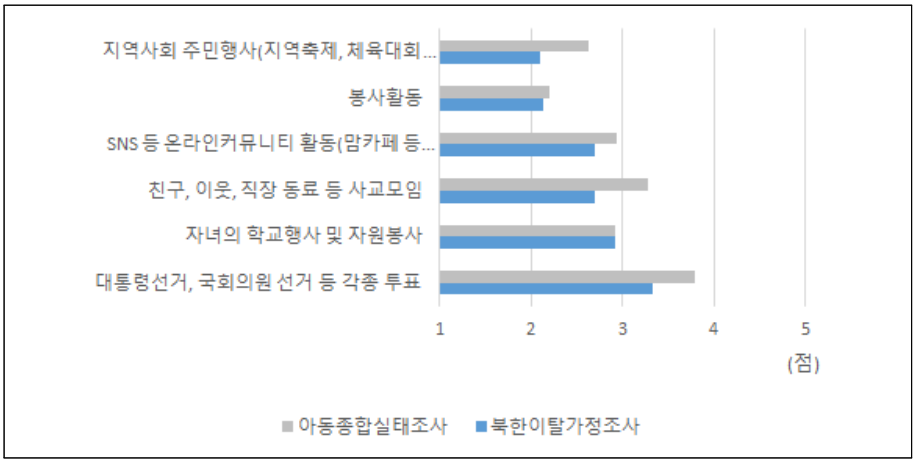
셋째, 집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가정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관관련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안전하고 창의적인)놀이터 등이 전반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20] 집 주변 생활환경 비교**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을 도식화함.

넷째, 북한이탈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동 중 대통령선거 등 각종 투표에 대해 참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양부모가구, 비수급가구인 경우 더 자주 참여하고 있었다.

**[그림 Ⅲ-11-21] 지역사회 활동 참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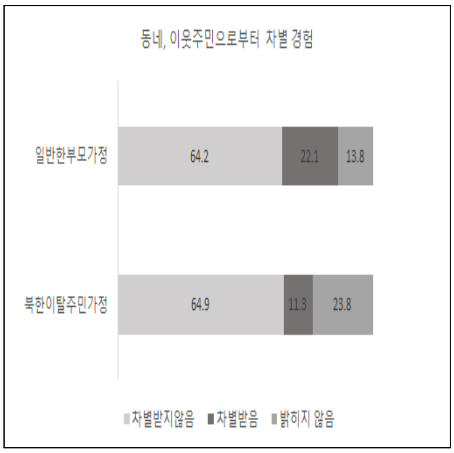



주: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점'~'매우 자주 참여한다 5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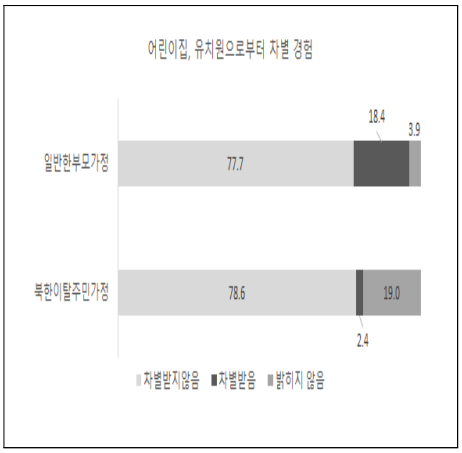
다섯째, 북한이탈가정은 일반 한부모가정보다 차별경험이 주양육자와 자녀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응답은 북한이탈

주민 가정이 더 많았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훨씬 많았다.

**[그림 Ⅲ-11-22] 주양육자 기준 차별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비교**




**[그림 Ⅲ-11-23] 자녀 기준 차별 경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 한부모가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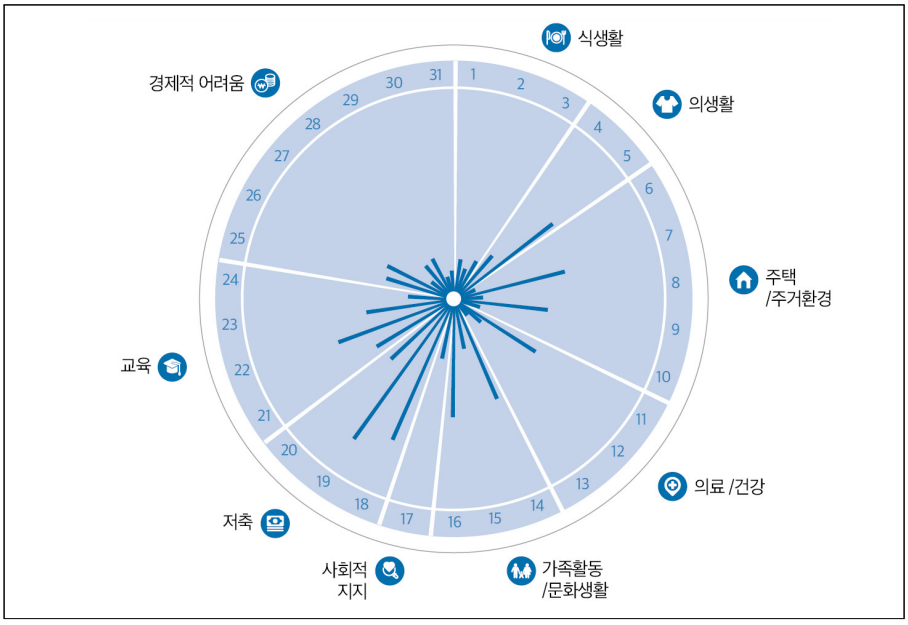



## 아. 물질적 환경

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에 대해 북한이탈가정 영유아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특히 '정기적인 여가활동'(74.2%),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하는 기회'(51.0%),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중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49.0%)에 대해 결핍인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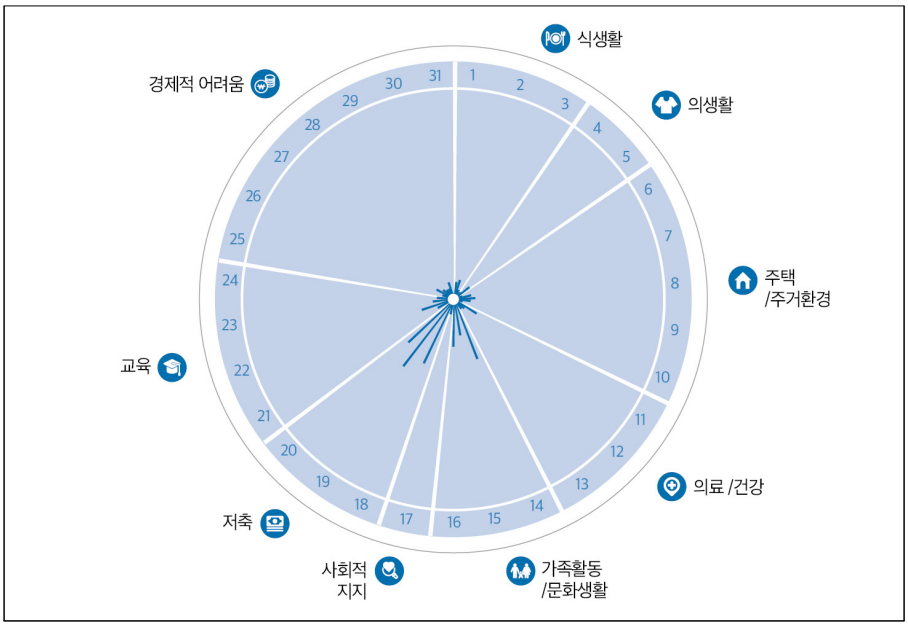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의 9개 영역의 31개 항목에 대한 북한이탈가정의 박탈지수는 약 11.7개로 아동종합실태조사 일반가정의 약 8.6개보다 높았다. 북한이탈가정 안에서는 한부모인 경우와 수급가구인 경우 더 높았다. 세부 영역별로는 저축(미래대비) 영역이 가장 열악했고, 그 외에 교육, 문화생활영역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식생활 영역은 가장 양호한 편이었다. 북한이탈가정과 일반가정의 수급가구와 한부모 가구 끼리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두 집단 간에서도 북한이탈가정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1-24] 북한이탈주민 전체 박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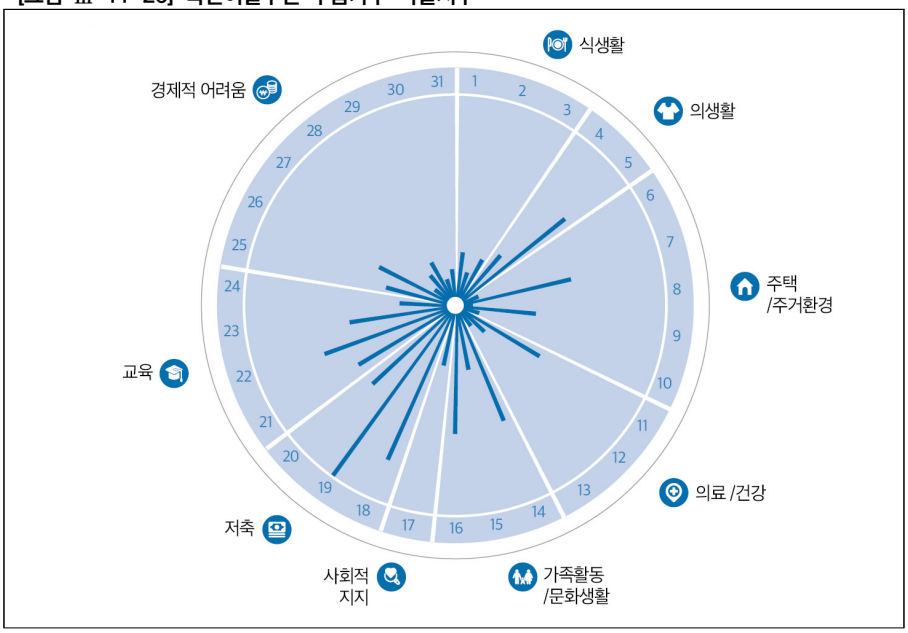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그림 Ⅲ-11-25] 아동종합실태조사 전체 박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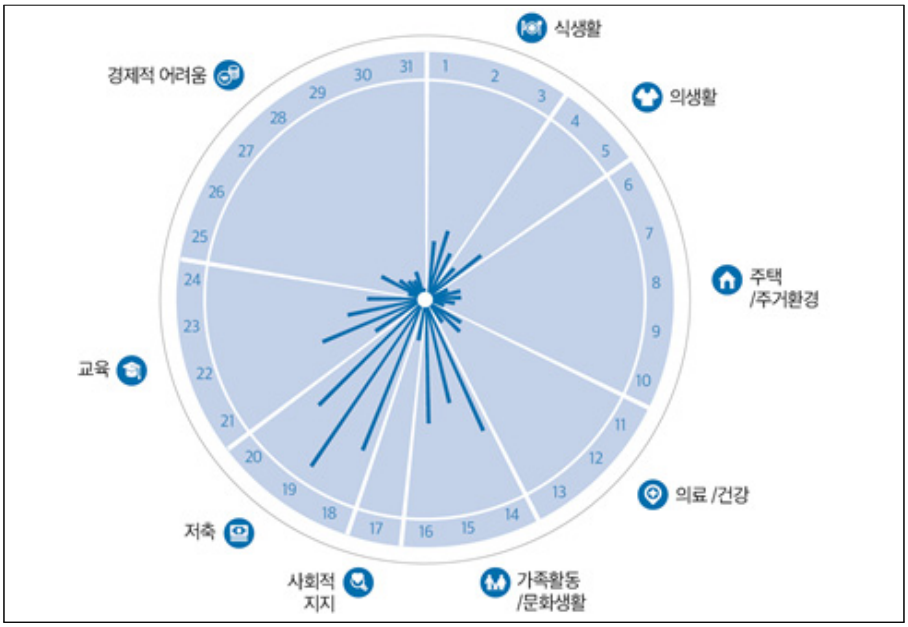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그림 Ⅲ-11-26]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 박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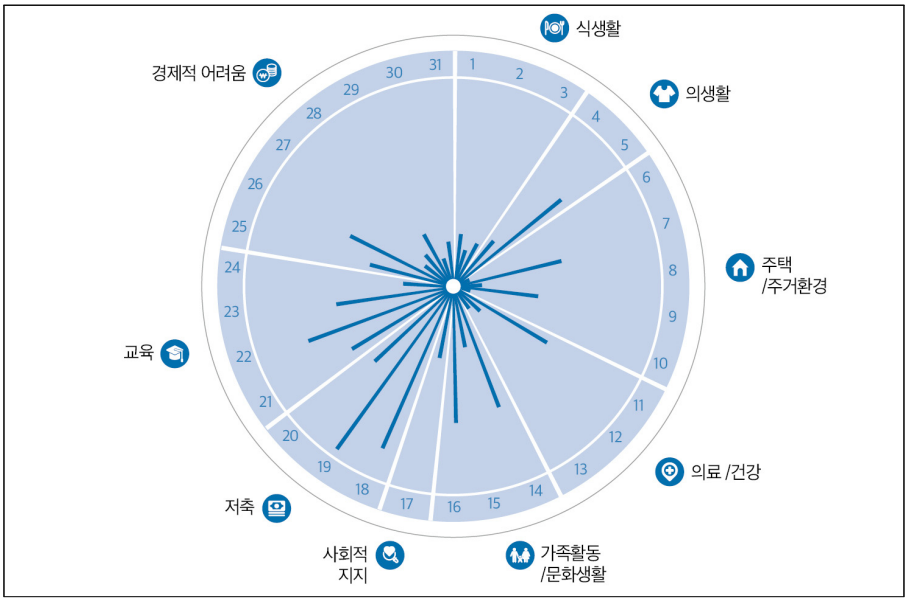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그림 Ⅲ-11-27] 일반가정 수급가구 박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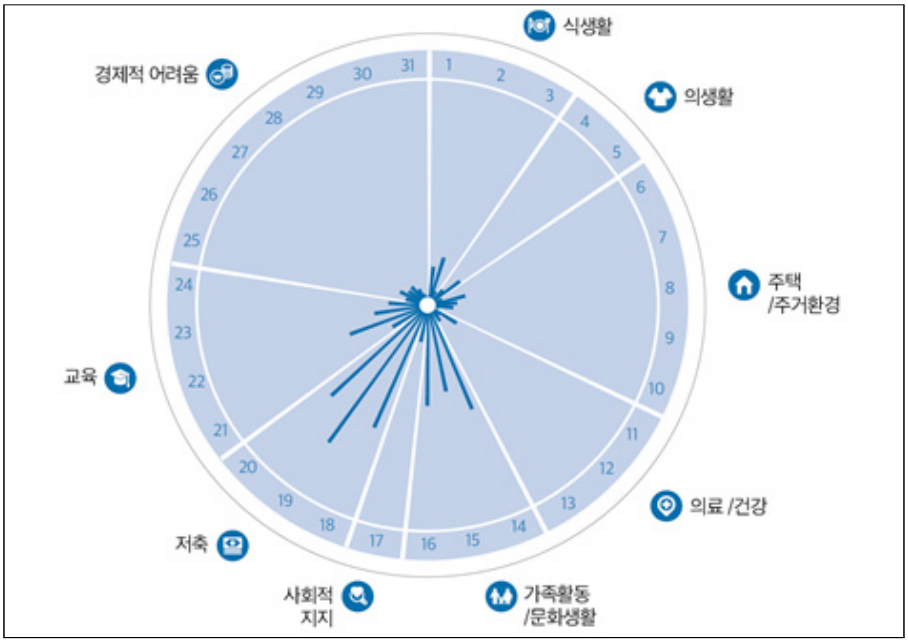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그림 Ⅲ-11-28]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 박탈지수**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그림 Ⅲ-11-29] 일반 한부모가구 박탈지수**




주: 막대기가 길수록 박탈이 많다는 의미임.

북한이탈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정도였고 이는 일반가정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편 양부모, 비수급가구, 영아가구, 중위소득 50%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가정 부모는 보편적인 아동정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고 이용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북한이탈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 가구특성별 인지도와 이용률에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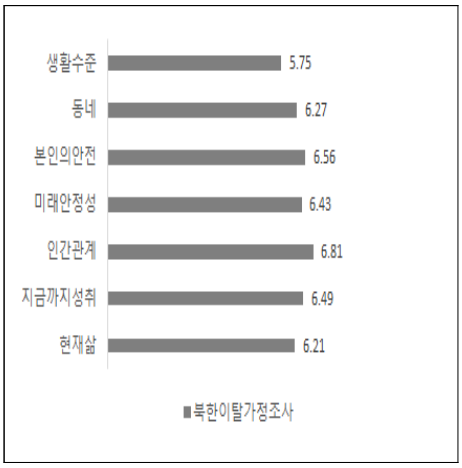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소득을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코로나19 이후(2020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평균 약 243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216,000원 정도(약 9%)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양부모 가구가 한부모 가구보다, 남한거주 5년 초과인 경우가 5년 이하인 경우보다 많았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학습지 비용, 학원비 등 교육·보육비는 월평균 약 26만원이었고 이는 가구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자. 6개 분야의 10점 척도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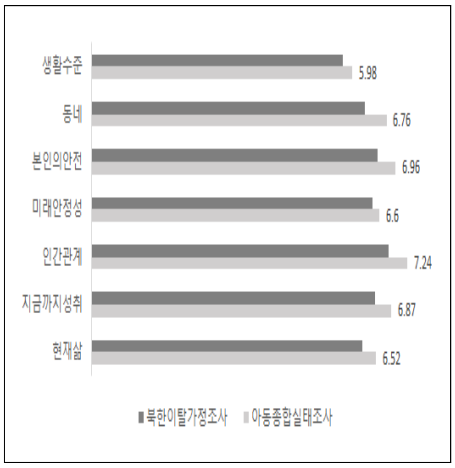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6개 분야(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0계단 사다리, 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안정성, 귀하의 안전, 동네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의 만족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생활수준이 5.75점으로 가장 낮고, 인간관계가 6.81점으로 가장 높았다. 10개 사다리 단계 중 현재 삶의 위치 정도를 물어본 현재 삶은 6.21점으로 생활수준 다음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거의 동일하다.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하면, 6개 분야 모두에서 일반가정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그런데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변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보다 일반가정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문항이 있었다. 현재 삶에 대한 위치(10개 단계 사다리)에서 일반 수급가구, 일반 한부모가구, 일반 양부모가구의 점수가 탈북가정보다 낮았다.

**[그림 Ⅲ-11-30]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북한이탈주민 가정**




**[그림 Ⅲ-11-31]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탈북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 Ⅳ

#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01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개요

02 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현황 및 애로사항

03 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04 비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05 비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06 소결

# Ⅳ.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조사를 분석,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면담조사에 동의한 사례들 대상으로 가구유형별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 1.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성별 개요

북한이탈주민 가정유형별로 자녀양육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4개 가구유형별(수급×가구유형별)로 주양육자와 가구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설문조사에서 비수급양부모가구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급한부모가구가 60명으로 뒤를 이었다. 비수급한부모가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 주양육자의 우울함이 가장 높고 결핍지수가 높은 가구 모두 수급한부모가구이다. 수급양부모가구는 우울함이 가장 낮았고, 비수급한부모가구는 결핍지수가 가장 낮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양부모)가 그렇지 않는 경우(한부모)보다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고, 경제력을 갖춘 경우(비수급 가구)가 결핍지수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1〉 수급×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가구특성**

단위: %(명)

| 구분 | 우울여부 | | 계(수) | 결핍지수 | | 계(수) |
|---|---|---|---|---|---|---|
| | 우울하지 않음 | 우울함 | | 결핍아님 | 결핍 | |
| 수급한부모 | 28.3 | 71.7 | 100.0(60) | 8.3 | 91.7 | 100.0(60) |
| 수급양부모 | 61.5 | 38.5 | 100.0(13) | 23.1 | 76.9 | 100.0(13) |
| 비수급양부모 | 56.9 | 43.1 | 100.0(67) | 23.1 | 76.9 | 100.0(67) |
| 비수급한부모 | 54.5 | 45.5 | 100.0(11) | 27.3 | 72.7 | 100.0(11) |

주: 본 설문조사 결과임.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본 설문조사에서 수급여부와 가구소득은 영유아(아동)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였다. 가구유형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나,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이 변수에도 가구소득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구소득 변화를 알아본 결과, 이전보다 이후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0-13 참조). 이를 4개 가구특성별로 보면, 다음 〈표 Ⅳ-1-2〉와 같다.

4개 가구 모두 코로나19 이전보다 가구소득이 감소하였다. 감소폭은 비수급한부모가 가장 컸고(291.8천원→210.0천원), 수급한부모가 가장 작았다(121.2천원→116.5천원). 그러나 수급과 비수급의 가구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소폭이 작더라도 총소득액은 여전히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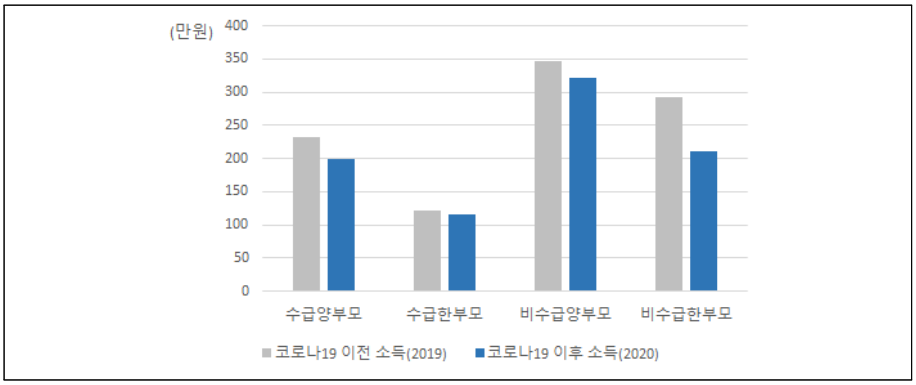
**〈표 Ⅳ-1-2〉 수급×가구유형별 주양육자 및 가구특성**

단위: 천원, (명)

| 구분 | 가구소득 | | 사례수 |
|---|---|---|---|
| | 코로나19 이전 | 코로나19 이후 | |
| 수급한부모 | 121.2 | 116.5 | (58) |
| 수급양부모 | 233.1 | 199.2 | (13) |
| 비수급양부모 | 346.1 | 321.9 | (65) |
| 비수급한부모 | 291.8 | 210.0 | (11) |

주: 1) 소득에 대한 무응답 사례수는 제외함.
2) 소득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 양육수당, 장애연금, 코로나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됨
3) 본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Ⅳ-1-1] 수급×가구특성별 가구소득 변화: 코로나19 이전·이후 비교**




주: 〈표 Ⅳ-1-2〉를 도식화함.

## 2. 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현황 및 애로사항

### 가. 주양육자 및 자녀의 기본사항

#### 1) 주양육자

면담조사에 참여한 수급 한부모가구는 총 12사례이다. 입국연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2006년이고(사례 6), 가장 최근에 온 경우는 2019년(사례 2)이다. 연령은 30대 중후반이 주를 이루었다. 장애는 모두 없고, 근로능력은 사례 6, 9, 12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였다. 근로는 가능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아였다. 현재 경제활동참여상태가 '실업자'인 경우는 구직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경우이다(사례 1, 4). 상용직임금근로자인 사례 7는 요양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경우로서, 생계급여는 없고,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한부모가구가 된 주된 이유는 이혼이고 미혼 4사례, 별거 1사례였다.

**〈표 Ⅳ-2-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수급한부모)**

| 연번 | 입국 년도 | 성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수준 | 장애 | 근로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 지역 | 기초생활 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1 | 2014 | 여 | 1984 | 이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실업자 | 비수도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10만원) |
| 2 | 2019 | 여 | 1992 | 미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0만원) |
| 3 | 2018 | 여 | 1979 | 이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200만원) |
| 4 | 2017 | 여 | 1992 | 이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단순근로 미약자 | 실업자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10만원) |
| 5 | 2015 | 여 | 1980 | 이혼 | 전문대학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47만원) |
| 6 | 2006 | 여 | 1980 | 이혼 |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 | 없음 | 근로능력 없음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70만원) |

| 연번 | 입국 년도 | 성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수준 | 장애 | 근로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 지역 | 기초생활 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7 | 2015 | 여 | 1987 | 이혼 | 전문대학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상용직 임금 근로자 | 수도권 |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0만원) |
| 8 | 2010 | 여 | 1986 | 이혼 |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 | 없음 | 단순근로 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8만원) |
| 9 | 2018 | 여 | 1982 | 미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능력 없음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20만원) |
| 10 | 2009 | 여 | 1986 | 미혼 |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40만원) |
| 11 | 2013 | 여 | 1987 | 미혼 | 전문대학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0만원) |
| 12 | 2014 | 여 | 1986 | 별거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단순근로 미약자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100 %미만 (200만원) |

주: 1) 본 설문조사 결과임.
2) 소득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양육수당, 장애연금, 코로나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됨

### 2) 자녀현황

이들 영유아들 모두 남한에서 태어났다. 자녀가 1명인 가구가 4사례, 2명인 가구가 6사례, 3명인 가구는 2사례였다. 성별은 남아 9명, 여아 3명으로 남자아이가 더 많았다. 설문조사에는 '장애는 없다'고 응답했으나, 사례 1의 경우 면담에서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대부분 자녀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는 사례 12뿐이었다. 이용부담이 유치원이 더 커서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는 경우(사례 2, 사례 6)는 자녀가 어려서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표 Ⅳ-2-2〉 피면담자 아동특성(수급한부모)**

| 연번 | 아동연령 | 출생순위 (자녀수) | 성별 | 장애 | 인지발달 점수 | 언어발달 점수 | 기관이용 |
|---|---|---|---|---|---|---|---|
| 1 | 유아 (40개월) | 둘째(2) | 남 | 없음 | 0.50 | 0.00 | 어린이집 |
| 2 | 영아 (6개월) | 첫째(1) | 남 | 없음 | 2.13 | 2.25 | 이용안함 |
| 3 | 영아 (7개월) | 셋째(3) | 남 | 없음 | 2.88 | 3.00 | 이용안함 |
| 4 | 영아 (26개월) | 첫째(1) | 여 | 없음 | 2.63 | 2.88 | 어린이집 |
| 5 | 유아 (59개월) | 둘째(2) | 남 | 없음 | 2.50 | 2.38 | 어린이집 |
| 6 | 영아 (15개월) | 셋째(3) | 남 | 없음 | 2.50 | 2.75 | 이용안함 |
| 7 | 유아 (39개월) | 첫째(1) | 남 | 없음 | 1.88 | 2.13 | 어린이집 |
| 8 | 영아 (32개월) | 첫째(1) | 남 | 없음 | 2.63 | 1.88 | 어린이집 |
| 9 | 유아 (53개월) | 첫째(2) | 여 | 없음 | 2.50 | 3.00 | 어린이집 |
| 10 | 유아 (58개월) | 첫째(2) | 남 | 없음 | 2.75 | 3.00 | 어린이집 |
| 11 | 영아 (35개월) | 첫째(2) | 남 | 없음 | 2.75 | 3.00 | 어린이집 |
| 12 | 유아 (63개월) | 둘째(2) | 여 | 없음 | 2.38 | 2.25 | 유치원 |

주: 본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양육현황

### 1) 건강

주양육자 또는 자녀의 건강이 안 좋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5는 자녀의 치아와 본인의 알러지로 치료받고 있었다. 자녀는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지원하는 치료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료급여 1종을 받더라도 치과치료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사례 5).

아이가 새로운 치아가 나와야 하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치과치료는 올해(2021년) 12월초 드림스타트로 지원을 받아 치료할 예정입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정보는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피부 알러지가 심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사례 5).

주양육자가 아픈 경우가 많았다. 신체적으로 아픈 경우(사례 8, 9)도 있지만, 불면증, 우울증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사례 1, 2, 5, 6, 12).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2).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못잡니다. 거의 새벽 3시쯤에 잠을 잡니다(사례 1).

저는 산후우울증이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치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사례 2).

저는 과거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식은 땀이 나면서 힘들었습니다, 북한체제 트라우마 치유상담센터(서울 강서구 등촌동 위치)에 참여하여 상담을 많이 받아 현재는 치유가 되어 어느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관계로 치료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사례 5).

저는 우울증이 있으며, 출산 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임신동안에는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약복용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심해서 외출을 나가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외출할 때 갑자기 응급상황(호흡곤란)을 대비하기 위해 비상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특히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탑승 시 항상 창문을 열어 놓습니다(사례 6).

북한에서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재발하면 계속 수술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제가 출산 전 부터 몸이 아픈 관계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유전적으로 호흡을 잘 못하여 대학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며 현재는 잔병치례를 자주하지만 예전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사례 8).

둘째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출산하고 허리를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병명은 따로 없고 그냥 현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사례 9).

저는 건강한 편이지만 우울증이 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겪는 증상이라고 참고 있습니다(사례 12).

### 2) 근로현황

현재 일을 못하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육아(사례 2, 3, 4)와 학업(사례 5, 6, 8)이 많았다.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거나(사례 2, 3) 다자녀인 경우(사례 4, 6)는 대리양육자가 없어서 취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사례 1)
>
> 아이들 돌봐야 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사례 2).
>
>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습니다(사례 3).
>
> 아이가 2명이라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사례 4)
> 현재 조건부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공부를 마친 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사례 5).
>
> 저는 아들만 4명이며, 큰 아들은 20대라서 독립했고 현재 나머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을 계속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병행하면서 자녀를 돌봤습니다. 내년(2022년)에 간호학원 1년을 다니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회복지만으로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간호학을 함께 병행하여 요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이 계획이 정확하지 않습니다(사례 6).
>
> 현재 학업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 학교를 졸업 후 취업 할 계획입니다(사례 8).

### 3) 관계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교류하는 이웃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에서 온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사례 9, 10) 교류는 거의 없었다.

> 다른 엄마들과 교류는 잘 하지도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사온 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엄마들끼리 통화나 문자로 가끔 연락하고 합니다(사례 1)
>
> 남한 엄마들, 북한 엄마들이랑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사례 2).
>
> 한국 엄마들이랑 교류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한국인 분들이랑 벽을 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내적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혼을 하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주위 사람들이랑 교류를 단절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관계가 좋았지만 우울증과 이혼

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힘든 이혼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사례 6).

가벼운 외출은 무조건 데리고 나가고, 올해 4월에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재발하여서 6번째 수술을 하였으며 그 동안 열흘동안 자녀를 북한 사람인 지인 집에 맡긴 적이 있습니다(사례 8).

친정엄마가 있긴 하지만 엄마도 개인적인 생활로 바빠 별다른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항상 혼자 울고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잠깐이라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사례 9).

외삼촌 가족이 한국에 오긴 했지만 교류는 특별히 없습니다(사례 10).

주변 이웃들과 잘 지내는 사례들도 있었다. 교회를 다니거나 자녀 또래의 엄마들과 교류하는 경우들이다.

주말마다 교회를 다니며 아이랑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가족은 없지만 주위의 애기엄마들이랑 정보공유도 하고 남한 분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사례 3).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사례 11).

### 4) 양육 및 돌봄

#### 가) 기관이용 현황

자녀가 돌 이전의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스럽다고 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서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비용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사는 곳에서는 비용을 내면서 이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 비용부담이 커서 국공립으로 옮기고 싶으나 집근처에 없거나 있더라도(사례 10) 대기 중이고(사례 3) 병설유치원은 일찍 하원하기 때문에 보내기가 불편하다는(사례 12) 의견들이 나왔다.

지금 아들 3명을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신청하여 대기 중입니다(사례 3).

전에 살던 곳에서는 특별활동비도 지원이 되어 따로 지불하지 않았지만 **로 이사 한 후 특별활동비용으로 한달에 14만정도씩 지불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예전에는 수급자이고 한부모

가족이면 지원된다고 하던데 **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고 앱을 통해 신청했습니다(사례 5).

저는 00에 살고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이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부모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활동비를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주어 현재 어린이집에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사례 7).

어린이집에 한 달에 17만 5천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니던 가정어린이 집은 한달에 3만원 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 집은 다닌지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만족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사례 8).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갔다가 오후 4시에 옵니다. 한달에 아이 1명당 10만원 좀 넘게 지불합니다.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집근처에 국공립이 없고 민간어린이집만 있습니다(사례 10).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맘카페에서 후기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4시에 데리고 옵니다. 한달에 3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국공립이 없고 병설유치원은 있지만 너무 빨리 끝나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사례 12).

기관 이용 시간은 등원 오전 9시 내외이고 하원은 5시 내외였다. 야간보육이나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좋습니다. 아침 9시30분에 갔다가 3시30분에 옵니다. 특별활동비로 9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만족하며 특히, 원장님과 선생님이 마음에 듭니다(사례 1).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특별활동비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만족합니다(사례 4).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좋았다. 그런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맞았을 때, 원장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음날 기관을 바로 옮긴 사례도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유별난 친구가 우리 애를 때려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 대처였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아이가 친구한테 맞았는데 대처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항의를 했지만, 원장님 반응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가서 그걸 보고, 바로 다음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습니다(사례 8).

### 나) 자녀를 혼자 두는 경우

자녀를 전적으로 혼자 키우는 이들 주양육자는 자녀를 혼자 두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큰 아이가 있는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집 근처 마트를 잠깐 나가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안전상 집 안에 CCTV(홈케어보안카메라)를 설치한 경우가 있었다.

> 저는 아이랑 거의 같이 있으며,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큰 아이랑 둘이 같이 놀고 있게 하며, 집에 있는 CCTV로 자녀들이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막내를 혼자 두게 한 적은 없습니다(사례 1).

> 저는 아이를 무조건 데리고 외출합니다. 주말마다 교육받을 받으러 갈 때도 아이와 함께 가며, 가끔은 큰 아이(초등학교 2)가 막내 동생이랑 집에 있는 경우 가끔 혼자 외출하지만, 막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게 한 적은 없습니다(사례 3).

> 아이랑 거의 같이 있으며, 가끔씩 잠깐 동네마트 5분정도 나갈 때 큰 아이가 어린 동생을 돌 봐주고 있으며,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두는 경우는 없습니다(사례 4).

>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홈케어(홈보안카메라)시스템을 설치 한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곤 하였습니다(사례 7).

> 저는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험해서 누구한테도 맡기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가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갈 경우 큰 아이와 막내가 함께 집에서 놀고 있는 걸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례 9).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신청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례 12만 한달 째 이용 중이며 대부분은 신청한 적이 없었다. 신청은 했지만 대기가 너무 길어서 포기했거나(사례 5)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다(사례 9, 11).

>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전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신청대기가 너무 길고 언제 가능할지 몰라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쉽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자격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였습니다(사례 5).

> 저는 신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사례 9)

> 코로나 때문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사례 11).

5) 자녀 교육수준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주양육자들이 대학교까지 공부하기를 희망하였다.

>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대학교 이상까지 보내고 싶습니다. 대학원까지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진학을 거부하면 부모로서 상처받겠지만, 아이가 꼭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사례 9).

> 적어도 대학교까지는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2).

그러나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대학을 반드시 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아이가 대학교까지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사례 10).

> 저는 대학원까지 보내고 싶으나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사례 11).

## 다. 도움이 된 정책 및 바라는 육아정책

지금까지 지원받았던 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주거지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취업장려금, 기저귀와 분유 지원 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주거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큰 집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사례 1, 2, 3, 10, 11), 교육에 대한 지원(사례 4), 복지서비스에서 자비부담 지원(사례 5), 집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사례 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례 12)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가장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평수가 작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LH에 집을 신청하려고 하여도 제가 원하는 평수의 아파트의 공고가 잘 나오지 않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자녀 학교랑 멀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부모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사례 1).

> 정부에서 주는 주택이랑 하나원에서 나와서 6개월 받은 수급비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집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자격미달로 탈락되었습니다. 주거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사례 2).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임대주택 아파트를 국가에서 임대를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를 정부에서 좀 해결 해 주기를 바랍니다(사례 3).

하나원에서 퇴소 후 주택 및 수급비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남한 아이들처럼 사교육을 받으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4)

아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 한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본인 부담이 나오다 보니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사례 5).

한국에서 출산 후 아이사랑 행복카드를 지원을 받아 그 카드로 아이 기저귀 및 분유도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했으며 또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사례 7).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주거지원이 가장 좋았으며, 대학교 갈 때 지원해준 정책도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국공립시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들에게 좀 더 큰 집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10).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가 제일 좋았으며, 주거를 지원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북한에서 20년 넘게 살다 보니 한국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사례 11).

무엇보다 주거를 해결해주어서 가장 감사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으며,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민 한사람이 큰 잘못을 하면 탈북민 전체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사례 12).

## 3. 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 가. 주양육자 및 자녀의 기본 사항

#### 1) 주양육자

면담조사에 참여한 수급 양부모가구는 총 6사례이다. 입국년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사례 1(2010년)이며 가장 최근에 온 경우는 사례 5(2017년)이다. 20대 후반

부터 40대 초반까지 연령대의 폭이 컸다. 이들 모두 근로능력이 있으며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생계급까지 받는 경우는 3사례이고, 나머지 3사례는 의료급여 1종만 받고 있었다.

배우자의 국적은 북한 3사례, 남한 2사례, 외국 1사례이다.

**〈표 Ⅳ-3-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수급양부모)**

| 연번 | 입국 년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 수준 | 장애 | 근로 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지역 | 기초생활 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1 | 2010 | 1988 | 유배우 (북한) | 대학교재학/졸업 이상 | 없음 | 근로 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200만원) |
| 2 | 2016 | 1992 | 유배우 (남한) |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 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100 %미만 (300만원) |
| 3 | 2013 | 1992 | 유배우 (북한) | 전문대학 재학/졸업 | 없음 | 근로 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40만원) |
| 4 | 2014 | 1985 | 유배우 (북한) |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 가능 | 비경제 활동인구 | 수도권 | 생계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0만원) |
| 5 | 2017 | 1980 | 유배우 (파키스탄) |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단순 근로 가능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수도권 |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50만원) |
| 6 | 2016 | 1990 | 유배우 (남한) | 고등학교/ 고급 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단순 근로 가능 | 임시직 임금 근로자 | 수도권 | 의료급여 | 중위소득 50%미만 (100만원) |

주: 1) 본 설문조사 결과임.
2) 가구소득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 양육수당, 장애연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됨.

### 2) 해당 자녀

자녀수는 2명이 3사례, 1명이 3사례이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없었다. 사례 4(자폐진단 받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애가 없고, 인지와 언어발달도 전반적으

로 양호하였다. 사례 4, 6을 제외한 6사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표 Ⅳ-3-2〉 피면담자 아동특성(수급양부모)**

| 연번 | 아동연령 | 출생순위 (자녀수) | 성별 | 장애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기관이용 |
|---|---|---|---|---|---|---|---|
| 1 | 유아 (53개월) | 첫째 (2) | 여 | 없음 | 2.75 | 3.00 | 어린이집 |
| 2 | 영아 (33개월) | 첫째 (1) | 여 | 없음 | 2.25 | 2.75 | 어린이집 |
| 3 | 영아 (22개월) | 둘째 (2) | 여 | 없음 | 2.13 | 2.75 | 어린이집 |
| 4 | 유아 (38개월) | 첫째 (1) | 여 | 없음 | 0.0 | 0.0 | 이용안함 |
| 5 | 영아 (23개월) | 둘째 (2) | 여 | 없음 | 2.50 | 1.38 | 어린이집 |
| 6 | 영아 (10개월) | 첫째 (1) | 여 | 없음 | 3.00 | 2.63 | 이용안함 |

주: 본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양육 현황

### 1) 근로현황

주양육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학업 중이라 수입이 없어서 수급을 받고 있다고 했다(사례 1, 3). 또, 자녀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사례 4). 의료급여만 받고 있는 사례 2와 사례 5는 각각 배우자의 수입 및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례 6은 본인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당분간 근로를 할 수가 없고, 남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출산)예정일은 내년 3월이며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습니다(사례 1).

> 저는 수급자이고 남편이 현재 대학생이라 수입이 없습니다. 시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사례 3).

> 아이가 아직까지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으며, 이름을 불러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자폐로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와 자비 부담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대략 40~50만원입니다(사례 4).

> 저는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사례 6).

### 2)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 자녀가 대학교 또는 그 이상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수준이 높았다. 자폐진단을 받은 사례 4도 자녀가 대학교까지 다니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들 가구들은 자녀 미래를 위해 적금을 가입하고 있었다. 사례 5와 6도 대학교까지 공부하기를 희망했다.

> 저도 대학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대학교, 석 박사 과정까지 다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학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

> 저는 당연히 자녀들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과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가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만약 부모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 아이가 자립심도 키울 겸, 어느 정도의 등록금을 본인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위해 대학교 등록금을 적금하고 있습니다(사례 3).

> 저는 아이가 대학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따로 적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 업어 주고 달래주고 그러고 있습니다(사례 4).

> 저도 대학교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사례 6).

### 3) 관계

이들 가구들은 배우자와 대체로 잘 지내고 있었다. 다른 가족들이 주변에 있어서 경제적 도움, 생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나뉘었다. 예를 들어, 사례 3은 남북하나재단에서 배우자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공식, 공식 채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아서 수급가구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 (북한출신) 남편이 가정적인 편이라 가사를 많이 도와주는 편이며, 가끔 서로 다툼은 있지만 웬만하게 잘 해결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에 수급비로 부족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사례 1).

> 저의 남편은 한국에서 태어 난 사람이고,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자상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남북한을 떠나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가까이에 있어서 가끔 아이를 시어머님께 맡기곤 합니다. 시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사례 2).

> (북한출신) 신랑이랑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둘째 딸을 출산하고 나서 남편이 많이 바뀌

> 었고 현재는 신혼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와서 가족이 없고 시댁에서 좀 도와주는 편입니다. 시댁이랑 잘 지내는 편이며, 시댁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교회에서 장학금을 7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남북하나재단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어 생활에 보태고 있습니다(사례 3).

반면, 주변에 경제적, 생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도 없으며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혼자 육아를 하거나(사례 4) 남편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례 5는 낮에는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하원 후에는 큰 자녀가 돌보면서 일과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 도움 받을 가족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며, 제가 다 돌보고 있습니다(사례 4).

> 도움 받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저는 현재 북한에서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 올 상황이 아니며, 데려오는 비용도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 나갈 때 큰 아이가 13살인데 동생을 보고 있으며, 큰 아이도 힘들다고 하여 지금 가게를 닫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랑 현재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를 함께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저의 아이는 낮 시간에 어린이 집으로 가며, 오후시간에는 큰 아이가 돌보고 있습니다(사례 5).

한편, 사례 5는 자녀가 어린이집 하원 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으나 자부담이 커서 취소했다고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여 이달부터 이용하려고 했으나 자부담이 시간당 1,500원 정도 내야하는데 그게 가게가 안되는 상황에서 부담되어 취소했습니다(사례 5).

### 4) 양육 및 돌봄

#### 가) 기관 이용 현황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4사례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2사례, 민간어린이집 2사례가 다니고 있었다. 이용시간은 아침 9시 내외 시간대에 등원하고 오후 5시 이전에는 데리고 왔다. 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비용으로 월 5~6만원 정도 내고 있었다.

> 어린이집 찾기 어플에서 총점이나 대기인원이 높은 순서 등을 따져본 후 대기를 걸어놓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들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할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이가 5살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잘 지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그만하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비로 한 달에 5만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사례 1).

저는 국공립이 자리가 없어서 민간어린이 집으로 아이를 23개월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만족하는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활동비는 내지 않고, 놀이 교재비로 한달에 6만5천원정도 내고 있습니다(사례 2).

현재 둘째는 첫째가 다니는 국공립을 다니고 있는데 대기는 없었습니다. 국공립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첫째가 먼저 다니고 있어 남매가 함께 같은 어린 집에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공립이 민간보다 좋고, 또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좋으셔서 선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10시 반에서 저녁 5시에 제가 데려옵니다. 어린이집이랑 거리가 있지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라서 비용부담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시설이나 선생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사례 3).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오전 9시 반에 갔다가 3시 반에 옵니다(사례 5).

### 나) 체벌에 대한 인식 등

북한에서는 체벌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남한의 육아문화를 tv 또는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육아정보를 접하면서 자녀에게 체벌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배우자도 체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체벌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어도 체벌만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신랑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사례 1).

초반에는 아이에게 매를 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오은영 박사님 영상을 보고 공부하면서 아이의 심리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를 들지 않습니다(사례 2).

북한에서는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아빠는 항상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체벌보다는 타이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주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절대 아이를 때린 적은 없지만 훈계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훈계도 별로하고 생각합니다(사례 3).

### 4) 거주지역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자녀교육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교육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정도 많이 들고, 아이 키우기에도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진학 후 다른 곳을 이사하려고 합니다(사례 1).

> 남편회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랑 가까워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아이교육 때문에 환경이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례 2).

> 현재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초등학교나 놀이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 지역이 위치가 좋아 아직까지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사례 3).

## 다. 도움이 된 정책 및 바라는 지원정책

### 1) 도움이 된 정책

본인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받았던 교육비 지원(사례 1),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수급비 지원(사례 2)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사례 2는 자녀를 키우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들도 현재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받지 못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어서 남한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받은 교육비를 받은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사례 1).

> 학업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고마웠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아이들 키우기가 더 쉽고 좋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저출산시대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2).

### 2) 육아 비용 지원

자녀의 치료비 지원(사례 1),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사례 5)을 희망했다. 사례 1은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는데 취업을 해서 자녀가 원하는 교육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 보니 바우처가 더 활성화되어 지원을 더 받았으면 합니다. 수급자인데도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비부담이 많이 들어서 아이는 치료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사례 1).

> 코로나와 아이가 또 너무 어려서 거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문이 좀 미약하여 아이가 크면 빨리 취업을 하여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앞으로 지원해주고 싶습니다(사례 1).

> 도움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내는 자부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1만원 정도 내는 특별활동비가 부담됩니다. 특별활동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사례 5).

## 4. 비수급 한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 가. 주양육자 및 자녀의 기본 사항

#### 1) 주양육자

본 면담조사에 참여한 비수급 한부모가구는 총 3사례이다. 3사례 모두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수급 상태였다. 하지만 그 중 한 사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게 되어 임시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차량소유로 수급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사례 2는 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사례는 월세로 살고 있다. 입국년도가 가장 빠른 사례 2번은 2000년에 와서 청소년기를 남한에서 보낸 경우다.

**〈표 Ⅳ-4-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비수급 한부모)**

| 연번 | 입국 년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 수준 | 장애 | 근로 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 지역 | 기초생활 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1 | 2013 | 1987 | 이혼 |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 가능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비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미만 (150만원) |
| 2 | 2000 | 1986 | 미혼 |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 | 없음 | 근로 가능 | 상용직 임금 근로자 | 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미만 (90만원) |

| 연번 | 입국 년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 수준 | 장애 | 근로 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 지역 | 기초생활 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3 | 2007 | 1977 | 이혼 | 대학교재학 /졸업 이상 | 없음 | 근로 가능 | 상용직 임금 근로자 | 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100 %미만 (200만원) |

주: 1) 본 설문조사 결과임.
2) 가구소득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 양육수당, 장애연금, 코로나 재난 지원금 등이 포함됨.

> 저는 기계제작 일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 식당에서 두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사례 1).

### 2) 해당 자녀

사례 1의 경우는 자녀가 세 명(13세, 7세, 4세), 사례 2와 3은 한 명이었고 모두 장애는 없으며 인지발달, 언어발달도 양호하였다.

**〈표 Ⅳ-4-2〉 피면담자 아동특성(비수급 한부모)**

| 연번 | 아동연령 | 출생순위 (자녀수) | 성별 | 장애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기관이용 |
|---|---|---|---|---|---|---|---|
| 1 | 유아 (62개월) | 둘째(3) | 남 | 없음 | 2.88 | 2.63 | 어린이집 |
| 2 | 영아 (17개월) | 첫째(1) | 여 | 없음 | 3.00 | 3.00 | 어린이집 |
| 3 | 유아 (37개월) | 첫째(1) | 여 | 없음 | 2.75 | 3.00 | 어린이집 |

주: 본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양육현황

### 1) 양육 및 돌봄

이들은 북에서 혼자 오거나 친어머니랑 같이 왔지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자녀 양육은 부모나 친인척 도움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혼자 해결하거나 손위

형제에게 맡기며 해결하고 있었다.

> 저는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 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나 사회 복지사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서 도움을 따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 거의 어린이집에 의지하고 있으며, 제가 일을 할 경우 큰 아들이 동생 두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10시에 퇴근하며, 저녁은 제가 아침에 해 놓으면 아이들이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려서 먹습니다(사례 1).

> 저는 아이를 퇴근하면서 데려 옵니다. 저녁 6시반사이에 데려 옵니다. 야근을 할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사례 2).

> (어린이집은) 일부러 집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날씨 춥고 비 오면 차 갖고 애 어린이집에 내려다 주고 저는 출근하고 (사례 3).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때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구가 없는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소득기준상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 되어 이용을 못하고 있다.

> 저는 친구가 많아서 급한 일이 생기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친구는 남북한 친구들 다 있습니다(사례 1).

> 저는 엄마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 급하게 아이를 맡기려고 할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가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어 어린이집 말고 딱히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아쉽습니다(사례 2).

아이들끼리 집에 두거나 일하러갈 때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들만 차에 두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보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제가 문을 열고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둘째아이가 막내동생(셋째)이 밖으로 나갈까봐 집안에서 문을 잠궜었는데 베란다가 열려져 있어 문을 따는 아저씨가 와서 문을 열고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막내가 차안에서 차문을 잠궈서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보험회사에서 차문을 따는 아저씨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차안에 2시간정도 가끔 두고 있는데 차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 뒷좌석에서 놀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례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

어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는 편이지만 다자녀 가구인 경우 현장학습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3월부터 보냈는데, (중략) 이용시간은 아침 10시에 갔다 점심 12시에 옵니다.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소풍가는 일이 많아서 비용 문제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사례 1).

> 저는 올해 3월부터 아이를 (가정)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중략) 비용은 아직 정부지원이 되어서 현재는 3만원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만족합니다(사례 2).

### 2) 자녀교육

이들도 남한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여유가 없고 자녀가 많은 경우는 미래의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거나 교육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교까지 보낼 거예요. 4년제까지. 잘하면 유학도 보내야죠(사례 3).

> 제가 지금 ○○에서 애기 학습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15만 원 들어가요. 국어, 수학. 두 개를 해요. 시켜보니까, 남들이 다한다고 해서 시켰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도 없고 좀 그렇더라고요. (중략) 사교육비도 걱정되죠. 앞으로는 훨씬 많이 든다. 지금 애들 물어봐도, 중고등학교는 백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걱정되기는 하죠. 근데, 그때 일은 그때 가서 해결되겠지. 그래서 지금 일만 하자(사례 3).

> 자녀가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아이가 영유아라서 뇌발달에 도움 되는 수준의 교육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사례 2).

> 저는 아이가 세 명이라서 비용이 부담되어 희망교육 수준에 대해 생각을 못합니다(사례 1).

한부모 가구이기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 연락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휴대폰을 사주게 되지만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아이가 핸드폰을 거의 10시간정도 사용합니다. 저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폰을 뺏은 후 소리를 지릅니다. 스마트폰을 사준 이유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체크해야 해서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었습니다(사례 1).

저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스마트폰을 주지는 않고 운전할 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 주는 편입니다. 저는 차를 사용할 때 시간을 제한하여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줍니다(사례 2).

### 3) 관계

초기 남한 정착 시 주변인들에게 탈북민임을 밝혔을 때 놀림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 추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탈북민임을 밝히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직장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남한사람들 앞에서 밝혔을 때 차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서, 상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너는 짱깨이고 엄마는 북한사람이냐고 놀림을 받았습니다(사례 1).

(어린이집)선생님들은 제가 북한에서 온 걸 알고 있습니다(사례 1).

저는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하였으며,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와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주변사람들에게 북한에서 왔다고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사례 2)

(어린이집)선생님들은 제가 북한에서 온 걸 모릅니다(사례 2).

(북에서) 혼자 왔었어요. 그냥 여기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죠. (남한사람과 교류는)없어요. 저는 (탈북민인지) 물어보면 답변해요. 근데, 안 물어보니까, 내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죠(사례 3).

### 4) 거주지역

처음 남한 입국 시 지원받은 임대주택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이사하였으나 주변 인프라 특히 자녀교육 환경이 더 적절한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저는 처음에 용인에서 살다 남자 때문에 음성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도 여기서 계속 하고 있으며, 경기도로 다시 이사 가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사례 1).

현재 집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되어서) 25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는 2018년에 입주하였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집보다 크고 (후략).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으며, 특히 교육 인프라가 잘 안되어 있고, 현재 거주 하고 있는 곳이 공장이 많아서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

에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사례 2).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는데, ○○구에 중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앞에 ○○초도 ○○초도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구에 중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는 있는데. 그전에(중학교 가기 전) 애기 때문에라도 이사 가지 않을까……여기가 일단 중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옮겨야 않을까(사례 3).

### 5) 여가생활

아이가 한 명이고 유아인 경우 아이의 교육을 생각해 아이와 여행을 자주 가려고 하고 있었다.

검색해서 찾아서 다니죠. 애기 많이 경험시키려고 무조건 나가요. 그냥 꽃이면 꽃, 단풍이면 단풍, 가서 강이라도 데려가고 저는 다 데려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서, 저는 방학이면 무조건 제주도 가서 한 달 있다가 오고. 방학이면 제주도 가서 놀다 오고(사례 3).

## 다. 자녀양육의 애로사항 및 희망 지원정책

한부모로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례 1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현재를 살아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아이가 세 명이라서 비용이 부담되어 희망교육 수준에 대해 생각을 못합니다(사례 1).

저는 하루살이 삶을 살다보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사례 1).

사례 1은 하나원 퇴소 후부터 일을 하여 소득이 있다보니 수급 대상이 아니었고, 정보도 부족하여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차량이 있어 자격미달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는 자산으로 잡히는 이러한 조건들이 완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원에 퇴소하여 일만 하다 보니 (지원받은 게) 딱히 없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퇴소하여 일주일 후부터 취업을 해서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사업이 코로나

로 힘들어지면서) 긴급지원 요청을 했지만 차량이 있어 자격미달 상태입니다. 아이들이랑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고 살기도 했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사례 1).

이와는 달리, 사례 2는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의 도움으로 취업까지 한 사례였다. 그러나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야근 등과 같은 급한 일이 생기면 난감할 때가 있는데 아이돌보미 비용부담이 커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 3의 경우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취업을 알아봐주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능 지원해주는 취업 바우처카드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회사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사례 2).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 소득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여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려면 거의 파트타임 알바를 해야 하는 수준인데 그렇게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사례 2).

육아시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쉬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업주와 협의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눈치보여요(사례 3).

이들은 남한의 부모들 못지 않게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남한의 교육방식, 문화 등 육아 관련 정보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룰은 조금 아니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데, 북한 엄마들은 북학 교육하고 남한 교육하고 완전히 달라서 모르니까, 담임선생님하고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여기에 혼자 왔으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벌어야 그나마 애랑 밥이라도 먹고살아. 그럼 나가서 일하고. 남한에도 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북한 엄마들은 더한 거예요(사례 3).

그 외에 치과치료비 지원, 남한 출생 탈북민 아이에 대한 지원,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저희 아이는 치아가 안 좋은데 별도로 가입된 보험이 없어 충치 치료를 받기가 너무 부담이 큽니다(사례 1).

그런 거까지(대학교 학비 지원) 바랄 여지는 없지만, 그것까진 아니더라도, 솔직히 북한 출생하고 중국 출생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학교 다니는 동안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중국출생 자녀에게는) 담임 선생님 멘토링도 있고, 담임 선생님 멘토링이라고 해서 사람 하나당 100만 원씩 나오거든요. 학생 한 명당.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공부도 가르치고,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그 돈이 어느 정도 더 하죠. 교육부 지원이에요(사례 3).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은 부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부각보다도 가끔씩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언젠가 우리 세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통일은 아니더라도, 교류까지는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대는 아예 북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북한이라는 단어도 알려주고, 북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해주고, 아예 북한 사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TV 매체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네 라고 조금이라도 관심 갖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사례 3).

## 5. 비수급 양부모가구의 양육 현황 및 애로사항

본 설문조사에서 비수급 양부모 가구가 67사례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이들 가정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왔고, 면담조사에도 동의한 사례수가 적었다. 본 면담조사에 총 5사례가 참여하였다.

### 가. 주양육자 및 자녀의 기본 사항

#### 1) 주양육자

면담 대상자들은 아이의 발달상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하는 경우(사례 3)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리랜서, 가족회사 경리 등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표 Ⅳ-5-1〉 피면담자 개인 및 가구특성(비수급 양부모)**

| 연번 | 입국 년도 | 출생 연도 | 혼인 상태 | 교육수준 | 장애 | 근로능력 | 경제활동 참여상태 | 거주 지역 | 기초생활보장 수혜 | 가구소득 |
|---|---|---|---|---|---|---|---|---|---|---|
| 1 | 2007 | 1990 | 유배우 | 고등학교/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단순근로 가능 |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 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미만 (140만원) |
| 2 | 2015 | 1988 | 유배우 | 고등학교/고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실업자 | 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미만 (180만원) |
| 3 | 2006 | 1977 | 유배우 | 대학교재학/졸업 이상 | 없음 | 근로가능 | 비경제활동인구 | 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100% 미만 (250만원) |
| 4 | 2007 | 1974 | 유배우 | 전문대학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비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150% 이상 (1500만원) |
| 5 | 2018 | 1989 | 사별 | 중학교/초급중학교 재학/졸업 | 없음 | 근로가능 | 실업자 | 비수도권 | 안받음 | 중위소득 50%~100% 미만 (250만원) |

주: 1) 본 설문조사 결과임.
2) 가구소득에는 기본적인 근로소득에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 양육수당, 장애연금, 코로나 재난 지원금 등이 포함됨

### 2) 해당 자녀

면담 사례들은 자녀가 1~2명이 있었고, 설문에 해당되는 자녀는 모두 남한에서 출산한 아이들이었다. 이 중 한 사례(사례 3)는 아이의 인지·언어발달상 어려움이 있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 경우는 첫째도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치료 중이었다. 그 외에 사례 2도 언어발달이 늦은 편이었다.

**〈표 Ⅳ-5-2〉 피면담자 아동특성(비수급 양부모)**

| 연번 | 아동연령 | 출생순위 (자녀수) | 성별 | 장애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기관이용 |
|---|---|---|---|---|---|---|---|
| 1 | 유아 (58개월) | 둘째(2) | 남 | 없음 | 2.00 | 2.00 | 유치원 |
| 2 | 영아 (23개월) | 첫째(1) | 남 | 없음 | 2.00 | 1.88 | 어린이집 |

| 연번 | 아동연령 | 출생순위 (자녀수) | 성별 | 장애 | 인지발달 | 언어발달 | 기관이용 |
|---|---|---|---|---|---|---|---|
| 3 | 유아 (54개월) | 둘째(2) | 남 | 없음 | 1.25 | 0.88 | 어린이집 |
| 4 | 유아 (59개월) | 둘째(2) | 남 | 없음 | 3.00 | 2.75 | 어린이집 |
| 5 | 영아 (11개월) | 첫째(1) | 남 | 없음 | 3.00 | 3.00 | 어린이집 |

주: 본 설문조사 결과임.

## 나. 양육 현황

### 1) 양육 및 돌봄

면담대상자들은 출산 후 친정어머니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인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산후조리를 받았다.

> 고향분이 있어요. 이북에서 온 분이 있는데. 그냥 친구 소개로 만나서 한분, 나이 있는 분 오셔서 해주셔서, 한 달에 200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름 정도 썼어요. 한 120~130만 원 정도(사례 5)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돌 지나고부터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추가 비용은 없거나 10만원 이하였고 부담이 되는 가정은 없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차별받은 경험은 모두 없었다.

> 저희는 (어린이집에) 가면 바로 얘기를 해야죠. 저희도 뭔가 한국분들이랑 다른 게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원장님한테 먼저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왔다.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사례 5).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맞벌이 가구라 비용을 지불하면서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저는 지금도 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일어난 후 신청하여 1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너무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하루에 사용시간은 아이가 등하원을 하거나, 큰 자녀가 병원에 갈 때 사용합니다. 아이돌보미 비용은 두 시간에 3천원정도 지불하며 한 달에는 6~7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잠깐 이용하는 편입니다(사례 3).

### 2) 자녀교육

자녀에 대한 희망 교육수준은 최소 고등학교 졸업이며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저는 자녀가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보낼 것이며, 만약 자녀가 대학진학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적어도 기본적인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아이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사례 1).
>
>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교는 무조건 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사례 2).
>
> 제 생각에는 대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찾거나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사례 3).
>
> 저는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4년제까지는 졸업하기를 원합니다.(사례 4)

이들은 남한 부모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또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저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남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알려주시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복지센터는 별로 신경을 잘 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사례 1).
>
> 앞으로 자녀교육에 대해 걱정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자녀교육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 후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사례 2).
>
> 자녀교육이 가장 걱정되며 학원비를 비롯한 비용 부분이 가장 부담됩니다. 두 아이에게 사교육비(태권도)가 한 달에 거의 50만원정도 지불됩니다(사례 3).
>
> 아이 사교육비로 영어, 컴퓨터, 피아노, 태권도, 수학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두 아이들 합쳐서 한 달에 70~80정도 지불하며 현재까지는 이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사례 4).

### 3) 관계

대부분 남한 사람들과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아이 어린이집 학부모와 가볍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남한 엄마들이랑 차를 마시거나 깊은 대화를 하는 편이 아니며 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간단한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 분 1명이 있으며 가끔 만나서 교류를 합니다(사례 1).

> 저는 소심한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없으며, 예전에 코로나 전에 가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간단하게 차를 마시는 정도였습니다(사례 3).

> 저는 남한 엄마들이랑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사례 4).

### 4) 거주지역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배우자 또는 본인 직장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육아에 적절한 경우는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 한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이사를 계획 중인 경우도 있었다.

> 저는 하나원에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배정받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교육환경이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사례 3).

## 다. 자녀양육의 애로사항 및 희망 지원정책

이들은 양부모 가족이긴 했지만 친정부모님 등의 다른 지원 인력은 부족하다보니 산후조리, 시험관 시술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정부에서 산후조리원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산후 조리를 하려면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경제적으로 부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갔었는데, 마사지 10회 포함하여 2주 정도 400만원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였습니다(사례 2).

> 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너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처럼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로 오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육아정책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자녀 두 명을 시험관 아이로 출산을 하였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를 바랍니다(사례 3).

그 외에 남한의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 이에 대한 알림서비스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의 질 제고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 육아정책으로는 정보제공을 정부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림서비스 같은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사례 1).

>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육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사례 4).

## 6. 소결

본 면담조사는 수급 한부모가구, 수급 양부모가구, 비수급 한부모가구, 비수급 양부모가구 등 4개 가구특성으로 유형화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수급 한부모가구가 4개 가구 중에서 주양육자의 우울, 결핍지수, 가구소득 모두 가장 취약했다. 면담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급 한부모 가구(12명)는 주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재 심신이 아프고, 자녀를 키워야 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다. 자녀에 대한 희망 교육수준이 대학교 이상으로 높았다. 수급가구지만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로 월 17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늦게까지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교류하는 지인이 거의 없어서 주양육자가 전적으로 혼자 자녀를 키워야하는 상황이다. 자녀를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경우는 없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쓰레기를 버리거나 집근처 마트를 잠깐 가게 되는 경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잠시 돌보게 하고, CCTV를 집안에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희망하는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에게는 좀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 마련, 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에서 자비 부담 지원, 집 근처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수급 양부모가구(6명) 중 3가구는 생계급여는 받지 않고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 수입이 있거나 배우자와 자영업을 하는 등 소득이 있었다. 아프거나 너무 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가구의 자녀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다. 이용시간도 수급 한부모가구와 유사하게 늦게까지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었다. 의료급여 1종이지만 자부담이 부담되는 자녀의 자폐치료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을 희망하였다.

비수급 한부모가구(3명)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수급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외벌이이다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고 한명의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불안정하였다. 또한 근거리에 부모나 친인척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류를 하는 지인도 거의 없는 편이라 산후조리, 긴급돌봄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는 더욱 지원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는 크기에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비수급 양부모가구(5명)의 경우 맞벌이이거나 남편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한편 이들도 미래의 교육에 대한 정보부족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어린이집 학부모들과는 가벼운 교류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 가족 여행을 자주 가고 있었다.

# V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01 정책목표

02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03 세부 정책과제

# 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 1. 정책목표

###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육아정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으로서 안착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원가족을 초청 또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출산, 육아를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 일반 남한 주민들도 육아가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서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은 비중이 작다.

2021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이나 이에 기반을 두어서 수립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일부였다. 3차 기본계획에서 총 24개 정책과제 중 가정지원정책은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5-6 정책과제) 한 개뿐이다. 내용을 보면, 탈북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원이 주를 이루며(5-6 정책과제 제외한 나머지 정책과제들) 어린 자녀의 육아를 위한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뿐이다(본고 그림 Ⅱ-1-3 참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서 이들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정의 육아지원은 주양육자의 취업활동을 가능케 할 뿐더러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애초기단계부터 교육·보육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본인은 건강도 안 좋고, 우울수준도 높지만, 자녀양육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양육 관련한 지표들, 예를 들어,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가족관계는 일반가정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주관적으로 측정한 결과이지만,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자녀를 잘 키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는 달리, 자녀에게 신체적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도 나름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는 일반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구체적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희망교육수준이 일반가정보다 높았으나, 희망교육수준과 실제교육수준의 괴리는 컸다. 반면, 일반가정은 희망교육수준과 실제교육수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일반가정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 위주로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높은 교육열을 인지하여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지원을 강화해서 생애초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가사나 육아와 같은 생활적 도움이 취약했다.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은 나름 노력하지만,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혼자 주는 시간이 가장 길어서 사고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겠다.

##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물질적 환경 격차 완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도모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결핍지수와 가정박탈지수 모두 일반가정보다 상당히 높았다. 즉, 물질적 환경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아동 모두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에서도 수급가구, 한부모가구의 결핍과 박탈지

수는 더 높아서 가장 취약한 가정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일반가정보다 취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유형별로 일반가정과 비교하였는데 특히,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핍과 박탈지수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수급과 한부모가구가 일반가정의 수급과 한부모가구보다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물질적 환경뿐 아니라 미래대비 저축이나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수급과 한부모 가구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물질적 환경 외에도 사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 안전에 대한 만족도, 인간관계, 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10점 척도의 6개 문항) 등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많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인 다른 취약가정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특히, 수급 및 한부모가구의 물질적 환경 격차를 줄이는 의식주, 의료, 교육, 문화생활, 미래대비 등 다각적인 복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2.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

### 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통합적 지원범위 확대

대표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의료, 상담·치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통합적 육아지원은 지원범위를 의식주,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교육, 취업 등 생활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박탈지수 영역 참조).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은 일반 취약계층 가정과는 달리,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양육자의 특성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출생 및 성장 경험, 탈북, 중국 체류 경험, 남한 입국, 입국 후 새로운 가정 형성 등등 북한이

탈주민 주양육자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취약가정의 통합적 지원정책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 나. 보다 세밀한 맞춤형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대체로 수급과 한부모 가구가 육아를 비롯한 생활전반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유형화하여 이에 맞는 육아지원정책을 제공한다.

수급 한부모가구, 수급 양부모 가구, 비수급 한부모가구, 비수급 양부모가구로 유형화할 수 있는 각 유형에 따라 니즈가 조금씩 달랐다. 경제력 기준으로 가장 취약한 수급 한부모 가구에서부터 가장 양호한 비수급 양부모 가구까지 니즈의 편차와 종류가 다르므로 각 가구유형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표 Ⅴ-2-1〉 북한이탈주민 가정유형별 영유아 지원방안**

<table>
<tr><th>가구구분</th><th>통합적 육아지원분야</th><th colspan="2">현행 지원제도 개선(확대)</th></tr>
<tr><td>수급 한부모 가구</td><td>상담(주양육자 우울증)<br>건강(주양육자, 자녀)<br>취업지원(공공근로 우선)<br>산모도우미 지원<br>공공산후조리원 우선권 부여<br>돌봄공백지원<br>육아정보제공, 부모교육<br>주택지원(조건부수급자 限)</td><td rowspan="2">*탈북민 의료지원서비스 확대(3-2) 대상 추가<br>: 탈북민 가정 자녀의 치과치료<br><br>*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대상(3-4) 추가<br>: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민 취약 가정</td><td rowspan="3">*어린이집·유치원 입소 1순위부여<br><br>*남북하나재단 학습지 지원 대상 확대<br>: 초등학생에서 취학 전 자녀(만 5세 이상)/탈북 수급가구 우선 혜택</td></tr>
<tr><td>수급 양부모 가구</td><td>건강(주양육자, 자녀)<br>취업지원<br>육아정보제공, 부모교육<br>주택지원(조건부수급자 限)</td></tr>
<tr><td>비수급 한부모 가구</td><td>산모도우미 지원<br>공공산후조리원 우선권 부여<br>돌봄공백지원<br>:아이돌보미 우선 배정<br>육아정보제공, 부모교육</td><td></td></tr>
<tr><td>비수급 양부모 가구</td><td>육아정보제공, 부모교육</td><td></td><td></td></tr>
</table>

주: 1) 괄호안 번호는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의 정책과제 번호임.
2) 진하게 표시는 해당 가구에서 우선 지원정책을 의미함.

## 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교육열이 높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다. 그런데 저축, 보험 등 미래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통해 미래를 꿈꾸지만, 이를 위한 실제 노력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희망찬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가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탈북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를 근로소득은 없지만 유자녀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도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25] 수급가구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화비용을 매달 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화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해 주고, 이 만큼의 비용을 강제(의무) 저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 라. 육아지원정책 전달체계 명료화 필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다. 그런데 육아 및 교육·보육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주무부처이다. 취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은 북한출신 주민에 한정하므로 남한에서 태어난 영유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영유아 자녀는 일반가정의 영유아와 동일한 지원정책을 받는다. 북한이탈주민 가정도 일반가정과 동일한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탈북 한부모 가정도 일반 한부모 가정과 동일한 지원정책을 받는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은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범위가 확대될수록 담당부처가 다원화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부처 간의 협업 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느냐이다.[26] 현행 탈북여성의 유일한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탈북여성이 어느 정

25) 2019년도에 감사원이 통일부를 감사한 결과 중,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중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중도해지한 경우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에 매칭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통보하였다(감사원, 2020.3: 26; 이윤진 외, 2020: 48에서 재인용).

26) 2019년도에 감사원의 통일부 감사결과 중, 통일부는 고용노동부에게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전입정보, 직업상담결과, 직업훈련 심화교육 결과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음(감사원, 2020.3: 17-18; 이윤진 외, 2020: 47에서 재인용).

도 이용하고 있는 지 등의 기본 정보를 여가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육아지원정책은 통일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통일부 산하의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에서 육아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는 통일부 전달체계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육아정책 담당 주무부처가 아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지가 않는 상황에서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관련 정보와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개최한 국회토론회(3차 정책연구실무협의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주무부처로 행정안전부를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육아지원정책이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3. 세부 정책과제

### 가.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 주양육자의 상담치료 체계적 제공: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주양육자의 심신의 건강수준에 따라 자녀양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같이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등 인적 인프라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양육자의 건강수준은 자녀에게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한부모, 수급가구의 경우 더 심각했다.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다(13.0%)(남북하나재단, 2020b: 47). 자살충동 경험의 이유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특히, 여성(29.9%)이 남성(25.1%)보다 이러한 이유로 자살충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남북하나재단, 2020b: 142).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수준은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 남한 정착의 어려움 등등 힘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렵다.

하나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퇴소 후 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의 병

원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심리 주치의사업”(안)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수급 및 한부모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정부도 상담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이후 탈북민의 심리치료를 위해 기존의 ‘마음숲’ 상담센터와 연계 운영, 산림청과 협업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숲체험)을 제공(관계부처 합동, 2021: 30)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유아 자녀를 출산, 육아하는 탈북민은 남한에서의 정착이 어느 정도 경과된 경우들이다. 따라서 최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치료 과정에서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나.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 우선 영유아 치과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치과치료를 비용부담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이다. 건강한 영구치를 위해서는 유치부터 관리가 필요하지만, 치과치료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에서도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나왔다.

현행 “(3-2 정책과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관계부처합동, 2021: 26) 지원정책에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이 아이들은 치과치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다. 탈북 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아이돌보미 우선 배정 및 비용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가사나 육아와 같은 생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거의 없다. 자녀를 혼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혼자 두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일반가정에 비해 길었다. 면담조사에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한 경우들이 나왔다. 잠깐이라도 자녀를 혼자 둘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했다고 한다.

현행 유일한 북한이탈주민 육아지원정책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탈북가정 중에서도 비수급 한부모 가정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족자원이 부족한 이들 가정의 돌봄공백을 메꾸고 비수급 상태를 유지하는 데(경제적 자립) 있어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정의 주양육자는 일

반가정의 주양육자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늦게까지 맡기기보다는 다른 또래와 비슷한 시간대에 하원하고 집에서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가정에 아이돌보미 우선 배정을 위하여 현행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아이돌보미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취학 전 자녀에 한하여 정부지원 부담을 올리고 본인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다. 라형은 제외한다(표 V-3-1 참조).

본 조사에서 이들 가정의 평균 가구소득이 코로나19 이후 기준으로 약 210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2021년 기본중위소득 3,088,079원(2인 가구 기준: 표 I-3-3 참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형과 나형 중심으로 정부 부담 비율을 전향적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다. 영아종일제도 시간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정부지원 부담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은 통일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표 V-3-1〉 탈북 비수급 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보미 비용 부담 조정(안)**

| 유형 | 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 | 현행(시간제 취학 전 기준) | | 변경안(시간제 취학전 기준) | |
|---|---|---|---|---|---|
| | | 정부부담 | 본인부담 | 정부부담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95% | 5% |
| 나형 | 120% 이하 | 55% | 45% | 75% | 25% |
| 다형 | 150% 이하 | 15% | 85% | 25% | 75% |
| 라형 | 150% 초과 | | 100% | - | 100%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p. 56. 표를 기반으로 안을 제시함.

## 라.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도움, 생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우자 없는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 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산모도우미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출산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리 책정되어 있다. 이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우선 순위 기준으로 가구유형(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을 추

가할 것을 제안한다.

## 마. 탈북 수급가구 우선 유아 교육서비스 지원

### 1) 방문학습지 지원

취학 일년 전 만 5세 유아 대상으로 기본적인 한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으로 방문학습지 및 멘토링, 화상영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방문학습지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1년 기준으로 지원하고 중복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현장전문가 간담회 결과)고 했다.

앞서 진술했듯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교육열은 높고,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우리말 교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기관도 있으나, 정규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는 없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높은 반에서 한글을 가르친다. 북한의 교육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리말을 가르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렇다고 사교육으로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있다고 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면 방문학습지 서비스는 탈북 수급·한부모 가정의 취학 일년 전 유아(만 5세 이상)에게 우선 지원해서 교육초기단계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 2) 어린이집·유치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평균 26만원으로 집계되었다(본 설문조사 결과). 수급가구도 약 23만원을 자녀의 교육·보육비 매달 지불하고 있었다(본 설문조사 결과). 2020년 연구에서도 월 100만원 내외의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월 4~5만원, 많게는 월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어린이집 특성화프로그램비로 내고 있었다(이윤진 외, 2020: 92). 2020년 연구에서 정책방안으로 어린이집·유치원의 방과후 프로그램비용을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주민법」 시행령[27]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이윤진 외, 2020: 92). 초·중학교와는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교육·보육기관이 아니라서 동일한 법적 적용은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유아들이 다니고 있으므로 수급(저소득층 포함) 가정의 유아(영아 제외)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희망하는 교육·보육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입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면담조사에서도 원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거나 집에서 멀어서 못 보내는 경우가 나왔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12개 유형 가정의 영유아[28]가 제시되어 있다. 2순위에는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보건복지부, 2021: 71)로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입소 1, 2순위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은 1순위로 입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입소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에 포함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27) 동시행령 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에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의 자녀에 대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준비·보충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윤진 외, 2020: 92).

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국가유공자 및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자의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를 이용하는 영유아(보건복지부, 2021: 69-70).

## 사.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자산형성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의 취업의지 고취 및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다. 매년 가입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0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인원은 2,099명으로(관계부처 합동, 2021: 44) 2014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7,630명 중 이 통장에 가입한 탈북민은 약 27.5%이며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는 6%에 불과하다. 이 제도의 골자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을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최대 월50만원, 최장 4년)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그것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에게 이용가능한 제도이다.

이 통장을 근로소득은 없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한다. 탈북 수급가구도 자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화비용을 매달 내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화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해 주고, 해당 비용을 강제(의무) 저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월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장명의는 자녀이름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이(만 18세 이상) 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한다.

## 아.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이들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상담, 양육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의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부모의 흡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다.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신체적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면담조사 결과). 한편, 자녀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일반가정에 비해 많았고 책읽기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과 저녁을 거르는 경우도 일반가정에 비해 많았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부모교육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정책 대부분은 알고

있으나 아이돌봄 서비스와 드림스타트 사업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57%, 50%로 낮았다(본 설문조사 결과). 정책이나 제도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기보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육아지원정책 관련 정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들로부터 육아정보를 얻고 있었는데(면담조사 결과), 수많은 육아정보들 속에서 공신력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 자.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의 맞춤형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에서 취업정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정책에 대해 84%가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한 경우는 약 38%에 그쳤다(본 설문조사 결과). 아무리 좋고 다양한 취업정책을 정부가 제공하더라도 정책수요자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의하면, '육아부담'이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에게 정부의 현행 취업정책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양육자들 중 향후 취업을 위해 학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면담조사 결과). 지금 당장은 육아로 취업은 어렵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취업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급의 의존도도 높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기초생활보장 종료 예상 시기로 1~3년 이내를 가장 많이 응답한 점, '계속 지원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응답에서 일반 한부모가정(44.8%)보다 탈북 한부모가정(19.3%)이 낮게 나왔다(본 설문조사 결과).

현행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 중 '탈북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4-3)을 여가부, 고용부, 통일부가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2018년 334명, 2019년 301명, 2020년 20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38). 정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촘촘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탈북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서 취업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4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상담사와 1:1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처음 도입해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밀착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란 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하나센터,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 신문,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등)에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차.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은 여성이 많고, 특히 가임기의 젊은 여성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했고 결혼·출산을 하는 생애단계에 접어들었다. 본 면담조사에서도 청소년기에 남한에 와서 결혼, 출산한 사례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탈주민 모집단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개인보다는 가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개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한다.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아동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도 이들 가정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에 명시하고 3년마다 실시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배주현, 성경(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근, 전호성, 한은희, 서지현(2020). 탈북민 취약계층 (생계, 의료) 지원 현황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2020a).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 10년.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sc_board_seq=60&sc_category_text=%EA%B8%B0%ED%83%80%EA%B0%84%ED%96%89%EB%AC%BC&sc_searchCnd=title&page=1(2020.6.7.인출)

남북하나재단(2020b).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남북하나재단(2021).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정, 유민상, 이봉주(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원순, 김동훈, 김승진(2016). 북한이탈주민 자녀양육지원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박정란(2009).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8집. 97-135.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19). 2019 드림스타트 통계보고서.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유해미, 박은정, 정은희, 엄지원(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Ⅰ):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구자연, 최윤경, 정정호(202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연구(Ⅱ):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김화순, 김민주(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정림, 김경미(2012). 북한이탈주민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 육

아정책연구소.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2018).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민정원, 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의 건강과 영양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민현숙, 이세원, 송윤정, 소수정(2010).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장명림, 이윤진, 이정림, 이미화, 전혜정, 민현숙, 박수연, 김주연, 정주희, 송윤정(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정익중(2020). 코로나19 전후 아동 일상변화와 행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제17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13-37.

조영아, 김현아, 김요완(2014).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적응 어려움과 대처 방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55-179.

통일부(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보도자료(2021.5.18.). 「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4). 보건복지포럼 통권 246호. 국내 보건복지 동향. 105-124.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최여희(2010).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근거이론접근. 사회복지연구, 41(1). 307-343.

**【참고 웹사이트】**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449&reportFrmRootNo=31501#toc-123,(2021.6.17. 인출)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내 사업안내-기관부설-서울북부하나센터 http://www.gongreung.or.kr/main/sub.html?pageCode=12, (2021.6.17.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https://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1834 (2021.9.27. 인출)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reahana.or.kr/main_business/sub06.jsp (2021.6.17. 인출)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2021.3.22.인출)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2021.6.14. 인출)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사회보장지원제도,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ocial/(2021.10.25. 인출)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교육지원제도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education/(2021.10.25. 인출)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 북한이탈주민정책 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2021.12.3.인출)

e-나라지표 중 한부모 가구 비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2021.3.22. 인출)

**【신문기사】**

연합뉴스(2019.9.12.). 다문화 가구원 100만명 돌파…국내 인구 2% 차지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보호기준 등)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실태조사 등)

# Abstract

## A Study on Support for early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for Reducing the Social Gap

Yun-Jin Lee, Changhyun Park, Moonjeong Kim

In this study, in order to empirically understand the growth and development and rearing environment of infants and toddlers from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infants and toddlers from ordinary families and general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to promote the healthy and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As a result of a survey of 151 primary caregivers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was generally weak. It was much worse than the general one. The main caregiv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ere often unhealthy or severely depressed.

However,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had higher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than ordinary families, and they were following the basic rules for the safety of their children. The number was small. We could see the positivity, hope, and health of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3 policy goals, 4 policy measures, and 12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o provide a fair starting point for infants and toddlers from North Korean refugee familie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ves, and to support the health and economic support of their primary care-givers.

Keyword: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Early Children, Reducing the Social Gap

# 부록

부록 1.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대상 설문지
부록 2.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대상 면담지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통합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로 인해 취업활동이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명 한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탈북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탈북민 가정의 어린 자녀양육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는 생후 4개월~71개월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생후 4개월~71개월 : 출생년월을 기준으로, 2015년 8월생부터 2021년 3월생까지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예 ☐ 아니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IRB 동의서 양식 삽입

**SQ1) 귀댁에는 아이의 생일을 기준으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조사중단

**SQ2) 귀하의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1. 북한 2. 중국 → 조사중단 3. 남한 → 조사중단 4. 기타 (적을 것:_____)

**SQ3) 귀하께서는 해당 아동의 주양육자입니까?** 1. 예 → SQ4)로 이동 2. 아니오 → 조사중단

연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조사수행기관 Nielsen 닐슨컴퍼니코리아

■ 조사 관련 문의처 : 닐슨컴퍼니코리아(유) || 담당자 ○○○ || ☎ 전화번호 02-○○○○-○○○○

# 1 가구 일반사항

**문1) 귀댁의 가구원 현황을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 번호 | 가구원 이름 | 문1-1) 본인과의 관계 | 문1-2) 출생 국가 | 문1-3) 남한 입국 연도 | 문1-4) 성별 | 문1-5) 태어난 연도 | 문1-6) 혼인상태 | 문1-7) 교육수준(최종학력) | 문1-8) 장애유무 | 문1-9) 근로능력 (15세미만인 경우는 0으로 기재) | 문1-10)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앞장 가구원 번호는 이것으로 기록 ↓ | 본인부터 기록 (※ 면접원: 가구원명을 밝히기 곤란해 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10. 본인<br>20. 본인의 배우자<br>01. 본인의 아버지<br>02. 본인의 어머니<br>03. 배우자의 아버지<br>04. 배우자의 어머니<br>11. 본인의 첫째자녀<br>12. 본인의 둘째자녀<br>13. 본인의 셋째자녀<br>90. 그 외 친인척 | 1. 북한<br>2. 중국<br>3. 남한<br>4. 기타 | 남한 출생자는 작성하지 않음<br>※ 연도 4자리 기재 | 1. 남<br>2. 여 | 주민등록상 생년 기재 ※ 4자리 | 0. 비해당(17세 이하)<br>1. 유배우 (현재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1로 응답) (북한, 중국, 제3국에 배우자가 머물고 있는 경우 6. 기타로 응답)<br>2. 사별<br>3. 이혼<br>4. 별거 (응답자 본인 3, 4 응답시 아래 문1-12 응답)<br>5. 미혼(18세 이상)<br>6. 기타(적을 것: ) | 1. 미취학(만7세이하만 가능)<br>2. 무학(만8세이상만 가능)<br>3. 초등학교/소학교(인민학교) 재학/졸업<br>4. 중학교/초급중학교 재학/졸업<br>5. 고등학교/고급중학교 재학/졸업<br>6. 전문대학 재학/졸업<br>7.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br>8. 모름 | 1. 있다 (장애인)<br>2. 없다 (비장애인)<br>*장애인등록증 소지 기준으로 응답 | 0. 만15세 미만<br>1. 근로가능<br>2.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부업 가능)<br>3. 단순근로미약자 (집안일만 가능)<br>4. 근로능력 없음 (중증장애, 질병 또는 부상 및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및 기타) | 1. 상용직 임금근로자<br>2. 임시직 임금근로자<br>3. 일용직 임금근로자<br>4.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br>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br>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br>7. 무급가족종사자<br>8. 실업자(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br>9. 비경제활동인구 (근로무능력, 가사, 구직포기, 학업, 양육, 간병, 근로의사없음 등) |
| 1. 본인 | | | | 년 | | 년 | | | | | |
| 2 | | | | 년 | | 년 | | | | | |
| 3 | | | | 년 | | 년 | | | | | |
| 4 | | | | 년 | | 년 | | | | | |
| 5 | | | | 년 | | 년 | | | | | |

| 가구원 번호 | 가구원 이름 | 문1-1) 본인과의 관계 | 문1-2) 출생 국가 | 문1-3) 남한 입국 연도 | 문1-4) 성별 | 문1-5) 태어난 연도 | 문1-6) 혼인상태 | 문1-7) 교육수준(최종학력) | 문1-8) 장애유무 | 문1-9) 근로능력 (15세미만인 경우는 0으로 기재) | 문1-10)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
| 6 | | | | 년 | | 년 | | | | | |
| 7 | | | | 년 | | 년 | | | | | |
| 8 | | | | 년 | | 년 | | | | | |
| 9 | | | | 년 | | 년 | | | | | |

**문 1-11) 조사대상 아동의 생년월일 및 연령(월령)**

생년월일 □□□□ 년 □□ 월 □□ 일

**문 1-12)** 문1-6에서 '이혼'이나 '별거'이신 경우 전(前)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계십니까?

1.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 가끔 받고 있다 3. 받고 있지 않다

## 2 건강

**문2) △△(이)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문3) △△(이)는 출생 시 저체중이었습니까? (저체중 기준: 2.5 kg미만)**

1. 예 2. 아니오 3. 모름

**문4) 현재 △△(이)의 몸무게와 키는 얼마입니까? (소수 첫째자리 기재)**

4-1) 몸무게 [ ][ ].[ ] kg 문4-2) 키 [ ][ ][ ].[ ] ㎝

(programmer guide: 정수 단위는 필수응답. 소수점 이하 단위는 선택응답(무응답 가능, 또는 0 auto punching))

**문5) 다음 문항을 잘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 비해당 |
|---|---|---|---|
| 5-1. 임신 기간 동안 음주를 하였다 | 1 | 0 | 8 |
| 5-2. 임신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다 | 1 | 0 | 8 |
| 5-3.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었다 | 1 | 0 | 8 |
| 5-4. 임신 기간 동안 아기의 장애 유무 검사(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였다 | 1 | 0 | 8 |

**문6) △△(이)의 수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 모유만 먹였다
2. 분유만 먹였다
3. 모유와 분유를 섞어서 먹였다
4. 모름

**문7) 지난 1년간(2020년 한해), △△(이)가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치과치료, 치과검사 제외)**

1. 예.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문7-1)로 갈 것
2.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문8)로 갈 것
3.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문8)로 갈 것

**문7-1) [문7의 1. 응답자] 지난 1년간(2020년 한해), 필요한 병의원 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이유(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3.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4. 보호자가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해서
5.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
6.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정보부족)

7.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8.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9. 기타 (  )

**문 8) 지난 1년간(2020년 한해), △△(이)가 필요한 치과치료나 검사를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1. 예.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다 → 문8-1)로 갈 것
2. 아니오. 받지 못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 문9)로 갈 것
3.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 문9)로 갈 것

**문 8-1) [문8의 1. 응답자] 지난 1년간(2020년 한해), 필요한 치과치료나 치과검사를 받지 못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 경제적 이유(비용이 부담스러워서)
2. 치과가 너무 멀어서
3.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워서
4. 보호자가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해서
5. 검사를 받을 정도로 아프지 않아서
6.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정보부족)
7.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8.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9. 기타 (  )

**문9) △△(이)는 현재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반일제 이상 기관이란 주 3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는 곳임.**

1.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2.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3. 기타(적을 것: )
4. 아무 곳에도 보내지 않음

**(programmer guide: 1, 2, 3, 4는 중복하여 선택할 수 없음. 4는 무조건 단수. 1/2와 3은 중복선택 가능→모두 중복선택 불가)**

**문10) △△(이)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 몇 시에 잡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문10-3, 문10-4만 응답)

**[문9 1, 2, 3 중 하나이상 응답자만]** (24시 기준)

| | | | | |
|---|---|---|---|---|
|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평일** (주중/평일기준) | 10-1. 기상시각 | □□시 | 10-2. 취침시각 | □□시 |

**[문9 4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만]** (24시 기준)

| | | | | |
|---|---|---|---|---|
| **평상 시** | 10-3. 기상시각 | □□시 | 10-4. 취침시각 | □□시 |

**문11) △△(이)의 수면습관은 어떻습니까?**

1. 쉽게 잠이 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2. 쉽게 잠이 드나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3. 쉽게 잠들지 못하나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
4. 쉽게 잠들지 못하고 중간에 종종 깨곤 한다

**문12) △△(이)는 세끼를 모두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답변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평상시를 기준으로 문12-4,문12-5,문12-6만 응답)**

| | | | 거의 먹지 않는다 | 먹는 편이다 | 항상 먹는다 | 모른다 |
|---|---|---|---|---|---|---|
| [문10 ① 응답자만 제시] | 유치원/어린이집에 가는 평일 | 12-1. 아 침 | 1 | 2 | 3 | 9 |
| | | 12-2. 점 심 | 1 | 2 | 3 | 9 |
| | | 12-3. 저 녁 | 1 | 2 | 3 | 9 |
| [문10 ② 아니오 응답자만 제시] | 평상시 | 12-4. 아 침 | 1 | 2 | 3 | 9 |
| | | 12-5. 점 심 | 1 | 2 | 3 | 9 |
| | | 12-6. 저 녁 | 1 | 2 | 3 | 9 |

**※ 문13번부터 17번까지는 귀하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13) 귀하(응답자)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좋다 2. 좋다 3. 보통이다 4.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문14) 지난 1년 동안(2020년 한해) 귀하는 평균적으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1. 전혀 마시지 않았다
2. 한달에 1회 미만(몇 달에 한번 정도)
3. 한달에 1회
4. 한달에 2~3회(일주일에 1회 미만)
5. 일주일에 2~3회
6. 일주일에 4회 이상

**문15) 본인과 배우자는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15-2 응답하지 않습니다 (로직처리)**

| | 현재 매일 피움 | 가끔 피움 |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음 | 피운적 없음 |
|---|---|---|---|---|
| 15-1. 본인 | 1 | 2 | 3 | 4 |
| 15-2. 배우자 | 1 | 2 | 3 | 4 |

**문16) 아래에 사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0은 계단의 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삶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0은 계단의 맨 꼭대기를 위미하며 이는 당신의 삶이 가장 최고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당신은 사다리의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 10 | 최상의 삶 |
| ○ | 9 | |
| ○ | 8 | |
| ○ | 7 | |
| ○ | 6 | |
| ○ | 5 | |
| ○ | 4 | |
| ○ | 3 | |
| ○ | 2 | |
| ○ | 1 | |
| ○ | 0 | 최악의 삶 |

**문17)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 극히 드물다 (1일 미만) | 가끔 있었다 (1-2일) | 종종 있었다 (3-4일) | 대부분 그랬다 (5일 이상) |
|---|---|---|---|---|
| 17-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1 | 2 | 3 | 4 |
| 17-2. 비교적 잘 지냈다 | 1 | 2 | 3 | 4 |
| 17-3. 상당히 우울했다 | 1 | 2 | 3 | 4 |
| 17-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1 | 2 | 3 | 4 |
| 17-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1 | 2 | 3 | 4 |
| 17-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1 | 2 | 3 | 4 |
| 17-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1 | 2 | 3 | 4 |
| 17-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 17-9. 마음이 슬펐다 | 1 | 2 | 3 | 4 |
| 17-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1 | 2 | 3 | 4 |
| 17-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1 | 2 | 3 | 4 |

**문18) 귀하는 귀하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3-1 발달 및 교육 (월령별 발달단계)

| 월령 | 4~5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1년.2월-2021년.3월인 경우 제시) |
|---|---|---|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2. 눈앞에서 장난감을 움직이면 시선이 장난감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 3 | 2 | 1 | 0 |
| 18-3.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관심을 돌린다. | 3 | 2 | 1 | 0 |
| 18-4. 자기 손과 손가락을 자세히 바라본다. | 3 | 2 | 1 | 0 |
| 18-5. 딸랑이를 흔들거나 바라보거나 입에 넣는 등 딸랑이를 가지고 논다. | 3 | 2 | 1 | 0 |
| 18-6. 딸랑이나 숟가락과 같은 물건을 바닥에 두드리면서 논다. | 3 | 2 | 1 | 0 |
| 18-7.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곳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8. 친숙한 어른이 안으려고 하면 팔을 벌린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아", "우", "이" 등 의미 없는 발성을 한다. | 3 | 2 | 1 | 0 |
| 19-2. 아이를 어르거나 달래면 옹알이로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3. 웃을 때 소리를 내며 웃는다. | 3 | 2 | 1 | 0 |
| 19-4. 장난감이나 사람을 보고 소리를 내어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5. 두 입술을 떨어서 내는 투레질 소리(젖먹이가 하는 '푸푸' 같은 소리)를 낸다. | 3 | 2 | 1 | 0 |
| 19-6. "브", "쁘", "프", "므"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 3 | 2 | 1 | 0 |
| 19-7. "엄마" 또는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의미 없이 내는 소리도 포함). | 3 | 2 | 1 | 0 |
| 19-8. 아이에게 "안돼요."라고 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목소리에 반응한다. | 3 | 2 | 1 | 0 |

**월령** | **6~7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12월-2021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가 새로운 소리가 들리면 거기로 관심을 돌린다. | 3 | 2 | 1 | 0 |
| 18-2. 자기 손과 손가락을 자세히 바라본다. | 3 | 2 | 1 | 0 |
| 18-3. 굴러가는 공을 따라서 계속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4. 딸랑이나 숟가락과 같은 물건을 바닥에 두드리면서 논다. | 3 | 2 | 1 | 0 |
| 18-5.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곳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6. 친숙한 어른이 안으려고 하면 팔을 벌린다. | 3 | 2 | 1 | 0 |
| 18-7. 그림책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관심 있게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8.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아", "우", "이" 등 의미 없는 발성을 한다. | 3 | 2 | 1 | 0 |
| 19-2. 아이를 어르거나 달래면 옹알이로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3. 웃을 때 소리를 내며 웃는다. | 3 | 2 | 1 | 0 |
| 19-4. 두 입술을 떨어서 내는 투레질 소리(젖먹이가 하는 '푸푸' 같은 소리)를 낸다. | 3 | 2 | 1 | 0 |
| 19-5. "브", "쁘", "프", "므"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 3 | 2 | 1 | 0 |
| 19-6. "엄마" 또는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의미 없이 내는 소리도 포함된다). | 3 | 2 | 1 | 0 |
| 19-7. 아이에게 "안돼요."라고 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목소리에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8. "무무", "바바바", "다다", "마마마" 등의 소리를 반복해서 발성한다. | 3 | 2 | 1 | 0 |

**월령** | **8~9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10월-2020년.1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딸랑이나 숟가락과 같은 물건을 바닥에 두드리면서 논다. | 3 | 2 | 1 | 0 |
| 18-2. 장난감이 떨어져 있는 곳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3. 친숙한 어른이 안으려고 하면 팔을 벌린다. | 3 | 2 | 1 | 0 |
| 18-4. 그림책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관심 있게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5.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 3 | 2 | 1 | 0 |
| 18-6.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낸다. | 3 | 2 | 1 | 0 |
| 18-7.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 하면, 아이가 다시 그 소리를 따라 한다. | 3 | 2 | 1 | 0 |
| 18-8.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게 한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브", "쁘", "프", "므"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 3 | 2 | 1 | 0 |
| 19-2. "엄마" 또는 "아빠"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의미 없이 내는 소리도 포함된다). | 3 | 2 | 1 | 0 |
| 19-3. 아이에게 "안돼요."라고 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목소리에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4. "무무", "바바바", "다다", "마마마" 등의 소리를 반복해서 발성한다. | 3 | 2 | 1 | 0 |
| 19-5.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빠이빠이", "짝짜꿍", "까꿍"을 시키면 최소한 한 가지를 한다. | 3 | 2 | 1 | 0 |
| 19-6. 엄마에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7.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소리(자음 옹알이)를 낸다. (예: "다", "가", "모", "버", "더" 등) | 3 | 2 | 1 | 0 |
| 19-8.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주세요.", "오세요.", "가자.", "밥 먹자."를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은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월령 | 10~11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8월-2020년.9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친숙한 어른이 안으려고 하면 팔을 벌린다. | 3 | 2 | 1 | 0 |
| 18-2. 그림책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관심 있게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3.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 3 | 2 | 1 | 0 |
| 18-4.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낸다. | 3 | 2 | 1 | 0 |
| 18-5.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 하면, 아이가 다시 그 소리를 따라 한다. | 3 | 2 | 1 | 0 |
| 18-6.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게 한다. | 3 | 2 | 1 | 0 |
| 18-7.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3~4분 정도 논다. | 3 | 2 | 1 | 0 |
| 18-8.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장난감을 컵으로 덮고 감추면, 컵을 열어 장난감을 찾는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아이에게 "안돼요."라고 하면, 짧은 순간이라도 하던 행동을 멈추고 목소리에 반응한다. | 3 | 2 | 1 | 0 |
| 19-2. "무무", "바바바", "다다", "마마마" 등의 소리를 반복해서 발성한다. | 3 | 2 | 1 | 0 |
| 19-3.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빠이빠이", "짝짜꿍", "까꿍"을 시키면 최소한 한 가지를 한다. | 3 | 2 | 1 | 0 |
| 19-4. 엄마에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5.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소리(자음 옹알이)를 낸다. (예: "다", "가", "모", "버", "더" 등) | 3 | 2 | 1 | 0 |
| 19-6.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주세요.", "오세요.", "가자.", "밥 먹자."를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은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9-7.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8. "좋다(예).", "싫다(아니오)."를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어 표현한다. | 3 | 2 | 1 | 0 |

**월령** | **12~13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6월-2020년.7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그림책에 재미있는 그림이 있으면 관심 있게 쳐다본다. | 3 | 2 | 1 | 0 |
| 18-2. 리듬에 맞추어 몸을 움직인다. | 3 | 2 | 1 | 0 |
| 18-3.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낸다. | 3 | 2 | 1 | 0 |
| 18-4.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 하면, 아이가 다시 그 소리를 따라 한다. | 3 | 2 | 1 | 0 |
| 18-5.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게 한다. | 3 | 2 | 1 | 0 |
| 18-6.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3~4분 정도 논다. | 3 | 2 | 1 | 0 |
| 18-7.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장난감을 컵으로 덮고 감추면, 컵을 열어 장난감을 찾는다. | 3 | 2 | 1 | 0 |
| 18-8.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예: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인형을 안거나 업거나 우유를 먹여 준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빠이빠이", "짝짜꿍", "까꿍"을 시키면 최소한 한 가지를 한다. | 3 | 2 | 1 | 0 |
| 19-2. 엄마에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3.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소리(자음 옹알이)를 낸다. (예: "다", "가", "모", "버", "더" 등) | 3 | 2 | 1 | 0 |
| 19-4. 원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5.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주세요.", "오세요.", "가자.", "밥 먹자."를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은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9-6. "좋다(예).", "싫다(아니오)."를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어 표현한다. | 3 | 2 | 1 | 0 |
| 19-7. "엄마", "아빠" 외에 말할 줄 아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예: '무(물)', '우(우유)'처럼 평소 아이가 일정하게 의미를 두고 하는 말) | 3 | 2 | 1 | 0 |
| 19-8. 보이는 곳에 공을 두고 "공이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공이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월령** | **14~15개월**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4월-2020년.5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상자 안에서 물건을 꺼낸다. | 3 | 2 | 1 | 0 |
| 18-2. 아이가 내는 소리를 어른이 따라 하면, 아이가 다시 그 소리를 따라 한다. | 3 | 2 | 1 | 0 |
| 18-3. 장난감에 있는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게 한다. | 3 | 2 | 1 | 0 |
| 18-4.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3~4분 정도 논다. | 3 | 2 | 1 | 0 |
| 18-5.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장난감을 컵으로 덮고 감추면, 컵을 열어 장난감을 찾는다. | 3 | 2 | 1 | 0 |
| 18-6.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예: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인형을 안거나 업거나 우유를 먹여 준다.) | 3 | 2 | 1 | 0 |
| 18-7.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은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한 조각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8. 아이에게 몸짓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로 지시하면 다른 방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예: "방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동작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주세요.", "오세요.", "가자.", "밥 먹자."를 말하면 두 가지 이상은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9-2. "좋다(예).", "싫다(아니오)."를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어 표현한다. | 3 | 2 | 1 | 0 |
| 19-3. "엄마", "아빠" 외에 말할 줄 아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예: '무(물)', '우(우유)'처럼 평소 아이가 일정하게 의미를 두고 하는 말) | 3 | 2 | 1 | 0 |
| 19-4. 엄마에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5. 보이는 곳에 공을 두고 "공이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공이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9-6. "아니"와 같이 싫다는 뜻을 가진 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7. 아이에게 익숙한 물건(전화기, 자동차, 책 등)을 그림에서 찾으라고 하면 손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8. 이름을 듣고 해당 동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 3 | 2 | 1 | 0 |

**월령** | **16~17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20년.2월-2020년.3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자신이 좋아하는 한 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3~4분 정도 논다. | 3 | 2 | 1 | 0 |
| 18-2.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작은 장난감을 컵으로 덮고 감추면, 컵을 열어 장난감을 찾는다. | 3 | 2 | 1 | 0 |
| 18-3.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예: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인형을 안거나 업거나 우유를 먹여 준다.) | 3 | 2 | 1 | 0 |
| 18-4.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은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한 조각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5. 아이에게 몸짓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로 지시하면 다른 방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예: "방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 | 3 | 2 | 1 | 0 |
| 18-6.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한 개를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 3 | 2 | 1 | 0 |
| 18-7. 두 개의 연속적인 지시를 따른다. (예: "휴지 가지고 와서 물을 닦아.") | 3 | 2 | 1 | 0 |
| 18-8. 그림책에 나온 그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찾는다. (예: 열쇠 그림을 보고 실제 열쇠를 찾는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좋다(예).", "싫다(아니오)."를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흔들어 표현한다. | 3 | 2 | 1 | 0 |
| 19-2. "엄마", "아빠" 외에 말할 줄 아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예: '무(물)', '우(우유)'처럼 평소 아이가 일정하게 의미를 두고 하는 말) | 3 | 2 | 1 | 0 |
| 19-3. 엄마에게 "엄마", 혹은 아빠에게 "아빠"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4. 보이는 곳에 공을 두고 "공이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공이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9-5. "아니"와 같이 싫다는 뜻을 가진 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6. 아이에게 익숙한 물건(전화기, 자동차, 책 등)을 그림에서 찾으라고 하면 손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7. "이름을 듣고 해당 동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 3 | 2 | 1 | 0 |
| 19-8. '엄마', '아빠' 외에 여덟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 3 | 2 | 1 | 0 |

**월령** | **18~19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9년.12월-2020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예: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인형을 안거나 업거나 우유를 먹여 준다.) | 3 | 2 | 1 | 0 |
| 18-2.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은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한 조각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3. 아이에게 몸짓으로 가리키지 않고 말로 지시하면 다른 방에서 물건을 가져온다.(예: "방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 | 3 | 2 | 1 | 0 |
| 18-4.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한 개를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 3 | 2 | 1 | 0 |
| 18-5. 두 개의 연속적인 지시를 따른다. (예: "휴지 가지고 와서 물을 닦아.") | 3 | 2 | 1 | 0 |
| 18-6. 그림책에 나온 그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찾는다. (예: 열쇠 그림을 보고 실제 열쇠를 찾는다.) | 3 | 2 | 1 | 0 |
| 18-7. 동물 그림과 동물 소리를 연결한다. | 3 | 2 | 1 | 0 |
| 18-8.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다섯 곳 이상을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팔 등)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보이는 곳에 공을 두고 "공이 어디 있어요?"하고 물어보면 공이 있는 방향을 쳐다본다. | 3 | 2 | 1 | 0 |
| 19-2. "아니"와 같이 싫다는 뜻을 가진 말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3. 아이에게 익숙한 물건(전화기, 자동차, 책 등)을 그림에서 찾으라고 하면 손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4. 이름을 듣고 해당 동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 3 | 2 | 1 | 0 |
| 19-5. '엄마', '아빠' 외에 여덟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 3 | 2 | 1 | 0 |
| 19-6.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예: 신발을 가리키며 "이게 뭐지"하고 물으면 신발이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7. 정확하지는 않아도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따라 말한다. (예: "까까 주세요", "이게 뭐야?"와 같이 말하면 아이가 따라 말한다.) | 3 | 2 | 1 | 0 |
| 19-8. '나', '이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 3 | 2 | 1 | 0 |

**월령** | **20~21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9년.10월-2019년.1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다른 사람의 역할을 흉내 낸다. (예: 부모님이 하는 것처럼 인형을 안거나 업거나 우유를 먹여 준다.) | 3 | 2 | 1 | 0 |
| 18-2.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은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한 조각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3. 두 개의 연속적인 지시를 따른다. (예: "휴지 가지고 와서 물을 닦아.") | 3 | 2 | 1 | 0 |
| 18-4.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세 곳을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등) | 3 | 2 | 1 | 0 |
| 18-5. 그림책에 나온 그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찾는다. (예: 열쇠 그림을 보고 실제 열쇠를 찾는다.) | 3 | 2 | 1 | 0 |
| 18-6. 동물 그림과 동물 소리를 연결한다. | 3 | 2 | 1 | 0 |
| 18-7. 두 개의 물건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8. 빨간, 노란, 파란 토막들을 섞어 놓으면 같은 색의 토막들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아이에게 익숙한 물건(전화기, 자동차, 책 등)을 그림에서 찾으라고 하면 손으로 가리킨다. | 3 | 2 | 1 | 0 |
| 19-2. 이름을 듣고 해당 동물의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낼 수 있다. | 3 | 2 | 1 | 0 |
| 19-3. '엄마', '아빠' 외에 여덟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 3 | 2 | 1 | 0 |
| 19-4.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예: 신발을 가리키며 "이게 뭐지"하고 물으면 신발이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5. 정확하지는 않아도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따라 말한다. (예: "까까 주세요", "이게 뭐야?"와 같이 말하면 아이가 따라 말한다.) | 3 | 2 | 1 | 0 |
| 19-6. '나', '이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7.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붙여 말한다. (예: "엄마 우유.", "장난감 줘.", "과자 먹어.") | 3 | 2 | 1 | 0 |
| 19-8. 단어의 끝 억양을 높임으로써 질문의 형태로 말한다. | 3 | 2 | 1 | 0 |

**월령** | **22~23개월**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9년.8월-2019년.9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두 개의 연속적인 지시를 따른다. (예: "휴지 가지고 와서 물을 닦아.") | 3 | 2 | 1 | 0 |
| 18-2.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세 곳을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등) | 3 | 2 | 1 | 0 |
| 18-3. 그림책에 나온 그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찾는다. (예: 열쇠 그림을 보고 실제 열쇠를 찾는다.) | 3 | 2 | 1 | 0 |
| 18-4. 동물 그림과 동물 소리를 연결한다. | 3 | 2 | 1 | 0 |
| 18-5. 두 개의 물건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6. 빨간, 노란, 파란 토막들을 섞어 놓으면 같은 색의 토막들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7.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이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세 조각 이상 맞춘다. | 3 | 2 | 1 | 0 |
| 18-8. '많다-적다'와 같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두 개와 사탕 여섯 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물었을 때 많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엄마', '아빠' 외에 여덟 개 이상의 단어를 말한다. | 3 | 2 | 1 | 0 |
| 19-2.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예: 신발을 가리키며 "이게 뭐지"하고 물으면 신발이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3. 정확하지는 않아도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따라 말한다. (예: "까까 주세요", "이게 뭐야?"와 같이 말하면 아이가 따라 말한다.) | 3 | 2 | 1 | 0 |
| 19-4. '나', '이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5.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붙여 말한다. (예: "엄마 우유.", "장난감 줘.", "과자 먹어.") | 3 | 2 | 1 | 0 |
| 19-6. 단어의 끝 억양을 높임으로써 질문의 형태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7. 자기 물건에 대해 '내 것'이란 표현을 한다. | 3 | 2 | 1 | 0 |
| 19-8. 손으로 가리키거나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식탁 위에 컵을 놓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이가 바르게 수행한다. | 3 | 2 | 1 | 0 |

**월령** | **24~26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9년.5월-2019년.7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그림책에 나온 그림과 같은 실제 사물을 찾는다. (예: 열쇠 그림을 보고 실제 열쇠를 찾는다.) | 3 | 2 | 1 | 0 |
| 18-2. 동물 그림과 동물 소리를 연결한다. | 3 | 2 | 1 | 0 |
| 18-3.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다섯 곳 이상을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팔 등) | 3 | 2 | 1 | 0 |
| 18-4. 두 개의 물건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5. 빨간, 노란, 파란 토막들을 섞어 놓으면 같은 색의 토막들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6.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이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세 조각 이상 맞춘다. | 3 | 2 | 1 | 0 |
| 18-7. '많다-적다'와 같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두 개와 사탕 여섯 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물었을 때 많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3 | 2 | 1 | 0 |
| 18-8. 두 개의 선 중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사물의 이름을 말한다.(예: 신발을 가리키며 "이게 뭐지"하고 물으면 신발이라고 말한다.) | 3 | 2 | 1 | 0 |
| 19-2. 정확하지는 않아도 두 단어로 된 문장을 따라 말한다. (예: "까까 주세요", "이게 뭐야?"와 같이 말하면 아이가 따라 말한다.) | 3 | 2 | 1 | 0 |
| 19-3. '나', '이것', '저것' 같은 대명사를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4.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를 붙여 말한다. (예: "엄마 우유.", "장난감 줘.", "과자 먹어.") | 3 | 2 | 1 | 0 |
| 19-5. 단어의 끝 억양을 높임으로써 질문의 형태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6. 자기 물건에 대해 '내 것'이란 표현을 한다. | 3 | 2 | 1 | 0 |
| 19-7. 손으로 가리키거나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식탁 위에 컵을 놓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이가 바르게 수행한다. | 3 | 2 | 1 | 0 |
| 19-8. '안에', '위에', '밑에', '뒤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월령** | 27~29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9년.2월-2019년.4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지시에 따라 신체 부위 다섯 곳 이상을 가리킨다. (예: 눈, 코, 입, 귀, 팔 등) | 3 | 2 | 1 | 0 |
| 18-2. 두 개의 물건 중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3. 빨간, 노란, 파란 토막들을 섞어 놓으면 같은 색의 토막들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4. 동그라미, 네모, 세모와 같이 간단한 도형 맞추기 판에 세 조각 이상 맞춘다. | 3 | 2 | 1 | 0 |
| 18-5. '많다-적다'와 같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두 개와 사탕 여섯 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물었을 때 많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3 | 2 | 1 | 0 |
| 18-6. '하나'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세 개를 책상 위에 놓고 "한 개 주세요."라고 하면 한 개를 준다.) | 3 | 2 | 1 | 0 |
| 18-7. 여섯 조각으로 된 퍼즐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8. 두 개의 선 중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다른 의미를 가진 세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말한다.(예: "아가 코 자.", "집에 빨리 와.", "우유 마시고 싶어.") | 3 | 2 | 1 | 0 |
| 19-2. 단어의 끝 억양을 높임으로써 질문의 형태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3. 자기 물건에 대해 '내 것'이란 표현을 한다. | 3 | 2 | 1 | 0 |
| 19-4. 손으로 가리키거나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식탁 위에 컵을 놓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이가 바르게 수행한다. | 3 | 2 | 1 | 0 |
| 19-5. '안에', '위에', '밑에', '뒤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9-6. 그림책을 볼 때, 그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을 말한다. (예: 아이에게 "멍멍이가 뭘 하고 있지요?"라고 물으면 "잔다.", "먹는다.", "운다." 등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3 | 2 | 1 | 0 |
| 19-7.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으면, 성과 이름을 모두 말한다. | 3 | 2 | 1 | 0 |
| 19-8.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 3 | 2 | 1 | 0 |

**월령** | **30~32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8년.11월-2019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빨간, 노란, 파란 토막들을 섞어 놓으면 같은 색의 토막들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2. '많다-적다'와 같은 '양'의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두 개와 사탕 여섯 개를 놓고 어떤 것이 더 많은지 물었을 때 많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 | 3 | 2 | 1 | 0 |
| 18-3. 여섯 조각으로 된 퍼즐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4. 두 개의 선 중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5. '둘'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세 개를 책상 위에 놓고 "두 개 주세요."라고 하면 두 개를 준다.) | 3 | 2 | 1 | 0 |
| 18-6.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사물을 놓고, '가장 큰 것', '중간 크기의 것', '가장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7. '안', '밖', '사이'와 같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예: "컵을 상자 안에 넣어."라고 시키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8-8.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지시사항을 시키면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수행한다.(예: "휴지 버리고 책 가지고 오세요.")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손으로 가리키거나 동작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도, "식탁 위에 컵을 놓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이가 바르게 수행한다. | 3 | 2 | 1 | 0 |
| 19-2. '안에', '위에', '밑에', '뒤에'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9-3. 그림책을 볼 때, 그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을 말한다. (예: 아이에게 "멍멍이가 뭘 하고 있지요?"라고 물으면 "잔다.", "먹는다.", "운다." 등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3 | 2 | 1 | 0 |
| 19-4.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으면, 성과 이름을 모두 말한다. | 3 | 2 | 1 | 0 |
| 19-5. '~했어요.'와 같이 과거형으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6.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 3 | 2 | 1 | 0 |
| 19-7. '예쁘다' 또는 '무섭다'의 뜻을 안다. | 3 | 2 | 1 | 0 |
| 19-8.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형)', '누나(언니)', '동생'과 같은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3 | 2 | 1 | 0 |

**월령** | **33~35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8년.8월-2018년.10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여섯 조각으로 된 퍼즐을 맞춘다. | 3 | 2 | 1 | 0 |
| 18-2.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사물을 놓고, '가장 큰 것', '중간 크기의 것', '가장 작은 것'을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3. '안', '밖', '사이'와 같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예: "컵을 상자 안에 넣어."라고 시키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8-4.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지시사항을 시키면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수행한다.(예: "휴지 버리고 책 가지고 오세요.") | 3 | 2 | 1 | 0 |
| 18-5. 자신의 성별을 안다. | 3 | 2 | 1 | 0 |
| 18-6. '셋'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예: 사탕 여러 개를 책상 위에 놓고 "세 개 주세요."라고 하면 세 개를 준다.) | 3 | 2 | 1 | 0 |
| 18-7. 과일, 탈 것, 가구가 그려진 그림카드를 섞어 놓았을 때, 아이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8. '가장 많은', '가장 적은'의 개념을 모두 이해한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그림책을 볼 때, 그림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을 말한다. (예: 아이에게 "멍멍이가 뭘 하고 있지요?"라고 물으면 "잔다.", "먹는다.", "운다." 등 책에 나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3 | 2 | 1 | 0 |
| 19-2.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으면, 성과 이름을 모두 말한다. | 3 | 2 | 1 | 0 |
| 19-3. 다른 의미를 가진 네 단어 이상을 연결하여 문장으로 말한다. (예: "장난감 사러 가게에 가요.") | 3 | 2 | 1 | 0 |
| 19-4. '~했어요.'와 같이 과거형으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5.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 3 | 2 | 1 | 0 |
| 19-6. '예쁘다' 또는 '무섭다'의 뜻을 안다. | 3 | 2 | 1 | 0 |
| 19-7. '할아버지', '할머니', '오빠(형)', '누나(언니)', '동생'과 같은 호칭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 3 | 2 | 1 | 0 |
| 19-8. 같은 분류에 속한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말한다. (예: 동물을 말하도록 시키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와 같이 말한다.) | 3 | 2 | 1 | 0 |

**월령** | **36~41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8년.2월-2018년.7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연관성이 없는 두 가지 지시사항을 시키면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수행한다.(예: "휴지 버리고 책 가지고 오세요.") | 3 | 2 | 1 | 0 |
| 18-2. 자신의 성별을 안다. | 3 | 2 | 1 | 0 |
| 18-3. '셋'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탕 여러 개를 책상 위에 놓고 "세 개 주세요."라고 하면 세 개를 준다.) | 3 | 2 | 1 | 0 |
| 18-4. 과일, 탈 것, 가구가 그려진 그림카드를 섞어 놓았을 때, 아이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5. '가장 많은', '가장 적은'의 개념을 모두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6.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한다. | 3 | 2 | 1 | 0 |
| 18-7. 다섯 가지 이상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8. 사람(예: 엄마, 아빠)을 그리라고 하면 신체의 세 부분 이상을 그린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이름이 뭐예요?"하고 물으면, 성과 이름을 모두 말한다. | 3 | 2 | 1 | 0 |
| 19-2. 다른 의미를 가진 네 단어 이상을 연결하여 문장으로 말한다. (예: "장난감 사러 가게에 가요.") | 3 | 2 | 1 | 0 |
| 19-3. '~했어요.'와 같이 과거형으로 말한다. | 3 | 2 | 1 | 0 |
| 19-4.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 3 | 2 | 1 | 0 |
| 19-5.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예: "멍멍이가 까까를 먹었어.") | 3 | 2 | 1 | 0 |
| 19-6.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예: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어요.", "친구가 좋아요.") | 3 | 2 | 1 | 0 |
| 19-7. 같은 분류에 속한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말한다. (예: 동물을 말하도록 시키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와 같이 말한다.) | 3 | 2 | 1 | 0 |
| 19-8.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3 | 2 | 1 | 0 |

**월령** | **42~47개월**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7년.8월-2018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과일, 탈 것, 가구가 그려진 그림카드를 섞어 놓았을 때, 아이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2. '가장 많은', '가장 적은'의 개념을 모두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3.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한다. | 3 | 2 | 1 | 0 |
| 18-4. 다섯 가지 이상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분한다. | 3 | 2 | 1 | 0 |
| 18-5. 물건을 하나씩 열(10)까지 센다. | 3 | 2 | 1 | 0 |
| 18-6.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7. 사람(예: 엄마, 아빠)을 그리라고 하면 신체의 세 부분 이상을 그린다. | 3 | 2 | 1 | 0 |
| 18-8.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도구를 사용하여 가져온다. (예: 책상 밑에 들어간 것을 막대기로 꺼낸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예: "멍멍이가 까까를 먹었어.") | 3 | 2 | 1 | 0 |
| 19-2.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예: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어요.", "친구가 좋아요.") | 3 | 2 | 1 | 0 |
| 19-3. 같은 분류에 속한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말한다.(예: 동물을 말하도록 시키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와 같이 말한다.) | 3 | 2 | 1 | 0 |
| 19-4.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3 | 2 | 1 | 0 |
| 19-5.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 3 | 2 | 1 | 0 |
| 19-6.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 (예: 덥다 ↔ 춥다, 크다 ↔ 작다) | 3 | 2 | 1 | 0 |
| 19-7.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 3 | 2 | 1 | 0 |
| 19-8.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라고 대답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월령 | 48~53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7년.2월-2017년.7월인 경우 제시) |
|---|---|---|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과일, 탈 것, 가구가 그려진 그림카드를 섞어 놓았을 때, 아이가 같은 종류끼리 분류한다. | 3 | 2 | 1 | 0 |
| 18-2. '가장 많은', '가장 적은'의 개념을 모두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3.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한다. | 3 | 2 | 1 | 0 |
| 18-4. 물건을 하나씩 열(10)까지 센다. | 3 | 2 | 1 | 0 |
| 18-5.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6. 사람(예: 엄마, 아빠)을 그리라고 하면 신체의 세 부분 이상을 그린다. | 3 | 2 | 1 | 0 |
| 18-7.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도구를 사용하여 가져온다. (예: 책상 밑에 들어간 것을 막대기로 꺼낸다.) | 3 | 2 | 1 | 0 |
| 18-8. 자신이 원하는 TV 채널로 돌린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예: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어요.", "친구가 좋아요.") | 3 | 2 | 1 | 0 |
| 19-2. 같은 분류에 속한 것을 적어도 세 가지 이상 말한다. (예: 동물을 말하도록 시키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와 같이 말한다.) | 3 | 2 | 1 | 0 |
| 19-3. '~할 거예요.', '~하고 싶어요.'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3 | 2 | 1 | 0 |
| 19-4.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 3 | 2 | 1 | 0 |
| 19-5.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 (예: 덥다 ↔ 춥다, 크다 ↔ 작다) | 3 | 2 | 1 | 0 |
| 19-6.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 3 | 2 | 1 | 0 |
| 19-7.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라고 대답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9-8. 가족 이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단어의 발음이 정확하다. | 3 | 2 | 1 | 0 |

**월령** | **54~59개월**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6년.8월-2017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아침, 점심, 저녁, 오늘, 내일 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한다. | 3 | 2 | 1 | 0 |
| 18-2.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을 도구를 사용하여 가져온다. (예: 책상 밑에 들어간 것을 막대기로 꺼낸다.) | 3 | 2 | 1 | 0 |
| 18-3. 자신이 원하는 TV 채널로 돌린다. | 3 | 2 | 1 | 0 |
| 18-4. 동화책을 읽어주면 내용을 일부 이해하고 기억한다. | 3 | 2 | 1 | 0 |
| 18-5. 엄마(보호자)가 많이 쓰는 물건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 | 3 | 2 | 1 | 0 |
| 18-6. 1 더하기 2를 계산한다. | 3 | 2 | 1 | 0 |
| 18-7.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8-8. 요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 3 | 2 | 1 | 0 |
| 19-2.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 (예: 덥다 ↔ 춥다, 크다 ↔ 작다) | 3 | 2 | 1 | 0 |
| 19-3.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 3 | 2 | 1 | 0 |
| 19-4.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라고 대답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9-5. '만약~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예: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 | 3 | 2 | 1 | 0 |
| 19-6. 이름이나 쉬운 단어 2~3개를 보고 읽는다. | 3 | 2 | 1 | 0 |
| 19-7. 가족 이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단어의 발음이 정확하다. | 3 | 2 | 1 | 0 |
| 19-8. 자기 이름이나 2~4개의 글자로 된 단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다. (예: 동생, 신호등, 대한민국) | 3 | 2 | 1 | 0 |

**월령** | **60~65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6년.2월-2016년.7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자신이 원하는 TV 채널로 돌린다. | 3 | 2 | 1 | 0 |
| 18-2. 동화책을 읽어주면 내용을 일부 이해하고 기억한다. | 3 | 2 | 1 | 0 |
| 18-3. 엄마(보호자)가 많이 쓰는 물건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 | 3 | 2 | 1 | 0 |
| 18-4. 1 더하기 2를 계산한다. | 3 | 2 | 1 | 0 |
| 18-5.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8-6. 요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다. | 3 | 2 | 1 | 0 |
| 18-7. 100원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 3 | 2 | 1 | 0 |
| 18-8. 자기 생일을 알고 있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 (예: 덥다 ↔ 춥다, 크다 ↔ 작다) | 3 | 2 | 1 | 0 |
| 19-2.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 3 | 2 | 1 | 0 |
| 19-3.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 (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9-4. '만약~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예: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 | 3 | 2 | 1 | 0 |
| 19-5. 이름이나 쉬운 단어 2~3개를 보고 읽는다. | 3 | 2 | 1 | 0 |
| 19-6. 가족 이외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단어의 발음이 정확하다. | 3 | 2 | 1 | 0 |
| 19-7. 끝말잇기를 한다. | 3 | 2 | 1 | 0 |
| 19-8. 자기 이름이나 2~4개의 글자로 된 단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다. (예: 동생, 신호등, 대한민국) | 3 | 2 | 1 | 0 |

**월령** | 66~71개월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5년.8월-2016년.1월인 경우 제시)

**문18) 다음은 △△의 인지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8-1.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8-2. 요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다. | 3 | 2 | 1 | 0 |
| 18-3. 100원보다 500원짜리 동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 3 | 2 | 1 | 0 |
| 18-4. 자기 생일을 알고 있다. | 3 | 2 | 1 | 0 |
| 18-5. 1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불러주면 받아쓴다. | 3 | 2 | 1 | 0 |
| 18-6. 한 자리 숫자 뺄셈을 한다. (예: 5-2=3) | 3 | 2 | 1 | 0 |
| 18-7. 엄마, 아빠, 혹은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 3 | 2 | 1 | 0 |
| 18-8. 달력에서 오늘 날짜(월, 일)를 바르게 가리킨다. | 3 | 2 | 1 | 0 |

**문19) 다음은 △△의 언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잘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편이다 | 하지 못하는 편이다 | 전혀 할 수 없다 |
|---|---|---|---|---|
| 19-1. 친숙한 단어의 반대말을 말한다. (예: 덥다 ↔ 춥다, 크다 ↔ 작다) | 3 | 2 | 1 | 0 |
| 19-2. 간단한 농담이나 빗대어 하는 말의 뜻을 알아차린다. | 3 | 2 | 1 | 0 |
| 19-3.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설명한다. (예: "신발이 뭐야?"라는 질문에 "밖에 나갈 때 신는 거요."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 3 | 2 | 1 | 0 |
| 19-4. '만약~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와 같이 가상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예: "동생이 있으면 어떨까?") | 3 | 2 | 1 | 0 |
| 19-5. 끝말잇기를 한다. | 3 | 2 | 1 | 0 |
| 19-6. 자기 이름이나 2~4개의 글자로 된 단어를 보지 않고 쓸 수 있다. (예: 동생, 신호등, 대한민국) | 3 | 2 | 1 | 0 |
| 19-7. 간단한 농담을 말한다. | 3 | 2 | 1 | 0 |
| 19-8. 간단한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한다. (예: '누워서 떡먹기'와 같은 속담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3 | 2 | 1 | 0 |

## 3-2 발달 및 교육 (연령별 발달단계 및 교육)

| 나이 | 0~5세 |
|---|---|

(programmer guide: All base)

**문20) 다음은 △△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0-01. 우리 아이는 잘 운다 | 1 | 2 | 3 | 4 | 5 |
| 20-02.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 1 | 2 | 3 | 4 | 5 |
| 20-03.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 1 | 2 | 3 | 4 | 5 |
| 20-04.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0-05.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 1 | 2 | 3 | 4 | 5 |
| 20-06.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0-07.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 1 | 2 | 3 | 4 | 5 |
| 20-08.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 1 | 2 | 3 | 4 | 5 |
| 20-09.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30-10.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 1 | 2 | 3 | 4 | 5 |

| 나이 | 3세 이상 |
|---|---|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8년.7월 이전 출생자(2015.8-2018.7)에게만 제시)

**문21) 다음은 △△의 특성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1-0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 1 | 2 | 3 | 4 | 5 |
| 21-02.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1-03.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1-04.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귄다 | 1 | 2 | 3 | 4 | 5 |
| 21-05.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1-06.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 1 | 2 | 3 | 4 | 5 |
| 21-07.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1 | 2 | 3 | 4 | 5 |
| 21-08.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 1 | 2 | 3 | 4 | 5 |
| 21-09.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 1 | 2 | 3 | 4 | 5 |
| 21-1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 1 | 2 | 3 | 4 | 5 |

**문22) 귀하는 △△(이)가 <u>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u>하십니까?**
**또한 <u>실제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u>으로 보십니까?**

|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2-3년제) | 대학교(4년제) | 대학원이상 (석사 및 박사) |
|---|---|---|---|---|---|
| 22-1. 희망교육 수준 | 1 | 2 | 3 | 4 | 5 |
| 22-2. 가능교육 수준 | 1 | 2 | 3 | 4 | 5 |

# 4 관계

**문23) 귀하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십니까?**

| | 전혀받지 않는다 | 별로받지 않는다 | 받는 편이다 | 매우 많이 받는다 |
|---|---|---|---|---|
| 23-1. 용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 | 1 | 2 | 3 | 4 |
| 23-2. 의논, 푸념 상대 등 정서적 도움 | 1 | 2 | 3 | 4 |
| 23-3. 가사, 육아, 간병 등 생활의 도움 | 1 | 2 | 3 | 4 |
| 23-4. 자녀양육, 교육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1 | 2 | 3 | 4 |

**문24) 귀댁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동거 가족 기준)**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종종 그렇다 | 자주 그렇다 | 항상 그렇다 |
|---|---|---|---|---|---|
| 24-01.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대화가 잘 된다. | 1 | 2 | 3 | 4 | 5 |
| 24-02.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함께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 24-03.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24-04. 우리 가족은 각자의 감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 1 | 2 | 3 | 4 | 5 |
| 24-05. 우리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서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4-06.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1 | 2 | 3 | 4 | 5 |
| 24-07. 우리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느낀다. | 1 | 2 | 3 | 4 | 5 |
| 24-08.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고 정직하다. | 1 | 2 | 3 | 4 | 5 |
| 24-09. 우리 가족은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 | 1 | 2 | 3 | 4 | 5 |
| 24-1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24-11. 우리 가족은 가족의 일을 계획할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발언권이 있다. | 1 | 2 | 3 | 4 | 5 |
| 24-1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 1 | 2 | 3 | 4 | 5 |
| 24-13. 우리 가족은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 1 | 2 | 3 | 4 | 5 |
| 24-14. 우리 가족은 가족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 1 | 2 | 3 | 4 | 5 |
| 24-15.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 1 | 2 | 3 | 4 | 5 |

**문25) 자녀 양육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25-1.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5-2.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 25-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괜찮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5-4.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 1 | 2 | 3 | 4 | 5 |
| 25-5.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 1 | 2 | 3 | 4 | 5 |
| 25-6.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 1 | 2 | 3 | 4 | 5 |
| 25-7.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 1 | 2 | 3 | 4 | 5 |
| 25-8.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25-9.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 1 | 2 | 3 | 4 | 5 |

**(문26, 27 관련 programmer guide: 문1-11 생년 기준, 2018년.7월 이전 출생자(2015.8-2018.7) 에게만 제시)**

**문26)** 나이 | 3세 이상 **△△(이)는 함께 어울려 노는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 없음 2. 1~2명 3. 3~5명 4. 6~10명 5. 11명이상

**문27)** 나이 | 3세 이상 **△△(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까?**

1.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2.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나, 또래 사이에서 함께 잘 어울린다
3. 쉽게 친해지며 함께 잘 어울린다

**문28) 귀하는 귀하의 개인적 인간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5 양육 및 돌봄

**문28)** [문9의 1, 2, 3 응답자만] **△△(이)가 이용하는 교육·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그 외 학원 등)에서 마친 후 △△(이)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1. 집
2. 문화센터/키즈카페 등의 이용시설
3. 친척집, 이웃집
4.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9)** [문9의 1, 2, 3 응답자만] **△△(이)가 이용하는 교육·보육시설에서 마친 후 △△(이)는 주로 누가 돌봅니까?**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이)의 형제자매
4. △△(이)의 친척·친지
5. △△(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6.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
7. 이웃집
8. 아이 봐주시는 분(베이비시터)
9. 기타(적을 것 :_____)

**문30)** [문9의 4. 응답자만] **△△(이)가 반일제 이상 교육·보육기관을 다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예: 아이가 어려서, 다른 가족이 잘 봐줘서, 내가 키우고 싶어서)
2. 비용이 부담되어서
3. 보낼 수 있는 기관을 잘 몰라서
4.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5. 가까운 곳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어서
6. 희망하는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7. 기관 이용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8.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9. 교육은 하지만 아이를 하나하나 돌봐주지 않아서
10. 기타 (적을 것: )

**문30)** [문9의 4 응답자만] **기관을 다니지 않는 시간에 주로 누가 △△(이)를 돌봅니까?**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이)의 형제자매
4. △△(이)의 친척·친지
5. △△(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6. 집안일을 도와주는 분
7. 이웃집
8. 아이 봐주시는 분(베이비시터)
9. 기타(적을 것 :_____)

**문31) 귀하가 평소에 △△(이)를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31-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31-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 1 | 2 | 3 | 4 | 5 |
| 31-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31-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 1 | 2 | 3 | 4 | 5 |
| 31-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 1 | 2 | 3 | 4 | 5 |
| 31-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1 | 2 | 3 | 4 | 5 |
| 31-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 1 | 2 | 3 | 4 | 5 |
| 31-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 1 | 2 | 3 | 4 | 5 |
| 31-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 1 | 2 | 3 | 4 | 5 |
| 31-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 1 | 2 | 3 | 4 | 5 |
| 31-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문32) 귀하는 △△(이)을 훈육할 때 다음의 방법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 |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주 사용한다 | 매우 자주 사용한다 |
|---|---|---|---|---|
| 32-1. 신체적 체벌 | 1 | 2 | 3 | 4 |
| 32-2. 벌 세우기 | 1 | 2 | 3 | 4 |
| 32-3. 말로 야단치기 | 1 | 2 | 3 | 4 |
| 32-4. (벌로써)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기 | 1 | 2 | 3 | 4 |
| 32-5.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 1 | 2 | 3 | 4 |

**문33) 귀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다 4. 꼭 필요하다

# 6 여가 및 활동

**문34) 다음은 △△(이)가 지난 2021년 상반기(2021년 1월~2021년 6월) 중 평일 하루 동안 각종 매체들을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면접원 | '주중에 하루 얼마동안 ○○을 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질문할 것 |
|---|---|

| | 시청/사용 안함 | 1시간 미만 | 1~3시간 미만 | 3~5시간 미만 | 5시간 이상 |
|---|---|---|---|---|---|
| 34-1 TV 시청 → 2 이상인 경우 문35-1) 응답 | 1 | 2 | 3 | 4 | 5 |
| 34-2 책읽기 | 1 | 2 | 3 | 4 | 5 |
| 34-3 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 사용 → 2 이상인 경우 문35-3) 응답 | 1 | 2 | 3 | 4 | 5 |

**문35)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 | | 그렇다 | 아니다 |
|---|---|---|---|
| [문34-1의 2 이상 응답자] | 35-1. 자녀의 TV 시청 시간을 제한하십니까? | 1 | 0 |
| [문34-1의 2 이상 응답자] | 35-2. 자녀가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의 종류를 제한하십니까? | 1 | 0 |
| [문34-3의 2 이상 응답자] | 35-3. 자녀의 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 사용 시간을 제한하십니까? | 1 | 0 |
| [문34-3의 2 이상 응답자] | 35-4. 자녀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 사이트나 앱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십니까? | 1 | 0 |

**문36) 귀하는 귀하의 미래가 얼마나 안정적이리라 생각합니까?**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 보통 → 매우 안정적이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7 안전 및 위험행동

**문37) 귀하는 △△(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키고 계십니까?**

**※승용차,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가 없을 때 비해당 응답임.**

**※문37 1~3 은 모든 연령 자녀가 응답, 문37 4~8 은 3~5세 자녀만 응답함(로직 처리)**

| | 예 | 아니오 | 비해당 |
|---|---|---|---|
| 37-1. 땅콩, 포도, 단추와 같은 조그만 물건을 아이가 가지고 놀게 합니까? | 1 | 0 | |
| 37-2. 승용차 탑승시 △△(이)가 카시트를 사용하도록 합니까? | 1 | 0 | 8 |
| 37-3. 위험한 물질(예. 약품, 뜨거운 물, 화기 등)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 1 | 0 | |
| 37-4. 외출 시 성인이 동반합니까? | 1 | 0 | |
| 37-5. 욕조나 화장실에 아이를 자주 혼자 있게 합니까? | 1 | 0 | |
| 37-6. 도로보행시 항상 아이의 손을 잡습니까? | 1 | 0 | |
| 37-7.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합니까? (예.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 1 | 0 | 8 |
| 37-8. 승용차 탑승시 △△(이)가 안전벨트를 사용하도록 합니까? | 1 | 0 | 8 |

**문38) 다음 중 현재 △△(이)의 안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걱정되는 순서대로 3가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2. 유괴될 수 있다
3.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놀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예. 추락, 익사, 질식사 등)
5.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놀잇감이 많이 있다
6.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부족하다
7.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8. 약물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예. 표백제, 세척제, 약물)
9.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예. 유해사이트, TV성인물)
10. 집에서 돌봄자의 부주의로 예기치 못하게 다칠 수 있다

**문39) △△(이)는 평소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입니까?**

1. 있다 (하루 평균 [ ][ ] 시간)　　2. 없다

**문40) △△(이)가 돌봐주는 어른이 없이 지내는 시간이 생긴다면, 혹은 이미 혼자 지내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어떤 편의·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야간돌봄 편의제공
2. 자녀 등·하원 편의제공
3. 식사제공 편의제공
4.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
5. 아동용 핸드폰(손전화) 등 비상통신수단 지원
6. 아이 모습 확인하기 위한 가정내 보안카메라(CCTV) 설치 지원
7. 기타(적을 것 : )

**문41) 귀하는 귀하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8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

**문42)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의 주택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단독주택(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등)
2. 아파트(주거전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3. 연립주택/다세대주택
4.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내 주택
5. 오피스텔
6. 기타(적을 것 : )

**문43)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형태는?**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5.기타(무상포함)

**문43)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귀 가족이 사용하는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세준 경우 제외)**

☐☐ 개

**문44) 귀댁의 집과 집 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한 물음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과 집 주변 생활환경 | | 예 | 아니오 |
|---|---|---|---|
| 집 환경 | 44-01.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가족) 수에 비해 집 공간이 적당하다 | 1 | 0 |
| | 44-02. 통풍이나 채광이 좋다 | 1 | 0 |
| | 44-03. 난방 상태가 좋다 | 1 | 0 |
| | 44-04. 방음상태(층간소음, 옆집소음, 집 바깥으로부터의 소음 차단정도)가 좋다 | 1 | 0 |
| 집 주변 생활환경 | 44-05. 문화·체육시설(시립체육관, 도서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 | 44-06.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 | 44-07.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 | 44-08.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학원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 | 44-09.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 | 44-10. 놀이터는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 1 | 0 |
| | 44-11.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이용가능하다 | 1 | 0 |
| | 44-12. 자연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1 | 0 |

**문45)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비교적 자주 참여한다 | 매우 자주 참여한다 |
|---|---|---|---|---|---|
| 45-1. 봉사활동 | 1 | 2 | 3 | 4 | 5 |
| 45-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 | 1 | 2 | 3 | 4 | 5 |
| 45-3. 자녀의 학교행사 및 자원봉사 | 1 | 2 | 3 | 4 | 5 |
| 45-4. 지역사회 주민행사(지역축제, 체육대회 등) | 1 | 2 | 3 | 4 | 5 |
| 45-5.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사교모임 | 1 | 2 | 3 | 4 | 5 |
| 45-6. SNS 등 온라인커뮤니티 활동 (맘카페 등 포함) | 1 | 2 | 3 | 4 | 5 |

**문46) 귀하는 귀하가 사는 동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문47) 귀하와 △△(이)는 평소 탈북가족으로서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 |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 차별을 받은 편이다 | 심한 차별을 받았다 | 탈북민임을 밝히지 않았다 | 비해당 |
|---|---|---|---|---|---|---|
| 47-1. 동네나 이웃주민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월세·전세·계약거부, 탈북가족임을 밝힌 후 연락 끊김, 부정적 시선 등) | 1 | 2 | 3 | 4 | 8 | |
| 47-2. 어린이집, 유치원 등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용 불이익, 학부모 모임에서 배제 경험 등) | 1 | 2 | 3 | 4 | 8 | 9 |
| 47-3. 가족 및 친척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의사결정에서 배제, 탈북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 | 1 | 2 | 3 | 4 | 8 | 9 |
| 47-4. 직장 일터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등 불이익이나 휴가·휴직 거부, 동료로부터의 따돌림 등) | 1 | 2 | 3 | 4 | 8 | 9 |
| 47-5. 공공기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냉대, 공개된 공간에서 탈북민 신분 노출 등) | 1 | 2 | 3 | 4 | 8 | 9 |

**자녀(△△)**

| |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 차별을 받은 편이다 | 심한 차별을 받았다 | 탈북민임을 밝히지 않았다 | 비해당 |
|---|---|---|---|---|---|---|
| 47-1. 동네나 이웃주민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사귀기 꺼리는 등 부정적 시선) | 1 | 2 | 3 | 4 | 8 | |
| 47-2. 어린이집, 유치원 등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래 또는 원장, 교사로부터 따돌림 경험 등) | 1 | 2 | 3 | 4 | 8 | 9 |
| 47-3. 가족 및 친척 (탈북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배제, 따돌림, 탈북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말 등) | 1 | 2 | 3 | 4 | 8 | 9 |

# 9 물질적 환경

**문48) 귀댁의 자녀 △△(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
|---|---|---|
| 48-01. 하루에 세끼를 먹는다 | 1 | 0 |
| 48-02. 하루 적어도 한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채식인 경우, 콩류 및 두부류 포함) | 1 | 0 |
| 48-0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1 | 0 |
| 48-0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교재 제외) | 1 | 0 |
| 48-0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자전거, 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 1 | 0 |
| 48-0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수영, 악기, 태권도 등) | 1 | 0 |
| 48-0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적어도 아동 한명 당 한 개씩이 있으며, 교육적인 유아용 장난감, 보드게임, 블록, 컴퓨터 게임 등을 포함) | 1 | 0 |
| 48-0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에 참가하기 위한 돈을 지불할 수 있다 | 1 | 0 |
| 48-0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1 | 0 |
| 48-10.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 | 0 |
| 48-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1 | 0 |
| 48-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켤레는 모든 계절에 신을 수 있다) | 1 | 0 |
| 48-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다 | 1 | 0 |
| 48-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1 | 0 |
| 48-15. 인스턴트 식품(예: 라면, 햄버거 등)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1 | 0 |

**문49) 지난 1년(2020년 한해)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댁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갖추고 계셨습니까?**

※ 경제적 여력은 되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하고(갖고) 있지 않거나 대체소비를 하고 있는 경우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예: (1) 채식주의자의 경우, 대체식품을 섭취하고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 아래의 문항들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예: (12) 이가 아프지 않았으나, 아팠을 경우를 가정하고 치과에 갈 수 있었다면 '①하고(갖고) 있다'로 응답)

| 우리 가정에서는, | | | ① 하고 (갖고) 있다 | ② 못 하고(갖고) 있다 |
|---|---|---|---|---|
| 식생활 | 49-01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1 | 2 |
| | 49-02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1 | 2 |
| | 49-03 |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1 | 2 |
| 의생활 | 49-04 |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1 | 2 |
| | 49-05 | 예식장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1 | 2 |
| 주택 및 주거 환경 | 49-06 |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1 | 2 |
| | 49-07 |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정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1 | 2 |
| | 49-08 |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1 | 2 |
| | 49-09 |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주하고 있다 | 1 | 2 |
| | 49-10 |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1 | 2 |
| 의료 및 건강 | 49-11 |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있다 | 1 | 2 |
| | 49-12 |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1 | 2 |
| | 49-13 |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1 | 2 |
|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 49-14 |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1 | 2 |
| | 49-15 |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하고 있다 | 1 | 2 |
| | 49-16 |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1 | 2 |
| 사회적 지지 | 49-17 |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1 | 2 |
| 저축 | 49-18 |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 1 | 2 |
| | 49-19 | 노후를 위해 (국민,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1 | 2 |
| | 49-20 |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1 | 2 |

**문50) 지난 1년(2020년 한해) 동안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귀 댁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할 수 있습니까?**

| 우리 가정에서는,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②못 하고 있다' 로 응답합니다. | | ① 하고 있다 | ② 못 하고 있다 |
|---|---|---|---|
| 교육 | 50-01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1 | 2 |
| | 50-02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1 | 2 |
| | 50-03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1 | 2 |
| | 50-0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1 | 2 |

| 우리 가정에서는, |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해당없음 |
|---|---|---|---|---|
| 경제적 어려움 | 50-0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1 | 2 | |
| | 50-0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 | 2 | |
| | 50-0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 2 | |
| | 50-0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 | 2 | |
| | 50-0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 | 2 | |
| | 50-1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자가 또는 무상인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 1 | 2 | 3 |
| | 50-11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학업,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단(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분납(대출) 포함 ※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③해당 없음'에 응답 | 1 | 2 | 3 |

**문46) 귀하는 귀하의 생활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문51) 귀하 또는 귀댁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정책 및 가족정책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51-1) 다음 표의 아동정책 가운데, 귀하가 알고 계시는 정책은 모두 골라 체크해 주세요.**

**문51-2) 앞의 문 51-1에서 알고 계시다고 응답한 정책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51-3) 앞의 문 51-2에서 이용하고 계시다고 응답한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아동정책 유형 | | 문51-1) 정책 인지도 | | 문51-2) 이용여부 | | | 문51-3) 만족여부 | | |
|---|---|---|---|---|---|---|---|---|---|
| | | 알고 있다 | 모른다 | 이용하고 있다 | 이용하지 않는다 | 비해당 | 만족한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비해당 |
| 아동건강 | 0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1 | 0 | 1 | 0 | 9 | 1 | 0 | 9 |
| | 02) 영유아건강검진사업 | 1 | 0 | 1 | 0 | 9 | 1 | 0 | 9 |
| | 03) 아동충치예방서비스(실란트, 스케일링 비용지원) | 1 | 0 | 1 | 0 | 9 | 1 | 0 | 9 |
| | 04)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1 | 0 | 1 | 0 | 9 | 1 | 0 | 9 |
| 아동안전 | 05) 아동학대예방교육 | 1 | 0 | 1 | 0 | 9 | 1 | 0 | 9 |
| | 06) 안전사고예방교육 | 1 | 0 | 1 | 0 | 9 | 1 | 0 | 9 |
| 생활지원 | 07) 아동수당 | 1 | 0 | 1 | 0 | 9 | 1 | 0 | 9 |
| | 08) 자녀세액공제 | 1 | 0 | 1 | 0 | 9 | 1 | 0 | 9 |
| | 09) 저소득층 급식지원 | 1 | 0 | 1 | 0 | 9 | 1 | 0 | 9 |
| | 10)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조손가정 포함) | 1 | 0 | 1 | 0 | 9 | 1 | 0 | 9 |
| | 11) 장애아동 수당 | 1 | 0 | 1 | 0 | 9 | 1 | 0 | 9 |
| 보육·교육 지원 | 12)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 | 1 | 0 | 1 | 0 | 9 | 1 | 0 | 9 |
| | 11) 가정양육수당 | 1 | 0 | 1 | 0 | 9 | 1 | 0 | 9 |
| | 13)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1 | 0 | 1 | 0 | 9 | 1 | 0 | 9 |
| | 14) 아이돌봄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 | 0 | 1 | 0 | 9 | 1 | 0 | 9 |
| 통합지원 | 15)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 1 | 0 | 1 | 0 | 9 | 1 | 0 | 9 |
| 북한이탈 주민지원 | 16) 정착도우미 | 1 | 0 | 1 | 0 | 9 | 1 | 0 | 9 |
| | 17) 전문상담사 | 1 | 0 | 1 | 0 | 9 | 1 | 0 | 9 |
| | 18) 하나센터 | 1 | 0 | 1 | 0 | 9 | 1 | 0 | 9 |
| | 19) 보호담당관(거주지, 신변, 취업 보호담당관) | 1 | 0 | 1 | 0 | 9 | 1 | 0 | 9 |
| | 20) 맞춤형 직업훈련 등 취업프로그램 | 1 | 0 | 1 | 0 | 9 | 1 | 0 | 9 |

# 10 가구 월 평균소득 등

**문52)** 귀댁의 월평균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얼마입니까? 코로나 이전(2019년 한해 기준)과 이후(2020년 한해 기준)로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가능소득=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함(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

문52-1)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2019년) □□□□ 만원

문52-2)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2020년) □□□□ 만원

**문53)** 지난 1년(2020년 한해)을 기준으로 △△(이)에게 지출한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어린이집, 유치원에 추가로 내는 비용(예: 차량비), 학습지, 학원비, 문화센터 활동비 등이 포함됨

월 평균 □□□ 만원

**문54)** 귀댁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1.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 → 문55)로 갈 것
2. 현재 의료급여를 받고 있음 → 문55)로 갈 것
3. 현재 받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받은 적은 있음 → 조사 종료
4. 받은 적 없음 → 조사 종료

**문55)** [문54의 1, 2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1년 이내
2. 1년 후 - 3년 이내
3. 3년 후 - 5년 이내
4. 5년 후 - 10년 이내
5. 10년 후
6. 계속 지원 받아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기본 사항 | | | |
|---|---|---|---|
| 연락처<br>(유선) | | 연락처<br>(핸드폰) | |
| 응답자 주소 | (  ) 시/군/구 (  ) 읍/면/동 | | |
| 이메일 | (  )@(  )<br>☐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없음 | 조사<br>일시 | ____월 ____일<br>_____시 _____분부터<br>_____시 _____분까지(  분간) |

| 추가 면담조사 참여의사 확인 | |
|---|---|
| 내용 | 본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가 면담조사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면담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과 추가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br>(의향이 있는 모든 분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지 않으며 대상자 분에게는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br><br>면담기간 : 2021년 7월 이후<br>면담장소 : 미정 (일시와 장소는 선정되신 분과 연구진 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정하게 됩니다)<br>면담시간 : 약 1시간 30분 |
| 참여의사<br>여부 | ☐ 1. 추가 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br>☐ 2. 추가 면담에 참여할 의향이 **없습니다** |

## 부록2. 북한이탈주민 가정 부모 대상 면담지

# 면담지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면담내용]**

### 1. 건강

- 자녀와 본인: 신체적(치아포함)으로 건강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치료 여부
- 본인: 우울수준, 우울(증) 해소 방법
- 건강과 취업의 상관성: 근로가능하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 2. 발달 및 교육

- 자녀발달(언어, 정서, 사회성 등)에서 걱정되는 점과 해결방법
- 자녀 희망 교육 수준

### 3. 관계

- 본인과 자녀/배우자와 관계, 자녀가 또래와의 관계
- 다른 가족와의 관계: 도움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
-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4. 양육 및 돌봄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여부, 선택 이유(알게 된 경로), 이용시간, 비용부 담, 만족도
- 체벌의 필요성, 실제 체벌 정도

## 5. 여가 및 활동

- 자녀가 과도하게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하는 경우 제한 방법
-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가족의 미래는?

## 6. 안전 및 위험행동

- 최근 자녀에게 일어난 안전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유형, 해결방법은?
- 식품, 장난감 등 구입할 때, 성분 확인 여부?
- 가장 오랫동안 자녀를 혼자 두는 경우와 시간
  *아이돌보미 이용 여부/대리양육자 유무

## 7. 지역사회 환경

- 현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
- 본인 또는 자녀의 차별경험 여부
- 남한 엄마 또는 지역주민들하고의 교류 정도
- 현 거주지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 8. 물질적 환경

- 남한에서 살면서 의식주, 자녀교육, 문화생활(공연, 여행) 등 생활 전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 9. 정부 정책

- 지금까지 받아본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015
ISBN 979-11-6865-001-5